

2019 오픈 드라마 작품집 상

통화권이탈 — 한유림

이의 있습니다 — 배이화

바이바이해리 — 박정아

빅데이터연애 — 정희선

너데, 얼음의 다락 — 박바라

더블스틸 — 김민주

호텔 브레멘 — 이정주

귀피를 흘리는 여자 — 백인아

이별에도 인수인계가 되나요 — 박정민

빨강딱지 — 박은정

2019
오픈 드라마 작품집
상

통화권 이탈 — 한유림

이의 있습니다 — 배이화

바이바이해리 — 박정아

빅데이터 연애 — 정희선

너 퇴, 일음의 다락 — 박바라

더블스틸 — 김민주

호텔 브레멘 — 이정주

귀피를 흘리는 여자 — 백인아

이별에도 인수인계가 되나요 — 박정민

빨강딱지 — 박은정

오픈 소개

오픈(O'PEN)은 작가(pen)를 꿈꾸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open) 창작 공간과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CJ ENM이 드라마 제작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과 협력해 신인 드라마/영화 작가 선발, 대본/시나리오 기획 개발 및 완성, 단막극 제작과 편성, 제작사와 작가를 연결하는 비즈매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작자 육성 및 데뷔 지원사업입니다.

2019 오픈 드라마 주요 프로그램

1 단막극 공모	단막극 대본 접수
2 신인작가 선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인작가 20명 선발
3 특강/세미나	드라마 기획, 소재 개발, 작법, 캐릭터 등에 대한 특강, 세미나
4 현장취재/견학	이야기 소재 발굴, 완성도 제고, 현장감 등을 위해 현장취재/견학, 인터뷰 지원
5 공동 창작 워크숍	미니시리즈 공동 기획, 집필
6 개인 창작 워크숍	미니시리즈 기획, 집필, 감독 멘토링
7 단막극 제작	단막극 10편 제작
8 단막극 편성/방영	tvN <드라마 스테이지> 10편 편성/방영
9 E-book 제작	단막극(20편) E-book 발간
10 비즈매칭	PD · 작가 · 제작사 · 방송사 등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적 교류, 비즈매칭 기회 제공

오픈 개인 창작 멘토진	<유나의 거리> 임태우 감독 <라이브> 김규태 감독 <무법 변호사> 김진민 감독 <보좌관>곽정환 감독
오픈 공동 창작 멘토진	<눈이 부시게> 이남규 작가 <좋아하면 울리는> 이나정 감독
오픈 세미나/특강	미니시리즈 기획 — <열혈사제> 박재범 작가 미니시리즈 작법 — <라이브> 노희경 작가 법정물 작법 — <미스 함무라비> 문유식 판사 취재의 노하우 — <아르곤> 주원규 작가 공동 창작에 대하여 — <눈이 부시게> 이남규 작가 미니시리즈 구성 — <아는 와이프> 양희승 작가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것 — <극한직업> 배세영 작가 자살심리부검 — 서종한 법심리학 교수 쇼호스트 리얼스토리 — 쇼호스트/유튜버 동지현 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할 및 기능 — 최영식 원장 궁중 속 여자 캐릭터 이야기 — 신명호 교수 캐릭터라이징 — 김문성 작가
오픈 취재	서울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창덕궁, 범죄피해자심리전문요원, 해양경찰청 여수항공대,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관세청 인천공항,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성범죄자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한국증권거래소 은평경찰서, 구로경찰서 등

차례

4 9 1	빨강딱지 — 박은정
4 3 9	이별에도 인수인계가 되나요 — 박정민
3 8 9	귀피를 흘리는 여자 — 백인아
3 3 9	호텔 브레멘 — 이정주
2 7 9	더블스틸 — 김민주
2 1 9	너테, 열음의 다락 — 박바라
1 6 5	빅데이터 연애 — 정희선
1 1 3	바이바이 해리 — 박정아
5 7	이의 있습니다 — 배이화
9	통화권 이탈 — 한유림

2019 오픈 3기/드라마 작품집

배우의 편은 없다 — 최영우의 삶

작의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주말 서울 도심은 석기시대가 됐다. 통신선 하나가 끊겼을 뿐인데, 금융·치안·의료·교통·소비·여가 등의 일상은 마비가 됐다. 사람들은 통신이 얼마만큼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새삼 절감했다. 모두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불편만 겪었다고 생각하는 통신대란의 날. 누군가에게 '다행인 날', '기회인 날', '운수 좋은 날'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된 날이 될 수도 있다.

소통불능 남편이 자신이 벌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찾아다니면서 겪는 통신대란의 날을 그려봤다. 모두가 소통하지 못하는 통신대란의 날에, 아내의 속사정을 비로소 알게 되는 바람난 남편의 아이러니한 이야기다.

등장인물

김동훈(38세, 남)

결혼 7년차 남편. 학생 때 같은 반이었지만, 기억나지 않는 동창같이 존재감이 없는 흔하고 평범한 사람. 때문에, 누구도 동훈이 불륜남이라고 상상하지 못한다. 그런 편견을 역이용 중이다. 실제로는 프로 불륜남. 마치 취미생활처럼, 소소하게 내연녀와 여행 다니며 스트레스를 푼다. 바람은 피우지만,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아내가 자신을 버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남자. 불륜이 아내한테 걸리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뿐이다.

차선영(38세, 여)

결혼 7년차. 동훈의 아내. 누구에게든 바른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 한때, 성추행하는 또라이 상사에게 어퍼컷을 날리고 퇴사했을 정도로 대단했던 성격이다. 결혼 후, 동훈에게도 잔소리를 해줬지만,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질려버렸다. 속 터지는 마음을 남편이 알아줬으면 하는데, 아무리 말을 시켜도

대답이 없다. 이제는 남편을 포기해버렸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

민희(20대 후반, 여)

동훈의 내연녀. 애교가 많다.

하와이안 남자(30대, 남)

불륜 중인 남자. 동훈과 묘한 동질감을 느낀다.

그 외

회사상사(40대, 남), 진아(20대, 여), 회주(20대, 여), 보미(20대, 여), 택시기사(60대, 남), 하와이안 남자 아내(30대, 여), 대학생(20대, 남), 학원 데스크직원, 병원 안내직원, 간호사, 환자보호자, 중학생, 친구 1·2, 은행원, 청원경찰 등.

즐거리

내 사전에 이혼이란 없는 보통 한국 남자 동훈(38세). 권태기 아내 선영(38세)과의 부부생활을 이어간다. 선영은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하지만, 동훈은 그마저도 거부한다. 선영에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내연녀와의 비밀 여행에 들뜬 동훈. 선영의 기분과 상황은 안중에 없다. 사랑스러운 내연녀의 애교 가득한 카톡과 음성메시지에 몸이 녹을 뿐.

사고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난다고 했던가. 내연녀 민희에게 보내려던 둘만의 은밀한 동영상 아내 선영에게 보내버렸다. 오 마이 갓!!! 미친 내 손가락. 그래도, 카톡에는 정말 다행스럽게, ‘삭제기능’이란 것이 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대화창을 꾸욱- 누르는데. 버벅- 버벅- 거리는 액정화면. 잉? 뭐지? 딱 찬 와이파이가 우산이 투명하게 바뀌고, 전화 안테나까지 사라지더니 휴대폰이 먹통이 됐다. TV에서는 연신, 통신구 화재 속보를 쏟아낸다. 서울 전역 먹통. “통신대란.”

일단, 선영부터 만나야 한다. 아니, 선영이 휴대폰을 찾아서 없애야 한다.

제발, 선영이 특을 보지 않았기를 빌며.

선영의 회사에 도착. 그러나 선영은 6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그렇게 말이 많던 여자가 이런 것은 왜 말을 안 했는지.

그럼, 도대체 이 여자가 아침마다 어딜 간 건지, 지금은 뭐하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미치고 팔짝 떨 노릇이다.

일단, 집으로 온 동훈. 선영은 없다. 집의 IPTV, 인터넷, 와이파이가 모두 이용 불가능이다. 집을 뒤져보지만 도저히, 이 여자가 어디를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아! 카드명세서!!!!’ 카드명세서를 뒤지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의 추리력에 감탄을 한다. 그런데, 뜻밖의 목록. “하얏트 호텔 55만 원”??? 의아하고 약간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일단 패스! 88만 원을 긁은 스마일 제빵학원부터 가보려고 하는데, 학원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을 찾아서, 검색부터 해야 한다.

세상은 이미 난리다. 차는 막혀 있고, 사람들은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 있다. 겨우, 인터넷이 되는 카페를 찾았다. 이미 만석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 바글바글. 영수증 끝에 쓰여 있는 와이파이 비번을 획득한 동훈. 드디어 카톡 앱을 켜보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선영이 아직,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1”이 그대로 보인다. 한숨 돌리고, 서둘러, 학원 위치를 검색한다. 그때, 길가에 세워둔 동훈의 차가 견인 당한다. 뛰어나갔지만, 잡을 수 없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따릉이(서울시 무료 자전거)를 발견한다. 반납하려는 사람의 따릉이를 뺏아서 제빵학원으로 향한다.

제빵학원에서 선영을 찾지만, 선영은 없고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선영이 오늘 산부인과를 갔다는 것! 6개월 전부터, 아내 선영과 실수로도 잔 적이 “한 번”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진짜로 나오는 선영을 목격한다.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오는데, 횡단보도는 빨간불. 야속하게도 택시를 타고 출발하는 선영. 택시를 잡아타고선 선영을 추격한다. 우여곡절 끝에 선영을 따라 내렸는데, 그녀는 사라졌다. 눈앞에서 아내를 놓친 동훈은 멍칫! 이곳은 바로, 모텔촌이었다. 미친놈처럼 모텔촌 주변을 뒤지지만 선영을 찾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다.

집, 방바닥에 쓰러져서 멍한 동훈.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정리가 안 된다. 폴짝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 침대 밑에 숨겨진 캐리어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선영 이름의 원룸 부동산 계약서, 선영이 웃고 있고 묘한 글귀가 적힌 독사진이 있다. 선영의 불륜에 대한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머리끝까지 분노한 동훈은 당장, 선영의 비밀 원룸으로 달려간다. 원룸 앞까지 왔지만 차마 그 문은 열지 못하는 동훈. 만약, 이 안에 선영이 다른 놈과 있다면... 그렇다면... 불 용기가 없다. 미치겠다. 이 여자가 날 진짜 버리려고 했던 건가. 말도 안 된다. 선영이, 내 와이프가, 바람이라니. 참담하고, 화도 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제야, 민희와의 동영상도 생각이 난다. 선영에게 자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확인시킬 동영상. 아내가 보는 건 너무 싫다. 이 상황이 미치겠고,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다.

통신대란은 어느새 회복이 됐다. 자포자기 심정인 동훈. 터덜터덜 한강 다리 위를 걷고 있는데, 어랏?! 저기 보이는 여자. 엄청 예뻐 보이는 여자. 선영이다!! 하루 종일 찾아 헤맸는데, 여기서 보다니. 반갑기도 하고, 속에서 불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부른다. “여보!”

동훈은 아내 선영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통화권 이탈 한유림

#1. 교차. 레스토랑+동훈의 집(밤)

-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붉은 와인이 담긴 두 개의 잔이 짝!
젠틀하고 멀끔한 동훈(38세), 눈에 띄는 미인인 민희(28세)가 서로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동훈 (달콤하게) 사랑해.
민희 (감동한 듯 바라보고)

동훈의 휴대폰 액정이 소리 없이 번쩍번쩍.
확인하니, ‘와이프’다.

- 동훈의 집, 거실.
십여 평의 평범한 아파트. 동훈과 선영(38세)의 해사한 결혼사진. 선영, 방금 퇴근했는지 똑 떨어지는 오피스룩 재킷만 벗어던지고, 동훈에게 전화를 하지만 연결이 안 된다. 동훈에게 ‘늦어?’라고 톡을 보냈지만, 아직 읽지 않아서 ‘1’이 그대로다. 소식 없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쐬다. 어딘지 음침하고 우울하다.

#2. 아파트 주차장(밤)

동훈,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카톡창을 확인한다.

인서트.
내연녀 민희와의 톡 내용.

민희 오빠, 나 내일 뭐 준비하면 돼?
 동훈 우리 얘기가 준비할 건 없지. 너만 있으면 돼.
 민희 너무 기대된다.
 동훈 방금 헤어졌는데 벌써 보고 싶다.
 민희 나동.
 동훈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일 공항에서 봐.
 민희 내일 봐용 오빠. 사랑해.
 동훈 나도.

동훈, 차에서 내리고는 아파트 입구로 향한다.

#3. 동훈의 집/거실(밤)

동훈,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선영, 욕실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온다.

선영 늦었네.
 동훈 내일 출장이야.
 선영 또? 갑자기?
 동훈 (스쳐 지나가는)
 선영 (신경질) 그 회사는 당신밖에 없어?!
 동훈 (안방으로 향하는)
 선영 (동훈의 뒤통수에 대고) 내일 꼭...
 동훈 (방문 닫는다)
 선영 (서운하고 열받아 울컥하지만 참는다)

#4. 동훈의 집/안방(밤)

욕실에서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리고,
 블랙 캐리어의 지퍼를 잠그는 선영. 캐리어를 바라본다.
 심통도 나고, 화도 나고, 서운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복잡하다.

#5. 맨홀 아래/지하통신구 일대

맨홀 아래의 좁은 지하통신구.
 오물 속에 얽혀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케이블들.
 벽에 닿아 꺾인 선 뭉치들,
 끊어지기 직전의 케이블이 달랑거린다.
 이윽고 파파콧- 불꽃이 피어오르고, 스멀스멀 연기가 난다.

#6. 공항 주차장(낮)

동훈, 신혼여행 가는 것 같은 산뜻한 차림.
 트렁크에서 캐리어(#4와 다른 캐리어)를 꺼내 공항으로 향한다.

#7. 공항 내 커피숍(낮)

동훈, 내연녀 민희와 톡 중이다.

인서트.
 민희와의 톡 내용.

민희 거의 다 왔어용.
 동훈 천천히 와도 되요~ 시간 충분해.
 민희 빨리 갈게용.

화려한 하와이안티셔츠를 입고 중절모를 쓴 남자.
 (*앞으로 하와이안 남자로 부른다)
 하와이안 남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와 손을
 꼭 잡고 지나간다.
 젊은 여자에게 눈길이 가는 동훈.
 하와이안 남자 커플이 지나가면,
 매력적인 외모의 민희(28세)가 싱그럽게 손을 흔든다.

CUT TO.

동훈과 민희가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민희, 동훈의 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며

민희 오빠, 나 콧 처음 가! 엄청 기대돼. 비키니도 새로 샀다!

동훈 영광이네. 올 애기 첫 경험을 함께하고.

민희, 키득거리며 동훈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버튼을 누른다. 동훈, 사진 찍히는 줄 알고 이런저런 멋진 포즈를 취한다. 중간 중간 계속 들리는 카톡!! 하는 소리.

민희 (웃으며) 이거, 동영상이야.

동훈 뭐어?

민희 (셀카봉에 휴대폰을 끼우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이 나오지.

동훈, 민희, 서로에게 불 뽀뽀를 해준다.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동영상으로 모두 녹화되고 있다.
카톡! 소리.

민희 와이프 (동훈에게 휴대폰을 건넨다) 카톡 계속 온다.

눈치 챈 거 아냐?

동훈 (휴대폰 받아들고) 무슨.

인서트.

선영과의 특 내용.

선영 오늘 꼭 가야 하는 거지?

선영 하루 일찍은 못 와?

선영 지금 통화는 못 하나?

선영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동훈 왜. 뭘 일 있어.

선영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동훈 연락할게.

민희 뭐래?

동훈 별거 아냐.

#8. 한강 다리 위(낮)

휴대폰을 손에 쥐고는 가만히, 강을 내려다보는 선영.

선영의 뒷모습이 어딘지 쓸쓸하니 처량하다.

#9. 공항 내 커피숍(낮)

민희 동영상, 나한테 보내줘.

동훈, 휴대폰 갤러리에 들어가서 동영상 파일을 터치한다.

동영상 공유버튼을 누른다. 바로 아래에 대화창이 뜬다.

순간, 살짝 렉이 걸리면서

인서트.

휴대폰 화면.

카톡하는 소리와 함께, 상단 바에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알림창이 뜬다.

민희의 대화창이 있던 자리에 선영과의 대화창이 뒤늦게

갑자기 뜬다. 선영의 대화창을 꾸욱- 눌러버린 손가락!!!!

선영에게 보내진, 민희와의 동영상.

동훈 어???!!!!

보낸 내용이 뱅글뱅글 돌고 있다.

전송된 동영상. 읽지 않음을 나타내는 'i'이 보인다.

그 바로 위에는 선영의 '그래'라는 답변이 보인다.

동훈 미친... (벌떡 일어나서, 초조)
동훈(E) 생각하자, 생각해. 김동훈. 방법이 있을 거야. 머리를 써라. 아!!

인서트.
휴대폰 화면.
동영상을 꼭 눌러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는데
버벅거리다가 멈춰버리는 액정 화면. 오른쪽 위의 안테나와
데이터가 표시가 '신호 없음'으로 바뀐다.

어수선한 주변.
갑자기 꺼지는 비행기 이착륙 실시간 안내 게시판.
공항 직원들의 무전기가 시끄럽다. 바쁘게 움직이고,
항공사 직원들도 휴대폰과 무전기를 들고 뛰어다닌다.
동훈, 주변의 반응을 감지할 여력이 없다.
점차 눈앞이 아득해지고, 사색이 된다.

동훈(E) 5분 내로 동영상을 삭제해야 하는데...
(뉴스 방송 보고, 허망한 표정) 아무래도, 일이 난 것 같다.

공항 내, 설치된 TV 뉴스방송.

아나운서 속보입니다. 서울 충정로 GG빌딩 지하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현재, 서울 시내 거의 전 지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 카드 단말기 작동까지 안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SK, KT, LG, 3사 통신사는
임시 우회망 설치와 이동기지국 신속 배치로 세 시간 이내 통신을
재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10. 지하통신구 일대

서울 시내의 빌딩 숲이 부감으로 보이는데, 한 군데서 연기가
모락모락.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 광광- 끼익- 하는 자동차 사고
소리, 펑펑-터지는 소리. 소방대원들이 뛰어다니며 다급해지고,
물대포 밸브를 연다. 화악- 하는 물대포 소리. 축축해지는 바닥.
경찰, 소방관 등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분주한 발.

#11. 공항 주차장(낮)

헬레벌떡 자신의 차로 향하는 동훈.
뒤따라오던 민희도 빠르게 조수석에 타려고 하는데!

동훈 잠깐!!!
민희 (조수석 문을 열다가 만다) 왜?
동훈 (정색) 너, 손 그개 뭐야.

민희의 손톱에 장식된 달랑거리는 구슬과 반짝이.

동훈 (버럭) 야! 오빠 만날 때는 네일, 향수 금지했지!
민희 (움짤했다가) 놀러가는데 그럼 맨손으로 가는 여자가 어딴어!!
원래, 오빠 차 타는 날도 아니었잖아!!
동훈 (참고) 일단, 차에 있는 거 아무것도 만지지 마. 안전벨트도.

민희, 썩썩거리며 조수석에 탄다.
동훈도 운전석에 타고는 서둘러 민희의 안전벨트를 직접
채워준다.

동훈 오빠가 화내서 미안.
민희 (짜증나서) 와이프한테 가서 뭐 어찌려고.
동훈 (달래며) 그렇다고 여행을 어떻게 가.
민희 왜 가면 안 되는데?

동훈 울 애기 전화는 돼?
 민희 (얼결에 휴대폰 해보더니) 나도 안 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여행을 못 가냐고!!! (계속 성질을 낸다)

그대로 출발해버리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선다.
 길게 줄 서 있는 차들.
 앞을 보면, 공항 주차장 무인 차단기가 내려가 있다.
 운전자들이 밖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있다.
 동훈, 차에서 내린다.
 어려 보이는 주차직원이 연신 꾸벅꾸벅 인사 중이다.

운전자1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주차직원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요.
 자동으로 주차비용이 책정돼야 하는데…
 운전자2 (말 끊으며) 그럼, 어찌라고!! 계속 기다리라고?
 돈, 여기 있다고 그러니 열어!!!
 주차직원 그게, 제가 혼자 막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운전자1 그렇다고, 언제까지 말이에요.
 운전자2 내가 그냥 이거 부숴버리고 갈 거야!!!

운전자2를 말리는 주차직원.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차에 타고는 울상이 된 동훈.
 안 되겠는지, 차를 뒤로 빼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차들로 꽉 차서, 후진도 할 수 없는 상태.
 미치겠는데, 옆에 서는 택시.
 하와이안 남자가 뒷좌석에 급하게 타더니 동훈의 차를
 스쳐 지나간다.
 동훈과 하와이안 남자가 찰나의 순간 눈이 마주친다.
 하와이안 남자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얼핏 스친다.

동훈 완전 부럽다.

민희 뭐?
 동훈 아… 아니.
 민희 그냥 괘 가자.
 동훈 그냥 집에 가자.
 민희 (자존심 상해) 오빠, 나한테 너무한 거 아냐?
 내가 얼마나 기대한 여행인데.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동훈 (앞만 보며, 건성) 미안해.
 민희 오빠!!!! (짱얼짱얼) 진짜 나 괘 가고 싶단 말야.

상급자로 보이는 직원이 동훈의 차를 지나쳐 앞으로 뛰어가고
 있다. 민희는 말을 하지만, 동훈의 눈은 직원을 쫓는다.
 멀리, 상급 직원이 주차 차단기를 올리고는
 돈을 받지 않고, 차들을 내보낸다.
 하나, 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앞의 차들.

민희 나, 혼자라도 갈래.
 동훈 (순간 성질) 아, 쏘! (이내 눈치보는) 지금 차들 나가잖아.
 민희 열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
 동훈 그게 아니라…
 민희 문 열라고!!!!

마음이 급한 동훈,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고 빠르게 내린다.
 트렁크에서 민희의 캐리어를 꺼내고는 조수석 문을 벌컥- 연다.
 민희, 모욕적이다. 자존심이 상한 채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따귀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올린다. 동훈, 순간 쫓아서
 움츠리는데,

민희 (휘이휘이- 하는 듯한 손동작) 가. 가라고.
 동훈 (혼자 급하게 차에 타며) 진짜, 미안, 오빠가 다시 전화할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훈의 차.

민희 (울분) 개자식.

#12. 달리는 차 안(낮)

거치대에 걸어둔 동훈의 휴대폰. 카톡 앱을 켜보지만, 열리지 않는다. 선영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음만 나올 뿐.

라디오뉴스(F) 계속해서 GG빌딩 화재 속보 알려드립니다. 화재 피해가 가장 적었던 SK 통신사 복구 속도가 빠릅니다. 현재, 50프로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의 경우, 한 시간 내에 10프로 복구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반면, 다른 통신사들은 화재 범위가 방대해, 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3사 통신사들은 관공서와 병원, 은행 등의 기관부터 복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훈 (성질) 뭘 복구 속도가 이렇게 빨라! 와이프가 SK였나? KT였나? 뭐였지? 아냐, 아직 못 봤을 거야. (초조) 제발 인터넷 좀 늦게 터져라...

더욱 속력을 내는 동훈의 차.

#13. 선영의 회사 사무실 안(낮)

딱 봐도 망해서 정리 중인 사무실. 사무용품들과 집기류가 쌓여 있고, 이삿짐을 싸는 것 같은 분위기.

동훈 저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회사상사 누구...
동훈 차선영 과장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회사상사 (의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동훈 와이프가 중요한 걸 놓고 갔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서요.
회사상사 차 과장이 여기 온다고 했나요?
동훈 ... 출근 안 했나요? (궁색) 월차였나.
회사상사 차 과장 그만뒀는데, 퇴사한 지 반년 넘었어요.
동훈 네?
회사상사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그만뒀어요.
동훈 (말을 못 잇고)
회사상사 사무실도 판교로 이전해서 지금 정리 중이에요.
동훈 (어이가 없다)

#14. 동훈의 집(낮)

어수선한 거실.
서랍이 다 열려 있고,
TV 화면에서는 ‘서비스 불가’ 멘트만 동동 떠다닌다.
안방에서 퍽-퍽- 신경질적으로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난다.

어수선한 안방.
장롱문도 열려 있고, 화장대 주변에 있는 서랍과 상자란 상자는 모두 열어젖힌다. 몇 개의 가방을 뒤집어서 털며,

동훈 그럼, 아침마다 이 여자는 어딜 간 거야.

다급해 보이는 손길로 휴대폰을 다시 보는데,
‘통화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멘트와
안테나가 하나도 안 켜지는 휴대폰 액정화면뿐.
카톡 앱은 열리지도 않는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베개를 침대에 힘껏 내던지는 동훈.

동훈 아아아악!!!!

침대 밑에 숨겨져 있는 #4의 블랙 캐리어. 동훈은 발견하지

못한다.

주방.

물을 한잔 벌컥벌컥 마신다. 식탁에 힘없이 앉는다. 휴대폰 한번 보다가 짜증이 났는지 툭- 식탁에 놓는데 테구르르-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폰. 지친 기색으로 줍는데, 식탁 아래 분리수거 하려고 물건을 모아둔 종이박스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들. 일부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 다급한 손길로, 맨 앞장의 연월만 보고 선영의 카드명세서를 골라낸다.

동훈 6월, 7월...

식탁에 대여섯 장의 명세서를 올려놓고, 가장 오래된 명세서부터 하나하나 훑는다. 밑으로 쪽- 손가락이 내려가다가, 멈춘다. 순간, 당혹감에 일렁이는 시선.

인서트.

카드명세서 내용.

- 하얏트 호텔 55만 원
- 스마일 제빵학원 88만 원

동훈 호...텔? 이거, 가격대가 스위트룸인데... (찹찹한) 여길... 왜 간 거야?

식탁 위, 바구니에 있는 수제 빵들 그리고 제빵 관련 서적들. 동훈, 배고팠는지 빵을 우악스럽게 먹으며, 서적들을 뒤적거린다.

동훈 스마일 제빵학원이라... 여기가...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려다가 아차차) 맞다, 검색 안 되지.

동훈, 식탁에 있는 다른 명세서들을 챙겨 나간다.

#15. 몽타주

- 길가로 서행하는 동훈의 차.
조수석 창문을 열고 주변 상점들을 보지만, 대부분 "현금만 가능", "카드 불가", "장사 안 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동훈 하... 인터넷이 되는 곳이 없나...

- 건물에서 지친 기색으로 나오는 동훈.
올려다보면, 2층부터 4층까지 PC방이다.
건물 앞 길가에 세워둔 차에 올라탄다.

PC방 주인(E) 죄송합니다. 지금, 아예 인터넷이 안 돼서요. 저희도 완전히 장사를 못 하고 있어요.

- 공중전화 앞에 꼬불꼬불 긴 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신기한 듯 보고 지나치고,
- 드디어 안내문 안 붙은 카페!!
근처 길가는 이미 주차장이 되어 있다.
동훈도 길가에 차를 대충 세우고 카페에 들어간다.

#16. 카페 안(낮)

사람들로 꽉 찬 실내. 휴대폰을 하며, 그냥 서 있는 사람도 많다. 카운터로 돌진하는 동훈.

동훈 여기, 와이파이 돼요??

알바 네.

동훈 비번 좀 알려주세요!!

알바 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동훈 (탄식) 혹시... 가게 전화 쓸 수 있나요?
알바 (전화기 주는)
동훈(E) 다산 콜센터! 120!!! 역시, 난 똑똑해.

동훈, 카운터 쪽에 서서 카페 전화기로,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건다.
뚜뚜뚜뚜. (소리만)
낙담하는 동훈. 옆을 보면,
카운터 앞에 엄청 긴 줄. 다들, 동훈을 쬐려보고 있다.

CUT TO.
동훈 (카드 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알바 4,100원입니다. (하고, 영수증과 진동벨을 건넨다)

동훈, 서서 재빨리 영수증 끝에 적힌 비번을 휴대폰에 입력한다.
휴대폰, 액정을 보면, 우산 와이파이가 켜진다!
카톡부터 확인하는데, 다행히 아직 남아 있는 'i'

동훈 살았다! 아직 안 봤어!!

서둘러, 스마일 제빵학원을 검색해 학원 위치를 지도 앱으로
확인한다. 캡처도 한다.

동훈 여기서 얼마 안 걸리네. 그러면.

인서트.
동훈의 상상. (로봇 연기하는 듯한 선영과 동훈)
- 학원에 있는 선영을 발견하는 동훈.
- 선영의 휴대폰을 뺏어서, 채팅창을 나가버린다.

동훈(E) 일단, 와이프를 먼저 찾고, 휴대폰을 뺏어서

카톡방을 폭발시켜버려야겠다.

동훈 (감탄) 그래. 그게 깔끔하다.

그제야, 뉴스검색을 하는 동훈. 실시간 검색어가 '통신대란'이다.
터치하면, 뉴스기사 제목에 'KT 복구지연'이란 단어가
눈에 띈다. 누군가 "어어어!!!!" 하는데,
밖을 보니, 길가에 주차해둔 차들을 여러 대의 견인차가
끌고 가고 있다.
후다다닥, 나가는 차주들.

동훈 어?! 내... 내 차!!!

#17. 카페 앞(낮)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차주들. 그리고, 동훈.
아직 견인되기 전인 차주들은 서둘러 자신의 차를 타고,
공간을 벗어난다. 동훈의 차는 이미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다.
따라잡을 수 없는 견인차.

동훈 여기, 여기 있어요!! 주인 있다고!!!!!!

택시를 잡아보지만 잡히지 않는다. 그때, 따릉이(서울시 무료
자전거)를 탄 대학생(남)을 피하려다 넘어진다.

#18. 따릉이 정류소(낮)

동훈, 저 멀리 눈에 보이는 따릉이 정류소를 향해 전력질주한다.
대학생이 따릉이를 반납하려는데,

동훈 저기요!!!!!!!

대학생 (보고) 아...! 죄송합니다. 아깐...

동훈 헉헉... 그게 아니고, 반납하지 말고 나, 주면 안 될까요.
(하며, 자전거를 잡는데)

대학생 (동훈이 자전거를 맘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잡고는)
지금, 여기에 반납하겠다고 한 거라, 해야 해요.
안 하면 저 요금 내야 해요.

동훈 (자전거를 끌어당기면서) 대신 내줄게요, 이용료는.
대학생 (더 세게 자전거를 당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앱으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동훈 (버럭, 욕- 하는) 지금 폰이 안 터지잖아!!!
대학생 (놀란) ?!!!!

자전거를 가운데 두고, 서로 욕신각신하며 안 뺏기려고 애쓴다.

동훈 (태세 전환) 지금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그게.
동훈 (딱- 하고 무릎을 꿇으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주먹 쥔 손에는 만 원짜리 지폐가 꽂혀 있다)
대학생 (지폐 뽑아간다)

#19. 길거리(낮)

동훈, 미친듯이 페달을 밟는다.
저 멀리, 따릉이를 타고 가는 하와이안 남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동훈 저 사람...!!

플래시백.
#11. 하와이안 남자가 뒷좌석에 급하게 타더니 동훈의 차를 스쳐 지나간다. 동훈과 하와이안 남자가 찰나의 순간 눈이 마주친다.
하와이안 남자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얼핏 스친다.

동훈,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하와이안 남자에게 가까이 간다.

남자도 동훈을 한번 보고는 페달을 밟는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두 사람의 자전거. 갑자기 경쟁하는 두 사람.

동훈(E) 혹시, 당신도?
하와이안남자(E) (아련한 눈빛) 그쪽도?
동훈(E) 우리, 꼭 해냅시다.
하와이안남자(E) 승리하십쇼.

뭔가, 결의에 찬 두 사람의 비장한 눈빛.
양쪽으로 갈리는 길목에서 끄덕이고 인사한 후, 헤어진다.

#20. 스마일 제빵학원 안내데스크(낮)

동훈 차선영이라는 수강생이 어떤 강의 듣는지 알고 싶어요.
데스크직원 죄송하지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수강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동훈 저, 남편이에요. 괜찮아요.
데스크직원 아내분께 직접 물어주시면 되겠네요.
동훈 (사정하는)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난리인 거 아시죠?
데스크직원 (의심스럽지만) 잠시만요. 성함, 다시 말씀해주세요.
동훈 차선영이요. 차! 선! 영!
데스크직원 (검색 중) 휴대폰 뒷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동훈 1526이요.
데스크직원 네, 확인했습니다. 차선영 님, 베이킹 클래스 수강 중이십니다.
동훈 (조심스럽게) 오늘 수업 언제 끝나나요?
데스크직원 지금 끝났겠네요.

#21. 강의실 앞(낮)

수업이 끝나고 막 나오고 있는 수강생들.
동훈, 서성거리며 선영을 찾는다.

사람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서너 명의 여자 수강생들이 몰려나오는데,

동훈 (밝게) 안녕하세요.
희주 예?
동훈 차선영이라고 같은 수업 듣는 사람인데, 혹시 아세요?
희주 (의심) 네, 아는데. 누구세요?
동훈 남편입니다. (닉살 좋게) 오늘,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희주 아. 선영 언니, 오늘 안 나왔어요.
진아 오늘 데이트가 있었구나!! 어찌나, 전화가 안 돼서, 엇갈렸나 보다.
안녕하세요. 훈남이시네요.
동훈 감사합니다. 학생도 엄청 미인이세요.
진아 학생이요? 저, 졸업한 지 꽤 됐어요. 호호호호호.
보미 나, 언니 아까, 보긴 했는데...
동훈 !!!!!
진아 어디서?
보미 (머뭇거리며) 그게... 내가 오늘 늦었잖아.
오는 길에 요기 앞 사거리 병원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
동훈 병원이요?
진아 사거리면... 소망산부인과잖아!
동훈 ?...?!
보미 (동훈 눈치를 보다, 진아를 툭- 치며) 다른 병원도 많아.
진아 많긴. 대박, 어머머! 좋은 소식 있나 봐요.
동훈(E) (마음의 소리) (의아) 절대, 실수한 적이 없는데...
진아 축하드려요. 그래서, 오늘 안 왔구나아.
그 언니가 그냥 결석할 언니가 아니거든요.
동훈 (웃으며) 네...
희주 (동훈 표정 살피다가) 야, 설레발치지 마. 아닐 수도 있어.
보미 (눈치껏) 그래,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가자. 제가 잘못 본 거 같아요. (서둘러) 안녕히 가세요.

희주와 보미가 진아를 끌고 간다.
예기치 못한, 산부인과 공격에 병쩡 동훈.

#22. 소망산부인과 전경

4층 건물에,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함께 있는 꽤 규모 있는 병원.

동훈(E) 왜 안 되는데요!!

#23. 소망산부인과/안내데스크(낮)

피곤에 지친 안내직원과 동훈이 실랑이 중이다.

안내직원 응급실 환자분 아니고는 확인 못해드려요!
동훈 아니, 그냥 그거 쳐보면 될 거,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니까요! (버럭) 내가 남편이라고!!!

안내방송(F) 분만과 김희정 선생님, 김희정 선생님. 지금 바로 응급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병원 안내방송이 계속되고 있다.
정신없고,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병원직원들.
간호사, 의사 할 것 없이 막 뛰어다닌다.
몇몇 직원은 긴급연락망 책자를 빠른 손길로 뒤지고 있다.
병원이 엉망진창이다.

안내직원 (참고) 병원은 환자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막 알려주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간호사 (막 뛰어와서 안내직원에게) 소아과 박창수 선생님 봤어요?

안내직원 아니요.

간호사 (다급) 실장님 어디 계세요?

안내직원 지금, 여기저기 불러 다니셔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간호사 혹시, 여기 SK 휴대폰 가지신 분 있어요?
 안내직원 이미, 다른 선생님들께 모두 빌려드렸어요.
 간호사 (한숨) 박 선생님 보이면, 3번 수술방으로 와달라고 해주세요.
 (가다가) 아! 콜론(병원호출용도 휴대폰) 안 되니까,
 직접 전달해주세요.
 안내직원 예.

간호사, 다급히 가려는데,
 불안한 기색의 환자보호자가 간호사를 붙잡는다.

환자보호자 저기요. 제 딸이 지금 수술 중인데, 문제… 없는 거죠?
 혹시, 수술 장비도 멈추고 그러는 건 아니죠?
 간호사 (어색하게 웃으며) 네, 괜찮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고, 가면)

그래도 불안한 보호자는 가만있지 못하고 주변을 왔다갔다한다.

안내방송(F) 소아과 박창수 선생님, 박창수 선생님. 지금 바로 응급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안내방송.
 안내직원이 내선전화기를 들다가, 아차차- 먹통인 것을
 확인하고 내려놓는다.

동훈 (안내직원에게) 저기요! 그냥, 접수했었는지, 확인만 해달라고요!!
 안내직원 (폭발한다) 이보세요!!! 여기 지금, 정신없는 거 안 보여요?
 당신 와이프 당신이 알아서 찾아!! 왜 여기 와서 당신 와이프를
 내놓으라고 생떼야!! 여기가 경찰서야!!
 당신 정말 경찰서 가고 싶어?!! 다음 환자분!!!!!!!!!!

주변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동훈을 혀를 차며 보고 있다.
 동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머쓱해져서 나간다.

#24. 병원 건너편 버스정류장(낮)

낙담한 동훈.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건너편의 병원만
 하염없이 보고 있다. 버스정류장의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는
 오락가락한다. 꺼졌다가 켜졌다가 지지직- 하다가 안내 서비스
 화면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다.

동훈, 녀를 놓고 있다. 주섬주섬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통화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멘트가 나온다.
 안테나가 하나도 안 켜지는 휴대폰 액정화면뿐.
 소심해 보이는 앳된 남자 중학생이 쭈뼛쭈뼛 동훈에게 다가온다.

중학생 아저씨.
 동훈 (보는)
 중학생 죄송한데, 휴대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동훈 나도 안 돼.
 중학생 그럼, 저… 2천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동훈 (황당) 뭐?
 중학생 제가, 버스를 핸드폰으로 찍고 다니는데, 지금 인터넷이
 먹통이어서,
 버스를 못 타요. 돈도 하나도 없고… 저,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중학생이 안 되어 보이는 동훈.
 자신의 지갑을 여는데, 천 원짜리 두 장과 만 원짜리 세 장,
 그리고 달러 가득, 2천 원을 꺼내려다가,
 만 원짜리를 한 장 꺼내는 동훈.

중학생 고맙습니다!!! (꾸벅!)

그때, 건너편 소망산부인과에서 나오는 선영이 보인다.
 벌떡 일어나는 동훈!! 횡단보도 쪽으로 뛰어간다.

그제야, 중학생의 친구들이 구석에서 나온다.

친구1 불쌍한 척 오지네.
중학생 나 연기 개잘하지.
친구2 미친놈. (키득)
중학생 야, 거봐. 다 속는다고 했잖아.
친구1 아 새끼. 이 새끼, 완전 나쁜 새끼야.
중학생 다음은 니 차례다.
친구2 나는, 저 아저씨.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하와이안 남자.

친구2 (거들먹) 기다려라. 제대로 내가 보여주마.
중학생 오...
친구1 잘해봐라.

키득거리며 숨는 중학생, 친구1.
하와이안 남자에게 다가가는 친구2.

친구2 (순진한 척, 불쌍한 척) 아저씨, 저기 죄송한데요.
하와이안 남자 (순진무구) 응?

#25. 횡단보도 앞(낮)

애석하게도 신호는 여전히 빨간불.
건너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동훈.
건너편, 선영은 택시를 잡아탄다.
그때,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뀐다.
선영에게로 뛰어가는데, 그대로 출발하는 택시.
동훈, 다급하게 지나가는 다른 택시를 뛰어들어 세운다.

기사 (창문으로 고개 내밀고) 죽고 싶어 미쳤습니까!!!!

동훈 (택시 타면서) 따블!!! 따블!!! 저 택시, 따라가주세요.

#26. 달리는 택시 안(낮)

동훈, 앞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택시를 놓칠까 봐 안절부절.
먼저 앞서가는 선영의 택시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느긋한 속도의 동훈의 택시.

동훈 아저씨, 조금 빨리 안 될까요. 놓치면 안 되거든요.
기사 (직업의식 투철)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훈 (빡침) ...따따블 드릴게요.
기사 (진지) 20년 무사고, 무벌점 기사입니다.
동훈 미터기 인정하고, 무조건 이십만 원 더 드릴게요.
기사 (여전히 진지) 때로는 융통성도 필요하죠. 꼭 잡으세요.

기사, 기어 변경. 부웅- 하는 택시.
무서운 속도로 요리조리 선영을 태운 택시를 잘 따라간다.

기사 걱정 마십쇼, 손님!
제가, 강남에서 일산까지 21분 기록이 있습니다.
동훈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기사 누가 뺏습니까?
동훈 (흠칫) ...
기사 바람난 마누라?
동훈 (발끈) 바람이라뇨!!! 누가요, 우리 와이프 그런 여자 아니에요.
기사 행색이 바람난 여편네 뒤쫓는 남편 행색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
동훈 거, 참 말씀 막하시네! 어! 어!!!! 빨간불!!!!

끼이이익!!!! 확- 앞으로 쏠리는 동훈.
저 멀리, 선영을 태운 택시도 멈춰 선다.
선영이 내려서 코너를 돌아, 어딘가로 걸어간다.

동훈, 눈은 선영을 쫓으며,

동훈 (다급) 아씨. 진짜. 저 여기서, 내릴게요!!
기사 (진지하게 보는)
동훈 (짜증) 알아요! 20만 원!! (카드를 건네려다 멈칫)
기사 미터기 25,700원. 총 225,700원입니다.

순간, 난감한 표정의 동훈.
지갑을 열었는데,
달러 몽치와 만 원짜리 2장과 천 원짜리 2장뿐.

동훈 (태도 전환, 급실) 아저씨 죄송한데, 달러도 취급하세요?

터!!- 문 잠기는 소리.
기사, 살벌하게 동훈을 쳐다본다.

동훈 (급한데, 미치겠다) 제가 지금...
(지갑 보며) 2만 2천 원뿐이어서요.
아저씨, 이거... 달러로 계산하면 안 될까요.
기사 달러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합의된 내용으로 주시죠.
동훈 (급한 마음에, 달러를 다 털어서 주며) 이거 거의 오십만 원이에요.
이거로, 끝냅시다. 네?

#27. 은행 ATM기 앞(낮)

은행 ATM기 앞에 서 있는 동훈.
ATM에도 '서비스 불가' 멘트가 뚱뚱 떠 있다.

청원경찰 죄송하지만, 지금 ATM기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창구에서 업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동훈. 밖을 보는데,

굳은 표정의 택시기사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다.
은행 안쪽을 보니, 역시 사람이 그득하다.

CUT TO.

동훈, 번호표를 옆에 두고, 종이 입출금 전표를 쓰고 있다.
멈칫하는 동훈의 손.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청원경찰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휩싸여 바빠 보인다.
은행원들도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창구도 정신없다.
사람이 바글바글한 은행 안. 시장통이 따로 없다.
창구직원들이 모두 전화를 붙들고 있고,
옆에는 종이 서식들이 쌓여 있다.
할 수 없이 혼자 어떻게든 전표의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옆의 할머니는 스스스스 전표에 빠르게 쓴다.
동훈, 슬쩍 할머니의 전표를 보는데.

할머니 뭐여!
동훈 (깜짝, 민망) 아니... 그냥... 줘.
할머니 이 사람이 왜 남의 것을 몰래 보는 거!!
동훈 (주눅) 죄송합니다.
할머니 (스스- 동훈의 전표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
아니, 그 나이 먹고, 이런 것도 못 혀? 죄다 다시 써야겠고만.
동훈 처음이라서...
할머니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했대. 우째, 젊은 사람이 왜 이걸 모른더.
동훈 (민망한)
할머니 나이 헛먹었어! 여기에는 이름, 계좌번호. 여기, 돈.
(보란듯이 작은 수첩 꺼내 보이며) 젊은 사람이 정신머리가 없어.
내가 그 나이 때에는 이런 거는 다 위우고 다녔어.
동훈 전화번호는 다 위우는데...
할머니 뭐라고?
동훈 아... 아니에요.
할머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
은행원 451번 고객님!

동훈 (은행원에게 반색) 예!!! (인사 꾸벅) 고맙습니다. 할머니.
창구에 있는 태블릿 PC는 모두 꺼져 있다.

동훈 (서둘러 가서 앉는다) 돈 좀 뽑아주세요. 계좌번호는 모르겠고,
체크카드 있어요.

은행원 (급한 듯, 얼굴도 대충 보고, 사무적으로) 창구에서는 체크카드로
현금인출은 안 됩니다. 통장 재발급 후에,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은행원, 한 뭉치의 종이 서식을 꺼내
빠른 손놀림으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친다.
어마어마한 종이뭉치 서식에 한숨부터 나오는 동훈.

은행원 제가 체크한 곳에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동훈 얼마나 걸려요?

은행원 10분 정도 걸립니다. 빠르게 서명해주시면, 좀 줄어드고요.

동훈 예???!!!!!!

지갑에서 신분증 꺼내려다 달려를 꺼내며,

동훈 환전해주세요. 빨리요.

CUT TO.

달려 지폐가 지폐계수기에서 드르르릉-

은행원 (전화하는) 네, 지금, 시간으로 달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하면서 메모)

은행원, 미친듯이 빠르게 계산기로 환산한다.
은행원이 수납 접시에 신분증, 지폐와 동전을 건네면,
동훈, 신분증하고 지폐만 낚아채서 나간다.

은행원 고객님, 돈 가져가셔야!!! (포기하고) 460번 고객님!!!
청원경찰 (고객들에게 소리친다) ATM기가 작동합니다!!! 간단한 입출금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던 꽤 많은 사람들이 ATM기로 이동한다.

#28. 은행 앞+길거리(낮)

동훈,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요금을 낸다. 택시가 출발한다.
그제야 고개를 들면, 모텔이 눈에 띈다.

플래시백.

#26. 저 멀리, 선영을 태운 택시가 멈춰 선다.

선영이 내려서 코너를 돌아서 어딘가로 걸어간다.

동훈, 선영이 지나간 그 길을 따라 서둘러 뛰어간다.

불 꺼진 유흥가, 상점,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뒤섞여 있고,

골목 안쪽은 모텔 촌.

동훈의 눈에는 모텔만 보인다.

플래시백.

#14. 카드명세서 내용.

하얏트 호텔 55만 원

플래시백.

#24. 건너편, 소망산부인과에서 나오는 선영이 보인다.

황망하고 아득해지는 정신.

선영을 찾아 모텔촌 거리를 헤맨다. 모텔 입구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눈은 이미 풀려 있고 다리도 풀려서 휘적거리며 걷는다.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커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지나고
있는 여자들을 무작정 돌려세워 얼굴을 확인한다.

“당신 뭐야! 왜 이러세요! 미쳤어! 악!!” 같은 이런저런

욕지거리를 듣는다. 누군가에게 밀쳐지면 밀리고, 때리면 맞아서, 바닥에 고꾸라지고 쓰러진다.

#29. 동훈의 집/안방(낮)

난장판이 되어버린 안방.
화장대 위의 물건부터 선영의 옷, 가방 등등이 모두 내뺨개쳐져 있다. 방바닥에 불퓌없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동훈. 동공이 풀린 채, 멍하니 허공만 본다. 앓을 기운도 없는지 풀썩- 옆으로 눕는다. 침대 아래 숨겨 있던 (#4)블랙 캐리어를 본다. 가방을 열어젖힌다. 잘 정돈된 선영의 옷가지와 잡동사니, 특- 하고 떨어지는 폴라로이드 사진. 동훈, 폴라로이드 사진을 들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

인서트.
폴라로이드 사진.
선영이 손사래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
그 아래에는 '항상 행복하세요'라고 적혀 있다.

갈색 서류봉투 속의 서류를 꺼낸 후, 경직된 동훈.
차선영 이름의 부동산 원룸 계약서,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명함 한 장.

동훈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돼...
(명함을 구겨버리며) 다 죽어버릴 거야.

#30. 주택가 골목 일각(낮)

다세대, 연립, 원룸, 빌라가 혼재된 평범한 주택가.
흥분한 동훈의 발걸음. 동네가 어쩐지 낮이 익다.
건너편에, 모텔촌이 보인다.
점점 더 분노가 차오르는 동훈.

그러다, 충격 받은 듯 우뚝 선다.

#31. 과거. 동일한 주택가 골목 일각(낮)

'비로드피자' 간판의 작은 식당 안.
피자를 맛있게 먹고 있는 젊은 선영.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젊은 동훈.

동훈 피자 그렇게 맛있어?
선영 응! 난 밀가루는 뭐든 좋아.
동훈 나도. 우린 식성도 잘 맞아.
선영 (좋아하는) 검색 안 하고 맛집 찾기 처음 성공한 거지?
동훈 맞아.
선영 이 동네 우리하고 맞나 봐. 어쩐지 들어설 때부터, 여기 좋았어.
동훈 (속삭이듯) 응, 가까운 곳에 쉬어갈 데도 있고!
선영 저질!!!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지!
동훈 (키득키득)

#32. 현재. 같은 장소(낮)

'비로드피자' 간판이 있는 가게 출입문에는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 동훈, 잠깐 서 있다가, 발걸음을 재촉한다.

#33. 선영의 원룸 현관 앞(낮)

동훈, 열받은 채로 화를 억누르고 현관 앞에 서 있다.
심호흡을 하고, 벨 근처로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데,
차마 누르지 못한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주먹을 꼭 쥐고,
문을 두드리려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아오!!!!" 머리를 감싸쥐며,
뒷걸음을 치다가 뭔가에 걸려서 자빠진다.

보면, 현관 앞에 있는 택배 상자들. 상자에 똑바로 적힌 ‘차선영’과 휴대폰 번호. 상자를 미친놈처럼 뜯어서 내용물을 확인한다.

인서트.
상자 안 내용물.
플라로이드 사진이 들어갈 만한 작은 액자.

참지 못하고, “으아!!!!!!!!!!” 냅다 던지고는, 주변의 상자도 던진다. 찌그러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택배상자들. 호주머니 속에 있던 동훈의 휴대폰이 떨어진다.

플래시백.
#7. 민희와의 동영상.

인서트.
동훈의 상상.
민희와의 동영상이 어떤 남자와 선영과의 행복한 한때로 탈바꿈되어, 동훈의 머릿속에서 플레이된다.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데, 휴대폰을 파악-, 부들부들 떨리는 손.
동훈, 무릎으로 걸어가서 현관문 쪽으로 다가간다.

동훈 계세요… (천천히 현관문을 두 번 두드린다)
 저기요… (또 두드린다, 조금 빠르게)
 나야, 문 열어. (점차, 빠르게 계속 두드린다)
 열어, 열라고. 야! 차선영!!

문을 열라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두드리고, 울부짖으며 발악을 한다. 헛웃음을 터뜨린다. 스스로가 한심하고, 참담하고, 불쌍하기도 한 동훈.

#34. 길거리(낮)

어둑어둑해지는 거리.
터벅터벅 거리를 걷는 동훈. 정신을 놓은 채, 걷는다.
사람들에게 툭툭- 차이는 동훈. 사람들한테 밀리는 대로 정처없이 걷는다.

길거리의 TV에서

TV앵커 현재, 두절된 광케이블과 무선통신망이 95프로까지 임시 복구됐습니다. 한 시간 이내로, 서울 시내 모든 통신망이 100프로 복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지환 기자의 소식입니다. (생략)

동훈 (나지막, 자포자기) 다… 끝났다.

안도하고, 안심하는 사람들 틈에 죽을상을 하고는 동훈이 걸어간다. 주머니 속에서 전화가 울리지만 받지 않는다.

#35. 한강 다리 위(밤)

비참한 동훈. 다리 위를 걷는다.
다리 중간쯤에서 천천히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여자.

동훈 여보?!
선영 (뒤돌아보는) ??
동훈 (할 말은 많은데 나오지 않는) 너, 너!!
선영 당신, 출장 안 갔어?
동훈 너…!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고르기 어렵다, 겨우) 전화… 는?
선영 폰? 아! 맞다. 나, 휴대폰 잃어버렸어.
동훈 (반색하지만 숨기고) 뭐!! 언제.
선영 몰라. 아침부터 없어.

동훈 진짜?
선영 아니, 근데 왜 성질... 얼굴은 왜 그래?!!
동훈 아... 별거 아냐.
선영 (다가와서 가까이 보며, 황당) 어디서... 맞았어?
동훈 아... 아니, 뭐가 좀...
선영 (짜증) 이젠 다 늙어서 씹박질까지 하나.
하, 속 터져 진짜. (하고, 가버리는)
동훈 (따라가며) 가... 같이 가!!

동훈은 할 말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다.

동훈 저... 여보.

그때, 하와이안 남자가 동훈을 짹-치고 간다.
땅에 떨어진 동훈의 휴대폰. 앞서가던 선영과 동훈의 사이에 떨어져 있다. 멀리서 하와이안 남자를 향해 뛰어오는 하와이안 남자의 아내.

하와이안 남자의 아내 야!!!!!!! 이 나쁜 놈아!!!! 죽어!!!!!!!!!! 그 년 누구야!!!!

찰나의 순간.
동훈과 도망가는 하와이안 남자의 눈이 마주치고,
점점 멀어지는 하와이안 남자와 동훈이 눈빛으로 대화한다.

하와이안남자(E) (아련하게 보면) 평안...하십니까.
동훈(E) (안타깝게 본다) 네, 아직은.
하와이안남자(E) (자신은 망했지만, 다행이라는 듯 울컥)(꾸벅)
동훈(E) (마음으로 응원하는)

선영, 하와이안 남자와 그 아내를 보며 혀를 끝끝 찬다.
부부가 선영과 동훈에게서 멀어진다.
떨어진 동훈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린다.

액정화면에 선명하게 보이는 '민희♥'
선영이 휴대폰에 다가가려고 한다.
동훈,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발끝의 신경을 초집중해 휴대폰을 발로 찬다!!!!!!!!!!!!!!
다리 난간 사이를 지나 강물로 향하는 동훈의 휴대폰.
썩썩거리는 동훈. 황당한 선영.

선영 뭐 하는 짓이야?
동훈 어... 내가 뭐 했지?
선영 지금 핸드폰 찾잖아. 물에 빠졌다고!
동훈 내가... 핸드폰을 찾나?

동훈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들린다.
선영, 한심하게 동훈을 쳐다보는데
동훈, 더 한심하게 어찌지 못해 헤헤헤-웃는다.
둘 것 같은 선영.

#36. 식당(밤)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 동훈. 물만 마시고 있는 선영.

동훈 (진짜 생각 없어 보이게, 열심히 먹으면서, 주절주절)
야, 여기 국물 잘하네.
선영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
동훈 어... (눈치보며, 조심스럽게) 근데, 오늘, 어디 갔었어?
선영 알아서 뭐하게.
동훈 아니... 그냥.

선영, 약봉투를 꺼낸다.

동훈 무슨 약이야?
선영 (대꾸 안 하고 약 먹는)

동훈, 약봉투를 획-뺏어서 본다.
약봉투에 '소망산부인과'라고 적힌 내역.
선영, 약봉투를 획-뺏는다.

선영 (발끈) 왜 남의 것을 막 가져가!!

동훈, 선영, 서로를 보며 잠시 침묵한다.
동훈, 참았던 의심과 울분이 가득 차올라 본다.
선영 또한 지지 않고 동훈을 본다.
묘하게 세한 기싸움.

선영 오늘, 수술했어. 항생제야.

동훈 (놀람) 뭐?

선영 자궁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 크기가 커서 악성일지도 모른다고.
오늘 조직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었어.

동훈 야, 너는 그런 것 있음 말을!...

선영 (O.L) 말하면! 같이 올 수는 있었으?

동훈 (말문이 막힌)

선영 암은 아니었어. 바로 떼어냈고.

동훈,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잠깐 동안 말이 없는 두 사람.

선영 나, 할 말 있어.

동훈 (긴장) !!!!! (설마...)

선영 나... 생각해봤는데...

동훈 !!!!!!!!! 잠깐만 여보, 우리가...

선영 (O.L) 창업하려고.

동훈 (이건 뭘 소리?)

#37. 몽타주

- 검색하는 선영.

검색어가 브런치 유명한 집, 디저트 맛있는 집 등.

선영(E) 회사, 그만두고 창업 준비 했어. 원래 디저트에 관심 많았거든.

- 호텔.

각종 디저트와 브런치 메뉴를 모두 시켜놓고 먹는
선영과 진아 일행. 화려한 모양의 디저트들.
계산서를 보고, 한숨 쉬는 선영.

선영(E) 학원도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유명하다는 곳, 맛있다는 곳,
여기저기 다녀보고.

- 브런치카페.

사진을 찍고, 먹으며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한다.

선영(E)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도 안면을 터서,
재료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곳도 다 알아뒀어.

- 원룸.

택배를 받는 선영.

택배상자 속에는 베이킹 재료가 들어 있다.

원룸 내부. 펌이나 카페를 옮겨놓은 듯한 화려한 내부 인테리어.

각종 베이킹 조리기구가 가득한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이
나뉘어져 있다. 갓 만든 빵을 맛보는 선영.

다이어리에는 빼곡한 레시피.

선영(E) 처음에는 고생을 좀 했지만, 메뉴 구상도 끝났고.

원룸 한편에는, 엄청 편해 보이는 빈백소파가 있다.

각종 만화책, 소설책 등이 소박하지만, 알차게 정돈돼 있다.
빈백소파에 누워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만화책을 보다가 편하게 잠들기도 하는 선영.

선영(E) 좋았어.

#38. 식당(밤)

선영 가게 자리도 알아봤고, 자금도 준비됐어.
동훈 해.
선영 (당황) 어?
동훈 (흔쾌히) 하라고.
선영 당신, 나 장사하는 거 싫어한 거 아냐?
동훈 걱정되니까 그랬지. 피부도 약해서, 손에 물 좀만 닿아도
 병원 가잖아.
선영 (만감이 교차하는)
동훈 (당연하게, 덤덤하지만 다정하게) 당신, 잘할 거야.
선영 !!
동훈 차선영, 원래 뭐든 한번 시작하면, 잘하잖아.
 아니다 싶으면, 손 털고 나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다.
 집에 가자.

동훈, 일어서는데.
선영, 고개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다.

동훈 (선영 보고) 안 가?

선영의 어깨가 바들거리며 떨린다.
보면, 선영이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다.

동훈 (당황한) 선영아.

선영, 자신을 부르는 다정한 소리에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버린다.
영영- 서럽게 운다.

동훈, 앉아 있는 선영을 안아준다.

#39. 휴대폰 매장(밤)

최신폰을 보는 동훈.
어색한지 선영이 옆에서 멍기적거린다.

동훈 골라봐!
선영 됐어.
동훈 셋 세기 전에, 고르면 내가 요금 내준다. 하나, 둘...
선영 (둘 하자마자) (딱 집어서) 이걸로 주세요!
동훈 (피식)
선영 (민망)
동훈 이미, 정해져 있었구만 내승은. 저도 그걸로 새로 개통할게요.
 둘 다, 번호 바꿔주세요!!!
선영 번호는 왜 바꿔?
동훈 기왕 새로 하는 거 다 싹 바꾸게. 당신도 바꿔.
선영 싫은데.
동훈 그럼, 당신이 돈 내.
선영 (냉큼) 그까짓 것, 바꾸지 뭐. 어차피 싹 정리하고 싶었는데,
 잘됐네.

#40. 동네 일각(밤)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 통신사 쇼핑백을 하나씩 들고
있다. 선영의 가방에 얼핏 보이는 서류. 이혼 소장이다.

#41. 선영의 디저트 카페(낮)

자막. “6개월 후”
화려한 인테리어의 디저트 카페.
눈으로 먹기에 아까운 디저트들.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는 커플, 여자들.

동훈(N) 선영이의 디저트 카페는 대박이 났다.
인별에서 난리가 나,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나고 있다.
잘할 거라 말했는데, 이렇게 잘될 줄은 나도 몰랐다.

서빙하느라, 정신없는 선영. 잘 웃는다.

동훈(N) 계절이 바뀌었지만, 선영이는 아직,
원룸의 존재에 대해서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리면 받는다.

선영 (밝게) 어, 여보! 서울 도착했어?

#42. 공항 안(낮)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동훈.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한다.

동훈 응, 바쁘지? 바로 갈게.

선영(F)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어.

동훈 오늘 주말이잖아. 알바도 핑크냈다면.

선영(F) 나야 고맙지.

동훈 어, 바로 갈게.

동훈(N) 끝까지 말 안 해도 상관없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은 있으니까.

동훈이 걷다가 옆을 보면, 내연녀 민희가 방긋 웃고 있다.
동훈도 미소로 화답한다. 손을 꼭 붙잡고 공항을 나가는
두 사람.

#43. 에필로그

자막. “통신대란 직전”
한강 다리 중간에 서서, 강을 보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
처연하고 쓸쓸한 선영이다.

인서트.
‘오전 10시 30분까지 보호자와 동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병원 메시지.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끈질기게 울리는 벨소리.
고민하다가, 힘겹게 받는데.

선영 여보세요. 이리지 마.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사이) 나 이제 모두,
정리하고 싶어. 우리 그만 추해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눈물 훔치고, 단호하게) 다신 연락하지 마요.

전화를 끊는데. 곧 다시 울린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끊고, 전원까지 끄려고 하다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뻔한 휴대폰을 겨우 잡는다.
순간, 멍칫! 하다가 뭐에 홀린 듯, 결심을 한 듯,
휴대폰에서 두 손을 뗀다.

공중을 나는 선영의 휴대폰.

인서트.
공중을 나는 선영의 휴대폰 액정화면.
카톡! 하는 소리와 동시에, 번쩍! 하는 액정화면.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편’

그대로, 강물 속으로 직행하는 선영의 휴대폰.

뚜벅뚜벅 걸어가는 선영의 뒷모습.

인서트.

강물 속 (낮→밤)

- 낮. 강바닥에 처박혀, 반짝이는 선영의 휴대폰.
- 밤. 선영의 휴대폰 옆으로 떨어지는 동훈의 휴대폰.
- 액정이 번쩍하는 선영과 동훈의 휴대폰.
- 동시에, 전원이 꺼진다.

끝.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불륜남을 크게 혼내주고 싶기도 했고, 아내란 존재에 대해서도 깨닫기를 바랐다. 코미디에 욕심도 있었고, 통신대란이 터졌을 때의 곳곳을 보여주고도 싶었다. 드라마 스테이지 방영 작품에 선정되면서 주제는 선명하게 하고, 욕심은 덜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그 과정은 선택의 연속이었고, 쉽지 않았다. 속도감을 잃지 않으려면 장소가 적게 나와야 했고, 주인공의 감정을 따라가자니 코미디적 요소가 죽는 것 같았다. 코미디도 리얼한 상황에서 나오는 짠내로 할지, 아니면 정말 슬랩스틱적인 보자마자 웃기는 톤으로 할지도 고민이 됐다. 계속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보고 싶을까”라고 묻고 답하며 결정했다. 그래도, 빈틈은 있었고,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 서주완 감독님과 계속 상의하면서 ‘통화권 이탈’만의 재미를 잃지 않는 적절한 선과 톤을 잡으려고 했다. 유연하게 의견을 받아주셨기에,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었다. 연출적인 시선을 이해하고서 새롭게 풀리기도 했다. 촬영 전까지는 앞으로 몇 번의 수정을 더 해야 할 것 같고, 촬영고는 대본집에 실린 것보다는 훨씬 간결할 듯싶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던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졌기에 모든 과정이 정말 감사했고, 즐거웠고, 가슴 떨렸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계속해서 글을 써야겠다고, 확인하고 다짐한 시간이었다.

2019 오픈 3기/드라마 작품집

이
의
있
습
니
다
—
배
이
화

작의

이 드라마엔
아르마니 슈트를 빼입고
지적인 섹시미를 뽐내는 천재 변호사도
법복을 입은 강직하고 정의감 넘치는 검사도 없습니다.
대신 아기띠를 매고 기저귀가방을 든
평생 법원이라고는 구경도 못 했던
평범한 직장여성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있습니다.

백만 원 남짓한 막급여를 타내려다
뜻밖의 소송전에 휘말리고 만 그녀가
1년여에 걸친 재판을 통해 깨달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할 책임은
변호사도 남편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홀로 어려운 싸움을 시작한 이들과
홀로서기를 시작한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등장인물

나옥희(28세, 여) 피고
치위생사. 일없음 주말에 나와 청소나 하라는 무리한 요구조차 군말 없이 따르던 소심이. 누가 봐도 불합리한 일인데도, 그만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법한데도, 나만 참으면 된다는 신조로 그저 시키는 대로 착하게만 살아왔다. 그런 그녀의 삶이 요동치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퇴직 후, 미지급된 3주치 자투리 월급을 받아내려 진정서 한 장을 넣은 게 화근이 돼 재판에 회부되고야 만 것인데... 부당한 갑의 횡포에 맞서 참다못해 날린 선행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 줄이야. 하지만 이 모두는 전초전에 불과했으니...!

배이화
rsygb@hanmail.net

2010 ·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창작반 수료.
2019 · 드라마 <원손잡이 아내> 보조 작가.
· 경상북도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장려상 수상.

박도일(30세, 남) 옥희의 남편

대학원생. 지방 모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우울한 현재를 감내하던 중, 계획에도 없던 주니어의 등장으로 그의 라이프 플랜은 마이너스 하강 곡선을 긋기 시작한다. 그것도 모자라 마누라 앞으로 날아든 범원 소장까지!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은 어느새 뚝기저귀와 빨간 사인펜 냄새 폴폴 풍기는 폐지 집하장이 되고 말았다.

왕 원장(53세, 남) 원고

소망치과 원장.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얼마 전 개원했다. 예전에 몰랐는데 이 병원 운영이란 것이 여간한 일이 아니다. 상담 실장에 치위생사, 청소부까지 전부 자신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게 아주 번거롭기 짝이 없다. 점잖고 후덕한 인상과 달리 권위적이고 앞뒤가 다른 인물.

곽 변(38세, 남) 법률구조공단 소속 에이스 변호사

후줄근한 옷차림에 술냄새 폴폴 풍기고 다니지만 실력 하난 일품이다. 공단에서 자질구레한 사건이나 맡고 있기엔 아까운 인재. 하지만 도통 술 끊을 생각을 않는다. 저러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싶다. 소액 재판 건으로 찾아온 옥희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며 점차 가까워진다.

황 변(37세, 남) 원고 측 법적 대리인

TV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스타 변호사. 민사 소송 하나 맡아달라기에 흔쾌히 응했더니만 판돈이 고작 260만 원이란다. 그깟 푼돈 받아내겠다고 날? 우습게 보다 그만 큰코다친다.

그 외

길 여사, 홍 실장, 우 선생, 영두, 마 변, 이 변 등.

줄거리

옥희는 치과를 그만둔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월급이 들어오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130만 원을 해결하라는

경고장을 받은 왕 원장은 곧장 반격을 해온다. 옥희의 미흡한 인수인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체불액의 두 배를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눈앞이 막막해진 옥희는 먼저 남편 도일에게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덩크로 살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출산을 결심한 옥희와 사이가 틀어진 도일은 방관과 짜증으로 일관할 뿐이다. 설상가상 옥희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론 자격 조건마저 얻어내지 못한다.

하는 수 없이 나 홀로 재판 준비에 돌입하는 옥희. 그러나 곧 난항에 부딪히고 만다. 생소한 법률 용어를 읽고 해석해내는 일에서부터 임신으로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각종 증거를 취합하는 것까지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한 옥희는 유명 변호사를 내세운 왕 원장과의 대결에서 승소를 거둔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옥희의 해산 당일, 산부인과로 날아든 왕 원장의 항소장. 이번엔 상대해야 할 변호사가 무려 셋이란다. 그에 경악하는 옥희. 다 이긴 싸움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었다니. 그러나 이대로 항소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왕 원장이 쓴 변호사비에 재판 비용까지 모두 물어주어야 할 판이다.

뿐만 아니었다. 옥희는 자신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앞으로 재취업의 길이 완전히 막힐지도 모른단 이야기까지 전해듣는다. 그도 모자라 왕 원장은 먼저 그만둔 우 선생을 매수해 증인석에 세운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 질병 퇴사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 옥희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음해한다.

결국 합의부로 넘어가고 만 재판. 옥희는 거짓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왕 원장 측에 맞서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배이화

#1. 법원/정문 일각(낮)

지퍼 다 열린 커다랗고 뚱뚱한 색을 등에 지고,
먹다 만 우유병이 출렁거리는 기저귀가방을 어깨에 멘 옥희,
옆구리에 두툼한 서류봉투 끼고, 보도블록 턱에 걸린
유모차와 씨름 중이다.

옥희(N) 나 홀로 소송 전성시대!

옥희, 안 되겠는지 가방에 서류 넣고는 으라차차!
유모차 들어 올린다.

옥희 (손목시계 확인하다) 늦었어! 늦었어!

옥희, 법원 건물 향해 유모차 우다다다 밀며 호들갑스레
뛰어간다.

옥희(N) 한 해 평균 70만 건! 전체 민사 소송 가운데 무려! 80퍼센트!

그런 옥희의 컷전을 때리는 영두의 울음소리.
옥희, '어어, 알았어.' 서둘러 아기띠 둘러매더니 유모차에 누운
영두 번쩍 안아 드는데 코끝으로 구수한 향기가 맴돈다.

옥희 (설마!!) 너 똥 썼니?!

영두 (답하듯) 뿌앵!!! (울고)

#2. 항소심 법정(낮)

좌배석, 우배석과 자리한 항소심 재판장.

항소심재판장 (근엄한 목소리로) 사건번호 2019가소 287098.

황 변 네. 재판장님! (답하곤 변호석에 착석하고)

항소심재판장 원고 측 대리인은 오셨고, 피고?

원고석. 황 변호사와 나란히 앉은 왕 원장.
왕 원장,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비웃음 흘린다.

#3. 법원/복도(낮)

텅 빈 복도 위로 항소심 재판장의 음성 커다랗게 울려온다.

항소심재판장(E) 피고?! 피고?! 피고 측은 아무도 안 오셨어요?

#4. 항소심 법정(낮)

그때 와락 문 크게 열어젖히는 옥희.

옥희 (헉헉, 거칠게 호흡하다 마른침 꿀떡 삼키며) 와, 왔습니다!
재판장님!

옥희, 온몸에 땀 뻘뻘 흘린 채 아기띠를 두르고
다른 손으론 유모차 번쩍 들고서 법정 한가운데로 와 우뚝 선다.

옥희(N) 하지만 저도 침부터 혼자이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5. 달리는 마을버스 안(낮)

자막. "8개월 전"

힘없이 흔들리는 손잡이 잡고 기대서서
공냥질 중인 연인들 부럽게 바라보는 옥희.
윗니와 아랫니엔 세라믹으로 된 보철기가 끼워져 있다.
옥희, 뒷문 긴 봉으로 결혼반지 낀 왼손 옮겨 잡으며 정차벨 뽁!
누른다. 스피커에서 울려오는 낭랑한 목소리.

왕 원장(E) 안녕하세요. 소망치과 원장 왕구진입니다.
싸고 튼튼한 보철 치료를 원하십니까? 이번 역은 소망치과
역입니다.

그 위로 핸드폰 벨소리.
옥희, 낡은 천가방에서 서둘러 핸드폰 꺼낸다.
발신인 '우리 박사님'

옥희 (반갑게 전화 받는) 네, 박 박사님!

#6. 공과대학/복도(낮)

도일, 흰 가운을 걸치고 실험실 앞에 심각한 표정으로 섰다.

도일 계좌로 50만 원만 보내봐. 올 지도교수님, 빙모상 당하셨대.

#7. 교차. 마을버스 정류장+공과대학/복도(낮)

마을버스가 와서 선다.
버스 한 면엔 소망치과 광고판이 붙었다.
반짝반짝 희고 가지런하고 투명한 치아 자랑하듯
환히 웃는 왕 원장의 얼굴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광고.
버스 문 열리며 옥희, 핸드폰 붙들며 내려선다.

옥희 (못 알아듣겠다) 빙...뭘상? 그게 뭐야?

도일 (황당)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옥희 아... (기죽는다. 민망하다. 하지만 애써) 근데 오십이면...
우리 형편엔 좀 무리 아닐...까?

도일 (답답) 논문 심사가 코앞이다. 걸 말이라구.

남들은 일이백씩 하는 판에. 성의는 보여야 할 거 아냐.

옥희 (지갑 열어보는데 천 원짜리 한 장이 다다) 지지날달에 샀던
산악용 자전거. 그거 할부금도...

도일 우리 랩 사람들 다 가는데 나만 빠지리?

김 교수님 유일한 취미가 산악 자전거시다.

옥희 알았어요. 바로 부칠게요.

옥희, 한숨으로 전화 끊더니
맞은편 소망치과 건물로 들어간다.

#8. 치과/대기실(낮)

옥희, 양동이에 대걸레 힘껏 짜내어 싹싹싹 바닥 깨끗이
닦아낸다. 벽엔 왕 원장의 신문기사와 뉴스 인터뷰 사진이 든
액자들이 가득하다. 순간 왕 원장 얼굴에 날아드는 빗자루.
액자, 45도 각도로 삐딱하게 기울어진다.

옥희 (화들짝, 놀라) 어, 엄마야!

우 선생 (손 탈탈 털며) 나 선생도 적당히 해.

황금 같은 일몰에 쉬지도 못하고 겨 나와서

관절 났도록 충성 바침 왕 원장이 동상이라도 세워준대?

옥희 (왕 원장 액자 원위치. 빗자루 다시 주워 우 선생에게 건네며)

아주머니 곧 구해주신대요. 그때까지만...

우 선생 십 원짜리 바늘 하나에 바들! 바들!

위생포까지 기워 쓰게 하는 낭만이 펑이나!

(양동이 발로 우당탕 걸어차며 치과 나가면) ...

옥희 (저도 모르게 따라 나갔다. 깜짝! 되돌아와 소심하게 외친다) 우
선생님!

#9. 치과/진료실(낮)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치아에 교정 장치 붙이는 왕 원장.
홍 실장, 진료실로 손님 데리고 들어와 빈 의자에 앉힌다.
왕 원장, 마주 서서 석션 중이던 옥희를 흘끔 본다.

왕 원장 가봐.

옥희, 석션기를 왕 원장 손에 넘기고 자릴 뜨려는데
옥희의 가슴 위를 느물느물 스쳐가는 왕 원장의 음흉한 손길.
옥희 흘깃 보면, 왕 원장 모른 척 계속 하던 일 한다.

왕 원장 (환자 보며 세상 다정한) 불편한데 있으심 손 들어주세요.

#10. 치과/상담실(낮)

깨작깨작 점심밥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옥희.
속 불편한 지 가슴께 툭툭 친다.

홍 실장 (같이 도시락 먹다가) 체기 아직 안 가셨어?
옥희 점심 먹구서 약국 가보게요...

그때 노크도 없이 들어서는 왕 원장. 옥희와 홍 실장, 일어선다.

왕 원장 원장실에 물이 똑 떨어졌어, 홍 실장.
홍 실장 네. 원장님.
왕 원장 오늘은 장조림이 없네? 간간하니 맛있던데.

왕 원장, 옥희 계란말이 하나 집어 먹더니
옥희 자리 차지하고 본격적으로 옥희 도시락 먹는다.
홍 실장이 맞은 편으로 먼저 앉자,
왕 원장 옆으로 엉덩이 걸쳐 앉는 옥희.

왕 원장 남편이 지방대학서 박사과정 있겠지? 혼자 있음 외롭지 않아?
홍 실장 (부럽다는 듯 옥희 보며) 교수 싸모 되실 몸인데. 그 정돈
참아야죠. 안 그래?
옥희 (어색하게 웃고) 네...
왕 원장 (홍 실장 반찬 가져다 먹으려다 옥희 허벅지에 떨구는) 어유.
이 가까운 걸... (날름 주워 먹으면) ...
옥희 (순간 왕 원장 손길 피하려 의자 뒤로 밀며 주춤 일어서고) ...!
왕 원장 (날카롭게 반응) 왜 일어나? 밥 먹다 말고?
옥희 (필사적으로 생글생글) 다, 먹었습니다.

#11. 치과/상담실 앞(낮)

옥희, 옷에 묻은 양념 휴지로 닦으며 손수레에 빈
생수통 싣는다.

옥희(E) 오빠 논문 통과할 때까지만 참자. 참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절끔 나온 눈물, 소매 끝으로 닦고 가려는데) ...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홍 실장(V.O) 치위생사 모집 공고 오후쯤 올릴까요?
왕 원장(V.O) 뭐얼?! 그냥 뒤!
옥희 (멈칫, 보던) ?!

#12. 치과/상담실(낮)

반투명 유리문 너머로 옥희 그림자 아른아른.

왕 원장 병원 사정 어렵대든 뭐. 살짝 맹해두 애는 착하잖아.
홍 실장이 잘 구슬려봐.
홍 실장 그래두 혼자선 버거울 텐데...
왕 원장 (옥희 밥 게걸스레 입안에 떠 놓으며, 버럭) 지가 안 하고 배겨?

연봉 협상해알 거 아냐.
홍 실장 올려주시게요?
왕 원장 한 달 5만 원이면 일 년에 육십이야.
 싱싱한 미쓰도 아니고, 개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

 왕 원장, 도시락 싹 비우곤 꾀꾀대며 일어선다.
 왕 원장, 바지춤 추스르며 상담실 문 열면.
 문 앞에 선 옥희.

왕 원장 (살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안 갔어 여태?
옥희(E) (눈물 고인 채) 변태! 잔돌이!
왕 원장 (이에 낀 거 줍! 줍! 손가락으로 빼더니) 뭐 해? 후딱 물 안 떠오구?
옥희 (부르르 몸 떨다, 손수레 바닥에 떨구더니, 획 가고) …!!

#13. 골프 연습장(낮)

왕 원장, 골프채 하나 골라 들고 동료 걸으로 선다.

왕 원장 언제 한번 필드 나가야지?
동료 원장 돈 잃기 싫어 죽자 덤비는데 (도리도리) 너랑은 재미없어.
왕 원장 (스윙 크게 휘둘러 골프공 탕! 쳐서 멀리 날리면)
동료 원장 (왕 원장 어깨 너머로 반갑게 손들며) 황유국이…!

 왕 원장, 돌아보면. 황 변, 동료 원장에게 다가와 꾸벅 인사한다.

동료 원장 여긴 내 고등학교 후배.
왕 원장 실물이 더 잘생겼어. 앉으세요.

 왕 원장, 동료 원장, 황 변. 일각의 벤치에 앉았다.

왕 원장 대학 있을 때가 좋았지. 안식년에… 애들 가르치는 것도
 나름 보람 있었고, 근데 개업을 하고 보니 사람 쓰는 일부터

여간하지가 않아.
황 변 (노동청에서 보내온 공문 읽는) 이름 나옥희. 미지급된 월급 백
 삼십을 달라는 내용이네요. (공문 접으며 약간은 기분 상한 듯)
 이런 푼돈 아끼시자고, 굳이 저같이 비싼 변호살?
동료 원장 (황 변 보며) 쓰리 아웃제 알지?
왕 원장 (립글로스 꺼내 알뜰게 바르며) 특하면 그만두는 것도 모자라
 퇴직금을 안 줬네 월급을 들 받았네.
황 변 (알겠다는 듯) 근로 감사 들어가면 골 아프긴 하죠.
왕 원장 최저임금, 4대 보험. 죄 들썩서.
 심하면 세무조사까지. 세금 폭탄. 완전 뒤집어지는 거야.
황 변 웬만하면 합의하시죠?
왕 원장 고소까진 너무 품이 들지 않겠습니까?
왕 원장 고 배우지 못한 물건이 겁도 없이 날 건드렸잖은가!
 이참에 본땀 아주 제대로 보여줄 참이야.

#14. 대학 교정(낮)

누런 대봉투 손에 꼭 쥐고 벤치 일각에 선 옥희.
 실험실 가운 입은 도일, 옥희 쪽으로 급히 다가선다.

도일 이거야? (옥희의 손에서 봉투 채가면) …
옥희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응… 막달 월급 3주치 안 줬다구…
 노동청에 신고한 거 땀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
도일 (고소장 꺼내며, 애써 침착) 엄포 놓는 거야.
 겁 줘서 진정서 넣은 거 도로 무르게 하려고. 뻔한 수법이지.

 도일, 고소장 자신 있게 읽어 내린다.

도일 원고 왕구진. 피고 나옥희. (눈 동그래져) 원고 측 대리인 황유국?!
옥희 아는 사람이야?
도일 전 국민이 다 알아! 티브이만 켜다 하면 나오는 스타 변호사!
 옥희 너 그만둘 때 원장실에 부비트랩이라도 설치했어?!

옥희 (큰일난 거 같다) 오빠. 나 어, 어떡해?
 도일 (때마침 걸려오는 전화, 받고) 네 교수님!
 (곤란) 집에 일이 있어가지구요. 아닙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옥희 두고 가버리는) ...아, 과외요?
 옥희 (당황해 도일 따라가며) 나 그냥 재판 나가지 말까?
 나만 안 나가면 무효 아냐?
 도일 (전화 끊더니 옥희 돌아보며) 옥희야...!
 옥희 우리도 그 변호사라는 거 사?
 도일 너 정말!
 옥희 (두 손 모아 구해달라는 듯 애원하는) 박 박사님...!
 도일 내가 너 뒤통다꺼리 할 짬이 어딴어?! 실험에 교수님 잡무에.
 (말하다 보니 복장 터지고) 애초에 받고 나오든가!
 아님 그깟 돈 잊으라 했지!
 옥희 (애절한) 그 돈이면. 우리 석 달 치 생활비야.
 도일 (냉정하게 끊는) 나라에서 그런 일 하라고 세금 주고 고용한
 변호사들 있어. 거기나 가보든지. (다시 가면)
 옥희 (간절하게 부르며 쫓아가는) 오빠... 오빠...!

#15.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낮)

와글와글 왁자지껄 도떼기시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르르 배치된 책상 너머 변호사들에게 하소연 중인 이들.

중년남 (눈물로 호소하는)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중년녀 (분통) 그 땅 죽어두 못 쥐!

대기석에 임부복 입은 옥희.
 지친 얼굴로 부채질하며 그 모습 지켜보다
 덩동 소리에 시선 돌리는데 전자 번호판에 44 숫자 뜬다.
 옥희, 손에 쥐 번호포 확인하면 44번.

곽 변 (숙취에 폭 켜 얼굴로, 뇌까리는) 44번! 이쪽으로 오세요!

옥희, 일어나 곽 변 책상 앞으로 앉으려는데
 곽 변 주변에 넘실거리는 술냄새에 갑자기 속에서 올라온다.

옥희 우욱!!!
 곽 변 (짜증) 토할라면 나가서 하세요!
 옥희 (마른 입술에 보철기가 들러붙어, 웅얼웅얼 더 기어들어가는)
 죄, 죄송해요. 입덧이 심해가지구요...
 곽 변 (안 들리고) 예?!
 옥희 (또 나오고) 우욱! 우욱!!
 곽 변 (같이 울렁울렁) 어으,
 거기 뺨에 나도 올라올 거 같잖어요! 우욱!
 길 여사 (대기석 한구석에 앉아 있다가) 위매. 장가도 못 가보고
 노총각 귀신 되겠네. 술 좀 작작 쳐잡봐!
 곽 변 (길 여사 향해) 거참!
 길 여사 에아칸은 왜 고장나고 지랄이여!
 (꺼진 에어컨 향해 샷대질) 니들도 우리 무시허냐?
 없이 살아 쫄쫄 변호사 쓰러 왔다고?
 곽 변 들고 있는 거나 빨리 쥐봐요. 얼른!

곽 변, 옥희에게서 봉투 받아 소장 꺼내더니
 빠르게 내용 살핀다.

곽 변 뭐야 이거? 뭐 이래? 텃네! 텃어! 안 돼! 이거는!
 옥희 (어리벉벉) 트다니요?!
 직원 곽 변호사님!

사무소 직원, 서류가 잔뜩 든 분홍색 보자기
 곽 변 책상에 가져와 내려놓는다.

직원 지금 법원 들어가 보셔야 돼요.
 곽 변 시간이 벌써 글케 됐어?

곽 변, 들고 있던 고소장 옥희에게 넘긴다.

옥희 이, 이걸 왜 절?
곽 변 얘기 못 들었어요?

곽 변, 보자기 들고 일어나 사라진다.
옥희, 황당해서 쳐다보는데.
곽 변 옆자리 김 변.

김 변 오세요. 제가 대신 봐드릴게요.
옥희 네...

옥희, 자리 옮겨 가려는데
갑자기 길 여사 나타나서 고소장 확 찢는다.

길 여사 올 때까지 기다려.
김 변보단 곽 변이 훨씬 나을게.

#16. 법률구조공단 건물 전경(낮)

무성한 초록빛 나무들. 매미 소리 우렁차게 들려온다.

#17.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낮)

오후 5시. 대기석.
한숨으로 부채질 중인 옥희 곁에 앉은 길 여사.
가방에서 옥수수 꺼내서 옥희에게 건넨다.

길 여사 속 불편할수록 먹어야 디야.
옥희 (망설이다 옥수수 받아 한 알 떼어 입에 넣으면) ...
길 여사 했어? 한 거여?
옥희 밀린 월급 안 주셔서 그거 받으려구... 진정서 넣었다가요.

길 여사 샅시. 내가 소장 함 봐줘?
옥희 보실 줄 아세요?
길 여사 이래봐두 준전문가여. 재판만 꼬박 3년을 했응께.

옥희, 망설이다 길 여사에게 고소장 건넨다.
길 여사, 돈보기 꺼내 쓰더니 넘겨본다.

길 여사 일. 원고는 소망치과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여기까진 맞는가?

옥희 네...

길 여사 (술렁술렁 주르르 읽고) 이.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자 5주 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퇴직 급여의 2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네. 이거.

그만둔단 말 옳게 제대로 했어?

옥희 (자신 없고) 한 거 같아요...

곽 변 확실해요?

어느샌가 분홍 보따리 들고 와서 곁에 선 곽 변.

길 여사 아이구 오셨네.

곽 변 (옥희 뻔히 보면) ...?

옥희 (계속 기어들어가고) 해, 했는데... 했어요 저.

곽 변 잘 안 들립니다. 또박또박 상대방이 잘 들리게. 말씀해보세요!

옥희 (더는 못 참고, 울컥 울음 터지고) ... 흐음...!

길 여사 왜 사람을 울리고 그랴?!

다시 곽 변과 마주 앉은 옥희.

곽 변 일은 왜 그만둔 겁니까? 2년이면 꽤 오래 일하신 거 같은데.
계속 다니지 그랬어요?

옥희 (감정 추스르려 애쓰며) 너무 히, 힘들어서요...

곽 변 안 힘든 일도 있나? 땅을 파봐. 월급 괜히 주겠어?
 옥희 (고개 도리도리 내저으며) 저도 참을라구 참을라구...
 (다시 눈물 나온다, 울음 참으려고 해보지만 잘 안 되고)
 흐그그극... (너무 서러운) 절 자꾸... 만지구...
 길 여사 염병! 아갈창을 날려버려야지!
 곽 변 길 여사님은 그 옥하는 성질부터 고치세요! 또 뭘 일을 치실려구!
 (다시 옥희 향해) 그래서 말했단 겁니까? 안 했단 겁니까?

#18. 회상. 치과(낮)

왕 원장 등 뒤를 이리저리 졸졸 따라다니는 옥희.

옥희 워, 원장님... 일 더는 못...
 왕 원장 (옥희 눈앞에서 원장실 문 땡! 닫고 들어가고) ...
 옥희 (닫힌 문 앞에 서서) 워, 원장님?

#19. 현재.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낮)

곽 변 마알 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다?
 옥희 한 거 맞아요. 벼, 변호사님!
 곽 변 삼. 그런데 피고는 갑자기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일.방.적.
 으로 통보한 후 그 다음날부터 무단 결근 했습니다.
 옥희 아, 아니예요. 계약서대루 관두기 5주 전에 후임자 구하시라구...
 근데 못 들은 척 차일피일 미루시다...
 곽 변 증인 있어요? 치과 그만두겠단 말, 주변엔 했을 거 아니야?
 하다못해 남편!
 옥희 제가... 속으로만 삭이는 성격이라...
 곽 변 나옥희 씨.
 옥희 왕구진 원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두... 원장님은 아실 거잖아요.

곽 변, 답답하다. 맨 앞장 소장 부분 가운데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황유국] 록 찍어 가리킨다.

곽 변 아줌마. 이 사람 선임료만 얼마 줄 알아요?
 끌랑 돈 백 안 주겠다고, 황유국이들 썼다는 건.
 보통 양심 품은 게 아냐! 애 별명이 칼 안 든 강둑니다.
 옥희 (헉)!!!
 곽 변 이유가 뭐랍디까?
 옥희 제가 인수인계 영망으루 하고 나가서 입은 손해가 더 크다구요...
 곽 변 다 핑계지 무슨. 눈에 흰~히 보이네. 필시, 쓰리 아웃제
 때문이겠지.
 옥희 쓰리... 아웃제요?
 곽 변 노동청에 진정 세 번 들어가면요. 사방팔방으로 죄 털려요.
 왕 원장 이 돈 제대로 안 준 사람 한둘였겠어요?
 옥희 (놀라) 그럼 전 어떡해요?
 곽 변 나 같음 이백육십. 오타 던져주고 말지. 재판 안 합니다.
 미친개한테 물렸거니 잊으세요. 정신 건강엔 그 편이 나!

#20. 집/거실(낮)

음료수 쟁반 품에 안고 흥 실장과 마주 앉은 멧한 얼굴의 옥희.

흥 실장 (목 타는지 주스 한 모금 들이켜곤) 어으 살 것 같다.
 (컵 내려놓더니)
 내가 요새 왕 원장 짜증에 울화통이 터져서 맨 찬 걸 달고 살어.
 옥희 실장님겐 정말 죄송해요.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흥 실장 있지 나 선생.
 옥희 (보면) ...?
 흥 실장 널쭌 치과 들러보는 건 어때?
 옥희 치과엘요?
 흥 실장 솔직히 왕 원장만 소송 취하하면 끝 아냐?

#21. 치과/원장실(낮)

왕 원장과 마주 앉은 옥희. 흥 실장도 왕 원장 곁에 앉았다.

왕 원장 흥 실장 말론 뒤늦게나마 사죄드리고 싶다 했다면서?
옥희 (침 듣는 소리다, 어리둥절해 흥 실장 쳐다보며) …제가요?!!
흥 실장 전 상담 예약 건이 있어서.
(옥희에게 잘해보란 눈짓하고는 나가고)

왕 원장 알다시피 난 약속을 아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옥희 (아무 말도 못 하고 당황해 앉았는데) …
왕 원장 교정에 드는 기간이 최소 1, 2년인데.
올 때마다 직원 얼굴 바뀌면 환자분들께서
어찌 우리 치과를 믿고 내원하실 수 있겠느냐.
해서 내 면접 당시, 오래 일하실 분으로 원한다 했었죠.
옥희 네…
왕 원장 나 선생님도 그런 내 취지에 십분 공감해, 3년 근무 약정서에
서명했던 거고. 틀린 거 있으면 말해봐요.
옥희 없습니다…
왕 원장 헌데 계약 어긴 것도 모자라. 이 엄혹한 시기에!
베풀어준 은혜도 저버리고 말이야.
이런 배은망덕이 어딴나?

옥희를 향해 막말 쏟아내고는 느긋하게 차 마시는 왕 원장.

옥희 (더는 못 참겠다, 용기 짜내어) 도리 어기신 건…
원장님이시잖아요…

옥희의 말대답에 찻잔 내려놓더니, 미간 찌푸리고 보는 왕 원장.

옥희 주세요. 원장님이 떼먹으신 제 월급.
왕 원장 거, 어디서 바라바라!
옥희 (놀라 고개 움찔 숙이면) …
왕 원장 내 그 애긴 했습니다. 치과는 엑스레이 사용이 많다.

교정 하려면 파노라마 촬영은 필수에, 납복을 입기는 하지만
임산부는 기형아 출산 등 위험 요소가 농후하니
애초에 결혼한 분은 잘 안 뽑는다!
옥희 (두려움으로 왕 원장 쳐다보면) …!
왕 원장 했더니 뭐라 했습니까? 우리 부부 덩크다!
아이 낳을 계획 없다!

#22. 산부인과/진료실(낮)

걱정 가득한 얼굴로 의사와 상담하는 옥희.

의사 양수 검사상 큰 이상 소견은 없어 보이네요.
옥희 (여전한 불안으로) 선생님… 저희 콩이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침상 곁. 의사, 화면에 눈 고정하고서 옥희의 배를 초음파
기기로 롤링한다.

의사 심장 뛰는 소리 들리시죠?
옥희 (꼭 참았던 눈물 흘러내리며) …들려요.

#23. 김 교수 집/공부방(밤)

수학 문제집 펼쳐놓고 중학생 남자아이와 나란히 앉은 도일.

도일 (문제 문항 위에 별표 치며) 요런 건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이야.
먼저 방정식에 대입해서…

지잉 지잉 울리는 핸드폰. 도일, 발신인 나옥희 확인하곤
꺼버린다.

도일 (아이 향해 미소) 자, 다시 풀어볼까?

#24. 포장마차(밤)

홀로 소주잔 기울이는 광 변.
노가리 입에 무는데 핸드폰 올린다.

광 변 (받더니) 누구냐?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 다 주고.

옥희(F) 나... 옥희예요.

광 변 누구? 옥희?

옥희(F) 낮에 법륜구조공단에서 뵈었어요.

광 변 아놔. 나도 프라이버시란 게 있어요! 업무시간 아닐 땐,
인간적으로 전화하고 그러지 맙시다.

광 변, 테이블에 폰 던지고 소주 일 잔 더 들이켜는데.
광 변 뒤편으로 포장마차 주황천 헤치며 홀연히 나타나는 옥희.
머리 풀어헤친 채, 두 손에 폰 꼭 쥐고서 광 변 등 뒤에 섰다.

옥희 (흐느끼는) 변호사님... 변호사님... 살려주세요. 흑흑흑...

광 변 (등에 서늘한 한기. 돌아보다 플라스틱 의자 쓰러뜨리며 눕더니)
악!!! 아아악!!!! (비명 지르다 옥희 알아보고, 버럭)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

#25. 길거리 공원 벤치(밤)

광 변과 나란히 앉은 옥희. 옥희, 노트북을 켜.

광 변 (성의 없이 빠르게) 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옥희 (따라 치다) 좀만 천천히 말씀해주시겠어요?

광 변 나 있는 댐 대체 어떻게 안 겁니까?

옥희 제가 눈치는 좀 있는 편이라...

광 변 눈치란 게 있는 사람이 이 밤에 어? 어?!

옥희 평소에 양치 잘 안 하는 걸로 봐서 게으른 사람.

치아 상태로 봐선 술도 자주.

광 변 커힘.

옥희 홀애비 냄새도 좀...

광 변 거참내.

옥희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긴 싫을 테구.

사무실 근처에서 간단하게 혼술하기 좋은 댐 어딜까?

광 변 (제법이다 싶고) 디테일에 강하네. 돛자리 펴도 되겠어.

옥희 (배시시) 이.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은요?

광 변 인터넷 치면 다 나와.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나 홀로 소송 탁 치면!

옥희 (울먹울먹) ...

광 변 어차피 변론 못해줘요. 농어업인이야?

영세담배소매인? 한부모가족? 다 해당사항 아니잖아.

옥희 도와주십 안 돼요?

인서트.

핸드폰으로 게시판 댓글 확인 중인 옥희.

'왕구진 원장을 고발합니다' 밑으로 주르르 달렸다.

옥희 이런 거 실명으로 까면 고소각?!

옥희, 허거덕 놀라서 나옥희 이름으로 쓴 글,
바로 삭제해버린다.

옥희(E) 인터넷 게시판에도 글 올려봤는데요. 잘못했단 명예 훼손으로
걸려서 더 덤탱이 쓴대요.

다시 현재. 눈물 콧물 흘리며 엉엉 우는 옥희.

옥희 방송국에두 제보했어요.

근데 막내작가님이 애엄마가 일하다 돈 쪼끔 뜯기구,

주물주물 이런 건 꺼리두 안 된다구. 킬 당했대요. 왜 나 버려!

지나던 사람들 배 불러서 앙앙 우는 옥희와 광 변
번갈아 쳐다본다.

광 변 (손사래 치며) 아냐. 이 애 나 아녀요. (버럭) 아니라니깐!

#26. 어느 건물 앞(낮)

병원 건물 1층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옥희.

옥희 (수첩 펼치고는 좋은치과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다음엔 튼튼치과.

옥희, 가방에 수첩 넣고는 기분 업! 되어 걸어나간다.

#27. 대학 교정 일각(낮)

연구원들이 담배도 피우고,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는 공간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
커피 마시는 도일.

동료1 김 교수님 사모. 부동산 갭투자로 으마하게 뺏기셨다네?
3천 투자해서 무려 20억!

동료2 대박!

도일 (입맛 쓴데) ...

동료3 (다가와) 도일야. 김 교수님 사업 따낸 거 근로계약서 쓰러 오렌다.

도일 돌았냐? 장학금 홀랑 다 날아가.

학자금 대출 받은 건 또 어쩔 건데?

동료3 야. 언제까지 김 교수 무급 비서 노릇 할 순 없잖냐.

그러니까 우릴 더 우습게 보는 거 아냐.

도일 쏘심이 밥 먹여주냐?

동료3, 한숨으로 가면. 쓸개 썩은 표정으로 읊조리는 도일.

도일 치과엘 괜히 가설랑은...

과거. 인서트. 치과.

석션 소리, 드릴 소리 요란한 가운데 신경 치료를
받고 있는 도일.

도일 (잔뜩 겁에 질려 손 바르르 떠는데) ...

치위생사 옥희, 도일의 손을 살포시 잡더니 도닥여준다.

옥희 이제 아픈 거 다 끝나셨어요.

옥희의 상냥한 미소를 보는 도일의 두 눈에 핑크빛 하트가
떠오른다.

다시 현재. 도일 폰으로 옥희의 톱 들어온다. 귀찮은지 대충 톱
확인하는 도일.

옥희(E) 여보. 나 방금 면접 봤는데 오래.

도일, 손에 든 커피잔 내려놓더니 답 문자 대강 넣어준다.

도일(E) 그런 얘기 없었잖아.

옥희(E) 나 놀고먹은 거 아냐. 이력서 다섯 통씩 매일 따박 넣었거든?

도일(E) 멀어?

옥희(E) 지하철로 20분. 여자 원장님이시구 출산휴가도 주시겠대.

도일 잘했네. (무표정으로 마음에도 없는 하트 날리고) ...

옥희(E) 박사님 좋아하는 소고기 사놀 테니까 이번 주말엔 꼭 올라와요.

#28. 마트(낮)

정육코너 앞. 옥희, 들뜬 얼굴로 소고기 한 팩 카트에 담아간다.

#29. 큰세상치과/원장실(낮)

옥희, 여자 원장 앞에 마주 앉았다.

여자 원장 (돈봉투 내밀며) 차비조로 조금 더 챙겨드렸어요.
 옥희 그래두 하루 만에 나가라는 건...
 여자 원장 곧 아이 태어날 거구. 그럼 또 새 사람 뽑아야 하구...
 생각해보니 번거로워서요.
 옥희 아이 문젠... 원장님도 여자시니까...
 여자 원장 여자 대 여자가 아니라, 계약서 상의 갑과 을로서 말하는 겁니다.
 옥희 (놀라 보면) ...?!
 여자 원장 사인할 때 나옥희 씨도 동의한 거 아닌가요?
 수습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해고 가능합니다. 라는 조항?
 옥희 (쿵)!!!

#30. 치과/원장실(낮)

왕 원장과 함께 앉은 여자 원장.
홍 실장, 둘 앞에 찻잔 천천히 놓아주고 있다.

여자 원장 지역 협회장님 거스른 사람, 제가 쓸 이유가 없죠.
 왕 원장 복용 노동분지 거기도 참 문제가 많아. 표준계약서니 뭐니
 하자 있는 물건 반품을 맘 편히 할 수 있나.
 홍 실장 복용 아니구, 고용 노동부...
 왕 원장 어허! 길 데 안 길 데 구분 못 해?

홍 실장, 찻쟁반 들고 조용히 뒷걸음쳐 나간다.

#31. 집/주방(낮)

옥희, 커피포트 가져와 굳은 표정의 도일의 컵에 따라준다.

옥희 꿈해 있지 말구, 해요. 할 말 있잖아.
 도일 (참으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짜증나고) 그러게 니가 조심 좀
 했었어야지. 까놓고 애만 아녘음 일 그만둘 일도 없었을 거 아냐.
 옥희 오빠...!
 도일 어떻게 4개월 다 되도록 모를 수가 있냐?
 옥희 나 원래 생리 불순이잖아.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 붓고,
 밥 제때 못 챙겨 먹어 속 더부룩하고 그런 줄로만...
 도일 (일어나 옥희의 두 손 꼭 잡더니) 옥희야.
 아인 우리 처지에 사치야...!
 우리 인생에 아인 없다. 단단히 다짐하고 시작한 결혼 아녘어?
 솔직히 나한테 이런 뜬금포가 없어요.
 옥희 (울컥한) 우리 콩이 말은 못해도 다 알아들어.
 도일 콩이?
 옥희 태명이야. 내가 지었어.
 도일 얼씨구.
 옥희 논문 땀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지만.
 우리 콩이한테만은 그러지 말아줘. (울먹) 아빠잖아.
 도일 좋아. 어디 니 맘대로 해봐!

나가더니 현관문 쿵 닫고 가버리는 도일.
옥희, 속상함에 눈물 핑 돈다.
그 위로 덩동 소리.

곽 변(E) 10번!

#32.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낮)

곽 변, 옥희에게 답변서 내민다.

곽 변 잘 쓰셨네.
 이대로 내심 되겠어.

옥희 귀찮아서 대충 막 보신 거 아니시죠?
곽 변 우체국은 요 건물 나가서 왼편으로 짝 돌면 보여요.
그거 제출하면 90프로는 다 하신 거야.
다 됐죠? 얼른 가.

옥희 왜 계속 저 보내려고 하세요?
곽 변 상담 건수 채우려고 위에서 하도 쪼아대서 그런다.
왜요?

옥희, 개의치 않고 곽 변 앞에 작은 음료 한 병 놓아준다.

옥희 드세요. 숙취 해소제예요. 술 끊으시면 더 좋구요.
곽 변 이런 거 막 주면 나 잡혀가요.
나 이래뵈두 나랏일 하는 사람야. (다시 옥희 쪽으로 미는데)
길 여사 (옥희 뒤에서 나타나며) 김영란이 법 뺨에 그랴?
옥희 (반갑게 활짝 미소) 할머니!
길 여사 내 주서 들은 바로는 이 마실 거슨 말여. 가액 범위가
삼만 원 밑으루는 개안디야! 성의 봐서라두 꿀떡 넘겨.
곽 변 (다시 음료 가져가 옥희 보며 한입에 드링크) 우리 다신 보지
맙시다.
길 여사 우리 곽 변. 응원두 참 요상스레 하셔.
(곽 변 보며 따라 하라는 듯) 팔팅!
곽 변 팔... 아, 가셔요 쯤! 마실 다니실 데 많잖어. 왜 꼭 일루 와?!
길 여사 내 맴이여요! 말리지덜 마러!

#33. 우체국(낮)

옥희, 대봉투에 준비한 서류들 밀어 넣는다.

옥희 송달료랑 인지대 납부 영수증도 같이 넣구.

말한 것들 넣고는, 풀로 꼼꼼히 붙여 봉인하는 옥희.

옥희 (창구로 가 서류 내밀며) 법원에 빠른 등기로 보내주세요.

#34. 313호 법정 앞(낮)

만삭의 몸으로 313호로 걸어오는 옥희.
게시판에 붙은 재판 일정표를 확인하고 전화 건다.

옥희 박사님. 어디쯤 왔어요? 왜? 또 교수님께서?
(실망으로) 하는 수 없지. 응.
(전화 끊더니 심호흡하고, 긴장 어린 얼굴로 법정 들어가면) ...

#35. 313호 법정(낮)

자막. “민사 소액 1심”
서류가방을 들고 급히 법정으로 들어서는 황 변.
피고석에 선 옥희를 스쳐 앞쪽 사이드 변호사석에 앉는다.
황 변의 얼굴을 알아보고 수군거리는 방청객들.

방청객1 저 사람 황유국 아니야?

옥희 (역시 의식되는데) ...

1심 단독판사 (황 변 보며) 시간 없으니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옥희 보며) 앉으셔도 됩니다.

옥희 (눈치보다 앉는) 네... 판사님.

1심 단독판사 피고 측 답변서를 보니 계약서에서는
없었던 야간 진료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황 변 아, 야간 진료요? (기억 안 나는지 침 발라 서류 넘기고) ...

1심 단독판사 별개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추가 근무를 강요한 데 대해 반발한
동료 치위생사가 피고보다 앞서 해당 치과를 그만둔 사실도 있죠?

#36. 교차. 집/거실+대학/실험실(낮)

옥희와 도일, 또 통화 중이다.

옥희 왜 월급의 두 배를 내놓으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까?
혹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데 대한 앙갚음입니까?! 판사님이 꼭
내 변호사님 같았다니까.

도일 그랬어?

옥희 (웃다 말고) 반응이 미지근하네? 꼭 남의 일 듣듯이.
당신은 안 기뻐?

도일 미안해서 그러지. 바빠서 재판에도 못 가보고.

옥희 알긴 아는구나? 그래서 집엔 언제 와? 몇 시 도착?

도일 이제 나가야지. (일어나 가운 벗는데) ...

옥희 잠깐만 있어봐. 나 문자 들어왔다. (핸드폰 내려보곤)
꼭 변호사님한테서 왔네?

도일 꼭 변호사?

옥희 응. 법률구조공단에 계신 분인데 결과 알아보고 메시지
주신됐거든.
(문자 확인하고는 눈 휘둥그레져) 원고 꽤소 판결이래!
내가 이겼어...! (그러다 진통 왔는지 배 감싸며) 야!!
왜 이러지? 예정일 며칠 남았는데?

도일 콜택시부터 불러. 난 병원으로 바로 갈게.
(전화 끊고 실험실 급히 나가려는데)

동료3 (실험실 문 열리며) 도일아!

도일 (멈칫 보면) ...?!

#37. 산부인과/분만실(밤)

고통으로 비명 지르던 옥희, 의료진의 응원을 받아
최후의 힘을 짜낸다.

옥희 아아아...악...!!
아이(E) (우렁찬 울음소리)

#38. 산부인과/입원실(밤)

홀로 침대에 누운 옥희. 도일, 술냄새 풍기며 들어선다.

도일 나 왔어.

옥희 (눈 감은 채 반응 없고) ...

도일 교수님 집안 행사라 빠지기 힘들었어.

옥희 (여전히 말 없는데) ...

도일 짜잔!

등 뒤에 숨겨온 장미꽃 세 송이를 옥희에게 건네는 도일.

옥희 (홀긋 보더니) 이 밤에 장민 어디서 난 거야?

도일 오는 길에 팔길래. (옥희 침대에 장미 놓아주는) 당신 한 송이.
콩이 한 송이. 그리고 당신은 한 송이 더.

옥희 (그제야 마음 풀린 듯, 장미 들어 꽃향기 맡는데) ...

도일 참. 널 아버지 올라오신다.

옥희 며칠이나 계실 거래?

도일 산후조리원 들어가기 전까진 계시겠지.

옥희 집 엉망일 거야. 갑자기 병원 오는 통에 못 치웠어.

도일 내가 가서 청소 깨끗이 해놓을 테니까 맘 폭 놔.

#39. 변호사 사무실(낮)

마 변과 이 변을 불러 대책 회의 중인 황 변.

마 변 나옥희 씨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떼어보니까
소망치과 퇴직한 후에 한 달도 안 돼 또 취업을 했더라구요.

이 변 세 블록 떨어진 하얀이치관데요.
거기서도 열흘만 근무하고 관뒀답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시면, 현 근무지에서 2킬로미터 내에는...
취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지.

좋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몰고 가보자고.

#40. 치과/원장실(낮)

왕 원장, 황 변에게서 받은 항소심 서류 대충 훑어보곤 던진다.

왕 원장 사람 사이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사기꾼 같은
사람이다...? 해서 기망의 죄를 묻겠다. 일리 있구만.

황 변 왜, 더 안 보시구요?

왕 원장 설마 항소심까지 물 먹일 일이야 만들겠어?
망신살은 한 번이면 족해.

#41. 산부인과/입원실(낮)

미역국 떠서 옥희 입에 넣어주는 길 여사.

길 여사 아, 혀.

옥희 (받아먹으면) ...

길 여사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시면 손주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 거야.

옥희 (갑자기 울컥하는데) ...

와락 문 세계 열어젖히며 병실로 들이닥치는 도일.

옥희 (반갑고) 오빠!

길 여사 저 사람이 박 서방인가 보네. 나는, 이 삭시랑은...

도일, 길 여사 무시하고 옥희에게 우편물 뭉치 들이민다.

도일 받아! 니 꺼야.

옥희 (우편물 받아 펴보더니 놀라 다시 도일 보면) ...?!!

도일 차마 못 읽겠어? (가져가더니)

위 사건에 대해 원고는 원판결에 불복이므로
다음 장 기재와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황유국, 변호사 마준성, 변호사 이경민!

길 여사 시방 뵈이 어치케 된 거여? 풀난 그 돈 땀시 항소꺼정 건 거여?
변호살 셋씩이나 사서?

옥희 (완전히 낮이 나갔고) ...

#42. 산부인과/1층 로비(밤)

곽 변, 급히 들어서면. 길 여사 곽 변에게 다가오더니
어둔 복도에 홀로 앉아 있는 옥희 가리킨다.

길 여사 잘 다독여줘. 난 저녁 장사 있어서 가봐야 디여. (가고) ...

곽 변 (조용히 옥희 곁에 앉으면) ...

옥희 나쁜 새끼.

곽 변 (놀라고) ...!!

옥희 일한 만큼 받겠다는 게 왜 나빠?

곽 변 나오후 씨.

옥희 근데 왜 법은...

(곽 변 보며, 울컥) 왜 법은...!

나같이 힘없는 사람 편은 안 들어주는데요?!

곽 변 (고개 떨구고) ...

옥희 누가 봐도 왕구진 원장 잘못이잖아요!

왜 내가 고통당해야 하는 거냐구요! 왜요!

곽 변, 흐느끼는 옥희 옆에서 계속 함께 있어준다.

곽 변 (속상하고) 찌을 것들...!

#43. 산부인과/신생아실 앞(낮)

커튼이 열리면서 조산원에게 안겨 하나씩 나오는 신생아들.

유리창 너머 손목에 ‘콩이’ 이름을 단 아이를 보며 멍하니 선 옥희.

옥희 콩이야. 엄마 그냥 다 관둬 버릴까?

 목청이 터져라 우는 콩이.
 옥희, 눈물 줄줄줄줄 끝없이 흘러내린다.

옥희 포기하지 마?

 울다 말고 옥희를 향해 방긋 웃는 콩이.
 눈물로 얼룩진 옥희, 웃음 터진다.

#44. 거리(아침)

선글라스를 끼고 아기띠를 맨 광 변.
그 곁에 역시 선글라스 낀 옥희가 다가와 선다.

광 변 갑시다. 꼬우!
옥희 (따라가며) 근데 이 선글라스 꼭 써야 돼요?
광 변 우리 둘 관계 소문이라도 나봐.
옥희 우, 우리가 뭘 어쨌게요?
광 변 아줌마 같은 사람들 죄 들러붙음
 밤낮 안 가리고 전화질해서 도와달라 들들들들. 나도 살아야지.
옥희 어려운 분들 도우려고 법률공단에서 일하시는 거 아녘어요?
광 변 씩! 나옥희 씨가 나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구.
옥희 길 여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여사님 억울한 일 가뻔하게 해결해주셨다면서요.
 근데 맨날 술만 마시고, 쓰러질까 봐 걱정돼 오신다구.
 또 저 같은 애엄마들만 보면 유달리 뽐족해선...
광 변 나랑 얽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옥희 네?

광 변 (선글라스 확 벗고는 품의 영두 옥희에게 다시 안겨주는)
 난 이 시간부로 빠집니다. 증인 혼자 만날 수 있죠?

광 변, 자기 몸에서 아기띠 풀러 옥희에게 채워주려는데 옥희 허리에 띠 두르고 어깨끈 올려 버클 채워주며 꼭 옥희를 안는 모양새가 된다.

옥희 (어색한) 제, 제가 할게요.
광 변 가만있어 봐요.

그런데 트위스트처럼 엉망으로 꼬여버린 아기띠.

광 변 왜 자꾸 꼬이나 또. (다시 풀어 채우려는데)
옥희 저 다 알아요. 변호사님 꽤 팬찮은 분이시란 거.
광 변 (멈칫) ...! 거, 쓸데없는 소리. (서둘러 버클 채운다)
옥희 (보면) ...?!
광 변 난 나옥희 씨 믿습니다.

광 변, 옥희의 어깨 조심스레 감싸 응원해주고는 간다.

#45. 아파트 입구(아침)

딸랑이 흔드는 영두 안고 아파트 정문에서 서성이던 옥희.
출근 준비하고 나오는 우 선생 앞으로 선다.

우 선생 찾아오지 말랬잖아. 이런다고 내 맘 안 바껴.
옥희 제발 이번 한 번만요.
우 선생 (옥희 두고 가버리고) ...

옥희, ‘우 선생님!’ 부르며 쫓아가는데.
멀리서 그 모습 걱정으로 지켜보고 선 광 변.

#46. 치과 앞/복도(낮)

치과에서 물양동이 들고 나오는 홍 실장.

홍 실장 (투덜투덜) 더러워서. 확 때려치든가 해야지, 증말.

옥희, 홍 실장 앞으로 아끼며 매고 나타난다.

홍 실장 나 선생?!

#47. 카페(낮)

홍 실장과 마주 앉은 옥희.

홍 실장 가. 나 선생 만난 거 알면 나한테까지 불똥 튀어.

홍 실장, 서러는데 옥희 다급히 홍 실장 잡아 세운다.

옥희 (촉촉하고 가련한 눈빛 발사) 홍 실장님!

홍 실장 내 코가 석자야. (가려는데) ...
아기띠에 안겨 까르륵 웃는 영두. 홍 실장, 표정 누그러진다.

홍 실장 (영두에게서 눈길 못 떼며 보다, 옥희 향해) 내가 졌다.

홍 실장, 아예 영두를 품에 안았다.

홍 실장 (영두 향해 재롱 떠는) 우르르르 까꿍.

영두 (까르륵 웃고) ...

홍 실장 (혀 짧은 소리로) 아웅 좋아. 그래쪄요?

옥희 부탁드릴게요. 홍 실장님도 치과 그만두실 거라면서요.
범원 나오셔서 저희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홍 실장 나 선생은 이쪽 일 계속하고 싶은 생각 없나 봐?

옥희 저 할 건데요. 지금도 이력서 꾸준히...

홍 실장 (주변 살피다 소리 낮춰) 혹시 불성실 직원 명단이라고 들어봤어?
나 선생 취업길 막힌 거 다 그거 때문이잖아...!

옥희 (충격인데)!!!

#48. 치과 건물 앞(밤)

옥희, 고개 들어 소망치과 간판 노려본다.

그 위로 우르르 콰광! 내리치는 벼락.

옥희 (이 악물며) 용서 못 해...!

#49. 몽타주

- 어둔 밤. 거세게 내리치는 비.

- 창 너머로 클래식 틀어놓고 지휘 중인 왕 원장.

- 옥희, 대걸레 양손에 들고 치과로 가 물양동이에 아무지게 뺀다.

- 음악 클라이맥스로 흐르고 있다.

- 원장실 문 활짝 열리면서 들어서는 옥희. 양동이 구정물 왕 원장 향해 확 끼얹는다.

- 자지러지며 괴로워하는 왕 원장.

- 경찰서 유치장. 양손에 수갑 채워져 들어서는 옥희.

곽 변(E) 헤헤이! 건 안 되지.

#50.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낮)

곽 변과 마주 앉은 옥희.

옥희 맘 같아선 똥물이라도 뿌려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곽 변 똥물 뿌림 속이야 선하겠지만.

곧바로 은팔찌 차고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거야. 그럼 애는요?
옥희 (그제야 정신 들고) 맞다. 우리 영두…!
곽 변 나옥희 씨 남편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옥희 (당황) 그건 왜 물으시는데요.
곽 변 마누라 혼자 어떻게든 재판 한번 이겨볼라고
쟁고쟁을 하는데. 전화 한 통을 먼저 하는 법이 없어?
옥희 (할 말 없고) …
곽 변 나 홀로 재판이 유행이라지만은 말이 쉽지.
법전 뒤져가며 답변서 쓰고 일일이 증거 찾아대는 거…
나옥희 씨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없었나?
옥희 저도 싸우는 거 싫어해요.
괴로워도 참는 게… 싸우는 것보단 쉬웠으니까.
근데 더는 못하겠어요. 저도 맞고소할래요.
곽 변 복수심? 너도 한번 엿 먹어봐라?
옥희 더는 비겁하기 싫어서요.
우리 영두한테 부끄러운 엄마 되긴 더 싫어요.
곽 변 (놀란 표정으로 보다) 증인도 다 발 빼는 지경인데 뭘 어찌려구요?
옥희 없음 만들어야죠. (각오로) 무슨 수를 쓰든 나, 이 싸움
이겨야겠어요!

#51. 치과/대기실(낮)

소파에 줄줄이 앉아 있는 환자들.
옥희, 문 열며 들이닥친다.

옥희 안에 왕 원장님 계시죠?
홍 실장 (놀라 진료실로 가려는 옥희 막아서며) 왜 이래? 손님들 계시는데.
가다 말고 갑자기 무릎을 꿇는 옥희.
옥희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왕 원장 (마스크 내리며 진료실에서 나오는) 무슨 소란이에요?
옥희 하지만 저희 왕구진 원장님께서
못나디못난 저와는 180도 다른 분이세요.
십 원짜리 일회용 바늘 하날, 차마 버리지 못해
쓰고 또 쓰시는 자연 사랑, 나라 사랑이 특출나신 분이시거든요.

사람들, 옥희의 말에 놀라 웅성인다.

홍 실장 (수습에 나서는) 나 선생! 일어나.
옥희 (홍 실장 손에 몸 일으키지며)
인류에는 또 어찌나 흘러넘치시는지.
제 몸에 장기들이 잘 붙어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안부를
몰어주세요. 헤이 엉덩아.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살짝 쳐졌네?

여고객 (왕 원장 향해, 격앙) 저런 씨발라 먹을!
왕 원장 (홍 실장 물리더니 옥희 곁으로 가 낮은 목소리로 험박)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만 손해야. 나 너 잘되겐 못 해도,
한 방에 보내는 건 너무 쉬운 사람야.
옥희 나도 그런 거 할 줄 아는데? 원장님도 방금 보셨잖아요.
왕 원장 (놀라 주변 보면) …?

사람들,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 중이다.
왕 원장, 놀라 얼른 얼굴 가리지만 소용없다.

#52. 달리는 마을버스 안(낮)

옥희. 뭉가를 보며 웃음 겨우 참고 있다.
뒷문 위 치과 광고판. 왕 원장의 하얀 치아에 검은 매직이
칠해져 있다. 옥희, 더는 못 참고 가지런한 치아 보이며 환히
웃음 터뜨린다.

#53. 법원/복도(낮)

분홍 보따리 든 광 변.

#51의 왕 원장 동영상 보며 피식 웃는데
누군가를 찾듯 주변 두리번대던 옥희,
광 변 발견하곤 반갑게 뛰어간다.

옥희 광 변호사님!
광 변 (걸음 멈춰 옥희 보다) 오늘은 안 보이네요?
옥희 아, 뻘어요. 보철기. (씨익 자신 있는 미소로) 변호사님도 보셨죠?!
왕 원장 굴욕 동영상! 백만 뷰 돌파!

옥희, 광 변에게 하이파이브 하자는 듯 손 들면.
광 변, 안 내키지만 손바닥 낮게 든다. 옥희, 찰싹 신나게
치는데. 그때 옆 법정에서 나오다 두 사람 모습 발견하고
멈칫 서는 황 변.

황 변 (광 변을 보다 가웃) 광...재민 선배...?

#54. 법원/1층 로비(낮)

함께 걸어 나오는 옥희와 광 변.

옥희 (조금은 가라앉아) 근데 마음이에요...
되게 후련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광 변 왜 또 그러세요? 오락가락. 사람 무섭게.
옥희 왕 원장님 망한다고 해서 제 인생 원위치 되진 않잖아요.
광 변 (보면) ...?
옥희 저, 치위생사. 영영 못할지도 몰라요. 블랙리스트라니...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랑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광 변 (썩쓸하고) 말했잖습니까. 재판이란 게 전쟁이에요, 전쟁.
최대한 안 다치게. 흥 안 지게. 끝나길 바래야지.

(걸음 멈추더니) 난 또 재판 있어서 올라가 봐야 돼.
옥희 제가 또 시간을 뺏었네요. 가세요. 변호사님.

옥희, 허리 숙여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주고 가버리는 광 변.
옥희, 그 모습 바라보다 힘없이 걸음 떼어 로비 나서려는데.

광 변(V.O) 정 갈 데 없음 나랑 일 해보든가요!
옥희 (뒤돌아보면) ...?!
광 변 나 이참에 법률구조공단 때려치고, 사무실 하나 차려보려고요!
옥희 갑자기 왜요...?
광 변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좀 많아. 할래요? 말래요?

#55. 법원/정문 앞(낮)

옥희, 생각에 잠겨 법원 나서려는데 황 변이 다가선다.

황 변 나옥희 씨?!
옥희 (멈칫 물러서며) 황... 유국 변호사...?
황 변 (비릿한 얼굴로) 혹시 살인마 변호사라고 들어봤어요?
옥희 ?!!

#56. 집/거실(낮)

조그만 상에 노트북 펴고 인터넷 검색하는 옥희.
살인마 변호사라고 치고 엔터키 누르니
광 변의 얼굴이 눈만 가려져 인터넷 뉴스에 뜬다.
기사 제목은 <두 모녀를 죽음으로 내몬 변호사에게 쓴
마지막 편지, 전격공개>
<살인마 변호사, 유명 로펌의 스타 변호사로 밝혀져 충격>

옥희 (덜덜덜 충격으로 보다가, 핸드폰 겨우 찾아 들고는) 선우 엄마,

우리 영두 몇 시간만 더 봐줄 수 있어?

#57. 법률구조공단 건물 앞(밤)

곽 변, 퇴근해 나오는데 옥희가 다가선다.

옥희 (손에 들고 있던 신문기사, 곽 변에게 건네고) …!
 곽 변 (받아보곤 놀라 충격으로)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요?
 옥희 (눈물 고여 노려보며) 두 모녀 사건, 사실이에요…?
 곽 변 (기사 구깃 손에 쥐고는) 따라와요. (먼저 가려는데)
 옥희 (막아서며) 이 일 땀에 이름 바꾸고 신분 세탁까지 했냐구요?
 곽 변 (대꾸 없고) …
 옥희 대답해요…!

곽 변에게서 아무런 답이 없자.
 옥희, 곽 변 손에서 기사 빼앗아 내용 읽는다.

옥희 곽재민 변호사, 당신이 날 죽인 거야.
 뱃속에 있는 내 아이도 같이…!
 곽 변 그래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날 찾아온 그 여자.
 내가… 내 손으로 내쳤습니다.
 옥희 (사실이구나) !!!
 곽 변 잘나가던 변호사였던 그때의 난.
 가난한 의뢰인의 돈 안 되는 사건 따윈 말고 싶지 않았으니까.
 옥희 (눈물 고여) 그래서, 그래서였어요…?
 곽 변 나옥희 씨… (간절히 다가서는데)
 옥희 싫어…! 오지 말아요…! (주춤 뒤로 물러서다 뛰어가버리고) …

#58. 길 여사 야식집(밤)

강술 마시는 곽 변. 길 여사, 안주 접시 척 놓아준다.

길 여사 속 다 굶히것어.
 곽 변 (무시하고 한 병 더 따려는데) …

길 여사, 숙취 해소제 한 병도 탁! 놓아준다.

길 여사 정 처먹고 싶음, 이거나 먹고 마시든가.
 곽 변 뭘니까?
 길 여사 애기 엄마가 없는 살림에 두 박스나 맡기고 갔어.
 곽 변 오면 주랴.

길 여사, 못마땅해 자릴 뜨면. 곽 변, 옥희에게 문자 보낸다.

곽 변(E) 조심해요 옥희 씨.
 황유국 변호사 당신 이기려고 무슨 수든 다 쓸 겁니다.

#59. 집/안방(밤)

침대에서 잠든 영두를 가만히 보는 옥희.
 영두가 잠에서 깨어 쟁얼대자 도닥도닥 자장가 불러주는데
 곽 변에게서 문자 들어온다.
 내용 확인도 않고 지워버리는 옥희.
 그 위로 현관문 띠링 열리는 소리.

#60. 집/거실(밤)

베란다엔 아직 건지 않은 빨래들.
 서류가방 들고 거실로 들어서는 도일,
 발치에 걸리는 똥기저귀를 걸어찬다.

안방 문 열리며 어둔 방에서 빈 젓병 들고 나오는 옥희.

옥희 (도일 스쳐 주방으로) 요즘은 올 때마다 술이네.
도일 김 교수님 학과장 선거 또 떨어지셨잖아. 위로해드려야지.
집은 왜 또 이수라장이야?
쉬러 들어온 사람 앉을 자리도 없이.
옥희 (싱크대에 서서) 내일 항소심 서면 제출 마감이라 준비할 게 많았어.
도일 (비아냥) 뺨대기는. 법전 좀 들춰봤다 이거냐?
옥희 (젓병 물에 담그곤) 영두 깨. 입 다물어.
도일 야. 나옥희!
옥희 (거실에 선 도일 손 끌어 주방으로) 내가 손 놓으면? 그땐?
그쪽 변호사비까지 전부 우리 쪽에서 물어줘야 하잖아.
네임드 변호사라며. 거기에 돌이 더 붙었는데 수입료만 천이 넘겠지.
도일 난 기회가 있었다고 본다. 이 수령에서 벗어날.
실장 주선으로 원장하고 만났던 그날. 털고 나왔어야 했어!
옥희 (보면) ...!
도일 눈 딱 감고 한 번만 꺾여주지 그랬어. 그럼 이런 개삽질은 안 했어도 됐잖아. 끝난 자존심이 뭐라고!
옥희 함부로 말하지 마!
도일 치사하고 아니꼬운 적, 나라고 없었는 줄 알아?! 그래도 옆드릴 땐 바짝 옆드려주는 게 현명한 거야. 우리 목숨줄 쥐고 있는 인간들. 비위짱 상하게 해봤자 좋을 게 뭐 있어? 너 뭘로 벌어먹고 살래?

방문 너머로 영두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옥희 비켜. (도일 밀어내고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고) ...

똥기저귀와 뚜껑 사라진 빨간 사인펜, 종이를 종량제봉투에 쑤셔 담고는 꼼꼼하게 바닥 닦아내다 화딱지 나 걸레 던져버리는 도일.

도일 아오!!

#61. 도서관(낮)

아기띠를 맨 채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옥희.
서가에서 지도책 한 권을 뽑는데 잠에서 깬 영두가 운다.

#62. 도서관/화장실(낮)

화장실 칸에 들어간 옥희, 옷걸이를 풀어헤쳐 영두에게 젓을 먹인다.

옥희(E) 저에게 기망의 죄를 묻는 항소인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63. 도서관/복사실(낮)

복사기 앞. 유리판 위에 지도책을 펼쳐 엮고는
곤하게 잠든 영두가 깰세라 조심스레 버튼을 누르는 옥희.

옥희(E) 제가 다시 일을 하게 된 건 한 달간 쉬면서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흘 뒤에 임신 사실을 알고, 이를
하얀이치과 원장님께 알리자 해고됐습니다.

#64. 집/주방(낮)

옥희, 복사해온 지도 식탁에 펴고,
빨간색 펜으로 신중하게 긋는다.

옥희(E) 또한 소망치과에서 하얀이치과의 거리는 2킬로미터가 아니라
2.2킬로미터입니다. 하얀이치과는 임플란트 전문 병원으로
교정 전문인 소망치과 주고객층과 겹치지 않습니다.

#65. 항소심 법정(낮)

자막. “항소 변론 기일”

#4에 이어 영두의 유모차 곁에 둔 채 피고석에 앉은 옥희.

옥희 항소인의 주장과 달리 전 그 어떤 계약 조항도 어긴 적 없습니다!

황 변 임신할 일 절대 없다면서 아일 가진 게 기망이 아니면 뭘니까?
그거 불법행위예요! 사기! 임신 계획 있었다면 침부터 뽑지도!

자신의 가방을 뒤져 핸드폰 꺼내는 옥희.

옥희 이와 관련해서 추가 증거물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법원 정리, 옥희에게서 폰을 받아서 재판장에게 건네준다.
배석 관사 돌과 동영상 확인하는 항소 재판장.

#66. 과거. 검진 센터/사무실(낮)

거치대에 핸드폰을 끼우는 옥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다.

옥희 (마주 앉은 센터 직원에게) 현재, 채용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인
명인병원 건강검진과에서 일하고 계시죠?

임신이 입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센터 직원 그렇지 않습니다.

#67. 현재. 항소심 법정(낮)

옥희 (계속 이어가는) 보셨듯. 임신은 고용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임신은 전염병이 아니니까요.

황 변 (한 방 세계 먹었다, 눈 깜빡이며) 그, 그건…!

항소심재판장 항소인 측에서는 추가로 내실 입증 자료 없으십니까?

황 변 (불편한 표정으로 곁에 앉은 왕 원장과 눈빛 나누곤) 피항소인
진술이 허위임을 밝힐 증인을 신청코자 합니다.

옥희 (예상 못 했다) 증인…? (당황해 뒤돌아보면) …?

그때, 이 변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서는 우 선생.

옥희 (놀라) 우 선생님…?!!

증인석에 앉은 우 선생. 황 변, 우 선생에게 다가선다.

황 변 피항소인과는 약 1년간 같이 일하셨죠?

우 선생 네.

황 변 당시 근무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우 선생 불성실한 편이었습니다.

옥희 (충격으로 보면) …!

황 변 구체적인 일화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우 선생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자주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옥희 (안절부절 지켜보다, 더는 못 참고 자리에 서는) 아닙니다.
초과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장병을 얻어 약국 두어 번
간 게 다예요…

항소심재판장 피항소인!

법원 정리(옥희의 어깨 잡아 자리에 앉히고) …

황 변 (우 선생 향해) 계속하시죠.

우 선생 또, 몇 달 전쯤 대뜸 전환 해서는 치과를 또 그만두고
싶다면서. 소망치과에서도 계약을 다 못 채워서 퇴직금 대신
실업 급여 받는 걸루 합의 봤는데 이번엔 어떻게 안 되겠느냐구…

옥희 제가 언제요, 우 선생님?!

항소심재판장 (옥희에게 경고하는) 다시 소란 피우시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우 선생 (옥희 눈치 보다) 그래서… 임신하면 질병 퇴사 처리되니까…
실업 급여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구…

황 변 질병 퇴사? 임신으로요?

옥희 (덜덜덜 손 떨린다. 눈물 그렇게 우 선생 보는데) …

우 선생 네. (옥희 시선 애써 외면하며) ...임신.
황 변 (마 변에게서 서류 받아 재판석으로 간다) 하안이치과를
관둔 뒤, 피항소인이 직접 신청한 실업 급여 관련 서류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퇴직 사유는 임신으로 인한 질병
퇴사입니다.

웅성거리는 방청석 사람들.
옥희의 편이었던 분위기가 반전됐다.

항소심재판장 (서류 받아 확인하고는) 증인은 그만 일어나서도 좋습니다.

증인석에서 일어나는 우 선생.
눈물로 보는 옥희를 외면한 채 재판정을 나선다.

황 변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항소인의 말과 행동엔 이처럼 진실성이란
것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으며. (옥희의 옆, 영두 유모차 가리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린 생명까지 이용하는 파렴치함에
불과합니다!

옥희 (참담함에 고개 떨구는데) ...

#68. 교차. 법원/마당+대학/실험실 앞(낮)

법원 건물을 나서는 옥희,
근처 나무 벤치로 가더니 털썩 주저앉는다.
그때 도일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옥희, 받는다.

도일 문자 계속 씹네. 집에 두고 간 내 논문 자료는?
옥희 재판 결과 안 궁금해?
도일 (속상) 목소리 들으니까 다 알겠는데 뭘. 그러게 좀 잘하지!

핸드폰 툭 떨구는 옥희. 눈물도 전부 말라버렸다.
그런 옥희의 귀로 들려오는 광 변의 목소리.

광 변 괜찮아요...?
옥희 변호사님도 내가 거짓말쟁이로 보여요?
광 변 거짓말은 내가 했죠. 위선자 주제에 사람 좋은 척 연기나 하구.
옥희 (눈물로 빨개진 눈으로 고개 숙인 채) ...동정이라면 관두세요.
광 변 동정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하고 근사한 여자야.
옥희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구요?
광 변 봐요 나.
옥희 (고개 들어 광 변 보며) ...?!

광 변. 평소와는 다른 멀끔하고 잘생긴 모습이다.
지저분한 수염도 안 보인다.

광 변 (따뜻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동자로 옥희 바라보며)
보여요? 당신이 날 얼마나 변하게 했는지...?
옥희 (눈물 고여 광 변 바라보고) ...

#69. 과거. 길 여사 야식집(밤)

광 변, 오지 않는 문자에 술잔 더 기울이는데
핸드폰 문자 알림음.
광 변, 서둘러 폰 들어 확인하면 옥희에게서 왔다.

옥희(E) 변호사님 탓 아니에요. 나쁜 맘먹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보내진 않았을 거잖아요. 변호사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말 믿어도 돼. 변호사님 나 믿는다면서요.

참아보려 두 무릎 손으로 째 쥐어보지만.
결국 눈물 떨구고 마는 광 변.

#70. 집/주방(아침)

옥희, 사골국 퍼서 도일 앞에 놓아준다.

도일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옥희 마지막 합의부 재판만 남았어.
 먹고 더 먹어요. 한 숟 가득 끓여놨으니까.
 도일 (한 입 더 먹으려다 멈칫) 한 숟? ...왜?!
 옥희 오늘 오후에 논문 심사됐죠?
 도일 어? (잠시 당황한 듯 보다, 국 먹으며) 그게... 일정이 늦춰졌어.
 옥희 그럼 지금부터 집?
 도일 학교 또 가봐야 돼.

#71. 대학/김 교수 연구실(아침)

도일을 앞에 세워두고 실험 자료지 훑어보는 김 교수.

김 교수 반차?
 도일 와이프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김 교수 애 태어나던 날에도 나 대신 우리 막내 유치원 계주 뛰었던 사람이 무슨? 오후에 있을 학술 세미나 준비나 잘 해.
 도일 세미나 강욱이가 대신 해주기로...
 김 교수 그 애긴 더 이상 꺼내지 마.
 도일 (망설이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인사하곤 급히 나가버리고)

#72. 합의부 법정(낮)

자막. “합의부 법정”
 황 변을 배석하고 앉은 왕 원장. 그 곁으로 옥희가 홀로 앉았다.

왕 원장 (합의부 판사 보며, 억울해하는) 저 악독한 여자 때문에, 병원 문까지 닫게 생겼습니다!
 합의부 판사 이 자린 화해를 위한 자리예요. 불필요한 언사는 삼가해주세요.
 왕 원장 (분을 못 참고 영영 울며) 제가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판사님.
 합의부 판사 피항소인도 항소인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 텐데요.

옥희 (차가운 표정으로 별 반응 없고) ...
 합의부 판사 다툼이란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만으로 성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과문과 함께 100만 원의 위로금 건네는 선에서 마무리하시죠.
 옥희 아뇨. 합의 못 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은밀히 돌려본 행위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녹음기 들어 플레이 버튼 누르는 옥희.

우 선생(E) 나라고 그러고 싶었겠어? 왕 원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까지 이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해주겠다잖아.
 옥희(E) 험박당하신 거예요? 우 선생님도 명단에 올리겠다고?
 우 선생(E) 나 선생이 더 잘 알 거 아냐.
 왕 원장 그치가 얼마나 악독하고 치졸하고 뒤끝 긴 인간인지.
 옥희 (결연한 표정으로 녹음기 스톱 버튼 누르며)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증인을 매수해 죄 없는 절 무고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한 왕 원장입니다.
 왕 원장 (벌떡 서서) 저, 저거 다 무효야! 상대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다가!
 황 변 (역시 일어나) 또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음성권은 헌법 10조 1문에 보장된 권리로...
 옥희 (자리에 서며) 2019년 12월 현재.
 민사 소송 중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을 적용.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판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형사 소송은 몰라두요. 아닌가요, 판사님?
 황 변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합의부 판사 물론입니다.
 옥희, 왕 원장 (긴장으로 판사 보며)!!!
 합의부 판사 녹음자에게 정당한 목적이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입니다.
 (옥희 보며) 증거 채택하겠습니다.
 옥희 (앉으며 예스! 소리 없이 기뻐하고) ...

#73. 합의부 법정 앞/복도(낮)

법원 정리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오는 왕 원장.

합의부 판사(E) 원고 왕구진은, 피고 나옥희에게 미지급한 월급 130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일천만 원을 함께 지급하라.

왕 원장 (악을 쓰며 끌려가다) 저런 똥아이를 봤나!!

뒤이어 법정을 나서는 옥희. 왕 원장을 승리의 미소로 보는데.

도일 (일각에 있다 다가와) 블랙리스트 재판?! 합의만 하면 다 끝난다며?

옥희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도일을 둔 채 걸어가면) ...

도일 (따르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던져진 공을 받는 일과 공을 던지는 건 차원이 달라. 니가 저들의 잘못을 법리률 대어 꼬집을 수 있겠어?

옥희 할 수 있어.

도일 어떻게? 변호사라도 쓸 참이야?

옥희 (복도 가운데서 걸음 멈추며) 나 홀로 소송할 거야.

도일 세상이 우스워? 이번에 한번 이겼다고 또 이길 수 있을 거 같애? 넌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들이 널 얹잡아봤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어 겨우 이긴 거라고. 다음번엔 절대 쉽지 않아.

옥희 난 한 번도 쉬웠던 적 없어.

도일 이 짓거릴 또 하겠다고? 이거 이혼감이야! 알아?!

옥희 (핸드백에서 이혼 서류 꺼내 도일 눈앞에 짹 펼쳐 보이며) 이혼 및 위자료 조정 신청서. 학교로 보낼까 했는데 잘됐네.

서류 곱게 접어 도일의 손에 쥐여주고는 먼저 걸음 떼어가는 옥희. 도일, 넋을 놓고 섰다가 퍼뜩 옥희를 급히 쫓는다.

도일 영두...! 영둔 어딴어?!

옥희 뒤늦게 권리 주장해봤자 소용없어. 처음부터 아이 태어나는 거 원치 않았다는 거. 양육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단 증거. 다 모아놨어.

도일 너 백수야. 주제에 누굴 데려가? 판사가 허락할 거 같애?

옥희, 도일에게 명함 한 장 건네더니.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 버튼 누르고 선다.

도일 (명함 보더니 놀라) 신세기 로펌 사무장 나옥희?! (채킷 주머니에 넣어온 괄 변의 신문기사 프린트물 옥희 향해 던지며) 그 변호사 새끼랑 진짜 눈이라도 맞은 거냐?!

옥희 힘들어서 그랬겠거니... 실수했거니...

이해해보려 애썼던 내가 바보였어.

도일 실순 니가 했지!! 넌 늘 그래. 늘 틀려.

옥희 오빠 그게 문제야. 자긴 항상 옳다는 착각.

도일 너만 힘들어? 난 김 교수한테 내 박사 논문 다 뺏기고도...!

옥희 그 말도 안 되는 인내심. 더 이상 강요하지 마.

엘리베이터 도착했다. 도일 두고서 혼자 올라타는 옥희.

도일 (당황) 오, 옥희 너너너 이럴 거야? 재판도 삼세 번은 받게 해준다며?!

옥희 세 번? 내 마음속에선 삼백 번도 더 했어. 잘 가. (버튼 누르면) ...

달리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토동통통! 데구르르르! 굴러 나오는 옥희의 결혼반지.

도일 (충격과 허탈함으로 보면) ...!

#74. 에필로그

- 유모차 밀고 신세기 로펌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옥희.

- 책상에 개업 화분 놓던 괘 변과 떡집시 들고 있던 길 여사 반갑게 맞아준다.
- 사무실 일각. 정장 차림의 옥희가 치위생사들과 블랙리스트 소송 상담 중이다.
- 서류가방 들고 법원 향해 나아가는 옥희의 자신만만한 미소에서 엔딩.

끝.

작가 후기
(이의 있습니다 - 배이화)

당신작은 의미는 있지만 재미 면에서 부족하단 평이 많았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소재를 설명적이고 긴 대사로 풀고 캐릭터도 다소 밋밋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방향은 선명한 캐릭터, 쉽고 친근한 이야기로 잡았습니다. 제목도 달라진 방향성에 맞추어 바꾸었습니다. 초고에는 생략했던 주인공의 동기부여를 위한 신들도 추가했습니다. 어설픈데 봉합했던 결말부도 고쳤습니다. 책에는 그 최종 버전을 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지일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과의 면담은 두려웠지만! 앞으로 작가 생활에 값진 자양분을 얻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서 스토리텔러의 자질을 알아봐주시고 이 엄청난 기회를 주신 오픈 관계자 분들과 장양호 감독님, 박정준 피디님. 그리고 멘토 이남규 작가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글동무 열시의 작가들과 오현후 작가님도요. 영원한 내 편 엄마 장효순 님과 가족들에게도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2019 오픈 3기/드라마 작품집

바이바이해리 — 박정아

작의

영화 <매트릭스>에서 키아누 리브스는 선택했다.
달콤한 거짓과 끔찍한 진실, 둘 중에서 후자를.
그래서? 그는 행복해졌을까?
그 선택을 후회하진 않았을까?

모른 척 눈감아주고 싶은 거짓말쟁이도 있고,
입에 담아서 안 되는 진실도 있다고, 나는 믿는다.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끔찍한 고통을 매일 반복 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썼다.

아! 그런데, 키아누 리브스가 먹은 알약 색깔이 뭐였더라…?

등장인물

송기주(남, 31)

혼술, 혼밥을 즐기는 택배업체 계약직. 늘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이여폰을 꺾고 누군가와 통화할 때만 자신만만하다.
혜영이라는 오래된 연인과 최근 대판 싸웠다. 첫사랑 해리를 아직 못 잊었다.

어린 기주(남, 11)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량에 사는 할머니 댁에 내려가 살았다.
반장 상필과 양숙. 유일하게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전학생 해리.

해리(여, 11)

기주의 유일한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전학생.
어쩐 일인지 동창들은 해리의 이름도, 존재도 기억하지 못한다.
오직 기주만 빼고.

장상필(남, 31)

기주의 초등학교 동창. 어린 시절 기주의 양숙.
현재 초랑경찰서 근무 중. 해리의 행방을 찾는 기주의 조력자.

어린 상필(남, 11)

서울에서 전학 온 기주와 해리를 괴롭혔다. 대치승의 자식.
중대거리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뺄 돈다.

할매(여, 80/60)

기주의 친할머니. 불같은 성격이지만 기주에 대해서만은 한없이 너그럽다.
임종 직전,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는 손자 기주를 초랑으로 불러들인다.

그 외

동창생 2·3·4, 당숙 등.

줄거리

우연찮게 초등학교 동창들과 만난 기주(31)는 같은 반이었던 '해리'의 안부를 묻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녀의 이름은 물론, 그 존재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20년 전,

어린 기주는 초랑에 있는 할머니 집에 맡겨져 초등학교를 다녔다.
부모와 떨어져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해야 했던 기주.
그러던 어느 날, 해리라는 여자애가 전학 오면서
기주의 단짝친구이자 어린 연인이 된다.
시냇물처럼 맑았던 아이, 해리. …아, 그다음엔 어떻게 됐더라…

현재,

기주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초랑을 방문한다.
거기서 해리를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 나타난다.

바로 병상에 누워 오늘내일하는 기주의 할머니.
결국 할머니의 장례식 때문에 초랑시에 며칠 더 머물게 된 기주는,
상필의 도움으로 해리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20년 전 그때의 기억도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20년 전,

기주의 어린 연인이 된 해리는 학교 보건실에서, 하룻길에서, 개천가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았다.
그러나 진부한 영화 스토리처럼 뻔한 거짓말.
그래도 기주는 끄덕끄덕, 믿는 척해준다.
시냇물처럼 맑았던 아이, 그래서 거짓말조차 속이 훤히 들여다보였던 해리.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해리가 사라진다.

다시 현재,

할머니의 장례식 무렵, 기주는 해리와 닮은 여자애를 발견하고,
해리의 딸이라는 걸 직감한다.
그리고 결국 사라졌던 해리를 찾게 되는데…

기주가 할머니 집에 내려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동창생들이 해리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20년 만에 만난 해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바이바이 해리 박정아

#1. 회상. 프롤로그. 초등학교 교실

우르르 몰려가는 아이들 따라가면 4학년 3반 교실 뒤편.
야리야리한 몸집의 기주는 이미 여기저기 얻어터진 상태.
대치 중인 상대는 어른 덩치만 한 상필.
전세는 이미 기울어진 것 같은데,

순간 '으아아악' 괴성 지르기 시작하는 기주,
투우장 황소처럼 머리부터 디밀며 돌진한다.
병쩡 상필 '이기 돌았나...?' 하며 기주를 대차게 갈긴다.
그 기세에 공중으로 휙 날아가 철퍼덕 내동댕이쳐지는 기주.
큰대자로 뺨은 채 헉헉,
그러다 갑자기 미친놈처럼 배시시 웃는 기주,
시선 따라가면 의자에 앉아 내려다보던 해리와 딱,
눈이 마주친다.

해리 너...나 보여?
어린 기주 (헉헉, 끄덕끄덕)
해리 (배시시) 다행이다... 투명인간 아니라서...

아래위 마주 보며 배시시 웃는 해리와 기주,
그 순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의
공간은 무중력 상태.
여기에 타이틀.

“바이바이 해리”

#2. 유흥가 골목(밤)

얼큰하게 취해가는 유흥가 술집.
홍청망청 취객들의 소음이 거리까지 흘러나온다.

#3. 술집(밤)

삼사오오 떠드는 탁자들 사이, 기주의 테이블.
반쯤 남은 소주잔 털어 넣는 기주, 귀에는 유선 이어폰 꽂은 채
반대편 앉은 누군가를 향해, 얘기 중이다. (카메라 정면 향해)

기주 ...매트릭스 알지? 영화.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거...
거기서, 빨간 약이랑 파란 약 중에 고르라고 그러잖아.
(빈 잔에 술 따르며) 너라면, 어떡할래?
달콤한 거짓? 아니면 끔찍한 진실...?
(소주잔 마시려다 멈칫... 잠시 생각)
근데... 키아누 리브스가 먹은 알약이 무슨 색깔이었지...?
취객1(E) (혀 꼬부라진) 어이 거기!
그래 니! 알약인지 가루약인지...

돌아보는 기주,
거나하게 무르익은 술판에 30대 중반 남자들 네 명
(초등학교 동창생들)
그중 제일 맛 간 취객1(상필), 오만상 찌푸리며
기주를 노려본다.

취객2 (취객1을 말리며) 아! 쯔! 아이라카이.
취객1(상필) 아. ...맞는데... (가웃) 아... 아인가...
취객3 죄송합니다. 아가 술이 쯔 돼서...
취객1(상필) (잡은 손 뿌리치며) 아, 와 이라는데? 뇌라... 아프다.
취객2 볼륨 쯔 줄이라. 니 취했다.

취객들. 취객1(상필) 말리며 한편으론 기주 향해 신경 쓰지 말고 드시라는 제스처.
 이때, “아 쫌 노라고!” 하며 벌떡 일어나는 취객1(상필), 그 바람에 의자 좌당 엎어지고.

상필 (살짝 빨쭈) 아씨… 내 물 좀 빼고 올라올라꼬…

밖으로 향하던 상필, 휘청하면서 기주의 테이블 짚으며 엎어지고 그 바람에 덜컹, 기우똥해진 기주의 테이블, 술잔과 안주 엎어지고.

상필 아아… 소리소리… (비틀비틀 나가버리는)
 기주 (뒤통수에 대고 혼잣말) 술 좀 곱게 처먹지 씨…

엎어져서 엉망이 된 안주와 술잔. 아… 짜증난다.

#4. 유흥가 골목(밤)

딸랑딸랑 종소리, 가게 문 열리며 나오는 기주.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 핸드폰으로 전화 거는데 수신인은 ‘혜영.’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포기. 핸드폰 문자앱 여는 기주.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들만 주르륵.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주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뭘 알고 싶은데?’
 그 뒤에 ‘대답 좀 해라 제(발) …’ 쓰는데.

빡! 누군가 뒤에서 기주의 뒤통수를 넘다 갈긴다.
 돌아보면 방금 전 화장실 갔던 아까 그 새끼, 상필이다.
 상필, 기주 보더니 세상 해맑은 미소 지으며 한 번 더 빡!
 어이상실과 빡침으로 벌게지는 기주의 얼굴.

기주 (버럭) 아씨, 또.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지금!

상필 (실실) 내가 오줌을 딱 누고 있는데, 갑자기 뻑! 오는 기라.
 (기주 코앞에 얼굴 디밀며) 니… 내 모르겠나?
 기주 (부글부글) 알죠. 아까 시비 거셨던 그 새끼 아니세요?
 상필 (실실) 야, 니! 기주 맞제? 초량초등학교 4학년 3반 송기주.
 …내다, 내! 느그 반 반장! 상필이!
 기주 (!!) 장상표(필) … (아씨, 망했다)

#5. 맥줏집 (밤)

2천 리터짜리 맥주 피쳐 놓인 테이블.
 위하여! 건배하며 신나서 떠드는 상필과 동창들,
 그 틈새에 낀 기주는 도살장 끌려온…

상필 (기주에게) 희한한 새끼네. 우째 기억을 못하지?
 서른 명도 아이고, 마흔 명도 아이고, 팔랑 스무 명인데.
 동창3 야, 그기 벌써 언제 적 일이고…
 동창2 니는? 니는 다 기억나나?
 상필 (씨익) 말이라카나. 내 쪽 함 읊어보까?
 (목청 ㅎㅎ) 자 간다!
 1번 강만재, 2번 공한수, 3번 남진명이, 4번…
 기주 (단호) 스물한 명!
 상필 뭐?
 기주 스물한 명이었다구, 우리 반.
 상필 (피식) 뭘 소리고, 스무 명 맞…(는데)
 기주 전학 온 애.
 상필 (?) …아아… 이 빙시야, 그기 니잖아?
 기주 나 말고, 2학기 때 전학 온 여자에…
 동창들 (서로 눈빛 교환, 가우똥, 도리도리)
 기주 (이것들이 장난하나 싶은데) 해리!
 상필 해리…?
 동창2 아~ 있잖아. 학주 딸래미.
 동창3 야이 문디야, 가는 해란이고.

이때 화장실 다녀온 동창4에게 물리는 시선들.

상필 야, 니 해리라꼬, 아나?
동창4 (앉자마자 젓가락 드는) 뭐? 해리 뭐? 먹는 기가? (헤벌쭙)
동창3 마, 니는 줌 고마 처묵고.
동창2 니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 있으까?

크큭 웃는 동창들.
못마땅한 기색 숨기듯, 맥주잔으로 손 뺀는 기주. 쪽 들이켜는.

해리(E) 그런 때가 와도, 너는 나를 기억해줄래?

인서트.
- 개울가, 무릎에 턱 괴고 앉은 해리(11살, 숏컷트 머리의 이쁘장한 여자애) 맞은편 앉은 누군가(어린 기주)를 향해 미소.
- 해리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모른 척해도?' (어린 기주 끄덕)
- 한 번 더, 온 세상을 밝히듯 환하게 빛나는 해리의 미소.

기주(E) 그런 말 들어봤지? 망각은 신의 축복이다...

#6. 아파트 출입구

아파트 현관에 주차된 택배 차량.
택배회사 유니폼 입은 기주, 짐칸에 올라가 박스 분류 중이다.
귀에 이어폰 꽂은 채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기주 ...나두 심정적으로는 그 말에 동의해.
생각해봐봐. 어릴 때 처맞았던 기억이나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졌던 그 순간,
엄마 뱃속에서 처음 세상으로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그 기억이 매일, 계속,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머릿속에 있다고 쳐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짐칸 정리 마친 기주, 바닥으로 훌쩍 뛰어내린 후, 이어지는...

기주 땡! 뇌가 터져버리는 거지.
무게가 1.4킬로밖에 안 된대. 뇌가...
이 쪼끄만 게 안 터지고 버틸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버틸 수 있는 건 다 버리는 거지.
필요 없는 기억은 자동 삭제. 필요한 건 반복 재생.
컴퓨터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원리가.
뭐, 일종의 복원 버튼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왜, 최면 걸어서 기억을 불러오거나 그런...!

누군가 툭 치자, 입 다무는 기주.
배달 마치고 밀차 끌고 온 후배다.

후배 하아... 형님임, 또 애인이랑 전화질이세요?
(밉지 않게) 작작 좀 합시다. 작작. 부러워서 내가 살겠냐고.
기주 (밀차에 짐 챙기며) 있어. 이걸 내가 갔다 오께.
후배 (밀차 뺏으며) 아 됐네요. 하던 거(통화)나 마저 하셔.
(밀차 밀고 멀어지며) 으으 축다. 시동이나 좀 걸어놓든가...

화물칸 단단히 잠그는 기주,
차 앞쪽으로 가서 운전석 올라타고 시동 켜는데,
운전석 앞 유리창 너머, 초딩들 한 패거리 까불대며 우르르
몰려간다.

기주 해리를 어떻게 싸그리 기억을 못 해? 무슨 청문회야!
...그래, 뭐, 맞은 놈은 기억해도, 때린 놈은 보통... 까먹지.

#7. 회상. 복도/4학년 3반 교실 (#1과 연결)

복도, 우르르 몰려가는 아이들 따라가면
복도에 서서 얘기 중이던 담임과 흰 가운 차림의 보건실 쌤.

얘기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교실 안, 가방 싸는 해리,
해리의 필통을 확 낚아채는 상필. 안 뺏기려고 꼭 잡는 해리.
상필 “쫘 보자... 쫘 보자꼬” 하면서,
실랑이 끝에 바닥에 떨어져 박살 나는 필통. 와장창,

어린 상필 와? 풀랑 필통 좀 보자카는데... 그래 싫나?
내 손에 똥 묻었나?

해리 (외면)

어린 상필 꺾구멍이 막혔나? ...아~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다, 이기가?

해리 ...

어린 상필 아! 아~ 알았다. 사투리라서 몬 알아듣나? 그라몬 서울말로 하까?
(억지 서울말) 안녕? 나는 상필이라고 해! 너는 이름이 무엇이니?

반 애들, 까르르, 책상 탕탕 치며 웃는

어린 상필 (뻥친) 와~ 야 보래이. 첫날부터 췌게 나오네...
와? 대답하기 싫나? 말 시키지 마까?

해리 (눈에서 레이저)

어린 상필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싶은)

하! 좋다. 그래. 니 소원대로 해주께.
인자부터 야한테 아무도 말 시키지 마라.
내 눈에 똥다가는 각 죽이뻘다.
말도 시키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라.
인자부터 차는 투명인간이다!

상필의 기세에, 정적이 감도는 교실.
시커먼 아이들 틈에 이물질처럼 앉아 있는 해리.
고개 푹 숙인 채 투명인간처럼.
그때, 정적을 깨는 드르륵, 의자 끌리는 소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이, 어린 기주다.

어린 기주, 떨어진 필통 주워 해리 책상 위에 돌려놓은 후
상필을 의도적으로 퍽! 치고 지나간다.
방심하고 있다가 철퍼덕 엉덩방아 찻는 상필.

어린 상필 니... 니 지금! (일어나며)

하아~ 새끼, 니, 감당할 수 있겠나?

어린 기주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노려보는)

어린 상필 눈까리 티나오겠다. ...눈 안 까나...?

오케이! 노선 정했다 이기지? 좋다. 니 소원대로 해주께.

퍽! 퍽! 퍽! 일방적으로 얻어터지는 기주.

승부는 불 보듯 뻔한 상황.

그런데 잠시 후 “으아아악” 괴성 지르는 기주,

투우장 황소처럼 머리부터 디밀며 돌진한다.

병쩍 상필 대차게 갈기면, 기주 공중으로 휙 날아가 철퍼덕.

교실 바닥에 큰대자로 기주. 헉헉.

투명인간처럼 바닥만 내려다보던 해리의 시선과 딱, 마주친다.
어색한 미소.

해리 너... 내가 보여?

기주 (헉헉, 끄덕끄덕)

해리 (배시시) 다행이다. 투명인간 아니네...

마주 보며 배시시 웃는 해리와 기주.

기주(E)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더라?

#8. 동네마트/밤거리/아파트 현관

기주, 마트에서 와인 고르며 이어폰 너머 누군가와 통화 중인...
마트 나와 거리 걷고,
아파트 현관 도착할 때까지 이어지는 통화.

기주 이상하게 그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
 그때 하두 처맞아서 잠깐 돌았었나?
 아니면 기절해서 꿈을 꾸 건가...
 근데, 그러다가, 혹시 해리가 스스로 종적을 감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연쇄 살인범처럼,
 자기 흔적을 말끔하게 지우고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거지.
 그때, 그랬거든. 자기는 사라질 거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원히 아무도 모(르게) ...!

아줌마(E) 아! 탈 거예요? 말 거예요?

기주, 정신 차려보면,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이다.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 누른 채 기다리던 아줌마.
 짜증으로 오만상. 기주, 이어폰 가리키며 ‘통화 중’이라는
 제스처 하는데 그 순간 요란하게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당황한 기주 핸드폰 꺼내자 연결 안 된 이어폰 잭이 특!
 그네처럼 흔들린다.
 미친놈인가, 싶어 공포에 질린 아줌마, 닫힘 버튼 마구 누르고,
 텅, 기주의 코앞에서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기주, 핸드폰 보면 발신인 ‘초량요양병원’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받지 않는다.

#9. 혜영의 아파트

딩동딩동, 초인종 누르는 기주.
 한 손에는 와인 등이 담긴 마트 비닐봉지.
 탕탕탕, 현관문 두드리며

기주 혜영아~ 혜영아, 문 열어.
 (탕탕탕) 혜영아.

후우~ 깊은숨 토해내는 기주,
 혜영의 핸드폰으로 전화 걸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전화 끊고 현관 문 키패드 막 누르려는데, 띠링~ 문자 알림음.
 혜영인가 싶어 다급히 핸드폰 집어 확인해보면,
 ‘할머니 위독. 급내원 바람 - 초량요양병원-’

#10. 주행 중인 기차/객실

깜깜한 어둠 뚫고 터널을 막 빠져나오는 기차 객실 내부.
 마주 보는 4인석 중 창가 구석 자리에 앉은 기주.
 나머지 세 좌석은 한 가족이 차지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열 살 남짓한 소년 하나.
 기주를 빤히 보는 소년. 그 시선 피해 창밖 보는 기주.

병원직원(E) 아 예, 여기 초량요양병원인데예.
 함 내려와보셔야 될 것 같애예.
 (한숨) 할매가 밥도 안 자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도 마 죽겠어예...

차창에 머리 기댄 기주의 얼굴. 유리창에 비친다. 데칼코마니.
 어느 쪽이 현실이고, 어느 쪽이 허상인지...

#11. 회상. 할매 집

커다란 짐 가방 든 할매와 열 살 남짓한 소년. 어린 기주다.
 이제 막 할매 집 마당에 들어서던 중.

할매 (애써 밝은) 인자 여가 기주 니 집이다!
 마당도 넓고, 참 좋제?

어린 기주 ...

할매 할매캉 기주캉 들어서, 인자부터 재미지게 살아보자. 알았제?

어린 기주 (무심히)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순간 흔들리는 할매의 눈빛.
할매 집 가방 마루에 내려놓더니 다급히 벽에 붙은 액자 하나를 떼낸 후 아무 데나 감춘다. (태권도복 차림의 어린 기주와
엄마 아빠의 가족사진 액자, 나중에) 그때, 갑자기 터져 나오는 기주의 울음소리 “으아악, 으아악” 할매 돌아보면,
기주 자기 발밑을 내려다보며 발 동동, 악악거리는데,
흥건해진 기주의 발밑. 바짓가랑이를 타고 내려간 오줌 웅덩이.

#12. 기차 안/플랫폼(#10에서 연결)

화들짝 잠에서 깨어난 기주.
속도를 늦추고 있는 기차. 차창 밖 ‘초량역’ 이정표 보인다.
후닥닥 짐 챙기는 기주, 서둘러 기차에서 내리는데...
후두둑, 비 온다.
플랫폼 바닥에 물웅덩이, 움푹, 피하는 기주.
도처에 지뢰처럼 깔린 물웅덩이.
요리조리 피해 간이 지붕 있는 벤치로 가는 기주.
빗속에 갇혔다.

#13. 회상. 초량초등학교

하교시간. 운동장에는 비 맞으며 축구하는 아이들 몇몇.
건물 1층 입구에는 학부모 몇몇 우산 들고, 아이들 기다리고,
아이 우산 씌워 가는 몇몇 엄마들, 아이 나오기 기다리는 몇몇
엄마들. 해리, 처마 끝 쪼그려 앉아 비 퍼붓는 하늘 보고 있는데.

엄마1 (속삭) 엄마야, 자, 가 아이가?

엄마2 뭐? 누구누구?

눈빛 교환하는 엄마1·2... 힐끔힐끔 해리 엿본다.

엄마2 아아~ 그... (뒷말을 잊지 못하는)

눈빛이, 눈빛이... 보통은 아이다. 그치 언니?

엄마1 아이고, 오죽하겠나. (속삭) 부모 잡아먹은 안데...

그때, 획 고개 돌려 엄마1·2를 똑바로 쳐다보는 해리.
“엄마야, 무시라” 하며 시선 피하는 엄마1·2
그때, “엄마” 부르며 엄마1에게 달려오는 아이1.
우산 씌우며 “내 먼저 간다. 언니” 하며 가고...
엄마2, 해리를 의식한 듯 슬쩍 자리 피하면서
“야는 뭐한다고 안 나오노...” 혼잣말하며
건물 안쪽으로 가버리고.

그때 비 쫄딱 맞고 뛰어오는 어린 기주,
(축구하다가 도중에 나온)
건물 처마 끝에 쪼그려 앉은 해리 발견한다.
후두두두 떨어지는 빗물 손 내밀어 받고 있는 해리.
힐끗 보고 그냥 지나치려던 기주.

해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금방 안 그치겠지?

어린 기주 (두리번... 나?)

해리 그냥 맞고 갈까?

어린 기주 (머리 빗물 털며)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해리 (피식) 너, 투명인간 보인대매?

지금도 나 보여? 내 목소리 들려?

어린 기주 (피식)우산 안 가져왔나? ...있어봐!

후두둑 빗물 떨어뜨리며 교실 향해 달리는 기주.
계단 올라오던 상필, 축구공 든 채 유심히 보고 있는.

#14. 회상. 동네 일각

우산 아래 나란히 걷는 어린 기주와 해리,

기주는 비에 흠뻑 젖은 데다, 땀냄새도 날 것 같고,
자기 몸냄새 쿵쿵 맡아보는.
기주는 우산 밖으로 자꾸 나가려 하고
그럴 때마다 기주 옷소매 잡아끄는 해리.

해리 너, 고소한 냄새 난다.
어린 기주 (헉, 뭐?)
해리 (킁킁) 고소하고 좋은 냄새 난다구, 그니까 가까이 와.
어린 기주 (불편하지만 해리가 잡아끄는 대로 다가서는)
해리 내가 고맙다는 말 했었나?
어린 기주 에이, 별것두 아닌데 뭐.(우산)
해리 말고, 죽어버린됐잖아. 반장이... 너 보기보다 되게 용감하더라!
어린 기주 (우쭈) 보이는 걸 보인다고 말한 것뿐인데 뭐.
거짓말을 할 순 없으니까.
해리 (괴식, 기주 보다가 젖은 셔츠에 눈길)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어린 기주 괜찮아. 집에 엄마 없거든.
해리 나한테... 크크. 엄마 없으니까 좋은 것두 있네.
어린 기주 (호호) 응.

해리, 쥐고 있던 우산대를 휘리릭 돌린다.
빗물이 사방으로 튄다.
기주 “야! 그만해” 하면서도 장난 받아주는 기주.
그게 재밌어서 크득 웃으며 또 우산 휘리릭~ 돌리는 해리.
후두둑 튕겨져 나가는 빗방울이 보석처럼 빛난다.
해리, 가던 길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기”...
파란 대문집이다. 기주, ‘여기가 해리 집이구나’ 보는...
훅, 우산 밖으로 뛰쳐나가는 기주.

해리 야!
어린 기주 (돌아보는)
해리 내일도 아는 척해줄 거지?
어린 기주 (끄덕) 나 거짓말 안 한다니까.

해리 (크크) 난 하는데. 가끔...
어린 기주 (?)

해리, 가방에서 자기 우산 살짝 꺼내 보여주며 크득크득,
얼빠진 듯 기주. 해리에게 눈 떴지 못한 채 얼음.
그리고 서서히 번지는 미소.
파란 대문집 안으로 쑥 들어가는 해리.
순간, 기주, 찡그리며 뭔가 생각하더니 다시 씨익 웃는.
빗물이 눈으로 들어가는데도 쓰윽 손으로 닦아내며 불박인 듯
서 있는 기주. 사랑에 빠진 소년의 얼굴이 이럴까?

#15. 현재. 초량요양병원 외경

비 온다.
현관 앞에 서는 택시 한 대. 내리는 기주.

#16. 요양병원 병실

병실 문 열리고, 의사 따라 들어오는 기주,
기주의 시선 따라가면 지푸라기처럼 누워 있는 기주의 할매.
아이처럼 작고 가냘프다. 뿌옇게 흐렸다 맑았다 하는 호흡기,
할매, 눈 뜬다. 눈동자 잠시 흔들리더니 끄응, 기척.

의사 참, 우예 알고... 손주 얼굴 알아보시겠어예?
(기주에게) ...가까이 가 보이소.

천천히 다가서는 기주. 앙상한 손 허공을 휘젓는 할매.
기주, 부서질까 봐 차마 그 손 꼭 잡지 못하는데
생명력이 다 빠져나간 할매. 눈곱 낀 눈가 글썽글썽.

의사 아랫저녁부터 눈 한번 안 뜨시드마는,
손지 얼굴 불라고 기운 애끼고 계셨는갑네예.

기주 (할매 손등 쓸어주며) 죄송해요. 못 내려와봐서…
 할매 (마스크 벗겨달라는 몸짓)
 의사 (설득) 안 됩니다. 힘드시리라예.
 할매 (완강)
 의사 할마시 고집 참…

의사, 기기 체크한 후 호흡기 마스크 벗겨주고,
 팔 뻗어 기주 얼굴 쓰다듬는 할매. 눈물 주르륵.
 그러다 터져 나오는 발은기침.
 의사,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며 마스크 다시 씌우려는데,
 패대기치는 할매.

할매 (남은 기력 다 쏟아붓는 듯 힘겨운) 자, 잘… 잘 왔다, 내 강생이…
 기주 죄송해요…
 할매 (애써 미소) 꽤…꽤안타…이래 왔으면 됐다.
 내, 니 얼굴 불라고 안 죽고 기다렸다 아이가.
 기주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할매 내사 마, 컨디션 최고다. 니 보이… 마,
 인자 새처럼 훨훨… 날아갈 거 같다…
 기주 (애써 미소)
 할매 밥은? 밥은 못나?
 기주 네.
 할매 니 혼자 왔나?
 기주 (?) 네…
 할매 해리… (기침 킁킁) 해리는 우짜고? (킁킁킁)

갑자기 튀어나온 해리 이름에 놀란 기주.
 할매에게 뭔가 얘기하려는데,
 숨넘어갈 듯 터지는 할매의 발은기침.
 기주 밀어내며 황급히 뛰어드는 의사.
 그 때문에 창문 쪽으로 밀려나는 기주.
 후두두둑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 점점 커진다.

#17. 회상. 할매 집(#14에서 연결)

쏟아지는 빗속 달려오는 어린 기주,
 할매 집 처마 끝에 비 맞은 생쥐 꼴로 멈춘다.
 다 찢어서 마루에 올라서지 못한 채,
 수건 챙겨 들고 나와 닦아주는 할매.

할매 아이고, 비 맞은 생쥐가? 이기 뭐 꼴이고? (클클 웃으며 닦아주는)
 우산은 어디다 잃어뒀노?
 어린 기주 (배시시) 잃어버린 거 아닌데.
 할매 그라픈?
 어린 기주 친구 빌려줬어.
 할매 우산은 친구 주고, 너는 이 비를 다 맞고?
 어린 기주 (바보같이 웃는) 어.
 할매 (헛웃음) 좋나?
 어린 기주 어.
 할매 니 바보가?
 어린 기주 그건 아니고, 으호호.
 할매 (클클) 친구 눈에?
 어린 기주 (배시시) 해리.
 할매 해리? 이름도 이쁘네. …얼굴도 이쁘나?
 어린 기주 (으호호호)
 할매 참, 이 꼴을 해가지고 좋단다. 마, 안 되겠다. 만세! 해라.

기주 만세 하면 티셔츠 벗기는 할매. 크득크득, 웃음 참는 기주,
 ‘간지러워’ 웃는 기주 얼굴 보며 절로 미소 번지는 할매.

#18. 초량경찰서 앞(저녁)

비는 그쳤다. 경찰서 정문 근처, 우산 들고 서성이는 기주.
 못 올 데를 왔다는 듯 내키지 않는 표정.
 “기주야” 부르는 소리에 보면 상필,

손 흔들며 뛰어오는데 세상 반가운...

상필 와 안 들오고 코앞에서 전화질이고?
 기주 뭐 좋은 데라고...
 상필 흐흐, 글나... 할매는 좀 어떻노? 괜찮으시드나?
 기주 뭐... (끄덕끄덕)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상필 그래. 서울은? 언제 올라가는데?
 기주 내일 점심때쯤. 아침에 병원 한 번 더 들렀다 갈라구...
 근데... 아까 그거, 무슨 소리야?
 상필 아! 맞다! 가, 이름이 해리라 쟤제? 그때 니가 말한 아.
 기주 (!) 어... (근데 뭐?)
 상필 와씨, 내, 아무래도 가, 찾은 거 같다!
 내가 축이 싸~했거든.
 그런데 (무릎 치며) 와씨, 내 책상 앞에, 떡 붙어 있는 기라.
 기주 무슨 소리야? 좀 알아듣게 얘길 해.
 상필 하아, 그기 말이다...
 내 책상 앞에, 사진 밑에 떡 붙어 있거든. 그 이름이.
 기주 사진? 무슨 사진?
 상필 아, 그기... 장기실종자 명단.
 기주 (!) ...사라질 거라고 ...그때 그랬어.
 자기는 사라질 거라고. 영원히, 아무도 찾을 수 없게...

#19. 회상. 4학년 3반 교실

수업 중인 교실. 기침하는 어린 기주 콜록콜록.
 칠판에 뭔가 쓰던 담임 돌아보면, 성심성의껏 아픈 척하는 기주.

담임 (돌아보며) 누꼬?
 어린 기주 (손드는) 선생님, 저 보건실에 좀... 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담임 와? 기주 어디 아프나? 할매 오시라 카까?
 어린 기주 아뇨, 저 보건실에 가서 좀만 누워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 깜빡했다) 콜록콜록!

담임 반장! 기주 데리고 보건(실 좀 데려) ...
 어린 기주 (벌떡 일어서며) 아니요. 다리는 한 개도 안 아파요.

누가 따라올까 봐 후다닥 뛰쳐나가는 기주.
 반장 상필이 일어났다가 뺄뚝. 고개 돌려 나가는 기주 보는.

#20. 회상. 복도

복도로 나온 기주, 발걸음 점점 빨라져 날아갈 듯 뛰는.

#21. 회상. 보건실

보건실 문 살금살금 열리고, 문간에 서서 실내 살피는 기주.

해리(E) 들어와, 아무도 없어.

들어오는 기주, 커튼 열리면 침대에 반쯤 일으켜 앉은 해리,
 침대 끄트머리 툭툭 치면 냉큼 가 앉는 기주.

어린 기주 약은... 먹었어?
 해리 (피식)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닌데 뭐. 병원에서도 포기했어.
 불치병이거든. 알지? 불치병?
 어린 기주 ...암 ...같은 거야?
 해리 (빙긔) 비슷해. 일 년도 안 남았대... (밥 먹었어? 물어보듯 심상한)
 어린 기주 (울상) ...그래두, 혹시 모르잖아. 큰 병원 같은 데서 수술하면...
 해리 (피식) 뭐야? 너, 설마 이 타이밍에 올려는 건 아니지?
 어린 기주 (콧물 들이켜며, 도리도리) ...안 무서워?
 해리 뭐? 죽는 거?
 (피식) 죽는 게 뭐가 무서워?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건데 뭐.
 엄마도 죽구, 아빠도 죽구, 그리구 나도 죽구... 공평하게...
 어린 기주 (글썽) 해리아...
 해리 너...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모르지?

전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 있을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 난.

어린 기주, 울음 삼키는데
해리, 가까이 오라는 손짓, 다가오면 기주의 귀에 얼굴 갖다
대는 해리.

해리 (속삭) 비밀인데... 만약에, 일 년이 지나도 안 죽으면
나 사라질 계획이야. 아무도 나를 못 찾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원히 아무도 모르게... (빙긋)

해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서운 기주.
그때 출입문 쪽 향해 있던 해리, 깜짝 놀라 이불 속으로 쏙.

해리 야! 뭐해, 숨어!

얼떨결에 이불 뒤집어쓰는 기주, 바로 눈앞에 훅 들어오는 해리
얼굴. 코끝이 닿을 듯한 거리. 썩썩, 해리의 숨결이 느껴진다.
긴장 타는 기주. 숨을 못 쉬겠다.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호흡!!
숨 멈추는. 볼 부풀린 채 얼굴 벌게지는 기주, 잠시 후
이불 걷어내며 푸후후후~ 참았던 숨 내뿜는데
정면 유리창 너머 복도에서 이쪽 보고 있는 상필. 굳은 표정.
그런 상필과 눈 딱 마주치는 어린 기주.

상필(E) ...기주야, 야! 송기주!

#22. 현재. 초량경찰서 앞(#18에서 연결)

상필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온 기주.
경찰서 마당 자판기 부근. 캔음료 마시는 중.

기주 어? 뭐?

상필 미안하다꼬. 여까지 왔는데,

마, 쏘주 한잔 빨아야 사람의 도런데,
오늘은 내가 바로 드가봐야 된다.

기주 어, 그래... 나두 뭐, 가볼 데도 있구... (없지만...)
상필 근데, 기주야, 너는 가를 와 그래 찾아왔노?

(농담조) 돈 때묵고 도망이라도 갔나?
기주 (피식) 뭐 비슷해. 잘 가라고 인사를 못 했거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려서.
상필 (?) 그, 뭘 개 풀 뜯어 먹는 소리고?

기주 그런 게 있다... 들어간대매? 들어가라.

상필, '아, 그래, 연락해라~' 하며 손 흔들며 가고
기주 돌아서서 가려다 앓! 문득 생각나 상필 쪽 향해

기주 야! 혹시 그 사진...

하는데,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
경광등 번쩍거리며 들어오는 경찰차.
급히 비켜서는 기주, 보면 경찰차 뒷좌석에서 내리는 경찰.
다음으로 내린 사람은 맨발에 태권도복 차림의 어린 기주다.

인서트.

- 태권도복 차림, 아파트 복도를 뛰어가는 어린 기주.

- 현관문 열어젖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보조 잠금장치에 툭 걸리는 현관문.

- 그 틈새로 나타나는 엄마 얼굴,

무음으로 입모양만 '오지 마! 오지 마!' 하더니 광 달히는 문.

#23. 할매 집 마당(밤)

덜컹덜컹, 녹슬어서 잘 안 열리는 할매 집 대문.

기주 꺽꺽대며 몇 번 시도 끝에 겨우 열린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두어 달쯤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흐트러진 세간살이.

#24. 할매 집 실내(밤)

핸드폰 들고 서 있는 기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낙담한 기주, 핸드폰 스크롤하면 과거에 혜영이 보냈던 문자들.

‘피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 시커먼 속에 대체 뭘 감추고 사는 거냐구.’

‘후지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리가 누구야?’

생각을 떨치려는 듯 장롱 열어 이불 끄집어내는 기주.

그 바람에 장롱 안에 있던 물건 쏟아진다.

기주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다. 노트, 책, 옷가지, 가방 등

아무렇게나 툭툭 도로 던져 넣던 기주.

그러다 눈길에 머무는 노트 한 권, ‘4학년 3반 해리’라고 적힌.

냉장고 열어보는 기주.

텅 비다시피 한 냉장실. 물통도 비어 있다. 마실 물조차 없다.

위 칸, 냉동실 문 열면 덩그러니 얼음통,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다. 5센티미터쯤 꺼내보면 뽁뽁 언 사진 액자.

확인도 안 하고 도로 넣는다.

(#11에서 할매가 숨겼던 기주의 가족사진 액자)

얼음통 꺼내 마룻바닥에 첩피덕 앉는 기주.

무릎 세우고 앉더니, 얼음 꺼내 씹어 먹는다. 와그작와그작.

그 옆에 ‘4학년 3반 해리’ 적힌 노트, 슬쩍 눈길 주는 기주.

#25. 회상. 개울 근처

어린 기주 이마에 상처, 운동장에서 땀굴었는지 옷도

엉망진창. 입이 뺨발 나온 채 돌멩이 발로 툭툭 차며 ‘에이씨’...

그중 하나 개울물로 침병, 사방으로 튀는 물 폭탄.

그때 “악!” 여자애 비명소리. 놀라서 소리 나는 쪽 보는

어린 기주.

#26. 회상. 다리 밑

다리 교각이 만들어낸 그늘 아래, 어린 기주와 해리.

기주의 왼쪽 이마 상처 발견한 해리, 쿡쿡 웃으며 자기 앞머리

올린다. 해리의 왼쪽 이마에도 상처,

기주 쓰윽 바짓단 올리면 왼쪽 무릎 상처,

해리 쓰윽 치맛단 올리면 왼쪽 무릎 상처.

해리 똑같네, 크흐흐.

어린 기주 그러게, 크흐흐흐.

해리 상필이한테 또 맞았지?

어린 기주 아니야. 굴렸어. 계단에서. 이렇게... 탁... 해가지구...

 그게 그... (뒤통리 긁는, 말이 꼬인다)

해리 (킁킁) 너 진짜 소질 없구나. 거짓말하지 마. 금방 들통나.

어린 기주 (단호) 그래두! 선빵은 내가 날렸어.

 그 새끼가 자꾸 이상한 소리나 하구 그래서.

해리 이상한 소리, 뭐?

어린 기주 (망설이다) 너... 엄마, 아빠...

해리 엄마, 아빠, 뭐? 아아~ 죽었다구? 그거 진짜데.

 (남 얘기하듯) 둘 다 죽어버렸어. 나만 놈두구. ...둘이서만.

 ...나두 데려가지...

어린 기주 (놀란)

해리 넌? 너는 왜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어?

어린 기주 어, 저기, 서, 서울에...

해리 바빠?

어린 기주 어. 좀... 좀 많이! 그래서 그... (뒤통리 긁는, 말이 꼬인다)

 여기 잠깐만 있으라구...

해리 (거짓말 같지만) 아. 그래?

어린 기주 아 그게... 사실은... (정그리는)
 사실은, 잘 생각이 안 나. 그때 내가 태권도 집에 끝나구 왔거든.
 근데 잠들었나 봐. 눈 떠보니까 할매 집에 와 있는 거야.

해리 (미소) 그거다! 순간이동!

어린 기주 순간이동?

해리 그거! 거실에서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면 내 방인 거.

어린 기주 (!!!) 맞다. 그거야, 순간이동!

해리 응, 순간이동!! (배시시)

어린 기주 아! 근데 나... 상필이 새끼한테 복수할 방법 알아냈다!

해리 (눈 반짝) 뭔데?

어린 기주 내일 학교에 와. 와보면 알어.

해리 내일 나 학교 안 올까 봐 뺨치는 거 아니야?

어린 기주 아닌데. 진짠데...

해리 (배시시) 내일 가면, 나 아는 척해줄 거지?

어린 기주 (끄덕)

해리 나중에도? 아주아주 나중에도?

어린 기주 (끄덕)

해리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모른 척해도?
 그런 때가 와도 너는 나를 기억해줄래?

어린 기주 (끄덕, 격렬하게)

개울로 시선 돌리는 해리. 쓸쓸해진.
 발치에서 돌멩이 하나 골라 툭 개울에 던진다.

해리 (세상 다 산 노파처럼) 그럼 뭐해...
 그때 난, 이미 세상에 없을 텐데...

상처 난 무릎에 툭 툭 채 돌멩이 개울물에 던지는 해리.
 풍풍, 소리만.
 나란히 툭 괴고 앉은 어린 기주.
 카메라 뒤로 빠지면, 다리 위에서 노려보고 있는 상필.

#27. 회상. 개울가 다리 위(앞 신에서 연결)

다리 위 서 있는 상필, 다리 교각 아래,
 기주 앉아 있는 모습 보인다.
 (해리는 사각지대라 보이지 않고)

#28. 현재. 개울가 다리 근처(아침)

풍풍, 누군가 개울물에 돌멩이를 던지며 놀고 있다.
 배낭 메고 개울가 다리 건너던 어른 기주, 인기척 느끼고 보면
 다리 교각 아래, 어린 여자애. 개울물에 돌멩이 던지는 중.
 사각지대라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어쩐지 어린 시절 해리를
 닮은... 놀란 기주, 내려가 보려고 비탈길 서둘러 내려가는데,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발신자 '초량요양병원'

기주 (비탈길 내려가며) 네... 지금 가는 길이에요.
 (우뚱) 네...?

굳어가는 기주의 얼굴.
 잠시 후 정신 차려보면 돌멩이 던지던 여자애는,
 사라지고 없다.

#29. 장례식장

상복 입은 친척 어르신 몇몇. 할매의 영정사진.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나이 많은 여자 두어 명.
 문상객 오자, "왔나?" 하며 반기는 여자 어르신은 손님과 밥
 먹으러 가고 영정사진 앞 기주 무표정.

당숙(E) 기주야! 친구 왔다!

보면 당숙(50대 후반) 뒤에 서 있는 경찰 제복 차림의 남자.
상필이다. 경찰모 벗으며 들어오는.

#30. 장례식장/식사공간

육개장, 편육 등이 놓인 상차림. 마주 앉은 상필과 기주.
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경찰모.
상필이 옷차림이 영 어색한 기주. 보다가 피식.

상필 와? 웃기나? (제복 살펴보며) 이기, 어디가 어떻게 웃기지?
기주 누가 보면 진짜 경찰인 줄 알겠다. (농담)
상필 와? 경찰 사칭하는 사기꾼 같나? 호호호.
기주 (피식)
상필 아 맞다. 가... 우리강 동갑이더라. ...해리, 딸이다.
기주 (!) 찾았어?
상필 아니, 찾은 거는 아니고 살짜기 알아봤는데...
그기, 남편이 도망을 갔는지 우였는지,
지 밑으로 딸래미 하나만 떡 올라 있더라.
기주 딸? 딸이 있어? 개 어디 살아? 이 동네지? 맞지?
상필 마, 한 개씩 해라, 한 개씩...
보자, 그, 나이는 한 열 살? 아, 우리 나이로 인자 열한 살 됐겠네.
기주 가족들은 뭐래? 아직 못 찾았대?
상필 근데 그기...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
기주 실종신고 했대메?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야?
상필 맞지. 맞는데 전화번호가 바깥는가 우쨌는가, 통 연결이 안 된다.
별시러 한 10년도 넘었거든...
아! 니 사진 함 볼래?

상필, 핸드폰에서 사진 찾아 보여주는데 (상필의 손목에 얹은
흉터 자국 슬쩍) 여러 명의 장기실종자 사진 중 확대하면,
20대 초반 여성의 사진.

상필 알아보겠나? 하도 오래 돼가, 화질이 좀 구리제?

기주 사진 확대해보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희미해지는 얼굴.

#31. 장례식장 외부

빈 음료수 캔 버리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기주,
마침 밖으로 나오던 당숙(50대 후반 남자)과 마주친다.

당숙 친구는? 갔나?
기주 네.

현관문 근처에 서서 빨쫌하게 이어지는 대화.

당숙 자주 몬 봐서 그렇지,
니강 내강 5촌이라고 캐도, 우리는 딱 집처럼 안 그렇다.
느그 아버지나 내나 외동이다 보이, 4촌이라도 친형제
한가지였거든.
기주 (끄덕) 네...
당숙 그 서슬 퍼렇던 할매가 니는 끼고 쪽쪽 빨았다 아이가.
참 유별났다. 니도 알제?
기주 (끄덕끄덕) 네.
(말 돌리는) 병원은요, 잘 되시죠?
당숙 호호, 시골 병원이 다 그렇지 뭐.
쪼매만 아파도 다 서울로 올라가뿐다 아이가.
맨날 폐업 직전이지. 뭐. 니는? 니는 괜찮나?
기주 네. 뭐.
당숙 잠은 잘 자고?
기주 네.
당숙 뭐 따로 불편한 건 없드나?
기주 (끄덕끄덕) 네. (다만, 이 상황이 불편할 뿐)
당숙 아! 내, 미안타. 직업병이다, 직업병.

기주 호호 이래 보이, 니 할매 말이 맞는갑다.
 왜요? 할매가 뭐랬는데요?
 당숙 아... 그기... (클클) 내보고 맨날 돌팔이라고꼬. 호호호.

#32. 회상. 할매 집 부엌

식사 준비하는 할매. 밥상 위에 반찬 이것저것 담고,
 밥그릇 꺼내고 밥 푸고 하는데,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말 붙이는 당숙. 뭔가 심각한.

할매 (확 돌아보며) 마 시끄럽다. 사지육신 멀쩡한 아를, 와?
 당숙 감당 못합니다.
 할매 내가 감당한다 안 하나.
 니같은 돌팔이가 뭘 안다고 이카노? 이카기를.
 당숙 (한숨) 좋다, 내는 돌팔이라 칩시다. 치고, 그라픈 서울
 올라가입시다.
 할매 (버럭 역정) 마! 시끄럽다 안카나!
 당숙 하아... 큰어무이, 이래 놔뒀다가 나중에 우짤라고 그랍니까?
 일단 병원...!
 할매 (수저 놓다가 ‘탁’ 치며 버럭!) 자꾸 그 병원 소리 할라카픈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마라!

밥상에 당숙 수저 올리려던 할매, 개수대에 확 패대기친다.

할매 밥은! 니 집 가서 무라!

하며, 밥상 들고 팩, 나가버리는 할매,
 남겨진 당숙 “와씨, 진짜 돌겠네...”

#33. 회상. 할매 집 방(앞 씬에서 연결)

할매, 밥상 들고 방에 들어오면 어린 기주, 노트 넘기며

헤벌쭙 웃고 있는. 그런 기주 보며 마음 풀어지는 할매.
 다행이다... 싶은.

할매 머꼬? 연애편지가?
 어린 기주 (호호)
 할매 (다가가 앉으며) 뭐라고 썼노? 해리가, 니보고 사랑한대이,
 카드나?
 어린 기주 아니야. 노트야. 해리 꺼.
 할매 해리 꺼를 와 니가 갖고 있노?
 어린 기주 빌려줬어. 숙제 베끼라구 호호.
 할매 지 숙제도 빌리주고 착한 아네.
 어린 기주 (배시시) 어.
 할매 니는, 해리 말만 나오면, 와 그리 웃노? 뭐가 그래 좋노?
 어린 기주 말이 잘 통해. 해리랑은...
 할매 와? 딴 아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드나?
 혹시 니 왕따, 그거가?
 어린 기주 내가 개들이랑 안 노는 거라니까. 유치해. 애들이. 초딩같이.
 근데, 할매! 상필이 아빠, 진짜 스님 맞아?
 할매 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드노?
 어린 기주 애들이.
 할매 마, 모르는 척 해주라.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친구끼리는 그라는기다.
 어린 기주 (버럭) 그 새끼가 무슨 친구냐?
 할매 (걱정) 와? 니 가하고 또 싸웠나? 친구끼리 싸우고 그라픈 몬쓴다.
 어린 기주 아씨! 친구 아니라니까! (화나서 팩)
 할매 아이고... 할매가 잘몬했다, 알았다. 알았으이 이리 온나. 밥 목자.
 어린 기주 이씨, 안 먹어!

기주, 나 화났음, 티 내느라 아예 이불 뒤집어쓰고 눕는.

할매 진짜 안 먹을끼가?
 어린 기주 ...

할매 아이고, 그라픈 내 혼자 테레비 보면서
맛있는 거 다 묵어뿌야지…

TV 켜면, 화면에 뉴스, 할매, 쫓쫓쫓… 하며 보는

TV 리포팅(E) 지난 23일 충북 청주 야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A양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이 공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유괴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4. 국도/상필의 승용차

2차선 국도를 달리는 승용차 한 대.
운전석에 앉은 상필, 조수석에 기주.
이어지는 뉴스 리포팅.

라디오(E) …1년 이상 찾지 못한 장기실종자의 숫자는,
지난 7월 말 기준 8,318 명으로, 이중 성인가출자로 분류된…

상필, 라디오 주파주 바꾼다. 뉴스에서 음악 채널로.
조수석에는 기주.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 확확 지나가는 차창 밖
풍경. 가끔 전원주택이 보이고, 멀찌감치 아파트 건설 중인.

이때 꺾! 핸들 꺾으며 급정거하는 상필.
보면 차 앞으로 황소만 한 떠돌이개 도로를 가로지른 후,
이쪽을 향해 “컹컹”

상필 아씨… 저 개시키, 와아~ 식겁했네!
기주 (피식) 그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나?
상필 트라우마다. 트라우마!
옛날에 어떤 개새끼!! 한테 된통 물리 갖고…

상필, 핸들 잡으며 손목 흉터 무의식적으로 긁는,

다시 출발하는 차.

기주 휴일인데… 괜히 내가 시간 뺏는 거 아니냐.
상필 (피식) 친구끼리, 인사치레는 무슨…
기주 ('친구'라는 말에 쓴웃음)
상필 바람도 쐬고 좋지 뭐. 집에 있으면 뭐하겠노?
궁디 뚜디리 줄 마누라가 있나, 짜사 사달라고 쪼를 아가 있나…
기주야! 근데 와 나는 가가 기억이 안 나지?
해리 말이다.

기주 뭐. 전학 와서 한 학기도 못 채웠으니까.
친구도 없구, 학교도 자주 빠지구.

상필 글나? 그래도 니하고는 친했는갑제?
기주 혹시, 너… 해리 어딴는지 아는 거 아냐?

상필 일부러 빼들려놓고, 나 옛 맥일라구 이려는 거 아니야?

기주 야, 이기 뭘 개 풀 뜯어 먹는 소리고?
상필 왜 하나두 기억을 못 해? 불쌍한 애였잖아.
기주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시구
할머니 말고는 돌봐주는 사람도 없구,
니들한테는 투명인간 취급이나 받구…

상필, 갑자기 인상 확 찌푸리며 기주 보는데,
뭔가 말하려다, 그냥 입 다문다.

#35. 국도변 약국 앞

국도변 약국 앞쪽에 주차된 차, 밖에 나와 차에 기대서는 기주.
기주 뒤편 약국 유리문 너머로 약사와 대화 중인 상필이 보인다.

잠시 후,
박카스 두 병 들고 나온 상필, 기주에게 하나 건넨다.
대충 차에 기대선 채 마시고
(뒤편 약국에는 약사 누군가와 통화 중인)

상필 씩 다 재개발이 돼서… 아무것도 안 남았단다.
기주 주소는? 맞긴 맞아?
상필 (아파트 공사장 가리키며) 저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이제?
 그 언저리라 카는데, 지금이야 뭐, 보시다시피다.

 실망하는 기주, 말없이 차에 올라탄다.
 상필도 차 타고 시동 걸고, 막 출발하는데
 약사 부리나케 뛰어오며 “저기요! 형사님! 잠깐만요!”
 사이드 미러로 약사 발견하고 차 세우는 상필.

약사 (헉헉) 지금, 막, 아는 동생하고, 통화가 됐는데에…
 그 여자, 이름이, 해리라 켜습니까?
상필 (놀란) 네!
약사 성이 해, 이름이 리, 외자! 맞아요?
기주 (!!) 네, 맞아요. 해리.
약사 잠깐 있어보소. 내 주소 하나 적어드리께예.

#36. 국도변 단독주택

 메모지 들고 있는 상필, 초인종 누르는.
 현관에 붙은 주소지에 적힌 이름. 해명훈.
 한 발췌 뒤에 서 있는 기주.
 까치머리에 러닝 입은 통통한 60대 남성,
 대문 벌컥 열고 나오는.

러닝 (짜증) 아, 안 산다고 안 산다고!
상필 아! 하하. 뭐 팔러 온 게 아이고요,
 여기 해리라는 여자분 사시죠? 나이는 31세.
러닝 (움찔) 해리요? 와요?
상필 (경찰 신분증 보여주며)
 실종신고 하셨었죠? 한 십 년 전쯤에.
러닝 아… 그랬나. …뭐, 그랬으면 뭐, 우짤긴데요?

상필 (미소) 가족분들하고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찾으셨나 해서, 그냥 확인차.
러닝 우리 안데, 와요?
상필 아, 아머님 되십니까?
기주 (!) 찾았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해리!
러닝 (뭔가 켜기는) 아 지금은 집에 없고…
 아! 근데 아무리 경찰이라도 마,
 나는 뭐 잘못된 것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고,
 내가 내 귀한 딸래미를 댁에들한테 보여줘야 될 국민적 의무도
 없고, 또 나는 지금 바쁘기도 좀 바쁘고…

러닝 딸(E) 아버지, 와 나와 있능교?

 돌아보면, 러닝 아저씨의 딸(해리, 동명이인)
 통통한 얼굴에 풀 메이크업, 학교 다닐 때 좀 놀았던 언니
 스타일. 딱 자기같이 생긴 어린 딸아이와 함께.
 아무리 봐도, 그 해리는 절대 아니다.

상필 (설마) 저, 혹시 성함이 그…해리…
러닝 딸 내가 해린데요, 와요?

 빙쩍 기주 얼굴. 기주 눈치 보는 상필.
 그때 “컹컹” 개 짖는 소리, 아까 그 황소만 한 개다.
 돌아보는 기주. 뭔가를 발견한 듯,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

#37. 국도변 일각

 뭔가에 홀린 듯 달려나가는 기주.
 기주 시선으로 보면, 저만치 어린 여자애를 뒤쫓는 중이다.
 다리 아래 돌맹이 퐁퐁 던지던, 그 아이.
 해리와 닮았던 그때 그 여자애.
 그러다 목표물을 놓친 기주. 두리번두리번,

우왕좌왕하다가 삐끗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겨우 멈춘 곳은, 작은 개울 옆 모래밭.

웃은 흙투성이고, 여자애는 놓쳤고,
낙담한 기주, 손에 집히는 대로 돌멩이 한 움큼 집어들더니
확, 개울 향해 내동댕이친다. 수면, 우수수 떨어진 돌멩이
때문에 어지러운 동심원들 그린다. 낭패한 기주,
잠시 후 수면이 잔잔해지면, 물속에 비친 기주의 얼굴 울먹인다.

기주 (울먹, 조곤조곤) 가면 간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랬어도 보내줬을 텐데,
잘 가라고, 작별인사라도 하게…

물가에 무릎 꿇고 물끄러미 개울물 들여다보는 기주,
어느새 어른이 아닌 어린 기주로 바뀌어 있다.

#38. 할매 집(저녁)

할매 집 앞, 상필의 차 멈춰 서는

상필 안 내리나?

상필의 목소리에 정신 돌아온 기주, 말없이 차에서 내린다.
보면 어둠 속에 잠긴 할매 집.

상필 (농담) 밤에 안 무섭겠나? 같이 있어주까?
기주 썩 가라!
상필 예나 지금이나 참 한결같네. 쌀쌀맞은 기… 내 진짜 간다~

기주, 걸어가며 뒤편 향해 손짓만, 휘이휘이.
상필, “저, 저, 정내미 떨어지는 자숙…” 떠나는 상필의 차.

#39. 할매 집 마루

마루에 올라서는 기주, 불 켜면 벽에 걸린 사진 액자들 눈에
들어온다. 할매와 어린 기주, 둘이서만 찍은 사진 액자들.
그리고, 딱 한 자리, 액자를 떼어낸 빈자리.
기주 생각난 듯, 냉동실 열어, 뽕뽕 언 액자 꺼낸다.
보면, 엄마와 아빠, 그리고 태권도복을 입은 기주의 가족사진
액자.(=#11) 빈자리에 대보면 딱 맞다.

#40. 할매 집 마당(밤)

깜깜해진 밤. 마당 한쪽에 불 피워져 있고
기주, 아까 냉동실에서 꺼냈던 기주의 가족사진을
불 속에 던진다. 순식간에 재로 변하는 가족사진.
그 옆에는 태우려고 쌓아놓은 기주의 어릴 때 물건들,
빛바랜 책과 노트, 사진, 상자, 옷…
하나씩 불길 속으로 던져 넣는 기주.

그러다 불길 속 타들어가는 노트 한 권 유심히 보는데,
겉표지에 ‘4학년 3반 송기주’ 순간 멈춰서는 기주,
태우려고 쌓아뒀던 노트 ‘4학년 3반 해리’ 글씨체와
너무 비슷한데…

#41. 회상. 파란 대문집/골목

해리네 집 향해 달리는 어린 기주.
손에는 ‘해리’ 노트 들고 들어가 볼까, 말까, 우왕좌왕하는 기주.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그때 집 안에서 뭉가로 때려 부수는 소리 들린다. 퍽퍽, 아악,
와장창 쿵, 소리 나게 현관문 열리고 여기저기 쥐어뜯긴 채
눈물범벅으로 뛰어나오는 아이,

해리가 아니라, 상필이다. 놀란 상필.
 그보다 더 놀란 기주 ‘해리네 집인데, 왜 상필이가…?’ 싶은…
 상필, 애원조로 ‘도리도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다시 벌칙,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리자, 상필 도망간다.
 뒤따라 나온 뽀뽀머리 아저씨 “이노무 자숙, 어디로 뺐노?”
 뽀뽀머리 기주 발견하고 “야, 혹시 니…” 하는데
 화들짝 놀란 기주, 상필이 사라진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42. 회상. 숲길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기주. 헉헉, 숨은 목구멍까지 찻는데,
 두리번두리번, 상필을 찾아 헤맨다.

어린 기주 (고래고래) 야! 장상필! 어디 숨었어? 나와! 나오라구!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기주, 여기저기 굽혀 피 난다.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풀려버렸다. 그대로 주저앉는 기주.
 절박하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잔뜩 겁먹은 얼굴.
 숨은 가쁘고, 눈물은 줄줄 나는데.

어린 기주 (힘 빠진, 울먹) 야, 장상필. 어딴어? 제발, 나와!
 뭐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거기 해리네 집인데, 파란 대문 그 집, 분명 해리네 집인데
 왜 거기 니가 있냐구. 해리 어디 갔어? 어디다 숨겼어?
 대답해, 장상필. 장상피이이일!

아무 대답 없다.

상필(E) 내, 니 그럴 줄 알았다. 오밤중에 혼자 뭘 청승고…

#43. 할매 집 마당(밤)

돌아보면, 검정색 비닐봉지(소주, 안주) 들고 서 있는 상필.

상필(E) (농담) 불장난하면, 니, 밤에 오줌 싸다.

잠시 후,
 캠프파이어 하는 소년들처럼,
 불길 옆에서 소주 마시는 기주와 상필.

상필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어디 갔을까? 너의 해리는…?

기주 (후우~) 나두 모르겠다. 어릴 때 너한테 하두 처맛아서
 머리가 헤까닥했던 건지…

상필 (버럭) 와! 야 보래이,
 전학왔다고 니한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시나처럼 확 빠끼갓고…

기주 본척만척, 대답도 안 하고… 야, 니 진짜!! 그때 와 그랬는데?
 너야말로 왜 그랬냐? 보기만 하면 시비 걸고, 괴롭히고,
 못 잡아먹어 안달 난 놈마냥.

상필 야! 그건 니가 빠끼 후에! 일이고… 새끼! 니가…
 (숨 고르는) 내 진짜 이 소리까지는 안 할라했는데,
 새끼 니가 떠들고 다녔잖아. 우리 아버지… 중대가리라꼬!

#44. 회상. 초량초등학교 외경

#45. 회상. 4학년 3반 교실

교실 칠판 앞, 칠판지우개로 기주 머리 때리고 있는 장상필.
 칠판에 적힌 글씨 ‘장상필은 중대가리 새끼’ 반쯤 지우다 만…
 살벌한 분위기, 반 아이들 멀찌감치 물러서 있고.

어린 기주 (악쓰는) 어디 숨졌는지 말하라고!
해리! 어디다 숨졌는지 당장 말하라고!

어린 상필 (퍽 때리며) 이기 돌았나, 진짜!

어린 기주 장상필은 중대가리 새끼...!

어린 상필 (퍽 때리며) 이기 진짜 끝까지!

어린 기주 왜? 내가 없는 말 했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 건데, 뭐? 뭐가 잘못인데?

어린 상필 (이 악물고) 그래, 좋다. 우리 아버지, 그래! 중대가리 맞다!
그러는 니는? 뭐가 그래 잘났는데?
부모도 없는 이, 천하에 고아 새끼 주제에!

어린 기주 이, 거짓말쟁이 새끼! 이, 순 구라쟁이 새끼야야!

어린 상필 이기 진짜 미쳤네, 미친 게 틀림없네. 그래, 내가 니!
맨날 니 혼자 씨부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어린 기주 (!!!)

어린 상필 느그들 아냐? 이거 완전 미친놈이다. 야 맨날 귀신하고 대화한다.

한 대 맞은 듯 멍해지는 기주...
머리가 아프다. 오만상 찡그리는 기주.

#46. 몽타주(상필의 시선)

- 필통 확 낚아챈 상필의 시선, 안 빼기려고 필통 꼭 잡는 아이, 해리가 아니라 기주.
- 상필에게 맞고 큰대자로 누운 기주 갑자기 혼자서 씨익 웃는, 해리가 앉았던 자리는 텅 빈. (기주의 자리)
- 비 오던 날, 엄마들 “부모 잡아먹은 애~” 하는데, 축구공 들고 오다가 보는 상필. 보면, 처마 끝 혼자 앉아 있는 기주.
- 파란 대문집 근처 골목, 우산 쓰고 오던 상필 보면, 혼자 우산 빙그르르 돌리며 혼자 얘기 중인 기주.
- 보건실 복도에서 상필 보면, 침대에 앉아 혼자 얘기하는 기주,
- 개울 다리 위 상필 보면, 다리 교각 아래 혼자 떠드는 기주...

#47. 회상. 4학년 3반 교실(#45에서 연결)

갑자기 성난 짐승처럼 상필에게 돌진하는 기주,
철판지우개 잡은 상필의 오른쪽 손목을 콕! 물어버린다.
아아악!!!! 자지러지는 상필, 반 애들까지 뜯어말려 겨우 손목 빼낸다. 짐승에게 물린 듯 선명한 이빨 자국, 그리고 피!

어린 상필 (울먹) 저, 저, 저 개 같은 새끼...

오른손 다쳐 주먹 쓸 수 없는 상필,
옆에 대결레 빨았던 양동이를 들어 기주에게 쏟아버린다.
기주에게 쏟아진 구정물. 물웅덩이 속에 서 있는 기주.
기주의 시선으로 보면,
물웅덩이 붉은색으로 변하며 점점 높이 차오른다.
기주, 점점점 빨라지는 호흡. 초점 잃고 방황하는 눈동자,
코에서 피 콕 쏟아지는 거 보더니, 지푸라기처럼 풀썩,
고꾸라지는 기주.

#48. 기주의 꿈/숲속

꿈뻑꿈뻑 눈 뜨는 기주. 눈앞이 뿌옇게 흐리다.
안개 자욱한 숲속, 큰대자로 뻗어 있는 기주.
해리가 서 있다. 점점 멀어지는 해리의 뒷모습.

기주 (울먹, 잠결인 듯) 해리야, 해리야...

#49. 회상. 할매 집(밤)

꿈뻑꿈뻑 눈 뜨는 기주,
이리저리 고개 돌리지만 할매는 보이지 않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껌뻑껌뻑.

상필아빠(E) 저래 그냥 놔두도 되겠습니까?

#50. 회상. 할매 집 마당(앞 신에서 연결)

할매와 뽀뽀머리 아저씨(=상필아빠) 마당에서 얘기 중.

할매 마이 나아졌습니다. 한 사나흘은 눈도 못 뜨고 끄꿍 앓지만,
 인자 밥도 묵고, 잠도 좀 자고…
 상필이는… 우예, 쾌았습니까?
 상필아빠 소독하고 붕대만 잘 갈아주면 된다카네예.
 머스마들 그만한 흥터 없는 놈이 어딴습니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번, 병원에 데꾸 가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할매 (긴 한숨) 겨우 잇아뿐 아한데… (울먹)
 상필아빠 (머리만 굽적굽적) 하아…
 할매 압니다. 내 다~ 알아묵었습니다.

이때 집 안에서 기주 목소리 “할매~ 할매~”

할매 아 켜습니다. 그만…올라가 보이소.

눈물 자국 닦아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할매.

#51. 회상. 할매 집/방(앞 신에서 연결)

급히 뛰어 들어오는 할매.

할매 내 강생이 일났나? 배고파서 일났제?
 어린 기주 나 몰…

할매 물 찾아 따라주는, 근처에 병원 약 봉지.
 잠옷 차림의 기주, 물 쪽 들어켜는데.

할매 (빈 물잔 받으며) 폭 자고 나이, 내 강생이 얼굴이 뽀안네.
 어린 기주 (정신 덜 돌아온) 할매, 나 머리 아파.
 할매 그래… 아프제?
 약이 얼마나 독했든지 사흘 밤낮을 잤다. 인자 정신이 좀 드나?
 어린 기주 (생각난) 할매! 엄마한테 전화 좀 해.
 할매 기주야…
 어린 기주 상필이 새끼가, 나보고 놀렸단 말이야.
 엄마 아빠 없는 고아 새끼라고.
 할매 (아무 대답 못 하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 삼키는)
 어린 기주 (짜증) 아씨, 핸드폰 쥬!
 할매 (울먹) 기주야! 느그 엄마 아빠 전화 폰 받…!

기주, 할매에게 덤벼들어 몸 뒤지는. 핸드폰 찾는,
 할매가 기주의 팔다리 잡으려 하자,
 오히려 잡아 뜯을 듯 짐승처럼 덤벼드는 기주. 처절한데,
 할매, “기주야, 정신 차리라, 기주야” 울부짖고,
 말리던 할매, 잠시 후 툭, 포기한 듯 그대로 멈춰버린다.
 핸드폰 찾은 기주, 다급히 번호 누르는데…
 뚜르르르뚜르르르, 신호음…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할매 (맥빠진, 기주 끌어안으며) 기주야, 엄마 아빠 전화 폰 받는다꼬.
 어린 기주 (뿌리치며) 왜, 왜 내 전화 못 받는데…?
 할매 (툭 터져버린 눈물, 닦아내며) 기주야, 할매 말, 똑따 들어라.
 느그 엄마 아빠는 인자… 전화 폰 받는다. 그라고…
 (헛기침. 북받치는 감정 가다듬는)
 그라고 인자… 엄마 아빠 얼굴도 다시는 못 본다…
 어린 기주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빛처럼 변하는) 왜?
 할매 엄마 아빠, 저~기 멀리, 멀리멀리, 하늘나라로 갔…!
 어린 기주 (발악)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머리 움켜쥐며 “거짓말이야!” 반복하는 기주.

#52. 몽타주. 아파트 복도/현관

- 아파트 복도, 맨발에 운동화 구겨 신고 뛰어가는 어린 기주, 태권도복 차림.
- 현관문 열어젖히면, 잠금장치에 푹 걸리는 문.
- 그 틈으로 나타나는 엄마 얼굴, 잔뜩 찡그린 채 “씻”
- 엄마 입모양으로 ‘오지 마! 제발!’ 하더니 콧, 닫히는 현관문.
- 콧콧콧, 주먹으로 문 부술 듯 두드리는 기주 “엄마! 엄마!” 부르고
- 확 열리는 현관문, 서 있는 엄마, 그런데 엄마 얼굴이 이상하다. 블랙.
- 기주에게 달려드는 그림자, 아빠다.
- 우당탕, 아빠로부터 기주 떼어내려다 바닥에 푹 꼬꾸라지는 엄마. 블랙.
- 욕실로 도망치는 기주. 블랙.
- 욕실 문틈으로 보이는 풍경, 달려오는 아빠 가로막고 서는 엄마. 블랙.
- 욕실 안 기주, 바닥 내려다보면 오줌 줄기 타고 내려가 흥건해진 욕실 바닥. 오줌 웅덩이에 선 기주의 맨발. 문틈으로 흘러들어오는 피. 오줌 웅덩이를 붉게 물들이는데, 블랙.
- 욕실 문 활짝 열리고, 거실에 하얀 시트 씌워진 두 사람. 경찰 보이고. 블랙.
- 경찰 뿌리치고 복도로 뛰쳐나가는 맨발의 기주, 바닥에 찍히는 핏자국들.

#53. 현재. 산사의 절

산사, 소박한 절집.
목탁 두들기는 소리,
“지장보살, 지장보살” 외는 소리로 그득하다.

#54. 법당 내부

당숙과 기주, 친척 몇몇. 할매의 49재 날.
엄불 외는 스님은, 그때 그 뻑뻑머리 아저씨, 상필의 아빠다.
와중에 슬쩍, 무리를 빠져나오는 기주.

#55. 법당 바깥

법당 밖, 서성이며 누군가와 얘기 중인 기주. 귀에는 이어폰.

기주 레테의 강이라고, 들어봤지? 망자가 건넌다는 강.
그 강물을 마시면 이승의 기억과 번뇌가 다 사라지고
평온해진다... 그 말이 나한테 어떻게 들리는 줄 아냐?
죽는 날까지는, 계속 번뇌와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라.
그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뭐? 벌써?

하는데, 계단 올라오는 상필이 보인다.

상필 (휴대폰 손에 든) 뭘 헛소리가 그래 기노?
기주 (피식)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다. 새겨들어라.

법당 들어가려는 기주. 버티며 멀뚱히 서 있는 상필.

기주 왜? 안 들어가?
상필 내, 크리스찬이잖아. (십자가 목걸이 보여주는)
기주 (피식) 가지가지 한다.

상필 얼굴 좋아비네.
기주 구라는 여전하시고...
상필 와? 내 진짜 억울한데. 와 너는 사람 말을 못 믿노...?
기주 빼줬나? 농담이지. 임마.
상필 (피식) 아! 맞다! 해리! 그 해리 말고,

그때 그 동명이인, 그 해리. 아버지가 전화가 왔더라고.
미안하다고. 가출한 딸래미 찾아놓고 쪽팔리가 연락을 온 했단다...
실망할 거 없다. 내 인터폴에 수배를 해서라도 찾아주께.
기주 (괴식) 됐다.
상필 어? 이 어이없는 반응은 뭐지...?
기주 (미소) 찾았어. 해리...

#56. 국도변 일각/개울가 (#37에서 연결)

무릎 꿇고 물끄러미 물속 들여다보고 있는 기주.

기주 (울먹, 조곤조곤) 가면 간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랬어도 보내줬을 텐데,
잘 가라고, 작별인사라도 하게...

자신의 물그림자 보던 기주, 갑자기 깜짝 놀라서 보면
자신의 물그림자 바로 옆에 누군가 앉아 있다.
고개 돌려 보면, 해리다.
해리의 시선 따라가면,
어른 기주, 어느새 열한 살 어린 기주로 변해 있다.

해리 (배시시) 나 보여?

어린 기주 (끄덕끄덕)

해리 다행이다. 투명인간 아니라서...

어린 기주 너는, 너는... 거짓말이야.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내 머리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는, 바로 나야! 맞지?

해리 (끄덕, 슬픈 미소)

그래두 다행이다. 작별인사 할 수 있어서... 그치?

어린 기주 (끄덕, 울먹)

배시시 웃는 해리, 따라 웃는 어린 기주와 마주 보며 웃는

어린 기주 (울음 삼키고, 미소) 이 말, 너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
해리아! 그동안 고마웠어...

해리 (미소) 응.

미소 짓는 해리 시선 따라가면, 열한 살 어린 기주는 어른
기주로 변해 있고, 배시시 마주 보며 미소 짓는 어른 기주와
어린 해리. 물속에 비치며 일렁이고...

개울 위 둑길,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어른 기주의 뒷모습,
뒤돌아보지 않은 채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린다.
뒤에서 배웅하고 있을 누군가를 향해 바이바이,
커다랗게 손 흔들며 점점 멀어진다.

#57. 에필로그. 고속도로/기주의 승용차

컴컴한 터널... 막 빠져나오는 승용차 한 대.

운전석에 기주.

창밖으로 초록빛 풍경들이 훑훑 지나가고

운전 중인 기주, 이어폰 빠질까 봐 새로 잘 꽂으며.

안내음(E)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삐~

기주 (잠시 뜸) ...어디까지 얘기했지? 음. ...아, 그래... 해리...

그때 음... 나는 그냥, 너무 무서웠던 거야.

어린애가 감당하기에 그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해리를 만들어놓고, 나는 그 뒤에 꼭꼭 숨어 있었던 거야.

넌 이해해줄 수 있지? ...혜영아! 듣고 있지?

음... 좀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내가 한번 감당해보려구.

더 이상 나는... 열한 살짜리 어린애가 아니니까. 너두 있구...

기주의 목소리 점점 작아지는 대신, 점점 커지는 음악 소리.
차창 밖을 스쳐 가는 시원한 풍경들.

끝.

작가 후기 (바이바이 해리 | 박정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더니
뭘 하니까, 뭘 일이 벌어지긴 하네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난생처음 내보는 공모전에, 처음 완성한 단막극 초고가 당선돼서 진심 황당했습니다.
그 다음엔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궁금했죠.
뽑아주시니 저로서야 감사할 따름이지만, 어찌자고 이 따위 대본을 뽑아준 것인가?
대체 오펜은 무슨 기준으로 작가를 선정하는 것인가...?라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문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두둥!
첫째,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둘째,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셋째,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형체도, 질량도 없는 그놈의 가능성을 믿다니 오펜은 참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밥도 주고, 집필실도 주고, 멘토도 붙여주면서 그 가능성을 입증해보랍니다.
오펜의 선택에 배은망덕이 안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초심자의 행운’은 대개 ‘과신의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다 끝난다죠?
그래요, 초반 낫발은 개 낫발이구요...
허우적이든, 개 낫발이든, 그래도 뭘 일이 일어나니까 꽤 즐겁고 재밌네요.
지금도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으니, 또 뭘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참고로... 당선 당시 대본에서 거의 고친 게 없는 버전입니다.
눈만 마주치면 수정하라고 다그치셨던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이판 대본 실리면 오펜 이미지 실추될까봐 심히 염려스럽지만
한 편쭈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 따위는 나도 쓴다, 하고 오펜 지망생들에게 희망이 되게요.

† 해리성 정체성 장애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지움으로써, 혹은 다른 인격을 만들어 그 뒤에 숨어버림으로써 고통에 대처하는 것.
하지만 해리는 일시적인 방어기제일 뿐, 방지하거나 계속 키울 경우 엄청난 혼돈을 가져온다.

2019 오픈 3기/드라마 작품집

빅데이터 연애 — 정희선

정희선
tomorrowok@hanmail.net

- SBS 다큐멘터리 <환경의 역습>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SBS <2017 대선주자 국민면접> 등 집필.
- 올해의 한국 방송작가상 교양 부문 <환경의 역습>
- SBS 작품상 특별상 <그것이 알고싶다>
-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 <환경의 역습>
- 한국방송대상 특별상 <그것이 알고싶다 - 국군포로 장무환>
-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환경의 역습>
-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긴급출동 SOS24>
- 휴스턴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은메달 <그것이 알고 싶다 - 국군포로 장무환>
-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그것이 알고 싶다 - 살인미스터리 누가 수지킴을 죽였나/하나의 몸, 두 개의 영혼 삼쌍둥이 그 생존의 조건/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은 엄마들> 등 수상.

작의

남녀의 사랑도 빅데이터에 지배되는 세상이 온다면?!

드라마 <빅데이터 연애>는 이런 발칙한 상상에서 시작한다.

개인의 검색이력을 모은 빅데이터를 통해 그 사람과 꼭 맞는 상대를

골라주는 빅데이터 매칭. 4차 산업혁명이 연애·사랑과 접목됐을 때 인간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드라마는 빅데이터 맹신론자인 앱 개발자가 빅데이터 연애 풍토에 비판적인 잠입취재 프로그램 피디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현실을 시청자와 함께 상상해보고자 한다.

두 사람의 만남과 이별을 지켜보며, 제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사랑의 본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 이 특별한 상상도 의미 있지 않을까.

등장인물

김서준(34세, 남)

천재적 프로그램 개발자.

빅데이터 신봉자로, 빅데이터로 파트너를 매칭해주는 앱을 개발했다.

빅데이터로 딱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사랑과 이별의 상처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빅데이터상 전혀 맞지 않는 여자와 가짜 연애를 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봉착한다. 드럽게 깔끔하고 환장하게 머리 좋은 게 흠. 정확하고 차갑고 잘 웃지 않는데, 자신이랑 빅데이터로 1도 안 맞는 안빛나를 만나 자꾸 안면 근육이 움직인다. 첫사랑 양설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 트라우마. 머리 쓰는 데는 전문이지만 몸 쓰는 데는 허당이다.

안빛나(31세, 여)

작은 제작사에서 잠입취재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약직 취재피디다.

빅데이터 연애의 허상을 밝히려고 잠입취재에 뛰어들었다가

빅데이터 연애 신봉자인 김서준에게 빠진다. 모두가 흑백인데 딱 한 사람만 반짝반짝 컬러로 보이는 그런 사랑을 꿈꾼다.

남들은 그것이 아날로그 로맨스의 판타지라고 놀리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그녀의 심장이, 빅데이터로 만나 약감정만 있던 서준에게도 뛰기 시작해서 대혼란이 시작된다. 몸은 잘 쓰는데 머리 쓰는 건 귀찮다.

차인애(31세, 여)

빛나의 절친. 뱃살도 팔뚝 살도 너덕한 그녀에게, 연애는 늘 썸만 타다 차이는 세계였다. 그러다 빅데이터 연애 세상을 만나 유레카를 외치는 중. 빛나 입장에서 보면 빅데이터 연애의 얼리어뎁터다. 나름 남자 보는 눈이 까탈스러워서, 남자는 무조건 덩치! 특히 엉덩이가 커야 한다.

박상훈(34세, 남)

서준의 최측근 참모이자 친구. 우락부락 몸이 좋다.(엉덩이, 크다!) 직책이 본부장이라 보통 '박본'이라 불린다. 까탈스러운 서준을 모나지 않게 잘 보좌할 만큼 화통하고 유머감각이 있다. 섹시함의 기준은 살집이라 외치는 그의 앞에 퐁퐁 마녀 차인애가 나타났다.

양설아(32세, 여)

서준을 사랑했지만 서준의 공대생스러운 꿈이 성에 차지 않았던 여자. 사랑과 결혼은 별개라며 서준과의 연애에 이별을 고하고 떠났다.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진 대가로 큰 상처가 남은 서준은 그녀와 헤어진 후, 딱 맞는 사람끼리만 짝을 맺어주는 빅데이터 연애 앱을 만들었다. 그런 그녀가 요즘 자꾸 서준의 곁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를 혼든다. 결국은 또다시 서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떠날 거면서.

송정석(32세, 남)

빛나의 전 남친. 빛나가 빅데이터 연애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든 장본인.

그 외

빛나 회사 팀장, 빛나 동료들, 브런치카페 직원, 브런치카페 매니저, 생방송 MC, 생방송 PD, 인애의 빅데이터 연애 파트너, 정석 여친, 간호사, 카페 점원, 자전거 탄 남자, 연날리기 상인 등.

줄거리

“빅데이터 연애,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님 앞보다 사람들이 더 솔직해지는 곳이 검색창 앞이라고 믿는 김서준. 그 검색이력을 모은 빅데이터 정보로 상대를 매칭해주는 앱을 개발했는데, 가입률이 신통치 않다. 어느 날 서준은 화제의 벤처사업가를 초대하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방송 도중 “빅데이터 연애,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마는데… 아직은 옛사랑의 상처가 아프다.

“사랑을 케미로 해야지 어떻게 데이터로 해?”

빅데이터 연애로 바람난 남친이 “너도 빅데이터 연애를 해보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라며 떠나던 날, 방송국 잠입취재요원인 빛나는 결심했다. 사랑과 연애가 빅데이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실태를 취재해보리라! 그래서 직접 빅데이터 연애에 뛰어들었는데… 헐! 매칭 상대로 이 앱의 개발자인 김서준이 나왔다. 대박이다.

“빅데이터로 1도 안 맞는 이 여자,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마음 떠난 남친에게 구질구질 매달리는 현장에서 우연히 스쳤던 그녀, 빛나가 미팅 상대로 등장한 순간 서준은 직감했다. 긴급상황 발생! 심각한 버그가 발생했고 그 바람에 빅데이터로는 1도 안 맞는 여자와 매칭이 됐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서준이지만, 잘못된 매칭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자본잠식 직전까지 간 회사가 입을 타격을 가늠할 수가 없다. 결국 서준은 빛나와의 가짜 연애에 뛰어드는데… 어찌나! 빅데이터로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이 여자가 자꾸 신경 쓰인다.

“사랑은 케미로 하는 거죠, 빅데이터는 도울 뿐이고!”

고심 끝에 빛나로부터 반쯤당하기 작전에 돌입하는 서준. 하지만 예측 불가 사건들에 엮이며 그녀와의 밀당은 깊어지고, 자신이 종교처럼 신봉하던 빅데이터 연애를 양보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

빅데이터를 맹신하는 서준과 빅데이터 연애를 불신하는 빛나는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AI가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을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빅데이터 연애 정희선

#1. 몽타주

한강다리 - 남산 - 빌딩숲 지나 번잡한 시내로 카메라가 들어가면, 버스 안, 횡단보도, 거리에서 휴대폰 검색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위로 '속초맛집, 대출이자, 로또 맞는 법, 루이비통, 첫날밤' 입력되는 CG. PC 검색창에 검색하는 박본, '연애 잘하는 남자' 검색어 넣는 CG.

빅데이터 소싱되는 CG. 넷플류의 OTT 화면에 '당신이 지금 보고 싶은 영화'가 뜨는데, 쭈르르 19금 영화가 추천되고, 두리번대며 눈치 보는 지하철 안의 인애, 셰프의 요리 쇼들이 이어지는 옆으로 레스토랑 평가 순위 CG.

서준(E) 밥을 먹고 차를 타고 SNS를 하듯이, 우리는 매일 검색창 앞에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님 앞에서보다 더 솔직하게! 자신의 욕망을 입력하죠. 먹고 싶고, 알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걸 검색한 이력이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제는 영화, 책, 음악을 직접 고르지 않습니다. 빅데이터가 골라줍니다. 가짜 포스팅에 속아서 맛집에 간다? 옛날얘기죠. 빅데이터는 거짓 없이 맛집을 추천해줍니다.

#2. 방송국 스튜디오

무대 위, 서준이 강연 중이고, MC가 스톨의자에 앉아 보고 있다. <빅데이터가 바꾸는 연애> 제목이 가운데 떠 있고 '입맛, 관심사, 라이프스타일, 도플갱어...' 등의 타이포가 인 아웃 되는 백으로.

서준 (앞의 오디오 이어서) 저는 이 빅데이터를 연애에 접목했습니다.

나와 똑같은 검색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입맛, 관심사,
라이프스타일, 밥의 취향까지! (방청석만 웃고) 나와 모든 게
똑같은, 도플갱어 같은 사람을 파트너로 맺어주는 겁니다.

방청객 와~~

#3. 방송국 부조

생방 진행하던 피디, 옆에서 참관하던 박본을 부른다.

피디 잠깐만요!

박본이 다가가면 박본에게 뭐라 뭐라 묻는 피디.
박본, 멈칫하다 이내 씨익, 코 벌렁거리며 오케이 사인을
보낸다. “정말 빅데이터로 만나면 천생연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녹화 중인 MC 오디오가 들리는 가운데.

피디 (마이크 누르고) 다음 질문은 이렇게 갑시다...

#4. 방송국 스튜디오 다시

서준 모두가 빅데이터 연애로 최고의 짝을 만나는 세상이 저의
목표입니다.

MC, 인이어로 들어오는 PD의 디렉션 듣다가 서준 말이 끝나면.

MC 김서준 대표가 직접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개발자도 자신의
연애를 맡기는 빅데이터,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요?

서준 (당황) 네? 아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MC 여러분, 김서준 대표의 빅데이터 연애, 박수로 응원해볼까요?

와~~ 방청석에서 박수와 함께 환호성 터진다.
애써 웃지만 난감한 눈빛으로 방청석을 바라보는 서준.

백으로 걸린 <빅데이터가 바꾸는 연애> 타이포가 반짝이는 데에.

타이틀. “빅데이터 연애”

#5. 레트로 소품 숭(낮)

인서트. TV 방송

애써 웃는 서준, MC와 악수하며 끝내고 있다.

빛나 (TV에 다가오며 타박하듯) 뭐래~. 연애를 무슨, 데이터로 해.

TV를 탁 끄고 카운터로 가는데, 옛날 포스터, LP판, VHS
테이프, 필름 카메라 등이 보인다. 레트로 라디오를 지나치다
스위치를 켜면 음악이 나오고, 미소 띤 채 카운터로 가서 엽서를
계속 쓰는 빛나.

인서트. 엽서 내용.

장조림에 버터 한 스푼, 엄마는 대충 비벼줘도 맛있던 밥이
왜 내가 하면 그 맛이 안 날까요. 엄마한테 신청곡 하나
떠워주세요. (이어서 쓰는) <브로콜리너마저의 유자차>.

빛나, 엽서 들고 뿌듯하게 보는데. 딸랑딸랑~ 풍경 소리
들린다. 쳐다보면, 숭 주인인 인애가 들어오고 있다.

인애 (부산 억양의 서울말) 늦은 거 아냐?

빛나 이제 가면 돼. (카메라 안경 등 짐을 챙기며 휴대폰을 드는데
2G폰이고)

인애 날이 꾸물꾸물하다.

빛나 비가... (창밖 보며) 에이 이런 하늘은 비 안 와! (발랄한 미소에서)

#6. 자전거도로/브런치카페 앞(낮)

멀리서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달려오는 빛나의 자전거.
신나게 달리며 휴대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을 쪽쪽 지나치다가
끼익 서는데. 자전거도로까지 넘어온 휴대폰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다. '괜찮으세요? 깜짝 놀라셨겠다.' 오지랖으로 챙기며
지나가고. 브런치카페 앞, 자전거를 세우는 빛나. 카메라 안경을
꺼내 쓰는 데에.

서준(E) 그 질문에 오케이를 주면 어떡해?

#7. 브런치카페 홀(낮)

서준의 테이블에 샌드위치가 서빙되고 있고.

박본 사람들만 확 끌어올 수 있으면 난 여기서 벨트라도 풀어!
서준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내가 연애를 지금 하고 싶냐고.
박본 (앱 보다가) 움직인다! 가입자 그래프 올라가는 거 봐봐! 김서준이
먹힌다니까. 지금 다, 너랑 매칭되려구 들어오는 거야.

신나서 휴대폰 보라고 건네는데,
물티슈만 각 잡아 잡고 있는 서준.

박본 하여튼, 드~럽게 깔끔하고 환~장하게 머리 좋은 게 흠이긴 한데,
걱정 마라. 내가 회사를 위해서 (입에 지퍼 시늬) 피약! 채운다
진짜.

휴대폰을 휙 놓고 양손으로 샌드위치를 우걱우걱 먹는 박본.
서준, 하... 한숨을 뱉다가 빼뺏어진 커피잔을 봤다. 잔을 밀어
반침대 정중앙으로 각 잡아놓고. 그런 서준 눈치에 박본도 흠흠,
괜히 자기 휴대폰을 똑바로 놓는데.

#8. 오픈 주방(낮)

주방에선 불 소가 한창이다. 볶아진 바지락을 세팅하는 셰프의
손. 옆에서 '47번 봉골레파스타!'를 외치며 접시를 올리는 조수,
빛나다. 이어서 주문표를 보고 돌아서서 냉장고 안의 우유를
꺼내는데. 슬쩍 주위를 살피며 안경 위치를 잡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빛나.

(안경 카메라) 유통기한 ○월 ○일 쓰여 있고.

(일반 카메라) 가만히 냉장고에 다시 집어넣는다. 이어
직원1에게 주문표를 넘기며 화장실 간다는 손짓을 하는 데에.

노크 소리(E) 똑똑!

#9. 화장실(낮)

똑똑! 똑똑! 칸 칸마다 노크하며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빛나가
팀장에게 전화를 건다. 한 손엔 벗어난 안경이 들려 있고.

빛나 오늘도 유통기한 지난 거예요... 당연히 짝였죠! ...네, 분위기 봐서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의기양양 표정으로 끊는 데서)

#10. 오픈 주방 다시(낮)

룰루라라 자리로 돌아오는 빛나. 그러다 우뚝 그 자리에 서는데.
(안경 카메라) 테이블에 정석과 여친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게
보인다. (일반 카메라) 메뉴판을 보던 정석, 여친 이마에 쪽!
뽀뽀까지 하고. 그 모습에 안경을 벗고 앞치마를 풀어헤치는
빛나. 주방 테이블에 그대로 던져놓더니 저벅저벅 걸어나간다.

#11. 정석 테이블/서준 테이블(낮)

정석 어... 어... (빛나를 보더니 별떡 일어나고)

여친 왜 그래 오빠?

사람들 쳐다보고, 서준과 박본도 고개를 돌리는데.

빛나 (어느새 앞에 와 있다)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울 것 같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는 말에 서준의 눈에 힘이 들어가고.

빛나 니가 뽀뽀를, 왜 재한테 하나구.

정석 빛나야, 뭐냐면, 아, 우리가 너무 잘 맞는다고 해서 만났다가,
빛나 우리? 니들이 잘 맞는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러더냐고!!
정석 하... 그래, 빅데이터. (이판사판) 빅데이터가 그랬다 왜?
빛나 뭐? 빅데이터?

박본, 오~ 하는 표정이고. 서준은 뚫어져라 지켜본다.

정석 (다시 비굴) 우리가 95퍼센트 비슷하다는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빛나 95퍼센트?! 그렇게 똑같다는 사람 만나니까, 좋아?
정석 (태세 전환) 빛나야. 세상이 변한 걸 받아들이자. 너두 빅데이터로
누굴 만나면 날 이해할 거야. (여친 끌어당기며) 우린, 서로 원하는
게 똑같아.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심지어, 밤에두...
빛나 (귀 막으며) 아얏!!!!!!!!!!
매니저 (달려와 말리며) 안빛나 씨! (정석에게) 싸움은 나가서 하시죠.

하는 순간, 정석이 냅다 매장 밖으로 튀어 나간다.
빛나, ‘송정석!’ 하더니 뒤따라 나가고, 여친도 따라 나가면.

박본 와우... 대박!

하면서 보는데, 서준은 동요 없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때.

직원1(E) 매니저님!!
박본/서준 (쳐다보면)

#12. 오픈 주방/홀(낮)

직원1 (빛나 안경을 들고) 몰래카메라예요, 몰카! (호들갑) 뭐지?
혁! (냉장고 열고 우유 보며) 유통기한이요, 유통기한!
이거 찍었나(봐...)

매니저 (그대로 달려들어 입 막으며) 야이, 췌!

박본, 헐! 하면서도 샌드위치를 입에 밀어 넣는데.
표정 변화 없이 무릎 냅킨을 접어 테이블에 올리는 서준.

서준 (휴대폰에 대고) 알렉스! 밖에 비와, 안 와?
AI(E) 현재 습도 73퍼센트, 우산을 챙기세요!

박본, 짹짜게 우산을 꺼내며 그만 화 풀라는 표정이다.
혁 채가는 길로 박본에게 화풀이하는 서준.

#13. 카페 앞 인도(낮)

빛나, 정신없이 정석을 찾고 있다. 하지만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후두두둑,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우산을 꺼내 쓰는데,
하늘을 보며 하... 탄식을 내뱉는 빛나.
그대로 다시 빗속을 헤맨다.

#14. 인도 일각(낮)

비가 오는 중이고, 쫄딱 비를 맞은 채 터덜터덜 걷고 있는 빛나.

회상. 몽타주.
- 도시락을 싸는 빛나.

- 고시원 방, 추리닝과 양말들을 빨래바구니에 넣는 빛나.
 - 도서관 책상에 엮어진 정석에게 패딩을 벗어 걸쳐주는 빛나.
 - 컴퓨터 앞, 9급 공무원 합격 확인한 정석과 얼싸안는 빛나에서.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흐르는 눈을 꼭 눌러 닦아낸다.
 그러다 우뚝 서는데. 슬픔에서 분노로,
 정신 차리자는 포정이 되고.

#15. 도로 일각(낮, 비)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내는 차 안.
 서준이 생각에 잠겨 운전 중이다.

플래시 컷. #11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겹쳐지며 회상. 서준의 집 거실.
 감정에 북받친 서준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잇으려는 듯 고개를 도리도리하는 서준, 다시 앞을 주시하면
 빗속에 서 있는 빛나가 보인다. 분위기를 살피며 속도를
 줄이는데,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며 택시를 잡듯이 손을 휘젓는
 빛나. 서준이 놀라서 차를 세우고, 빛나가 그대로 문을 열고
 타버린다. 비에 젖은 채 들이닥친 빛나로 더러워진 차에 기함을
 하는 서준.

빛나 필동이요!
 서준 (거의 동시에) 저기요!

순간 고개를 돌린 빛나, 자신을 보고 있는 서준에 놀라는데.

빛나 엄마야! 누구세요?
 서준 제가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빛나 어머! (안전벨트 풀면서) 택신 줄 알고… (허둥대느라 안 풀린다)
 서준 (지켜보다가 한숨을 훌 쉬고, 박본에게 받은 우산을 건넨다)
 빛나 네?
 서준 (턱을 들어 창밖을 가리키고)
 빛나 (비가 더 세차졌다) 감사… 합니다. (그제야 벨트가 풀리고)
 서준 (뭔가 치밀어 오른 듯) 빅데이터 연애라면서요.
 빛나 (!?!)
 서준 95퍼센트 매칭률이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쪽 연애, 좀 친 거라구요.
 빛나 봤…어요?
 서준 (차분하게) 바람난 남자 잡아 뭐합니까? 그런 쓰레기는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버리고 딜리트. 그게 정답이에요.
 빛나 (!!…)
 서준 안 내립니까?
 빛나 아, 죄송합니다. (차에서 내리며 우산을 펴고)

서준, 그대로 떠나버린다. 우산을 쓴 빛나, 서준의 차를 멍하니
 보는데, 서준도 백미러로 멀어지는 빛나를 본다.

#16. 빛나 회사/회의실(낮)

문에 ‘<현장에 간다>팀 회의 중’ 붙어 있고.

팀장(E) 룰은 간단해.

#17. 회의실

팀장이 빛나 등 취재피디 세 명 모아놓고 잔소리 중이다.

팀장 다음 시청률 꼴찌 한 사람은 재계약에서 아웃되는 거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 거지, 퍼펙트하게!

빛나 (멍한 채, 빅데이터 연애에 X표, 송정석에 X표 낙서 중이고)

팀장 (빛나에게) 촬영파일을 홀라당 날리고도 안 찢리니까, 세상이 우습지?

빛나 (쿵 찢르는 동료에 놀라 고개를 들고)

팀장 뭐 하세요 안빛나 피디님? (낙서를 쓱 들여다보며) 빅데이터 연애?

빛나 (급히 숨기는데)

팀장 빅데이터 연애...! 좋네! 요즘 니들 다 그걸로 연애한다며. 안빛나, 당장 잠입해. <현장에 간다> 아이템으로 딱이다!

빛나 (당황) 제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템 찾아보겠습니다.

팀장 됐고, 제목은 '빅데이터 연애 실태 보고!' 이렇게 뽑는다.

빛나 팀장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저 이 아이템만 빼주세요.

팀장 찬밥 더운밥도 가리세요? 여기서 회사 관둘래, 이 아이템 할래? 정해!

빛나 (미치겠고)

#18. 곱창집 (저녁)

홀에서 인애가 곱창을 굽고 있다.
빛나가 터덜터덜 들어와 앉으면서.

인애 괜찮아?

빛나 도망간 그놈? 잔소리 만렙인 팀장? (인애의 소주잔을 털어 넣는다)

인애 (곱창을 입에 넣어주며) 우리가 아는 남자들은 어째 이놈의 곱창보다도 못하냐. (자기 입에도 넣으며) 요놈은 씹을수록 맛이 나 있지.

빛나 (말없이 빈 잔에 소주 따르고)

인애 (휴대폰 꺼내며) 이거 봤어? 나, 여기 들었다!

인서트. 기사.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드라인과 사진.

인애(E) 여기 대표가 미팅에 직접 나온다잖아.

인애 또 알아? 나랑 딱 매칭이 돼서 팔자 고칠지.

빛나 (헐!) 뭐야, 이거 만든 사람이었어?

인애 이 사람 알아?

빛나 자기가 쓰레기였네. 이런 쓰레기 앱이나 만들고.

인애 아우 야, 이렇게 잘생긴 쓰레기가 어디 있어.

빛나 송정석이! 빅데이터 연애지 빅잇인지 그거에 해까닥해서 가버렸다고!

인애 아 그런 거야?

빛나 (흥분) 데이터부터 딱딱 맞춰보고 만난다며. 조건만남이랑 뭐가 달라! 뭐 그렇게 비인간적인 연애가 있냐구. 근데 그 자식이, 나도 해보면 지를 이해할 거래. 다들 미친 거 아니니? (울기 직전이고)

인애 안 되겠다, 남자는 남자로 잊자! (하는데 빛나의 2G폰 보이고)

하... 내 폰으로 들어줄게!

빛나 됐어.

인애 나랑 같이 미팅 나가자 빛나야.

빛나 들었대구!

인애 뭐어? 니가? 언제?

빛나 빅데이터 연애, 이번 아이템이야.

인애 으응?

빛나 좋다 이거야, 그게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내가 이번에 확실히 깨줄 거야. (곱창을 잘근 씹으며 눈빛이 반짝이고)

#19. 서준의 오피스텔 앞 (저녁)

삐빅! 차 문을 잠그고 오피스텔 현관으로 들어서서 서준.
그러다 갑자기 동작이 정지되는데. 앞에 설아가 서 있다.
멈춰 선 채 떨리는 표정으로 보는 서준을 향해 빙긋 웃는 설아.
이내 못 본 척 설아를 지나쳐 들어가는 서준.
설아, 잠시 쓸쓸한 표정이더니 예상했다는 듯 따라 들어간다.

#20.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저녁)

서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고.

설아, 옆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함께 서면서.

설아 번호 바꿨더라. 난 자기가 전화할까 봐 여태 못 바꾸고 있는데.

서준 (!!)

설아 알고 있지? 나 헤어진 거.

서준 알고 싶지 않아.

설아 알고 있었네.

그때 엘리베이터 열리고, 서준이 그대로 타서 X층을 누른다.

설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타라고 안 해?

서준 (굳은 얼굴로 눈 안 마주치는데)

문이 닫히기 시작하자, 손을 내밀어 문을 다시 여는 설아.

설아 타라고 해줘. (서준과 뺨히 눈을 마주치는데)

서준 … (자기 마음과 싸우는 중이다)

설아 타라고 하면, 탈게.

그때 다시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문에 점점 가려지는 설아.

순간 닫히다 정지하는 문. 설아, 눈을 들어 보면

문을 막은 채 설아를 보고 있는 서준의 표정이 복잡하다.

설아, 그런 서준을 보며 씩, 웃고.

#21. 서준 집 거실(밤)

스탠드만 켜진 거실. 설아가 식탁에 기대

서준을 뺨히 보고 있다.

서준, 말없이 와인을 따르며.

서준 왜 다시 왔어.

설아 …그냥.

하더니 서준 뒤로 와락 달려들어 안는 설아.

서준의 눈빛이 흔들린다. 몸을 돌려 설아와 마주 보는데.

설아가 서준에게 다가오고, 갈등하는 서준.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며 설아를 잡아 제지한다.

잠시 그대로 있다 눈을 뜨는 설아, 서준을 지그시 쳐다보는데.

말없이 잔을 쥐여주는 서준과 그런 서준을 보며 피식 웃는 설아.

서준 그때나 지금이나 내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

설아 (와인잔을 두고 창가로 가며) 왜, 진도유망한 사업가가 돼 있잖아.

서준 (…!)

설아 (쳐다보며) 아우, 또 진지 탄다!

서준 (와인잔 들고 창가에 나란히 서며) 너 그렇게 가고 앱을 만들었어.

맞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남는 건 상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사람들의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어서.

설아 (장난스럽게) 그래서 내 덕분에 돈 많이 벌었어?

서준 (뺨히 보며) 아니, 여전히 빚쟁이야. 이 업계도 경쟁이 치열해서.

설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

서준 실망했니?

설아 (피식) 그냥 보고 싶어 온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고.

서준 실망했구나.

설아 사랑에 조건을 따지는 내가 여전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서준 와인잔을 뺏어 마시고) 우린, 자기 앱으로 맞춰보면 매칭률이 20프로도 안 나올 거야.

서준 (쓸쓸하게) 맞춰볼래?

설아 아니.

서준 해보자.

설아 싫어. AI보다 머리 나쁜 내가 봐도 우린 안 맞아. (와인잔을 서준에게 쥐여주며) 그래도 나는 여기 올래, 가끔.

쿨하게 창밖을 보는 설아.
그녀를 바라보는 서준 표정이 복잡하다.

#22. 레스토랑 야외 주차장(낮)

주차장에 들어서는 인애 차.

#23. 차 안(낮)

조수석에서 빛나가 자기를 향해 안경을 들고 오프닝을 따고 있다. 브런치카페 잠입 때 놓고 온 안경과는 다른 모양이고.

빛나 (안경 카메라 향해) 2030의 73프로가 이용하고 있다죠.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연애 이대로 좋은지, 제가 직접 실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애 (차 세우고 빛나 흉내) 저는 직접 연애나 해보겠습니다. 대표랑 매칭이 돼서 팔자 좀 고쳐봤음 좋겠습니다.
빛나 (어흐... 웃으며 카메라 안경 쓰는 데서)

#24. 레스토랑 입구(낮)

입구, 빛나와 인애가 같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인서트. 인애의 앱 화면.
차인애. 165cm, 62kg, 곱창, 호러, 아이스커피, 사진촬영,
학점 3.2, 탄수화물 중독, 진보, 소품 솜 운영 CG.
김남규. 175cm, 80kg, 곱창, 호러, 아이스커피, 사진촬영,
학점 3.3, 탄수화물 선호, 진보, 회사원 CG.

‘오~’ 탄성이 터지는데, ‘매칭률 94%’가 뜨고 하트가 깜박인다.

[†] 미팅장소에서 서로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매칭 상대에 대한 정보가 오픈되는 시스템.

하트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 우락부락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인애 (힙 사이즈 가늠하며) 좋아! 힙은 합격!
빛나 (못 말려! 피식)
인애 자, 이번엔 안빛나! (하면서 다시 빛나 아이디 shine으로 들어가다가)
하... 그러니까 스마트폰 좀 사라고!
빛나 (2G폰 손에 든 채 무시하며) 비번 0327. 26 아니구.

비번 입력하면 앱 화면의 우측 상단에 하트가 뜬다.
두 사람, 하트 위치로 고개를 드는데.

인애 대애박!
빛나 (동시에) 미쳤다!

보면, 서준이 앉아 있다.

인애 취재는 접고, 팔자를 펴보는 걸로! 알았지?

화이팅! 손짓과 함께 자기 남자 쪽으로 직진해버리는 인애.
빛나가 서준에게 고개를 돌리면, 시크하게 머리를 넘기고 있다.
그 모습에 잠시 멈칫하는 빛나. 이내 정신 차리고 다가가는데.
(몰카 앵글로) 앱을 보고 있는 서준이 점점 가까워지고.

인서트. 서준의 앱 화면.
빛나 위치에 깜박이는 하트.
앱을 보다 얼굴을 든 서준, 하트가 깜박이는 데서 빛나를 발견했다. 어디선가 봤는데... 하다가 알아차린다.
그때 그 여자? 하는 데서.

#25. 레스토랑 홀(낮)

마주 앉은 두 사람. 빛나는 카메라 안경을 만지며
위치를 잡는데. 빛나가 안경을 만질 때,
날카롭게 주시하는 서준의 눈빛.

서준 그날 팬찮았습니까?
빛나 우산 덕분에요. 갖고 나올 걸 그랬네요. (안경을 다시 치켜 올리고)
서준 (안경을 보다 가웃) 그런데 그 안경 혹시…
빛나 (당황) 네? 왜요?
서준 아…됩니다. 잘, 어울려서요. (하는데 종업원이 오고)
종업원 뭘 드릴까요?
빛나 (흠흠…) 빅데이터 연애는 정말 서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서준 (시크하게) 레몬차 마시고 싶죠?
빛나 제가요? 커피 마시고 싶은데요?
서준 아… (종업원에게) 커피 두 잔이요! (가우똥)

시간 경과.
호로록 커피를 마시고 잔을 받침대 옆 아무 데나 내려놓는 빛나.
그런 빛나에 고개를 가웃하며 커피잔을 반듯하게 내려놓는 서준.

빛나 그럼 대표님도 호러 좋아하겠네요?
서준 (아니다) 호… 리요! 네 뭐…
빛나 곱창두요?
서준 (이것도 아니다) 빛나 씨는… 얼마나 자주 드세요?
빛나 하루 세끼 곱창만 먹고도 살죠.
서준 (휴대폰 들면서) 잠시만요 중요한 문자가 와서…

하고는 박본에게 문자를 하는 서준.

인서트. 문자.
'긴급상황. 데이터오류 확인 바람. 나랑 다 안 맞음.'

그때 매칭남과 일어나는 인애를 발견한 빛나. 문자를 하는데.
인서트. 문자.
'벌써 가?'

인애 (문자 확인하더니, 남자 팔짱을 끼며 V 손짓 하고)
빛나 (헐…)
서준 아는 분입니까?
빛나 저랑 같이 미팅 나온 친군데… 만나자마자 왜 나가지?
서준 저희 빅데이터 연애는 만나자마자 1일 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빛나 그런가요…
서준 (2G폰을 봤고) 그런데 그 전화기는…?
빛나 아, 제 보물 1호예요. 그리고 보니까 첨단 앱을 만든 분이 왜 저
같은 아날로그파랑 연결이 됐을까요?
서준 (당황) 어… 디지털을 연구한다고 아날로그를 싫어하진, 않죠.
그럼요.
빛나 (끄덕끄덕하다가 안경 앵글을 조정하며) 근데요, 빅데이터가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해줄까요?
서준 (안경 신경 쓰며)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빅데이터가 맺어주면, 믿고
사귌 수 있습니다.
빛나 그래도 사랑을 케미로 해야지, 어떻게 데이터로 할까요?
빅데이터로 잘 맞는 거랑 심장이 뛰는 거랑은 별개 아니에요?
서준 AI 세상입니다. 사랑도, 사랑하는 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죠.
(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근데, 피디들은 원래 질문을
좋아하나요?
빛나 (호들갑) 어머, 제가 직업병이 도졌나 봐요. 죄송해요 호호호.

들킬까 봐 커피 호로록 마시는 빛나와, 애써 미소 짓는 서준.

#26. 서준의 집 거실(밤)

거실에서 TV 보던 박본, 들어오는 서준을 맞이하고.

서준 (냉정) 분명히 버그 난 거야. 커피에 호리에 아날로그… 나도 모르게 내 취향이 변했을 리가 없잖아.

박본 (정색하고) 너 개발자 맞냐? 그 여자 스타일이 원래 너랑 딱 맞는 사람일 가능성은 왜 생각 안 해봐?

서준 뭐?

박본 그동안 설아 씨한테 취해서, 니 본능을 착각한 걸지도 모른다구.

서준 그 이름이 왜 나와 여기서. (단호) 더 수상한 건, 그 여자 순수한 회원이 아닐 수도 있어.

박본 뭐?

서준 알아봐, 몰래 취재하러 우리 앱에 들어온 거 아닌지. (생각에 잠기고)

#27. 빛나 집 앞 골목(밤)

안경 벗은 빛나, 인애와 통화하며 걷고 있다. (화면 분할되고)

빛나 만나자마자 어딜 간 거야?

인애 자리.

빛나 (딱 멈추며) 뭐라구?

인애 뭘 오래 따져. 어차피 나랑 딱 맞는 사람이라구 데이터에 나온 건데.

빛나 그래도 좀, 직접 물어보고 간보고 해야지, 데이터가 하나님이야?

인애 아무래도 넌 20세기에 성장이 멈춘 거 아닐까?

빛나 뭐?

인애 20세기 소녀님은 20세기 방식으로 연애하시구요, 나는 21세기 방식으로 할 테니 걱정 마시구요. 넌 어떻게 됐어? 그 사람 어때?

빛나 첫날이라 별거 못 건졌어. 사람은 괜찮았어.

인애 너도 일단 같이 자!

빛나 난 취재야! (하는데 수화기에서 '자기야' 들리고) 지금도 같이 있어?

인애 응, 내일 보자. (톡 끊긴다)

빛나 (헐! 하고 휴대폰 끊는데, 서준의 모습이 떠오른다)

플래시 컷. #25
“만나자마자 1일 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우~” 하며 고개 흔드는 빛나. 이걸 아니다 싶다.

#28. 서준 회사 외경(낮)

#29. 서준 회사 대표실(낮)

책상에 걸터앉은 서준과, 옆에 서 있는 박본이 회의 중이다.

박본 (눈치 보며) 버그 난 거… 맞아. (과장해서) 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하필 니가 나간 날 이렇게 됐나…

서준 (톤 변화 없이) 원인은 알아냈어?

박본 추적 중인데 시간이 걸려.

서준 보안유지 해, 원인 파악 될 때까지… 그 안경은? 몰카 맞지?

박본 (끄덕끄덕) 방송국 쪽 레이다 돌려봤는데, 맞는 거 같아.

서준 우릴 왜?

박본 사랑도 AI가 정해주냐, 비인간적이다, 뻔한 얘기지 뭐. 안빛나 씨는 개인적으로 우리 앱에 원한도 있는 거 같고.

서준 이래서 내가 미팅 안 한다고 했지.

박본 (쩍… 하다 번뜩!) 아! (몸을 확 땡기며) 이걸 어때? (서준이 쳐다보면)

#30. 몽타주

- 야구 스윙 하는 빛나.
- 야시장에서 먹는 빛나.
- LP판 보는 빛나.

박본(E) 안빛나 씨의 빅데이터 말야, 외향적이고, 몸 쓰는 거 좋아하고, 야구 마니아에, 아날로그 감성파야.

#31. 서준 회사 대표실 다시

서준 버그 수준이 아주 익스트림이네. 완전히 나랑 반대잖아.
박본 (작전 회의에 신나서) 그래서 말인데, 그 여자의 빅데이터에 딱 맞는 연애 계획을 짜서 연애를 하는 거야. 감동을 한 사발 먹여버리는 거지. 고발하러 왔다가 홍보영상을 찍고 가도록.
서준 가짜 연애를 하라구?
박본 난 벨트도 풀다고 했다?! 직원들 생각하면 뭘 못해?
서준 (심각하고)
박본 그래서 말인데 (흠흠...!) 안빛나 씨는 손톱이 깨끗한 남자한테 끌려.
서준 뭐?
박본 네일 샵 예약해둘게.
서준 야!
박본 잘못하면 우리 계획이 다 꼬여. 그러니까 당분간은, 서준 당분간은, 내 인생이 대신 꼬이게 하자?
박본 빙...고. (씩소 지어주는)

#32. 빛나 방(밤)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다가 휴대폰을 들어서 보고,
다시 뒹굴뒹굴하다가 확 일어나 앉는 빛나.
빛나 천생연분이라며, 이틀째 잠수라 이거지?
휴대폰 노려보는데,
팁장(E) 취재 잘해라, 시청률 또 꼴찌면 알지?
짜증 나서 핸드폰을 침대에 집어 던진다.

#33. 도로 일각/차 안(밤)

운전 중인 서준, 머리가 복잡한데.
벨이 울리고 발신인에 '양설아'가 찍힌다.
갈등하다 받지 않는 서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며 녹음이 되는데.
설아(F) 오늘 어때? 집에서 기다릴까?
한숨 후 쉬는 서준. 블루투스 통화로 연결한다.
서준 오늘은 힘들 거 같아.
설아(F) 듣고 있었네?
서준 설아야. 나는 이제 데이터를 믿어. 빅데이터도 말리는 우리가 다시 보는 거, 생각을 좀 해볼게.
설아(F) (차갑게) 자기 마음보다 빅데이터를 믿는다는 거네. 알았어, 오케이.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전화가 끊기자 마음이 내려앉는 서준. 핸들을 돌려서 갓길에 세운다. 고개를 젖힌 채 한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는데.
시간 경과.
창가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휴대폰을 바라보는 데서.

#34. 빛나 방 다시(밤)

한숨 쉬는데 떠린 문자가 온다.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열면.
인서트. 서준의 문자.
'야구 좋아하죠?'
빛나 오... 됐어! (반색하고)

#35. 버스 정류장(낮)

길 건너 빛나. 가까이 가면, 안경 카메라로 오프닝을 찍고 있다.

빛나 (카메라에 속닥속닥) 요즘 제가 야구 연습에 빠져 있는 거, 빅데이터가 알고 있네요. 관심사가 똑같은 사람을 맺어주는 부분은 합격입니다. (안경을 내리다가 다시 보며) 하지만 인간의 사랑이 빅데이터에 휘둘리는 게 당연한 세상이 온다? 글썄요.

어깨 으쓱해 보이더니 안경을 쓰고.

#36. 주차장/차 안(낮)

서준의 차, 주차장으로 들어온다.

차 안, 내리려다 잠시 심호흡을 한번 하는 서준에.

스윙 소리(E) 탕!

#37. 야구 연습장(낮)

안경 쓴 빛나, 시원하게 스윙을 하고. 불이 신나게 날아간다.

빛나 (명랑) 이 소리 진짜 기분 좋지 않아요?

서준 (뒤에 서서) 야구가 빅데이터와 깊은 관계인 거 아니까?

빛나 (공에서 눈을 못 떼고) 둘이 사귀나요?

서준 (끄응) 미국 메이저리그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팀은 만년 약체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수들을 발굴해요. 장타율, 사사구 비율을 분석하고 활용하죠.

그때 날아오는 공을 탕! 치고, 정확히 장타로 날아가는 공.

빛나 (신났다) 봤어요? 봤어요?

서준 (영혼 없이 박수치며) 결국 빅데이터 덕분에 메이저리그 최초로 20연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웁니다. <머니볼>이라는 영화에도 나와요.

다시 탕! 공을 치는 빛나, 이번에도 신나서 주먹을 치켜드는데, 빛나가 돌아보자 그제야 엄지척! 해 보이는 서준.

빛나 (타석 내려오며) 그러니까 빅데이터랑 야구랑 특별한 사이라는 거죠?

서준 네에. 서로 결혼할 사이예요.

빛나 네에? 하하하하하하하...

웃음소리가 호쾌한데. 서준, 빛나의 해맑은 웃음에 눈이 간다.

서준 (문득) 원래 그렇게 잘 웃어요?

빛나 신나잖아요! (자리 바꾸자고 손짓하며) 선수 체인지요!

서준 빛나 씨가 한 번 더 쳐요.

빛나 대표님도 야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서준 좋아...해요. 근데 나는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에에에~ 빛나가 억지로 떠밀고, 서준은 할 수 없이 타석에 선다. 잠시 후 훙~ 시원하게 배트를 날리는데, 헛스윙이다. 푸하하하하 빛나의 웃음이 또 터지고, 서준 민망한데.

빛나 잠깐만요!

자연스럽게 서준의 뒤로 다가와 서는 빛나.

서준 당황하고, 빛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왼손으로 서준의 어깨를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배트 위치를 잡아준다.

그때 공이 날아오고 “자, 이대로!” 서준의 팔을 앞으로 쪽 밀어내주는 빛나. 탕! 공이 배트를 빗맞았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또 까르르 웃는 빛나.
그런 빛나를 보자 서준도 피식 웃음이 난다.

빛나 어, 웃었다!
서준 네?
빛나 웃지 못하는 병 걸린 줄 알았어요, 하두 안 웃어서.
서준 아... (다시 피식 웃고)
빛나 근데 빅데이터가 천재는 아닌가 봐요! 하는 걸 좋아하는 나랑
보는 걸 좋아하는 대표님을 만나게 한 거 보면요.
서준 (진심) 제가 좀 더 노력해서 빅데이터를 천재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와우~ 박수로 장단 맞춰주는 빛나.
다시 공을 기다리는 서준 뒤에서 자세를 잡아준다. “이렇게요
이렇게... 아니, 왼손을 좀 더 위로” 하면서 좀 더 밀착한 포즈가
되고. 탕! 서준이 스윙을 하는데 이번엔 박자가 빨랐다. 서준의
배트가 먼저 나가면서, 힘을 주고 있던 빛나가 서준의 등에 확
안기게 된다. “괜찮아요?” 하며 서준이 돌아보고, 마침 ‘후...’
뜨거운 숨을 뿜은 빛나의 숨결이 서준 목덜미에 닿았다. 순간
긴장하는 서준 표정 슬로. 빛나의 눈에는 서준의 넓은 가슴이
들어오고, 심쿵 하는 눈 슬로.

서준 괜찮아요?
빛나 (떨어지며) 아...우 그럼요 그럼요. (정신없고) 같까요?
아니 칠까요?
서준 (피식) 같까요?

앞장서 나가는 서준. 빛나가 뒤를 따른다. 습관적으로 안경을
만지며 따라가는 빛나, 그러다 움찔, 안경을 벗을까 말까
갈등하는데. 하지만 이내 도리도리, 다시 쓰는 빛나.

#38. 몽타주. 레트로 거리(낮)

빛나, 거리 걸으며 솜사탕 뜯어 먹고.
서준은 박본 말이 생각한다.

박본(E) 아날로그 감성이 터지는 거리로 데려가. 그럼 빅데이터 연애가
비인간적이니 뭐니 짝 잊어버릴 거다!

다방에서 기분 좋게 차 마시는 빛나를 보는 마음이 편치 않은
서준. 옛날 오락실에서 오락하는 두 사람.
옛날 포스터 가득인 만화방에서 만화 읽는 두 사람.
만화를 펴놓고 안경을 만지작대는 빛나, 서준이 쳐다보자
모른 척 책을 읽는데, 다시 망설이다 결국, 안경을 슬쩍 벗어
가방에 넣는다.

#39. 만화방 앞(낮)

만화방을 나오는 두 사람.
어디로 갈까 마주 보다가, 서준이 달라진 빛나를 발견했다.

서준 조금 전까진 안경을 썼는데?
빛나 (얼버무리며) 썼다 안 썼다 해요, 원래. (하면서 걸어가고)
서준 (가웃하며 가다가 폰을 봤다) 근데 스마트폰은 왜 안 씀니까?
빛나 (2G폰 보며) 엄마가 사고로 먼저 가셨어요. 그때 마지막까지 들고
있던 거예요. 저랑 마지막 통화를 했거든요. 엄마랑 이걸로 연결돼
있는 거 같아서 못 버려요.
서준 (!) 미안합니다. 괜히 내가...
빛나 (미소) 저는 엄마랑 살던 옛날 생각이 나서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건데요, 대표님 같은 사람도 이런 감성을 좋아하는 게 신기해요.
(문득) 정말, 좋아하는 거죠?
서준 그...럼요, 그러니까 빛나 씨랑 빅데이터가 맺어줬겠조...
빛나 사실 저는요, 연애도 완전 아날로그 연애가 로망이긴 했어요.

서준 모두가 흑백인데 딱 한 사람만 컬러로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빛나 한눈에 반했는데 나랑 맞지 않으면, 남는 건 상처뿐이에요.
 그게 연애의 맛 아니에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새살이 돋고,
 연애의 근육이 키워지면서 성숙해가는 거... 그게 진짜 연애
 같은데.
 서준 (!) 연애의 근육? (끄덕끄덕) 빅데이터가 그걸 만들어줄 능력까진
 아직 안 되네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빛나 (까르르 웃으며) 맨날 뭘 그렇게 자꾸 노력해요 호호호.

서준, 민망한 미소 짓다가 휴대폰에 메모한다.

인서트. 메모 앱 화면.
 '연애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필요'

#40. 식당 로비/식당 앞(저녁)

입구로 들어서는 서준과 빛나. 빛나의 까르르 웃음에 서준도
 같이 미소 지으며 들어서는데, 앞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여자,
 설아다. 설아를 본 서준, 그대로 굳어버리고. 빛나, 뭘가 싶다.

설아 웃는 얼굴, 오랜만에 보네.
 서준 ...
 설아 (눈치채놓고 일부러) 회사 직원?
 빛나 아 저는...
 설아 (서준 팔짱을 끼며) 다른 직원들은 아직 안 왔나 보구나.
 빛나 (!!)
 서준 (설아를 보는데)
 설아 우리 서준 씨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요. 일 많이 시키잖아요.
 서준 잠깐만 설아야. (팔짱을 푸는데)
 빛나 (당황해서) 제가 선약 있는 걸 깜박했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저기 뛰지, 회사에서 뵈겠습니다!

꾸벅 인사까지 하고 뒤돌아 직진해 나가는 빛나.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며 뚝뚝이 걷는다.

서준 (빛나를 보다가 돌아서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설아 생각해봐. 내가 왜 이러는지.
 서준 너, 나 만족하지 못하잖아. 아냐?

서준을 물끄러미 보더니 그대로 나가버리는 설아.
 자리에 그대로 선 서준, 갈등하는데,
 잠시 후 설아를 쫓아 나간다.

#41. 식당 앞(저녁)

설아, 앞에 가고 있고.
 뛰쳐나와서 설아를 잡아 돌려세우는 서준.

서준 나 좀 봐.
 설아 (돌아서는데 눈물을 머금었다. 잠시 보더니 서준의 가슴을 치면서)
 미워 정말 미워. 왜... 사는 게 계속 이런 거야! 나 자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엉엉 울어버리고)

서준, 맥이 탁 풀린다. 설아를 잡았던 팔을 조용히 놓고,
 훌훌 대는 설아를 참담한 표정으로 보는 서준.

#42. 빛나 방(밤)

빛나, 양푼에 밥을 비비는 중이다.
 다 비벼졌는데도 계속 팔이 빠져라 비비고. 짙은 눈물이 난다.
 그때 번호 키 누르는 소리가 나고. 빛나, 재빨리 눈물 훔친다.

인애 (들어오며) 무슨 일인데?
 빛나 (입에 넣으며) 여자가 있었어.

인애 말도 안 돼. 그걸 숨기고 나왔단 말야? 이 자식을 화악! 야, 취재할 거 없다더니 잘됐네. 빅데이터 연애사기로 폭로해버려라.

빛나 (꾸역꾸역 밥만 떠먹고)

인애 어어? 이 반응은 뭐지? 그 여자 때문에 삼각 막장 된 거, 다 찍었지?

빛나 아니. 안경을 안 썼어.

인애 뭐어? 그 상황에서 안경도 안 썼다 이거지 안빛나가. (양푼 뺏으며) 말해. 그 여자 만나기 전에 뭐가 있었지, 둘이!

빛나 있긴 개뿔!

하면서 양푼을 다시 뺏어 밥을 뜨는데. 서준 생각이 겹친다.

회상.
연습장에서 쿵광대던 순간.
설아와 마주치던 순간.

혼자 김치국 마신 거 같아 씩씩한 빛나 표정에서.

#43. 바(밤)

혼자 위스키 마시는 서준. 전화기의 연락처를 쪽 내리는데.
안빛나와 양설아가 나란히 떠 있다. 굳은 얼굴로 바라보고.
설아 이름을 터치하고 망설이길 잠시, 꼭 눌러서 '삭제'해버린다.
그러고는 남은 안빛나 이름을 응시하는데.

회상. #37
야구하다가 함께 웃던 빛나와 서준.

후... 굳었던 얼굴을 애써 펴고 빛나에게 문자를 입력하는데.
'자나요?' 쓰다가 지우고, '오늘 미안했습니' 쓰다가 지우고,
'실은 제가 오늘' 쓰다가 휴대폰을 닫는 서준.
그때 다가와 앉는 박본.

박본 버그 원인 잡아냈어. 내일이면 정상화 되겠다. (자기 잔에 따르고)

서준 (위스키만 홀짝이는)

박본 안 기뻐? 이제 가짜 연애 안 해도 되는데?

서준 (씹쓸하게 피식)

박본 (안주 집어 먹으며) 너랑 안빛나 씨 매칭률, 정상으로 돌려둘게.
다음 미팅 때 확인해보자고 해, 현재 시각 매칭률이 얼마지.
서준 (관심이 생겼다) 정상으로 돌아가면, 매칭률이 얼마나 나오려나.
박본 (실눈으로 보다 쿵쿵) 뭐냐 이 요상...한 녀새는?
서준 (다시 드라이하게) 다음 계획이나 말해봐.
박본 다음엔 야시장으로 가자. 안빛나 씨는 거리 음식 같은 거 좋아해.
너는 길 가다 떡볶이도 안 먹는 놈이고. 그러니까 이젠 솔직하게 데이트하면 돼. 그쪽에서 이상하다고 느낄 때 낮아진 매칭률을 확인하면 끝!

서준 버그 때문에 가짜 연애한 거, 말할까 봐. 양심에 좀 그러네.

박본 착한 남자 코스프레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건데 뭐가 걸려.
(서준 표정 보고) 알았어. 이번엔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럼 되지?
서준 (생각에 잠기고)

#44. 빛나 방 다시

다 비운 양푼을 설거지하는데, 떠링 문자가 온다.

빛나 김 대표, 애프터다!

인애 이 상황에서 저 반가워하는 얼굴은 또 뭔데?

빛나 (모른 척) 친구랑 야시장 가자는데? 자기도 같이 나올 친구 있다고.

인애 사과부터 받아야지! 삼각관계 하자는 거야 뭐야.

빛나 내가 무슨 연애하나. 취재만 계속할 수 있음 돼.

인애 거울 좀 봐봐. 니 표정이 지금 취재 중인 사람인지.

빛나 사과야 만나면 하겠지... 너 갈래? 아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되지?

인애 헤어졌다.

빛나 뭐? 잤다며?

인애 아 놔. ...자면 못 헤어져?
 빛나 아니, 그만큼 좋았다는 거 아냐? 왜왜, 왜 그만뒀어?
 인애 (냉장고에서 콜라 꺼내오며) 일주일 됐는데 1년 된 거 같더라구.
 빛나 뭐? (정신 번쩍) 잠깐만 (소형 카메라 가져와서 설치하고)
 얘기해봐!
 인애 취재 포기한 거 아니었어? (하면서 콜라 캔을 따는 데에)
 인애남친(E) 맘에 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돼지껍데기를 못 먹으면?

#45. 회상. 껍데기집(낮)

마주 앉아 껍데기 굽고 있는 인애와 (#24에서 만난) 남친.

인애 재난이지!
 인애남친 첫날부터 (눈짓하며) 거기 들러 껍데기 먹는 커플은?
 인애 축복이정~ (하며 남친의 입에 껍데기를 넣어주고)

#46. 빛나 방 다시(밤)

인애 지난번 그 자식하고는 썸만 1년 뒀잖아.
 빛나 그놈은 평생 썸 타다 관에 들어갈 놈이고!
 인애 이번에는 마음 줄이고, 떠보고, 그런 거 없어서 너무 좋더라.
 근데...

#47. 몽타주(낮)

카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각자 휴대폰 들여다보고.
 파스타집, 마주 앉아서 밥 먹는데 눈은 각자 휴대폰에 가 있는.
 남자가 선물을 내미는데, 인애는 무덤덤하게 받고
 풀어보지도 않고.
 인애(E) 일주일 만나니까 더는 궁금한 게 없는 거야.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선물을 받는데도 설렘이 없더라. 뭘 원하는지 서로 다 아니까.

#48. 빛나 방 다시(밤)

빛나 밀당 없는 연애라... (콜라를 흔들며) 김 싸악 빠진 콜라이긴 하지.
 (캔 따고, 사르르 탄산 올라오는 소리)
 인애 조선시대에, 집안의 정혼자랑 연애를 하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부모님 대신 데이터가 짝을 정해준 거 같았어.
 빛나 (끄덕이다가) 그럼 내일 놀러 가는 건, 콜?
 인애 콜!

#49. 서준 집 외경(낮)

#50. 서준의 방(낮)

옷장 앞 서준, 정장-캐주얼-세미정장을 번갈아 입고 있다.
 마침내 옷을 결정하고 침대를 돌아보면, 옷으로 난장판이 돼
 있는데. 당황하는 서준. 깔끔한 정리도 포기하고 옷을 고른
 자신이 낯설다.

#51. 몽타주. 야시장(오후)

복적복적 오후의 야시장, 화려한 요리쇼 보여주는 푸드 트럭들.
 인애, 기웃대며 입맛을 다시고. 빛나는 서준이 오는지 살피고.

#52. 푸드 트럭 앞(오후)

인애 (트럭 앞에서 입맛을 다시다 서준을 봤다) 온다 온다!
 빛나 (가방에서 카메라 안경을 만지작댄다. 쓸까말까 망설이는데)
 인애 (박본 보며) 야야야야, 딱! 내 스타일 힙이다!
 빛나 (안경을 가방에 밀어 넣으며) 지금 어디 엉덩이가 보이니?
 인애 넌 얼굴 딱 보면 힙이 안 보이니?

하는데 두 남자가 가까이 왔다. 빛나, 인사를 기다리는데.

서준 잘 지냈습니까.
빛나 네... (사과 안 해?) 예?
서준 여기는 제 친구, 박상...
박본 (인애에게 손을 내밀며) 박상훈입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인애 (감동했고) 어머 친구분이 박력 있으시다. 차인애예요.

서준, 애네 분위기 뭐야... 싶은 표정이고.
빛나는 사과 안 하는 서준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다가

빛나 대표님은 저한테 할 말이 있지 않으세요?
서준 (!)
박본 (눈치 보며) 아... 하하하, 금강산도 식후경! 먹으러 갑시다!
아, 그전에 우리 서로의 취향을 테스트해볼까요?
모두 (?)

#53. 야시장 일각/조용한 야외 테이블 앞(오후)

야외 테이블에 트럭 지도를 펴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네 사람.

박본 하나 둘 셋! 하면 각자 먹고 싶은 거 찍는 겁니다!
빛나 (뽀로통해서 건성으로 보고 있고)
서준 (그런 빛나가 신경 쓰인다)
박본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그림 지도 중에서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가리킨다.
박본과 인애가 같은 음식, 빛나와 서준은 다른 음식을 찍었다.

인애 (놀리듯) 빅데이터 커플, 위기인가요?
서준 (작심한 듯) 원래 제가 길거리 음식을 안 좋아합니다.
박본 (헉! 서두르는 서준에 긴장하고)

빛나 (빼딱) 빅데이터가 못 맞추는 것도 있나 봐요.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박본 (눈치보며) 자자 다시 갑니다아! 하나 둘 셋!

다시 찍는데, 이번에도 박본과 인애가 같고,
서준과 빛나는 다르다.
빛나는 재미없고, 서준은 머쓱한데.

박본 (홍분했다) 인애 씨,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지금 앱을 켜봐요.
우리 매칭률 장난 아닐 거 같은데?

인애 여기서 맞춰볼 수 있어요? (앱을 켜고)

박본 회원끼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박본과 인애가 함께 앱을 보며 신났고,
서준과 빛나는 끄응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서트. 앱 화면.

하트가 깜박깜박거리더니 '매칭률 89%' 뜨는 데에

AI(E) 두 사람의 매칭률은 89프로, 좋음입니다.

서준/빛나 (놀라고)

박본 와! 90프로 이상 매칭률이 나오는 사람을 우선 연결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칭이 안 된 거예요!

인애 어머 어머 어떡해요...

호들갑을 떨다가 눈치를 보는 두 사람. 빛나는 어색하게 웃고
서준은 대놓고 짜증이 났다. 박본에게 밀리는 건 싫은데.

박본 (기회다 싶어) 두 사람도, 매칭률 확인해봐요. 만나는 중간에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인애 어머, 만나다가 매칭률이 떨어지는 커플도 있어요?

박본 (과장해서) 그럼요, 막 50프로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서준 (갑자기 일어서며) 빛나 씨, 새우꼬치 먹고 싶다고 했죠?
 먹으러 갈까요? 우리 할 얘기도 있잖아요.
 박본 (왜 저러나 놀라고) 김서준!
 서준 (단호) 지금부터 찢어집시다.
 빛나 (!!!)

#54. 야시장 일각/호젓한 공원 쪽(오후)

한가한 곳으로 나온 두 사람. 천천히 공원을 걷는데.

서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요.
 빛나 아니에요. 우리, 해야 할 말부터 먼저 해요.

하는데, 빛나 운동화 끈이 풀어졌다. ‘잠깐만요!’ 하면서 운동화 끈을 매기 위해 쪼그려 앉는 빛나. 서준은 서서 기다리는데. 그때 빛나의 뒤쪽에서 자전거가 달려온다. 서준, 좌우를 살피다가.

서준 피해요!

빛나, 고개를 들면 자전거와 서준이 동시에 자신에게 달려들고. 서준, 빛나를 거의 안다시피 해서 갓길로 밀어내버린다. 그 순간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빛나를 감싼 채 눈을 뜨면 충돌하기 직전에 자전거가 넘어져 있다. 서준, 자전거를 보다가 화들짝 놀라서 빛나로부터 떨어지고. 빛나도 어색, 괜히 흠뻑 열심히 털어낸다.

#55. 호젓한 공원/피크닉 매트 위(오후)

곳곳에 피크닉 매트 깔고 야시장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는 잔디밭. 서준과 빛나도 음식 한두 개를 가운데 두고

얘기 중이다.

서준 그날, 미안했습니다.
 빛나 (후…)
 서준 헤어진 여친이에요.
 빛나 (!) 지금 만나는 분, 아니구요?
 서준 … 나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했지만 나를 성에 안 차 했죠.
 빛나 (서준의 눈치 보며 듣고)
 서준 한동안 상처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 상처를 미리 피해 갈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앱을 만든 거구요.
 빛나 (끄덕끄덕)
 서준 그런데 빛나 씨가 그랬잖아요. 상처받고, 새살이 돋고, 연애의 근육이 키워지면서 성숙해가는 게 진짜 연애라고요.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나는 연애의 근육이 없었던 거구나… 그건 빅데이터가 해결해줄 수 없겠구나…
 빛나 (바라보면)
 서준 덕분에 빅데이터 연애를 보장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했구요.

하는데 인애가 부른다.

인애(E) 빛나야!
 서준, 빛나 (같이 돌아보면)

#56. 주차장(오후)

인애에게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자신도 운전석에 오르는 박본. 신난 두 사람을 서준과 빛나가 지켜보고 있다.

박본 빛나 씨, 김 대표 제 차 타고 왔어요. 갈 때 잘 부탁해요!
 인애 (빛나에게 자기 차 키를 던지면서) 운전 조심해! 전화할게!
 박본 (인애를 은밀히 보며) 그럼 우린 갈 데가 있어서 이만!

시동 거는 박본과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드는 인애. 이내 썩
가버리고. 남아서 마주 보는 두 사람. 빛나가 어깨를 으쓱한다.

#57. 빛나 집 앞(늦은 저녁)

빛나가 운전해 온 차가 집 앞에 선다. 서준과 빛나가 내리고.

빛나 집에 내려드려도 되는데…
서준 아니에요, 여기서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하는데 빛나의 시선이 갑자기 멈춘다. 정석이 다가오고 있고.
서준, 누구지? 떠올리는데… 아, 생각났다!

정석 빛나야!
빛나 (집과 반대 방향으로 몸을 획 돌려 가는)
정석 어디 가! (빛나를 따라가서 잡는다)
서준 (언짱게 지켜보고)
정석 나 두 시간이나 너 기다렸어!
빛나 왜?
정석 왜라니.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빛나 (!! 쳐다보면)
정석 (서준 의식하며) 너두 나 보고 싶었잖아~. 우리가 지낸 세월이
하루 이틀이야?
빛나 그 세월을 하루아침에 쫓 낸 게 누군데?
정석 다 지난 일을 갖고 왜 이래에. 촌스러운 건 여전해 하여튼.
빛나 (눈물 나기 직전이고)
서준 (빛나가 긴장하자 다가간다) 저기요!

정석, 누구? 하는 눈으로 보는데,
서준, 빛나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어깨에 손 올린다.

서준 그쪽은 우리 빛나 씨한테 말을 걸 자격이 없는 거 같은데.

빛나 (!!)
정석 빛나야, 누…구?
서준 눈치가 진짜 촌스러우시네. 가던 길 가죠, 우리도 가야 하니까.

하는데 빛나가 서준의 팔을 내려놓는다. 서준, 뻔뻔하고.

빛나 (서준에게) 저 잠깐만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당황하는 서준, 정석에게 가는 빛나를 바라보는데.
꼴좋다는 표정으로 빛나 모르게 서준에게 엄지를 내려 보이는
정석. 화끈대는 서준의 표정에서.

#58. 동네 놀이터(늦은 저녁)

빛나와 정석, 얘기 중이고. 미끄럼틀 뒤에서, 잘 안 들리는데
엿들으려 애쓰는 표정이 서준답지 않다.

정석 그놈 누구야?
빛나 그게 왜 궁금한데?
정석 나한테 일편단심이었던 니가 이러면 반칙이지.
빛나 뭐?
정석 아니야, 입이 미쳤네! (입을 치고) 빛나야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휘 주라. 응?
빛나 (흔들린다) 이제 와서… 어찌라고.
정석 (씩씩 빌며) 내가 잘못했어. 그놈의 빅데이터가 뭐라구.
빛나 (떨린다) 그 여자는… 정리… 한 거야?

실록대는 정석의 볼, 이때다 싶어 빛나를 덤석 안고.
그 모습에 동작 정지되는 서준인데.

정석 조강지처만 한 첩이 없단 말이 딱 맞아.
개는 빨래도 안 해주고 진짜.

빛나 (좌절) 뭐어?
정석을 뒤로 확 밀치는 빛나.
그 바람에 정석이 엉덩방아를 찧는다.

빛나 이 나쁜 자식아!
빛나, 정석에게 달려들어 머리, 등짝 할 것 없이 패기 시작하는데. 뛰쳐나와 빛나를 말리는 서준. 간신히 빛나를 떼어놓는다. 정석에게서 떨어져 눈물을 흘리던 빛나, 그대로 뛰어가 버리고.

서준 빛나 씨!
정석 안빛나!
서준 (정석 멱살을 잡고) 당신은 휴지통 비우기까지 끝낸 과거야. 따라오지 마! (정석을 다시 패대기친다)

정석, 엉덩이가 아파 어쩔 줄 모르고,
서준은 빛나를 쫓아가는데.

#59. 빛나 집 앞(밤)

놀이터에서 나온 서준과 빛나, 집 앞으로 걷고 있다.

빛나 우연히 마주치면 어떡해야 하나 수백 번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서준 아직도 마음에서 못 버린 겁니까?
빛나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서준 (걸음 멈추고) 왜 못해요? 남자가 바람이 났을 때, 정답이 뭘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쪽 굵어서 클릭해서 삭제하기!
빛나 (울컥) 대표님도 못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사람 마음을 데이터처럼 딱딱 처리하라고 강요해요?

서준 강요라뇨.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빛나 바람난 남자 하나 휴지통에 못 버리는 나, 바보천치 같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서준 그래요, 왜 못 버립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빛나 미련이든 미움이든 찌꺼기가 남아 있죠 아직은요. 뭐든 완전히 지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구요. 우린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서준 (!)
빛나 그리고, 대표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 우리 무슨 사이도 아니잖아요. 둘이 잘 맞는다고 데이터가 말해줬을 뿐이에요!

움짤하는 서준. 뭔가 말하려는데 짐 앞이다.

빛나 저 들어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획 돌아서 가버린다)
서준 저기…! (부르려다가 더는 입이 안 떨어지는데)

#60. 빛나 집 안(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빛나, 문 닫히면 그대로 문에 기대 스프르 주저앉고. 모든 게 엉망이다. 쪼그리고 앉은 채 천천히 어깨가 들썩이는 빛나.

#61. 서준 거실(밤)

거실로 들어와 털썩, 소파에 몸을 맡긴다. 잠시 후 전화기를 들어 빛나 번호를 찾아보는데. 통화를 누르려다 닫고 생각에 잠기는 서준.

#62. 빛나 집 앞+빛나 집 안(오후)

단풍이 내린 오후, 빛나 집 앞.
서준이 집을 올러다보며 서 있다. 잠시 후 전화기를 꺼내는데. 빛나의 전화기에 '김서준'이 뜬다. 후… 심호흡하고 전화 받는

빛나.

빛나 (화면 분할되며, 차분하게) 네, 저예요.

서준 아직도 기분이 별롭니까?

빛나 어제 잘 들어갔죠?

서준 별일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잠깐 나와볼래요?

빛나 (놀라서 밖을 보면)

서준 (빛나에게 눈인사를 한다)

#63. 바람 좋은 언덕(오후)

둘이 걷고 있다. 하늘에 노을이 지고.

빛나 어젠 괜히 대표님한테 울컥했어요. 미안해요.

서준 내가 먼저 빛나 썰 다그쳤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왜 긴장하나구.
(빛나를 흘깃 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요?

빛나 (!)

빛나, 천천히 서준을 보는데. 서준은 말없이 빛나의 시선을 외면한다. 그때 앞쪽에 연을 파는 좌판이 보이고.

서준 잠깐만요!

좌판으로 달려가는 서준, 연을 산다.

빛나는 그런 서준을 가만히 지켜보고.

서준 (연을 들고 오면서) 연 날려봤어요?

빛나 너무 오래됐어요.

서준 (연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연은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먼저 가신 분한테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거래요.

빛나 (!?)

서준, 펜을 꺼내서 빛나에게 건네준다.

서준 빛나 씨, 어머니 많이 보고 싶잖아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날려보라구요.

빛나 (...!!)

서준 (끄덕끄덕)

곰곰 생각하다가 연 표면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는 빛나.
'엄마, 보고 싶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많이 많이 많이 ♡'
글씨를 다 쓰고 연을 물끄러미 보는데. 코끝이 찡해졌다.

빛나 왜 이 생각을 못 했을까요. 엄마 생각날 때마다 연을 날릴걸.
서준 이제 엄마한테 가볼래요?

서준, 연을 풀어주기 시작한다. 연이 조금씩 하늘로 올라가고.
연을 넘겨받은 빛나, 가슴이 벅차다.
서준을 쳐다보면, 더 높이 올리라고 눈짓하고.
사이좋게 연을 날리는 두 사람 위로, 연이 하늘에 닿은 듯하다.

#64. 도로 일각/서준의 차 안(저녁)

도로를 달리는 서준의 차.

운전 중인 서준,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악 트는데.

빛나 고마워요. (2G폰 가리키며) 이거 고장나면 어쩌나 했는데, 이젠
언제든지 엄마랑 연락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연이 있으니까.

서준 좋았다니 다행이에요.

빛나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서준 내가 먼저 할게요.

하는데 끼이익! 도로의 플라스틱 통을 피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순간 반사적으로 오른쪽 팔을 뻗어서 빛나가 쏠리는

걸 막는 서준. 그 반동으로 서로를 코앞에서 마주하고, 잠깐의 정적이 흐른다. 이내 화들짝 떨어지며 정면만 응시하는 두 사람.

#65. 도로 일각(저녁)

서준의 차가 다시 쪽 달린다.

#66. 도로 일각/갓길/차 안(저녁)

서준 (홀깃 보고) 흑백사진 속에 혼자 컬러로 반짝이는 사람, 발견했어요.

빛나 (…?!)

서준 (빛나를 보며) 하늘 높이 엄마에게 연을 날리던 사람이요.

빛나, 놀라서 얼굴이 굳고 아무 말 못 한 채 서준을 보는데.
서준, 얼마 가지 못하고 끼이익, 다시 차를 세운다.

서준 빅데이터가, 이런 내 마음을 계산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순간, 말하는 서준의 입을 자신의 입으로 막는 빛나.
짧은 입맞춤을 받은 서준, 그대로 다시 빛나에게 다가가고.
빛나도 서준의 키스를 받아주는데… 지이이잉~ 서준의 전화벨이 울린다.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 상태다.

빛나 (서준에게서 떨어지며 미소로) 받아요.

서준 (통화를 누르면 박본이다)

박본 (스피커폰인지 모른 채) 야 큰일 났다.

서준 (눈치보며) 무슨 일인데?

박본 빛나 썬 아직 모르지? 버그 나서 너랑 잘못 맺어진 거.

서준 야! (하면서 종료 누르려는데, 빛나가 손목을 잡고)

박본 우리 인애 씨는, 빛나 씨 속이구 가짜 연애한 거 알면 난리 날 거 같(아) …

서준, 빛나 손을 뿌리치고 종료 버튼을 눌러버린다.
놀라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마주 보는 두 사람.

빛나 속이구? 가짜 연애?

서준 오해예요. 아니, 내가 다 말해줄게요.

빛나 나랑 지금까지 한 거, 가짜였어요?

서준 시스템에 버그가 나서 맺어진 건 사실이에요. 회사가 흔들릴까 봐 버그 잡을 때까지 가짜 연애 한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빛나 당신이 그랬죠. 진실을 말하는 건 빅데이터뿐이라고.
근데 그 빅데이터가 우리는 1도 안 맞는다고 했다는 거네요.
(정색하며) 이런 나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좋아하는 척이나 할 수 있겠지.

서준 빛나 씨도, 나를 속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빛나 (보고) 허, 내가 말할 필요도 없었네.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가방의 카메라 안경을 꺼내며) 난 이거, 꺼둔 지 한참이라구요. 적어도 당신을 대하는 게 거짓은 아니었다구!

서준 빛나 씨!

빛나 내릴게요.

서준, 빛나를 잡는다. 그런 서준을 쳐다보는 빛나, 눈길 이 차가운데. 빛나의 냉기에 스프르 손을 놓는 서준. 빛나가 바로 문을 연다. 그때 들려오는 끼이익! 소리.
서준과 빛나가 놀래서 서로를 바라보고
순간, 서준이 몸을 돌려 빛나를 감싸는 데에 블랙아웃 되며

사고음(E) 랑!!!

앰블런스(E) 빼요빼요.

#67. 몽타주. 병원 응급실(저녁)

- 119 대원과 의사들이 이동 침대 두 개를 연이어 밀고 간다.

- 앞 침대에 빛나가, 뒤 침대에 서준이 누워 이동 중이고.
- 서준과 빛나의 시선으로 천장의 형광등이 지나가는 데서.

#68. 입원실(밤)

간호사가 링거를 만지며 체크 중인 병실, 서준이 침대에 누워 있다. 옆으로 정상범위의 심장박동 그래프가 보이고, 서준이 눈을 뜨는데.

서준 (정신 차리며) 제 차에... 여자는요?
간호사 저 보이세요? (하며 손가락으로 3, 2, 1 표시하는데)
서준 보여요.
간호사 안정이 필요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하면서 휘리릭, 침대를 둘러치고 있던 커튼을 밀어내주는 간호사. 차르르르, 날리는 커튼 슬로. 그 사이로 보이는 옆 베드 슬로. 옆 베드에서 빛나가 누운 채 서준을 보고 있다. 빛나 곁에도 각종 링거와 심장박동기가 연결이 돼 있고.

빛나 괜찮아요?
서준 (끄덕끄덕)
빛나 너무 안 깨어나서 놀래가지구...
서준 (빛나를 보다 팔을 뻗으며) 살아 있는 거 확인해봐요.

빛나, 망설이다 손을 내밀고. 서로 가만히 손을 포갠다.
잠시 후 빛나가 손을 거두려는데, 순간 짝 잡는 서준의 손.
놀라는 빛나, 베드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서준의 심장박동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한다. 이어서 빛나의 그래프도 요동치고. 정상범위를 벗어나자 뽀뽀- 소리가 난다. 큰 폭으로 움직이는 그래프를 바라보다,
다시 서로를 보는 두 사람.

서준 저게 내 진심이에요. 믿어줘요.
빛나 우린 빅데이터로 1도 안 맞는데요?
서준 빅데이터에 우리 심장을 붙여넣어야죠. 기다려줘요.

하는데 뽀뽀- 소리를 들은 간호사가 들어오고, '잠시만요!' 하면서 커튼을 다시 친다. 스프르 풀리는 서준과 빛나의 손.

#69. 낙엽 떨어지는 거리

#70. 방송 스튜디오(#2 스튜디오 다시)

자막. "1년 후"
<빅데이터연애 플러스> 플래카드 걸려 있는 무대, #2의 MC가 스톨의자에 앉아 있고, 서준이 #2처럼 다시 강연 중이다.

서준 빅데이터 연애가 아날로그 연애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버전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빅데이터는 도올 뿐이죠.
MC 심장 박동과 빅데이터가 콜라보 된 시스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방청객 네!
MC 오늘은 이 자리에서 시연을 해보기 위해서요, 미리 매칭에 동의한 분들을 방청객으로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이번에도 직접 나서는 거죠?
서준 (순간, 눈빛이 흔들리며 답을 못하고 서 있다)
MC 김서준 대표님!

술렁이는 방청석. 서준은 몸이 굳은 채 방청석을 보고 있는데. 시선을 따라가 보면, 가운데줄 끝쯤에 빛나가 앉아 있다.

서준 네, 제가 한 분을 지명해서 매칭률을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MC 아 그런 식으로요? 좋습니다. 지명하시죠!
서준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

방청석 오~~ (다 같이 쳐다보면)
 MC 여성분도 동의하시죠? (끄덕하는 빛나를 보며) 그럼 지금 제작진이요, 여성분과 김서준 대표의 매칭률을 확인해주겠습니까? (무대 백에 두 사람의 빅데이터가 올라가고)
 자, 두 사람의 매칭률은!

두구두구 효과음 속에 빛나와 서준이 서로를 보는데.

방청석(off) 와~ (탄성과 함께 광과레 울리고)
 서준, 긴장한 표정으로 뒤의 화면을 보면 '매칭률 93%'가 떠 있다.

MC(off) (광과레 들으며) 놀랍습니다! 매칭률 93프로!!
 상기된 표정의 서준, 빛나에게 성큼성큼 다가간다.
 빛나도 자리에서 일어서고,
 놀라는 사람들을 아랑곳 않고 서준이 다가가 빛나 앞에 서는데.

빛나 (미소) 사랑은 빅데이터로 하는 거 아닌가요?
 서준 (미소) 사랑은 케미로 하는 거죠, 데이터는 도울 뿐이고.
 그대로 박력 있게 입을 맞추는 서준. 빛나도 피하지 않고 받아준다. 와~ 환호성이 터지는 사이로.

AI(E) 두 사람의 빅데이터와 심장박동의 조합이 천생연분을 보장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 더 뜨겁게 입을 맞추는 두 사람에서

끝.

작가 후기 (빅데이터 연애 | 정희선)

생전 처음 써본 단막이 덜컥 당선이 된 터라 당선작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방송이 12월로 정해졌던 얘기에 당장 손을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우당탕탕 사건 위주라 한여름스러웠던 분위기를 가을·겨울스럽게 바꿔보고도 싶었습니다. 감독님께 당선작에 대한 공사를 크게 벌여도 되느냐고 먼저 여쭙었고, 흔쾌히 기다려주셔서 수정 대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첫 신부터 마지막 신까지 거의 새로 쓴 대본을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설정이 더 나올지 재고 있는 중입니다. 작품집에는 그중 하나의 대본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다큐멘터리를 주로 써왔던 터라, 전혀 다른 느낌의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드라마는 일부러 로맨틱코미디를 선택했고, 쓰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늘 심장을 쫓깃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나게 써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을 제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신 주상규 감독님을 만나 행운이었습니다. 항상 촌철살인의 말씀으로 다잡아주시는 김지일 오픈 센터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당선 작가들에게 여러모로 정성을 다해주시는 오랜 관계자분들께도 꾸벅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2019 오픈 3기/드라마 작품집

너, 텍, 켄, 켄의의 다, 박 — 박, 박, 박

작의

얼음 위로 또다시 물이 흘러, 여러 겹의 얼음이 쌓이는 것을 이르는 너테. 더끔더끔 덧얼어 뚫기만 해도 쉽게 으스러지는 그 얼음 아래엔 물이 흐르고 생명이 산다. 때로는 겹겹이 쌓인 차가운 얼음막이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를 해주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그 너테 안으로 숨어든 소년과 그 얼음을 깨버리는 목마른 소녀의 이야기다. 아이들은 집 안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어둡고 좁은 공간, 구멍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천장과 지붕 사이, 다락에서 서로를 알아간다.

시커먼 구멍 - 이어지는 계단 통로 - 짝 막힌 다락.
어둡고 차가운 그곳에서 시작된, 두 아이의 소통과 변화를 그려보고자 한다.

등장인물

나영(10세, 여) 이제는 한곳에 머물고 싶은 소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외롭고, 가장 가까운 엄마와 소통이 안 되는 아이. 여러 남자 옮겨 타며 기생하던 엄마 덕에 낯선 곳에서 항상 적응해야 했다.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야반도주해대는 엄마 덕에 갑자기 떠나는 법을 익혔다. 누군가와 약속은 안 한다. 책상에 물건을 놓고 가는 일도 없다. 언제 떠날지 모르기에 친구는 사귀되 정을 주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그러나 이제는 머물고 싶다.

임진하(10세, 남) 여적지 한곳에 머물러버린 녀석
다락에서만만큼은 문제없는 아이. 엉켜버린 긴 머리에 눈이 가려져 코랑 입만 보인다. 다락에서 먹고, 자고, 싸고, 산다... 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아 빛을 못 본 지 오래. 그래서 새하얗다! 부잣집 늣둥이 아들. 줄줄이 딸에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상태가 이렇다. 그나마 구멍 밖으로 나오는 건 수첩 하나. 소설가에게 검사 받는 글뿐이다. 작은 창 하나로 마을을 보고, 책으로만 세상을 본다.

최소선(41세, 여) 새엄마보다 못한 생모

엄마라고 해서 다 모성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엄마라고 해서 모두 자식에게 희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 여자가 딱 그렇다. 남성편력도 심하고 남자에게 기생하듯 그렇게 산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 탄다. 그래도 첫정이 무섭다고 나영이는 항상 데리고 다닌다. 굉장한 미인이다. 은은하게 색기가 흐른다. 한때 마이크 잡고 노래도 했다.

임아빠(56세, 남)

진하의 생부. 시내에서 크게 고깃집을 한다.

임언니(19세, 여)

진하의 누나. 예민한 고3을 증명하듯 매우 까칠함.

상화(10세, 여)

수다스럽지만 살가운 아이.

소설가(70대, 남)

문학인. 진하의 글을 비평해주는 인물.

그 외

육쟁이할매, 상화 동생들 등.

줄거리

누구에게나 숨어들고 싶은 다락이 있다.

추운 겨울 아이들은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누구보다 단단한 얼음막을 만든다. 상처를 입지 않으려는 듯 더 단단히 겹을 친다.

이번 아빰 사람 좋네.

소녀는 엄마 손에 이끌려 아빠를 만나러 간다. 이번 아빠는 임아빠.

소녀에게 아빠들은 이름도 얼굴도 별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성을

바꿔줬던 위인들이기에 그 성만 기억할 뿐. 이번 아빠는 다섯 번째 아빠이자 임(林)씨다. 꽤 미인인 엄마에게 남자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러나 없이는 못살겠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들과 불같이 사랑에 빠져든다. 그러나 또 금방 식어버린다. 그렇게 사랑이 식어버리거나 그놈의 돈마저 떨어지면 어김없이 소녀의 손을 붙들고 야반도주했다. 그래서 소녀는 학교 책상에 물건을 놓고 가는 일이 없다. 어깨가 끊어지게 무거워도, 아무리 들 것이 많아도 언제나 들고 왔다. 언제 떠날지도 모르기에 친구는 사귀되 정을 주지 않는 것이 소녀의 철칙이다. 그래야 떠나갈 때 편하다. 여러 번 앓고 나니 그것이 가장 덜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다락에 가지 마라. 호기심 발동해서 다락엔 올라가지 말라고!

딱 봐도 이 마을에서 가장 잘사는 집... 동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위치한 고택. 그리고 만나보니 이번 아빠는 꽤 괜찮은 사람 같다. 점잖고, 우선은 엄마가 가장 선호하는 돈 많은 남자다. 이번엔 꽤 오래 머무르려나? 그런데 이 집엔 뭔가 있다. 째뻍하고 두렵다... 고3이라 까칠한 임언니는 소녀에게 당부하듯 말한다. “부엌에 가면 다락으로 연결된 구멍 있어. 호기심 발동해서 거긴 올라가지 마라!” 그 말에 소녀는 궁금증이 오르지만, 솔직히 무섭다... 밤에 잠을 자는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끼이익. 끼이익. 쓰으 쓰으으. 첫날부터 소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바들바들 떨면서 잠을 설친다.

구멍-통로-다락

소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아니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소녀, 귀신이라도 잡아먹을 기세로 빨간색 손전등 하나 들고 다락을 기어오른다. 부엌에서 연결된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선다. 삐걱거리는 나무계단을 올라 드디어 나타나는 공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그리고 먼지 냄새, 묵은내, 눅눅함. 판 세상에 온 느낌. 그런데 웬지 모를 아늑한 느낌에 눈이 감기려는 찰나 그 앞에 불쑥 나타나는 눈도 없는 사람 형체! 떨어뜨려 비틀어진 전등 빛으로 보이는 그 모습. 짐승마냥 네 다리로 서서 금방이라도 덮칠 듯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영킨 듯 보이는 더벅머리에 빛을 보지 못해 새하얀 얼굴. 그러나 두 눈은 영커버린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고, 손톱은 길다. 숨을 거칠게 내뿜는 입에선 허연 입김...

소년이다. 알고 보니 그 소년은 입아빠의 늦둥이 아들이자, 대를 이을 귀한 녀석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미 수년째 다락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문제는 입언니가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그녀가 하던 일을 고스란히 소녀가 맡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기도 싫은 새하얀 녀석의 뒤통다꺼리를 해야 한다는 것! 유일하게 그 다락에서 밖으로 나오는 건. 그놈의 오줌, 똥이 담긴 요강과, 수첩 하나. 수첩엔 그놈 새끼가 쓴 글이 있는데 소설가에게 검사를 맞는다. 근데 그 일까지 소녀의 몫이 된다.

내 엄마만 아님, 내가 엄마 버렸어!

영켜버린 더벅머리 속에 숨겨진... 소년의 새하얀 얼굴.

빠격거리는 다락 계단을 한걸음 오를 때마다. 소녀의 시선에서 소년의 모습은 점점 가까워진다. 어느 순간, 학교 책상서랍에 물건을 두고 다니며 머물고 싶어지는 소녀... 그러나 그 무렵 나타난 엄마의 또 다른 남자.

1980, 90년대 겨울 풍경 속,

퐁퐁 얼었던 얼음다락에서 펼쳐지는 몽환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너테, 얼음의 다락 박바라

#1. 서울/반지하방(밤)

네온사인이 창문 밖에서 번쩍거리는 반지하방.

고양이를 끌어안은 채 평온히 잠들어 있는 나영(10세)의 손. 그 손을 갑자기 잡아끄는 소선의 손. 눈을 뜨는 나영. “췌!!!” 입을 가리는 소선(41세). 나영, 졸린 눈을 비비며 익숙한 듯 네모난 책가방에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한다. 교과서 넣고, 공책 넣고, 필통은 넣다가 도로 빼다. 필통 지퍼 썩 열고 필기도구만 챙기더니 ‘김나영’이라고 쓰인 껍데기는 바닥에 던져버리는 나영.

소선 (급박한, 작은 소리) 빨리해!
나영 (차분한) 다했어.

나영, 책가방 메고는 고양이도 안아 드는데 바로 뺏어 고양이를 바닥에 던져버리는 소선.

#2. 현관 앞(밤)

빈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바닥에 잠들어 있는 한 남자의 거친 맨발. 그 옆을 지나는 소선과 나영의 까치발.

#3. 지방/버스 내부(오후)

자꾸만 사납게 올라가는 눈꼬리를 붙잡고 있는 나영. 치켜 올라가는 두 눈을 기어코 붙잡고 있는데, 손톱에 낀 시커먼 손톱이 눈에 찔린다.

나영 아파.

나영의 머리를 째짤하게 묶고 있는 뒷좌석의 소선,
고무줄을 물고 있는 입술은 시뻘겋고,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손톱엔 빨간색 매니큐어.
티 안 나게 추레한 나영과는 달리,
소선은 딱 봐도 관리하는 여자.

나영 아프다니까.
소선 (양칼진) 이렇게 묶어야 깔끔해 보인다 했지? 잔말 말어.
나영 (눈꼬리 잡고) 사나워 보이는데... (문득 고개 돌려 바깥 풍경
보는데)
소선 (그 고개 손으로 획 돌려놓는) 비틀어지잖아 이년아.

#4. 마을 어귀(오후)

쭉 뻗은 흙길이 인상적인 겨울의 시골 풍경.

소선 (껌 짹짹 질경이며) 완전 깡시골이네. (날아드는 벌레를 신경질
적으로 쳐내는) 가자.

하이힐 신은 소선의 손엔 커다란 가방이, 나영의 어깨엔
네모난 책가방. 빠르게 앞서가는 소선. 그 뒤를 바짝 따르는
나영. 걸음이 뒤쳐지자 뛰어가며 간격을 유지한다. 흘러내리는
책가방도 고쳐 멘다.

#5. 임(林)씨 고택 대문 앞(늦은 오후)

딱 봐도 이 마을에서 제일 잘사는 집.
동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위치한 고택 앞.
흙 묻은 하이힐 툭툭 털어내더니, 껌 뱉! 뱉어내는 소선.

소선 실수 없게 잘해...! 엄마 이번엔 맘 잡고 제대로 살아볼라니까.
나영 (고개 끄덕이더니) 근데 엄마, 나 쉬 마려.
소선 (인상) 좀만 참아.
나영 버스에서부터 참았는데...

하는데 듣지도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버리는 소선. 멀어진다.
나영 “하-아” 숨을 내뿜자 입에서 허연 입김이 나는데—
나지막이 얼어붙는 소리 들려오며, 화면 언저리부터 점점 하얗게
얼어 붙어가는 서릿발. 나영, 사나워 보일까 눈꼬리 한 번 더
내리더니 문턱을 넘는다.

#6. 고택 안방

엄마 미소로 나영을 호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소선,
임아빠(56세) 옆에 다소곳하게 앉아 내숭을 떨고 있다.
덤수룩한 수업에 인상 좋은 임아빠는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데...

소선 아빠가 묻는데 대답해야지...!
나영 열 살입니다. (연습한 거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듯) 저는! 산수를
잘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꿈은... 화가입니다.
말 잘 듣는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자기 소개 끝내더니, 소선 눈치 보는)
임아빠 엄마 닮아 얼굴도 예쁘고, 말도 똑 부러지게 잘하네.
나영 (진짜 쉬 마렵다)
임아빠 이제 나영이도 풍천 임씨 사람이야. 자, 어디 한번 아빠라고
불러봐.
나영(E) 아빠라고 부르는 건 어렵지 않다.
언제까지 부를 수 있을랑가... 그게 문제다.
임아빠 아직 어색해 그러니? 그러면...
나영 (부르듯) 아버지!
임아빠 (좋아서) 그래!
나영 (더 이상 못 참겠다) 저 오줌 마려요...

소선 (얼굴 구겨지는)

#7. 고택 대청마루(해질녘)

안방 문 열리더니 다다다 뛰어나오는 나영, 책가방도 그대로 멘 상태.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은 안 보이고. 헤매는 나영. 휘휘 주위 둘러보더니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까 내리는 나영. 노상방뇨. 붉은 다라 옆에 앉아 “쌈——” 소변 줄이 흠을 적시며 흘러 내려간다.

나영 (시원하고 흡족한) 하아…

“털척!!!” 어디선가 들려오는 급히 창문 닫는 소리. 그 소리에 바지 올리며 벌떡 일어나는 나영. 주위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다. “훙~~~~” 바람 불자 다시 열리는 다락의 작은 창문. 팔락 팔락. 갑자기 새하얀 손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그 창문을 확 닫아버린다. 소리 나는 다락을 향해 고개 드는 나영, 입에서 나오는 허연 입김. 얼어붙는 소리와 함께, 화면을 거칠게 가로지르는 서릿발.

타이틀. “너테 : 얼음의 다락”

#8. 작은방(밤)

공책 위 ‘김’이라 쓰인 글씨 위에 ‘ㄱ’을 ‘ㅇ’으로 덧입혀 고치는 나영. ‘김나영’이 ‘임나영’으로 바뀐다. 배를 깔고 누운 나영. 바닥엔 3학년 교과서와 공책들이 널려 있다. 대부분 성(姓)은 없이 ‘나영’이란 이름만 덩그러니 쓰여 있다. 간혹 발견되는 ‘김나영’의 흔적. 지우개로 지워 다시 쓰거나, 덧입힌다.

나영 (혼잣말) 이번 아빤, 사람 꽤 괜찮아 보이던데… 쫓쫓.

“끼익”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흠칫 놀라는 나영. 연이어 들려오는 “쓰——윙. 끼익” 그 소리 천장이다! 나영, 고개 들어 천장 보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교복 입은 임언니(19세) 들어선다. 누군지 몰라 멍뚱뚱 쳐다보는 나영.

임언니 (스탠드 켜며 책상에 앉는) 걱정 마. 이 방 곧 혼자 쓰게 될 거니까. 그러니깐 그만 좀 쳐다볼래?

나영 (그런 거 아닌데… 지지 않는) 누군지 몰라서 누군가 하고 본 거예요.

임언니 (이번엔 보지도 않고 책 넘기며) 배다른 언니라고 생각해. 너희 엄마랑 올 아빠가 한방 쓰니까. 됐지?

나영 (언니구나! 친해지고 싶어 용기를 낸다) 저 언니랑 한방 써도 괜찮은데,

사실… 제가 혼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임언니 (거 되게 시끄럽네… 참으며 책만 보는)

나영 (다가가 앉으며) 전 3학년인데, 언넌 몇 학년이에요?

임언니 난, 고3이거든! 그러니까 너 같은 꼬맹이랑 말 섞을 시간 없어. 내일모레면 기숙사로 들어갈 거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조용히 해줄래? (예민한 고3을 증명하듯) 알아들었으면 꺼져…!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나영! 다시 책 보며 집중하는 임언니. 몸을 움직이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쳐다보는 그 앙칼진 눈빛에, 나영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려는데…

임언니 (까칠) 이 밤중에 어디 가?

나영 (움찔) 네? 목말라서요…

임언니 (잠시 보더니) 다락엔 가지 마라.

나영 예?

임언니 부엌에 가면 다락으로 연결된 구멍 있어. (버럭) 호기심 발동해서 거긴 올라가지 말라고!!!

나영 (버럭에 토끼눈) !!!

#9. 부엌(밤)

달빛 드는 어두운 부엌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나영.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스럭 소리에 흠칫!!! 소리 나는 곳을
 향해 돌아보면, 그곳엔 정말 다락으로 연결되는 구멍 하나가
 있다. 나영, 호기심에 다가서려는 순간.

임연니(E) 다락엔 가지 마라. 호기심 발동해서 거긴 올라가지 말라고!

호기심 담겼던 걸음을 멈추는 나영, 발길을 돌려 문 앞에
 서는데... 밖으로 나가는 문턱 또한 넘지 못한다. 그냥 그 자리에
 앉는 나영. 어둠 속, 달빛에 윤곽이 드러나는 네모난 부엌문.
 그 문턱에 홀로 앉았다. 그때 나영의 뒤, 다락 구멍에서 계단을
 타고 떨어져 내리는 무언가. 노란색 작은 불. 계란 노른자다.

#10. 3학년 교실(낮)

잠을 못 잔 듯 쾅한 얼굴과 벌건 눈으로 교탁 앞에 서 있는 나영.
 나영이를 쳐다보는 시골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

나영 나영... (잠시 멈칫하다가) 임나영입니다.
 저는... 산수를 잘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꿈은 화가... ..만화가 입니다...

아이들 와-아!

나영 (아이들의 격한 반응에 놀라는) ...!

담임 그래. 이번에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니까 다들 잘 지내도록.

아이들 (해맑게) 예!

나영 (그 모습이 낯설고 신기한 듯 본다)

#11. 다락(낮)

바스락. 계란껍질 까지는 소리.

다락의 작은 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려진다.

어젯밤 나영이 노상방노했던 뒷마당의 붉은 다라도 보이고,
 쪽 빨은 흙길도 보인다. 그때 낡은 나무 바닥 위로 데굴데굴
 굴러가는 계란 노른자.

#12. 3학년 교실(낮)

종례를 알리는 종이 울린다. 책가방을 싸기 시작하는 아이들.
 나영이도 가방을 싸는데 물건 하나 남기지 않고, 책상서랍을
 깨끗이 비운다. 그때 책가방을 멘 상화(10세)가 다가온다.

상화 내일도 국어랑 산수 수업 있어. 두 권은 그냥 놓고 가도 돼~

나영 어... (대답은 해도 기어코 모든 교과서를 가방에 넣는)

#13. 집으로 가는 길(오후)

무거운 책가방 때문에 축 늘어진 어깨끈.

나영, 책가방 고쳐 메며 애써 외면하듯 앞서 걷는데...

서둘러 나란히 발맞추는 상화. 수다스럽지만 살가운 아이다.

상화 무거운 거 오래 메면 키 안 큰대서, 난 두꺼운 책은 학교에 그냥
 놓고 다녀. (비밀 알려주듯) 있잖아 내 꿈이 미스코리아거든~ 근데
 키 안 커서 미스코리아 못 나가면 텔런트라도 꼭 할 거야.

나영 (그 말에 슬쩍 상화 얼굴 보는) 어...

상화 참, 너 딸 부잣집 아저씨네 막내딸이라며?

나영 (내가???)

상화 우리 동네서 제일 잘사는 집! 니는 좋겠다~ 고기도 원 없이 먹구.

나영 (진짜 궁금해서) 왜...?

상화 왜긴 왜야. 너희 아빠 시내서 젤루 큰 고깃집 하잖아.

나영 (아 그렇구나)

상화 담에, 나두 너네 아빠 가게 한번만 데려가주라.

나영 (얼굴에) 어? 어...

상화 우와 진짜? 약속한 거다. (웃고는) 나 이쪽 길로 가야 돼. 내일 봐.
손 크게 흔들더니 다리 건넌마을로 향하는 상화.
상화 등 보이며 멀어지자 그제서야 손 흔드는 나영. 슬쩍 미소.

#14. 고택 대문 앞(오후)

승용차 세워져 있고, 그 앞에 임아빠와 소선이 마주 서 있다.

임아빠 번거롭더라도 수고 좀 해줘요.
소선 번거롭긴요. 밥 차려서 올려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표정은 묘하다)

승용차에 오르는 임아빠와 배웅하는 소선.

소선 (멀어지는 승용차 보며, 혼잣말) 애새끼들 다 키워놓은 줄
알았더니… 짜증나게 증말!!!

흙길에서 대문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나영. 그 옆으로 승용차
지나간다. 창문이 내려가며 나영에게 손 한번 들어주고 인자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임아빠. 나영이도 오른손 들어 화답한다.
수줍다. 나영, 대문 앞 소선을 발견하고 반가운 얼굴로
달려간다. “엄마~~”

나영 (달려와 소선 앞에 선다. 숨이 차는데) 엄마.
소선 (건성) 왔어? 엄마 지금 바로 나갈 거니까, 알아서 밥 챙겨먹어.

하더니, 팔짱 끼며 대문 안으로 휙 들어가버린다.
달려와 숨이 차는 나영, 입에서 뿜어지는 허연 입김. 순간
얼어붙는 소리 들려오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얼어버린 듯
멈춰버린다. 마당으로 걸어가던 소선의 뒷모습도, 날아오르던 닭
한 마리도 정지된 듯 그렇게… STOP.

나영 (학교에서 있었던 일 조잘거리듯) 엄마, 있잖아. 나 오늘 학교 간
첫날이었잖아. 근데 애들 앞에서 발표도 했다. 그런데 나 하나도
안 떨어졌어. 애들도 되게 상냥해! 상화라는 애는 아빠네 고깃집에도
한번 놀러 가보고 싶대. 가도 되지?

소선 …

나영 그랬잖아. 엄마가… 이젠 이 집에서 쪽 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젠
그냥 애들도 사겨보고… … (부르는) 엄마, 엄마…?

하는데… 정지된 화면 다시 움직이며, 소선은 그대로 등 보인
채 걸어가고 있다. 나영, 얼음처럼 멈춰 선 채 멀어지는 소선을
바라본다.

#15. 부엌(오후)

쌀밥을 그릇에 담고 있는 나영, 주걱을 든 손은 자꾸만 덜덜덜
떨러오고 시선도 자꾸만 다락의 시키먼 구멍으로 향하는데-
이끌리듯 밥그릇 두 손에 들고 구멍 앞으로 가보는 나영,
영당이 최대한 뒤로 빼고 구멍에 고개 쪽 들이미는데 뭘 봤는지
기겁하며 “으악!!!” 뒤로 발라당 넘어간다.
기껏 퍼놓은 쌀밥도, 밥그릇도 바닥에 뒹군다. 구멍에 귀신보다
더 무서운 임언니가 서 있다!

임언니 (쟁반 들고 구멍에서 나오며) 뭐냐?

쟁반엔, 계란껍질과 함께 노른자만 대여섯 알 굴러다니고 있다.
또 낚아서 너덜거리는 오래된 수첩도 하나 올려져 있다.

#16. 작은방(밤)

양말 끝을 쪽 잡아당겨 벗고 있는 나영, 소리라도 날까 아주
조심스럽다. 스탠드 앞에 앉아 공부하는 임언니의 눈치를 살피며
양말을 동그랗게 하나로 감는데…

임언니 누가 잡아먹어?!!
 나영 (놀라서 양말도 놓치는)
 임언니 내일부터 아주 꿀맛이겠다. 나 없어서. (고개 돌려 보며) 근데 어찌냐 시험 끝나면 바로 올 건데…!
 나영 (무서운 듯 눈물 맺힌, 도르르 떨어지는 한 방울)
 임언니 (픽 웃는) 똑!!! 임지영이야, 고3이고… 내 성격 요 이틀 본 걸로 일반화 시키진 마. 시험이 코앞이라 예민해 그런 거니까.
 나영 (그제야 긴장 풀린 듯, 눈 속 닦는다)
 임언니 뭐 더 궁금한 거 있어? 그럼 지금 물어봐.
 (손목시계 보며) 딱 3분 준다.
 나영 (마음 급한) 딸 부잣집…! 이라던데…
 임언니 왜 나뿐이냐고? 다들 시집갔지. 명절 되면 꽤 시끄러울 거니까 각오해. (본인 가리키며) 난 다섯째, 거의 막내야.
 나영 (놓쳐버린 양말 주워오다가) 거의 막내요?
 임언니 응, 내 밑에 동생 하나 더 있어.
 나영 어, 다른 사람은 안 보이던데… 어딴데요 그 동생?
 임언니 (묘한 웃음) 차차. 알게 될 거다… 피할 수 있음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나보다 더 까칠하고 막돼먹었거든. 농담 아니다 명심해.
 나영 (사색이 되는) …!!!
 임언니 질문 끝? (반응 없자. 잘됐네, 다시 책 보는)
 나영 저기! 다락에요… (눈빛 흔들리며) 혹시 누구 있어요?
 임언니 (공포 분위기 조성하며) 너… 다락에 대해 벌써 알아버렸구나… 다락엔 말이지… 다락엔… (손 들어 올린다! 나영 눈 질끈 감는데, 태연히 손목시계 본다) 3분 끝! 아 이거 아쉽게 됐네. 다락은 차차 알아가는 걸로~ 자, 이제… (손가락으로 입 가리며) 췌!

손가락으로 입 가리며 끄덕끄덕하는 나영, 그때 천장에서 소리 들려온다. 움찔하는 나영! 급히 임언니를 보지만, 그 언니는 이미 집중한 상태.

점프. 이불 위에 누워 있는 나영의 눈빛이 흔들린다. 천장에서 또다시 들려오는 괴이한 소리. “끼이익. 쓰윽.”

시간 경과. 벌벌 떨다가 이불을 확! 걷는 나영.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부들부들. 벌떡 일어선다. 이판사판이다!!!

#17. 부엌(깊은 밤)

한 손엔 빨간색 손전등 들고, 다락 구멍 앞에 서 있는 나영의 결연한 표정. 나영, 몸을 웅그리더니 시커먼 구멍 안으로 들어선다.

#18. 다락 내부(깊은 밤)

숨을 죽이고, 경사진 계단을 슬금슬금 기어오르는 나영. 삐걱 삐걱. 사다리처럼 얇고 폭이 좁은 계단을 오르다 보니 한 발이 쪽 미끄러지기도 한다.

나영 아오…! (아프다… 발 들어보면 툭 튀어나온 못)

못에 찍힌 발을 꼼지락거리다가 손전등으로 앞을 밝힌다. 동그라미 빛. 거의 다 오른 것 같아 일어서려는데 쿵! 천장에 머리를 박는다. 나영, 아픈지 손전등 쥔 손으로 머리를 문지르는데, 문지를 때마다 손전등 빛이 사방으로 움직여,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다락 내부.

나영 (입김) 하-아…

“췌-지-적.” 맨발로 밟고 있는 나무 바닥부터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하는 다락. 나영의 상상이다. 얼음막이 전체로 퍼지며, 네모난 다락이 커다란 얼음덩이처럼 보인다.

나영 춥다…

맨발로 한걸음 내딛는데 천장이 너무 낮다.
 몸을 숙여 기어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나영, 낡은 나무 바닥을
 기어서 이동할 때마다 들리는 소리. “끼익. 끼이익. 쓰으윽.”
 이동하며 바닥에 손을 짚는데 빠지직. 무언가가 으스러진다.
 손을 들어보면 먹고 난 계란껍질이다. 전등 빛이 찬찬히 다락
 안을 살피기 시작한다. 벽면엔 책이 빼곡하고, 요강도 보인다.
 바닥엔 넘기다 만 수첩도 보이고, 물을 따라 마신 듯 주전자와
 물컵 등이 보인다. 나가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어쩐지 밀려드는 아늑함에 눈이 감기려는 찰나, 검은 형체가
 지나간다! 인기척에 눈을 뜨는 나영. 그때 가까운 곳에서
 “끼익.”

나영 (손전등 비춰보며) 누구야???

사방으로 손전등을 비춰보는 나영, 그러다 자신의 왼쪽 바로
 앞! 어떤 형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멈칫하는 나영, 천천히
 손전등을 왼쪽으로 돌리면, 그 앞에 불쑥 나타나는 눈도 없는
 사람 형체! 나영, 놀라서 넘어지며 손전등 떨어뜨리는데…
 비틀어진 손전등이 흐릿하게 비추는 그 형체. 짐승마냥 네
 다리로서서 금방이라도 덮칠 듯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영킨 듯 보이는 더벅머리에 빛을 보지 못해 새하얀 얼굴…
 그러나 두 눈은 영켜버린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고, 손톱은 길다.
 숨을 거칠게 내뿜는 입에선 허연 입김… 진하(10세)다.

진하 나가…
 나영 (놀란 듯 굳어버린 입에서 허연 입김)
 진하 여기서… 당장… 꺼져! (하더니 무섭게 달려든다)

#19. 부엌(깊은 밤)

계단을 구르듯 떨어져 내리는 나영,
 구멍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우!!!

#20. 작은방(이른 새벽)

눈을 뜬다! 이불을 박차며 벌떡 일어나는 나영, 이마엔 어제
 생긴 시퍼런 멍. 나영, 옆자리를 보면 임언니는 이미 자리를
 비우고 없다.

#21. 마당(이른 새벽)

짐가방을 들고 대문으로 향하고 있는 임언니.
 그 뒤로 방문이 열리며 나영이 달려나온다. “언니! 잠깐만요.
 잠깐만요!!!”를 외치며 달려가더니 임언니 앞에 멈춰 선다.

임언니 (나영의 멍든 행색 보더니) 그새를 못 참고… 다락에 갔었구나 너?
 (대문으로 걸음 옮기며) 하여간 말은 되게 안 들어.

나영 (따라가며) 맞죠? 다락에 있는… 그 남자애.

임언니 맞아. 내 동생. 행색이 그래도 그놈 꽤 귀한 놈이다. 우리 집 유일한
 아들이거든.

나영 (억울하다) 나도 올 엄마 하나뿐인 귀한 딸이란 말예요. 난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마에 멍 가리키며) 걔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임언니 (걸음 멈춘다) 네가 선을 넘어서 그래. 계단엔 올라도 다락엔
 들어가지 마. 그럼 아무 일 없을 거니까.

나영 (뭔 말인가 싶은데)

임언니 재, 다락 밖으론 절대 안 나오거든. 저기서 안 나온 지 3년 넘었어.

나영 (3년?) 왜요?

임언니 넌들 알겠니. 알면 벌써 끌고 나왔게! 멀쩡한 지 방 냅두고 저판
 데서 뭐하나 몰라. 간다. (대문 나서다가 멈춰 선다. 뒤돌며) 아
 맞다…!!!

나영 (웬지 불길한데)

임언니 이제 그 일은, 네가 좀 해줘야겠다.

#22. 3학년 교실(오후)

손걸레에 왁스를 칠해 나무 바닥을 밀고 있는 아이들.
그 사이에 심란한 얼굴로 바닥을 제일 세게 밀고 있는 나영.

나영 (박박 밀던 걸레질 멈추며, 혼잣말) 아니 내가 왜?!

#23. 고택 안방(오후)

무대 의상같이 화려한 옷 입고, 시벨건 립스틱 바르던 소선.

소선 (고개 틀더니 소리친다) 그럼 그걸 내가 하리?
 나영 (울 것같이) 엄마...
 소선 그깟 수첩 검사 받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 난리야?
 나영 그게 아니라... 다른 심부름은 내가 다 할게. 다른 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진짜야... 근데 다락에 그애...
 소선 그애가 뭐?
 나영 (고개 묻으며) 무섭단 말야...
 소선 누군 좋아서 그 싸가지 없고 성깔 나쁜 놈한테 밥 갖다 바치고, 요강 비우면서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줄 알아?
 나영 (아무 말 못하는데)
 소선 근데... 그딴 건 고생도 아니야. 너 진짜 고생이 뭔지나 알아? 가난이 고생이야. 돈 없으면 너나 나나 길거리에 나왔는다고 이년아. (표정 변하는) 우리가 이 집에서 뭔지는 알아?
 나영 (머뭇거리는)
 소선 그 귀찮은 놈 돌보게 하려고 데려온 여자, (나영 내려다보며) 그리고 그 여자가 달고 온 더 귀찮은 짐...!
 나영 (귀찮은 짐이란 말에 눈빛 흔들리고)
 소선 심기 건드리지 말고 없는 듯 있어. 알아들어? 그래도 이 집에 붙어 있으면 너 대학까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분란 일으키지 말고, 잔말 말어.

#24. 부엌 구멍 앞(오후)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로,
몸을 웅그리며 구멍 안으로 들어서는 나영.

#25. 다락 내부(오후)

계단,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계단을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나영.
고개를 들어보면 계단 끝,
다락 입구에 놓인 수첩 끝이 살짝 보인다.

임언니(E) 정확한 녀석이야.
정각 4시면, 다락 입구에 수첩을 놓아두거든. 그걸 가지고 가면 돼.

 나영, 최대한 멀리 자리 잡고, 손을 뻗어 잡아보려 하지만 손에 닿질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한 계단 더 오르는데 그래도 잡히질 않는다. 까치발을 해도 안 닿는다. 다시 한 계단, 두 계단 더 오른다. 그 시각 다락 내부, 손 하나가 불쑥 올라와 더듬더듬 수첩을 찾더니 쑥 밀어서 수첩을 가져간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새하얀 더벅머리 진하.

#26. 소설가의 집 가는 길 (오후)

갈림길. 약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당최 모르겠는 나영.

나영 아,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돌멩이 발로 차며) 이썩, 지가 나와서 직접 하면 될걸, 여러 사람 고생 시키구 있어! 재수 없어 증말...!

 썩썩거리는 나영, 흙길과 다리 건너 길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다가. 다리를 건넌다. 어느새 집들이 조금 많아진 마을길을 걷고 있다.

나영 (중얼거리듯) 파란 대문에... 양옥집...

저 멀리, 정말 파란 대문의 양옥집이 보인다.
“찾았다!” 표정 밝아지고.

임언니(E) 참, 파란 대문 보이면 뭘 준비 해. 아마 두 번은 달려야 될 거야.

나영 (알 게 뭐야, 슬슬 걷는데, 그때다.)

육쟁이할매 엠병, 야 이년아!!!

나영, 소리 나는 곳을 향해 돌아보면, 거꾸로 뒤집은 붉은 다라 위에 앉아 있는 한 할머니, 파리채도 들고 있다.

육쟁이할매 (파리채 흔들며, 랩 하듯) 왜 이제 와? 주둥이만 까지 말고 밥 줘 이년아! 똥물에 튀겨 죽일 년 같으니. 이 나쁜 년! 쌍화차에 밥 말아먹을 년, 이년! 쌍화차를 피똥 싸게 부어버려.

나영 (육 수위에 충격 받은) !!!

육쟁이할매 그것도 목구멍이라고 너만 뜨신 밥 처넣냐?

나영 (울 것같이) 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육쟁이할매 (저돌적으로 일어서더니) 이 처죽일 년. 일루 와!!!

“악!”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나영, 뒤에서 파리채 휘두르며 따라오는 육쟁이할매. “엠병 똥병 속병 나서 내가 죽거든 울 거여? 이년아!” 한참을 달려 겨우 육쟁이할매를 따돌렸나 싶었는데, 숨을 고르다 문득 보게 되는 ‘개조심’이라는 문구. 그때 갑자기 무언가를 본 나영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나살려라 뛰기 시작한다. 몸집이 큰 개(광견) 한 마리가 침 흘리며 나영의 뒤를 쫓고 있기 때문! 목에는 목줄도 달려 있는데, 그 쇠사슬 같은 목줄을 바닥에 질질 끌며 저돌적으로 달려온다. 사색이 돼서 죽어라 달리는 나영의 얼굴 위로-

임언니(E) 참고로~ 두 번째는 좀 빨리 뛰는 게 좋을 거야.

나영 (울 것 같은 얼굴로 도망치며) 엄마~~~아!!!

#27. 소설가의 집 마당(오후)

파란 대문을 거칠게 닫더니, 대문에 기댄 채 숨을 몰아 내쉬는 나영. 그래도 가슴엔 수첩을 꼭 품고 있는데... 마당에 배치된 탁자에 앉아 여유롭게 책을 넘겨보고 있던 소설가가 고개를 든다.

#28. 소설가의 집 내부(오후)

벽면 가득 엄청난 책들이 눈에 띈다. ‘금관문화훈장’과 대학교에서 주는 명예교수 감사패 등도 보인다. 신기한 듯 집 안을 둘러보고 있는 나영. 소설가는 소파에 앉아 진하의 수첩에 적힌 글(산문)을 정독하고 있다. 책장 앞, 수많은 책들 앞에서 있는 나영. 그중에는 만화책도 있다. 나영, 만화책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소설가 (무심한 듯) 우리 손자 놈 건데, 빌려가서 읽어도 돼.

나영 (뜨끔) 아녜요.

소설가 (주머니에서 만년필 빼들며, 수첩에 비평문 쓰는) 읽고 나서 다시 갖다주면 되지.

나영 아니요. 그냥 안 봐두 돼요... (그러면서 자꾸만 시선은 만화책으로)

빨간색 색연필로 진하의 글 위에
동그라미 두 개를 체크하는 소설가.

소설가 (수첩 덮으며) 진하는 잘 있지?

나영 (돌아보는) 진하요? 그게 누구예요?

소설가 (보는) 혹시, 이 수첩 안에 뭐가 쓰였는지는 아니?

#29. 논길(늦은 오후)

좁고, 꼬부라진 논두렁을 걷고 있는 나영.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다. 수첩 하단에 작게 쓰여 있는 이름 '임진하'. 그 이름을 보는 나영.

나영 임진하…

#30. 회상. 소설가의 집 내부(오후)

소설가 (수첩 건네며, 인자한 미소) 아마 이 수첩을 펼쳐보게 되면 알게 될 게다… 글은 그걸 쓴 사람도 담고 있거든. (책 한 권 더 건네는 자, 그리고 이거.

나영 (받아보면, 아까 유심히 봤던 만화책 <1권>이다) …!

소설가 천천히 읽어도 돼. 그 손자 놈… (웃으며 속삭이는) 군대 갔거든.

#31. 다시 논길(늦은 오후)

수첩 뒤에 들린 만화책 <1권>을 슬쩍 보더니, 기분 좋은 나영. 그런데 자꾸만 보이는 이름 '임진하'. 잠시 고민하다가 수첩을 펼쳐보는 나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닿는 페이지를 펼쳐보는데 빨간색 동그라미가 세 개 그려진 글이다. 글 읽어 내려가는데…

나영 (읽는) 난 꼬두람이다. 띠얏머리는 섬서하다.
(인상 팍!!!) 앵? 뭘 말이야?

다음 장으로 넘긴다. 빨간색 동그라미 네 개.
이번엔 진하 목소리로-

진하(E) 조금만 부지런하면 숫눈을 밟고 갈 수 있다.
그러나 너테 위에 내린 숫눈을 밟을 땐 조심해야 한다.

추위가 맹위를 떨칠수록 너테는 커지지만…

나영 (수첩 확 덮어버리며) 쳇! 하나도 못 알아먹겠네… 숫눈은 뭐고 너테는 또 뭐래? 하여간 생긴 것도 요상 망측하더니… 쫓쫓.

#32. 다락 계단(늦은 오후)

수첩을 들고 걸어 올라가던 나영. 무언가를 밟고 아파서 내는 소리. “아-오!!!” 발 들어보면 또 그 툭 튀어나온 못이다. 나영, 아픈 발가락 꼼지락거리며 계단을 오른다. 수첩을 툭 엎어놓고, 만화책 손에 쥐 채 신나서 뒤로 기어 내려간다.

#33. 작은방(밤)

배를 바닥에 깔고 누운 채, 만화책을 넘겨보며 킁킁거리는 나영. 천장에서 “끼-익. 쓰윽.” 괴이한 소리가 들려오지만, 관심 없다! 만화책 넘기는 속도 점점 빨라진다. 어느 순간, 만화책을 다 읽었는지 덮어버리는 나영. 아쉽다. 다음 권도 궁금한데… 만화책 베고 누우며-

나영 오늘 겨우 월요일인데, 목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때 들려오는 다락의 소리. “툭.탁.탁.” 뭔가 두드리는 망치질 소리다.

나영 (귀를 막고 천장 보는) 저게, 또 시작이야!!! (망치질소리 멈춘다. 귀에서 손 떼며) 쯤 잠도 없나…?!

순간 벌떡 일어나 책상의 스탠드 불을 켜는 나영. 책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두꺼운 국어사전에서 멈춰 선다. 사전 꺼내들더니 ‘스’를 펼치는 나영. 단어를 찾아 차르르 넘겨본다. 찾았다!

숫-눈 (발음: 순눈)

: [명사] 눈이 와서 쌓인 상태 그대로의 깨끗한 눈.

나영 (사전 뜻 보더니) 아! 아무도 안 밟은 눈...

다시 국어사전 차르르 넘기다가. '너'자에서 쪽 단어를 찾아 내려간다. 그러다 '너테' 앞에서 손가락 멈춰 선다.

나영 (쓰인 대로 읽어 내려가는) 얼음 위에 다시 물이 흘러서 여러 겹으로 얼어붙은 얼음... (가웃) 살얼음 같은 걸 말하는 건가?

국어사전 확 덮더니, 대자로 벌렁 누워서 천장을 요리조리 본다.

나영 (호기심) 나보다 어려 보이드만... 대체 몇 살인데 저런 말을 알지?

#34. 교차. 계단+다락(낮)

- 다락.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다. 그 눈을 보며 우두커니 앉아 있는 진하. 그때 거침없이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소리 들려온다.

- 계단.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있는 나영. 삐걱 삐걱. 그런데 못이 툭 튀어나와 있던 그 자리에 못이 들어가고 없다.

- 다락. 삐걱대던 소리 멈춘 지 오래데... 계단에서 올라오는 이는 없다.

- 계단. 다락 입구 바로 밑, 계단 끝에 매달린 채 고민 중인 나영.

- 다락. 비교적 어두운 계단과는 달리, 환하게 빛이 드는 다락. 그 빛에 반짝이는 진하, 어떤 움직임에 계단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보면... 두더지 게임을 하듯 시커먼 머리통 하나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올라올까 말까 고민 중인 듯 보인다.

나영 (불쑥 고개 들더니, 다짜고짜) 야, 너 몇 살이냐?

하는데, 나영의 얼굴 위로 예고 없이 연이어 날아드는 무언가.

퍽!퍽!퍽!

#35. 부엌(낮)

나뿔굴며 부엌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나영, 화난 걸 넘어서 악에 받친다.

#36. 다락(낮)

퍽!퍽!퍽! 창문으로 날아드는 무언가. 진하의 얼굴에도 퍽! 날아든다. 나무 바닥에도, 창문에도, 진하의 몸으로도 연이어 날아드는 눈덩이다.

#37. 뒷마당(낮)

쌓인 눈을 밟은 채, 만든 눈덩이를 있는 힘껏 다락 창으로 집어 던지고 있는 나영, 손이 시뻘게졌는데도 맨손으로 푹푹 눌러 눈덩이 또 만든다. 그때 "털컹!" 다락 창문을 확 닫아버리는 진하의 하얀 손. 더 열받는 나영! 눈덩이 냅다 집어 던져버린다. 다락창 유리로 퍽!!!

#38. 3학년 교실(오후)

품에 안긴 만화책 <퀵>, 책가방 미리 멘 채 발 동동거리는 나영, 선생님 종례 끝나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간다. 역시나 책상서랍은 싹 비웠다. 지켜보고 있던 상화도 뒤따라 달려간다.

#39. 집으로 가는 길(오후)

만화책 손에 들고 뛰어나가는 나영의 뒤로, 뛰어오는 상화.

상화 야, 같이 가! (하더니 따라잡는, 나란히 뛰며)

나영 오늘 뭐 급한 일 있어?
 상화 아니, 오늘 목요일이라 어디 갈 데가 좀 있어서. (갑자기 멈춰 서더니, 상화 본다) 참! 너 집에 갈 때 다리 건넌 마을로 가지 않았어?
 나영 응, 거기가 우리 동네네.

#40. 동네 가게 앞(오후)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나영과 상화.

상화 (아이스크림 빨며) 난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켈 맛있더라.
 나영 (아이스크림 쪽쪽) 맞아. 여름엔 너무 금방 녹아.
 상화 그치? 그치? (한입 베어 물고 차가워서 못 씹겠다, 녹이는 중) 하...
 나영 (간식용 소시지 들어 보이며) 진짜 이거 하나면 돼?
 상화 (끄덕) 근데 가끔 그것도 안 통할 때 있어. 그땐 배부른 거야.
 나영 그럼 어떡해?
 상화 그냥 죽자 사자 달리면 돼.
 나영 (무섭다...) 아니, 왜 안 묶어놔?
 상화 주인이 매일 아침에 묶어둬. 근데 목줄 맨 채로 달려올 때는 힘으로 땅에서 뽑는 거래. 대문 달아놔도 개구멍 만들어서 나오나 봐.
 나영 왜...? (아이스크림 마지막 조각 쪽--)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오지?
 상화 새끼 일곱 마리 낳았었는데 그걸 주인이 다 시장에 갖다 팔았나 봐. 그때부터 새끼 찾는다고 저렇게 동네방네 돌아다니나 보더라구...
 나영 (아...) 근데 나 진짜 너네 동네 갔다가 두 번이나 뛰느라 죽을 뻔 했어.
 상화 그 육쟁이할머니도 봤구나? (다 먹은 막대 입에 물고) 이젠 날도 추워졌는데 그만 좀 기다리시지.
 나영 (뭔 소린가 싶은) 기다려? 누굴?
 상화 딸... 나도 엄마한테 들은 건데. 전쟁 때 피난 가다가 딸만 손 놓쳐서 잃어버렸대. 근데 아직도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다리셔.

나영 (그랬구나...)

#41. 뒷마당(오후)

눈 위로 하얀 연탄을 팍!!! 내려놓더니,
 다락을 올려다보는 나영.

나영(E) 이유... ...

빨간색 귀달이 털모자 쓰고, 장갑 낀 손으로 연탄을 굴러 눈덩이를 만들기 시작한다.

나영(E) 육쟁이할머니도... 심지어 동네 똥개도... 다 사연이 있고, 그 이유가 있는데. 쟈 대체 이유가 뭘까?

아래 덩어리에 윗덩어리를 올리며 눈사람을 완성한다. 다락에서 보이도록 창 가까이에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다락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

#42. 다락 내부(오후)

계단. 장갑 빼서 눈 톱 톱 털고 주머니에 넣더니, 계단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나영. 뭔가를 결심한 듯 다락 바로 밑 계단에 자리 잡는다.

나영 너 내 말 들리지? (기다려보지만 대답 없다)
 너 열 살이라며? 나도 열 살인데... (역시나 대답이 없다. 뭘 물을지 고민하다가) 참, 넌 좋아하는 동물 없어? 난 고양이 좋아하는데...
 진하 (대답 없다)
 나영 (주저리주저리) 나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떨어진 적 있거든, 근데 신기하게 하나도 안 다쳤어. 고양이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멀쩡하잖아. 그냥 그때부터 막 정이 가더라구!

진하 (대답 없다)
 나영 사실 개네들이랑 친해지긴 되게 어렵거든. 근데 어느 순간 도망치지 않고 곁을 주면 그건 우리 이제 친구 먹었다는 증거야.
 진하 (기어오는 소리)
 나영 근데 회한한 게 친해지긴 어려워도 헤어지긴 또 되게 쉽다. 티를 잘 안 낸다고 해야 하나? (잠시 생각) ...그래서 편해. 여튼 그게 이유야. 내가 고양이 좋아하는 이유.
 진하 (기어오는 소리 가까워졌다)
 나영 (용기 낸다) 임진하! 내 말 들리지?
 있잖아... 우리 아빠 같고, 엄마 같은 한 식군데. 그냥 잘 지내면 안 돼?
 진하(E) (한참 뒤에) 니 엄마...
 나영 (말했다! 반가운) 어어, 말해! (기다린다)
 진하(E) ...울 아빠 마누라지. 내 엄마 아니야.

다락. 몸 일으켜 입구로 모습을 드러내는 나영, 굳은 얼굴로 잠시 진하 보더니, 입구에 놓인 수첩만 쓱 들고 내려가버린다. 잠시 뒤, 창으로 “퍽!!!” 눈이 날아와 맞는다. 진하 고개 돌려 창밖을 보면, 뒷마당에 서 있는 나영, 보란듯이 눈사람을 발로 뺨!!! 찬다. 머리가 굴러 떨어져 박살나는 눈사람. 나영, 다다다 뛰어가 버린다.

#43. 소설가 집으로 가는 길(오후)

애꿎은 돌맹이 발로 또 뺨!!! 차며 걸어가고 있는 나영.

나영 치... 웃기고 있어. 누군 지 좋아 말 쉬는 줄 아나...
 하면서 걷는데, 옆에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발이 나온다. 멈춰 서서 보는데
 플래시백 #33. 국어사전 인서트.

숫-눈 (발음: 순눈)
 : [명사] 눈이 와서 쌓인 상태 그대로의 깨끗한 눈.

나영 숫눈이다...

뽀드득 뽀드득. 아무도 밟지 않은 숫눈을 밟는 나영. 하나 둘 떨어져 내리기 시작하는 눈발. 고개를 들어 떨어지는 눈을 맞는다. 눈을 감는다.

점프. 마을을 달려가고 있는 나영. 책가방을 덜렁이며 달려가고 있다. 파란 대문 보이면, 어김없이 옥쟁이할매의 욕이 한바가지 쏟아진다. 나영, 책가방이 머리 쪽으로 넘어갈 만큼 90도로 정중히 인사하고 뛰어간다.

‘개조심’ 집 앞. 아니나 다를까 저돌적으로 달려나오는 광견, 침 흘리며 나영의 뒤를 쫓는데. 주머니에서 깡 소시지를 꺼내더니 바닥에 던져주고 달려간다. 간식의 유혹에 더 이상 나영을 따르지 않는 광견.

#44. 소설가의 집 내부 (오후)

털모자 벗어 눈 툭툭 털고, 책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소설가에게 건네는 나영, 수첩을 건네고 나서도 할 말 있는지 쭈뼛 쭈뼛 서 있다.

소설가 (그 시선 느끼고) 괜찮으니까 말해.
 나영 저기 선생님... 만화책 한 권 더 빌려가도 돼요?
 소설가 가방에 들어가면, 완결 편까지 다 빌려가도 돼.
 나영 아네요!!! 괜히 다 빌려갔다가... 못 갖다드릴 수도 있는데...
 소설가 (수첩 펼치다가) 왜? 다음부터 네가 안 오니?
 나영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잠시 말이 없다) 그런 애로 기억되긴 싫어요.

소설가 (잠시 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소파에 앉아, 진하의 수첩에 적힌 글을 읽고 있는 소설가.
책장 앞, 손끝으로 책장의 책들을 스치며 지나가고 있는 나영.

나영(E) 오래 있을 거란 엄마 말은 항상 지켜진 적이 없으니까. 나에게
다음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잠시 머물더라도... 그렇게
기억되긴 싫다.

걸음 멈추고, 소설가를 바라보는 나영.

#45. 흙길(늦은 오후)

만화책 <오권>과 수첩을 손에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나영.
문득 멈춰 서더니 확인할 게 있는지 진하의 수첩을 펼쳐본다.
나영, 수첩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알 수 없는 표정이
되는데...

#46. 회상. 소설가의 집 내부(오후)

수첩을 받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나영. 소설가는 비평문
작성 끝낸 뒤, 빨간색 색연필로 수첩 위에 동그라미 친다.

나영 그게 접수예요?
소설가 그렇다고 봐야지. 평가는 정확히 해야 하니까. (빨간색 색연필 들어
보이며 웃는) 국민학교 수준에 맞게.
나영 (웃고) 근데 동그라미가 몇 개가 제일 높은 거예요?
소설가 다섯 개. 다섯 개가 백 점인 셈이지.

#47. 다시 흙길(늦은 오후)

수첩 인서트. 진하의 글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세 개.

나영 (한참 그 페이지 보다가) 치... 잘 썼는데... 왜 세 개밖에 안 줘?
수첩을 몇 장 뒤로 넘겨보며, 수첩 속 진하의 글을 읽기
시작하는 나영.

#48. 다락(늦은 오후, 밤)

다락의 창에서 보이는 풍경.
쭉 뻗은 흙길로 걸어오고 있는, 빨간 털모자가 유독 눈에 띄는
나영의 모습도 보이는데, 수첩을 보느라 앞도 보지 않고
걸고 있다. 그런데 점점 길 끝, 도랑 쪽으로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진하 (위험하다) 어, 어!!!

다시 앞을 확인하며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나영의 모습.
진하의 어깨가 그제야 긴장을 푼다. 책을 읽고 있던 진하,
다시 책장을 여유롭게 넘겨보기 시작한다.

시간 경과. 독서에 심취해 있던 진하,
책장 넘기던 손을 문득 멈춘다.
번뜩 고개 들어 창밖을 보는데, 이미 해는 족고 밖은 어둡다!
고개 돌려 다락 입구를 보는 진하,
그러나 수첩을 놓는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내 수첩...?” 기어가 계단을 통하는 입구에 고개를 내미는 진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계단, 덩그러니 보이는 구멍만이
빛을 발한다. 바닥에 귀를 대보는 진하,
아래층의 소리를 들어보려는 듯 집중한다.

#49. 작은방(밤)

그 시각 아래층. 만화책은 옆에 그대로 던져진 채,

배를 깔고 바닥에 누워 진하의 수첩을 읽고 있는 나영.
털모자도 쓴 그대로 집중한 상태.

나영(E) 시커먼 구멍 안, 천장과 지붕 사이…
진하(E) (이어 읽듯) 집 안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드나들지만 오래 머물진 못한다. 잠시 머물기에 그들은 보지
못한다. 달무리 진 겨울밤… 고깔 씌운 보폭 너머의 풍경을…
나영 (빠져들어 읽다가) 보폭???

나영, 팔을 뻗더니 국어사전을 급히 펼쳐본다.

보폭

: [명사] 지붕의 안쪽. 더그매에서 바라본 천장을 이른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는 나영.

#50. 다락(밤, 낮)

아래층에 귀를 댄 채 그대로 잠든 진하의 모습.
늘 다락에서 뒹굴던 남루한 담요가 시커먼 맨발을 반쯤 덮고
있고 엉켜버린 머리카락과 먹다 남은 계란껍질…

진하(E) 고깔 덮은 다락 아래 엎드려 작은 창을 보고 있으면, 어떤 날은
수숫대들이 서걱이기도 하고… 땅 빛 아래 속파란 콩들이
익어가기도 한다.

잠이 든 진하의 고개는 작은 창을 향하고 있다.

진하(E) 보폭에 숨어들면 엄마 품에 있던 그날처럼 편안하다…

다락 창으로 드는 아침 햇살. 손가락이 움직인다. 눈을 뜨는
진하. 몸을 일으켜 눈을 비비는 진하, 계단 앞에는 어느새

수첩이 놓여 있다.

#51. 3학년 교실(낮)

수업시간, 쓱쓱 교과서 위에 연필로 그려지는 그림.
교과서 공백부분에 그려지는 고양이를 형상화한 여자애.
문득 연필 멈추고, 고개를 틀어 창밖을 보는 나영.

#52. 다락(낮)

창 앞에 배를 깔고 누워 수첩을 펼쳐보던 진하. 뭔가를 본 듯
당황한 얼굴인데… 수첩 하단에 낫선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
눈사람이 그려져 있다. 눈사람 옆에는 고양이를 형상화한
여자애도 그려져 있다. 빨간 모자 쓰고, 장갑을 낀 채 눈덩이를
눈사람에 던지는 모습이다. 다음 장 넘기면, 네모난 얼음 속에
앉아 있는 긴 머리 남자애가 그려져 있다. 다음 장 빠르게
넘기고 또 넘기면, 움직이듯 여자애가 던진 눈덩이에 얼음이
깨진다. 일어서서 서로 마주서는 여자애와 남자애 악수하는
모습이다. 여자애 머리 위, 구름모양 말풍선에 한마디 쓰여
있다. ‘그만 싸우자.’

#53. 다락 계단(오후)

숨을 죽이고 계단을 기어오르는 나영. 긴장된 표정으로
손을 뻗어 수첩을 꺼내드는데… 수첩 안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져 내린다. 나영, 빠르게 뒤로 기어 내려가더니,
쪽지 주위들을 읽어본다. ‘난 너랑 싸운 적 없어. 그리고
좋아하는 동물도 없어.’

#54. 다락(오후)

퍽!!! 창문으로 날아드는 눈덩이.

진하 고개 돌려 창밖을 보면, 나영이 뒷마당에서 다락을 향해 손을 흔들더니 사라진다. 나영이 사라지고 나서야 하얀 손이 쭉 올라온다. 소심하지만 흔드는 진하의 손.

#55. 소설가 집 내부(오후)

동공 커지며 놀라는 나영의 얼굴! 놀라움에 기쁜 마음도 섞인 듯하다. 보면, 진하의 글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다섯 개 그려졌기 때문.

#56. 집으로 가는 길(늦은 오후)

신나서 달려가는 나영의 얼굴.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정신없이 뛰다. 그때 나영의 뒤를 쫓아오는 광견. 나영, 주머니에서 소시지 던져준다. 소시지 후후 냄새만 맡더니, 먹지 않고 고개 드는 광견.

#57. 다락에서 보이는 풍경(해질녘)

나영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진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나영의 뒤로 광견이 저돌적으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 순간, 고개를 돌려 신발을 보는 진하.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는데... 그 잠시 사이에 나영도 광견도 보이지 않는다!!! 진하, 처음으로 다락에서 몸을 일으킨다.

#58. 흙길 아래 두렁(해질녘)

굴러 떨어진 듯, 정신 잃고 눈 위에 누워 있는 나영.
그 눈길을 밟는 광견의 발.

#59. 다락(그 시각)

진하의 맨발, 다락과 계단으로 향하는 통로 앞에 멈춰 서 있다. 두렵다. 발이 안 떨어진다. 엉켜 있는 머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식은땀...

#60. 교차. 두렁+흙길(해질녘)

두렁.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광견.

흙길. 구겨진 신발이 눈 내린 흙길 위를 달리고 있다.
누더기 외투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달려가고 있는 진하!
외투가 바람에 펄럭인다.

두렁. 나영의 얼굴로 다가서는 광견.
이에 놀라며 눈을 뜨는 나영!!!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공격은커녕, 광견이 나영의 얼굴을 핥기 시작한 것.
나영, 당혹스러움에 벌떡 몸을 일으키면 광견이 꼬리까지 흔들고 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나영, 피식 웃음 나고.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듯 한번 쓰다듬어주는데... 순간 수첩이 없어졌다는 걸 인식한다.
“수첩...!!!” 하며 주위를 둘러보지만, 수첩은 보이지 않는다.
곳곳을 살피며 눈도 파헤쳐보다 진하의 수첩을 발견하는 나영,
급히 수첩을 펼쳐보면 끝이 젖어 너털너털해졌다.
속상한 표정인데...

착! 그때 위에서 두렁 아래로 뛰어내리는 누군가.
땅 위로 안착하는 발, 진하의 구겨진 신발이다.
누더기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엉킨 머리로 눈을 가린 진하...
나영 앞에 서 있다. 처음으로 마주 보는 아이들. 입에서 허연

입김이 난다.

나영, 멍한 표정으로 펼쳐진 수첩을 건넨다. 눈 때문에 젖어버린 수첩. 진하, 받아보면 글 위에 그려진 빨간색 동그라미 다섯 개.

“하아...” 나영의 입에서 입김이 난다. 진하의 입에서도

입김이 난다.

나영의 손이 진하의 얼굴로 향한다. 누더기 외투가 벗겨진다.

뒤이어 나영의 손이 진하의 머리를 넘기자, 진하의 눈이 보인다.

새하얀 얼굴의 미소년. 처음으로 눈을 맞추는 나영과 진하.

서로의 입김이 허옇게 퍼진다.

#61. 작은방(밤)

스탠드만 켜진 어두운 실내, 대자로 누워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나영. 그때 천장에서 “끼이이익. 끼이이익. 쓰윽.” 진하의 소리가 들려온다. 천장 소리에 이내 피식 웃고 마는 나영, 무섭기는커녕 반가운 표정.

#62. 3학년 교실(오후)

종례가 끝나고 가방을 싸고 있는 나영.

책상서랍에 들어 있는 교과서와 물건 등을 꺼내려던 나영, 잠시 고민하다가 그대로 둔 채 책가방 문을 확 닫아버린다. 다가오는 상화.

상화 오늘은 웬일로 물건을 다 놓고 가?

나영 (잠시 보더니) 그냥 무거워서.

하더니 걸어간다. 나영의 책상서랍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물건들. 처음으로 나영의 책상서랍에 물건이 남겨진다.

#63. 집으로 가는 길(오후)

수다 떨며 걸어가고 있는 나영과 상화.

뭐가 그리 웃긴지 둘 다 깔깔댄다. 그때 뒤에서 “빵. 빵!”

나영과 상화 길을 비켜주는데— 음향장비나,

악기가 실린 용달차가 썩- 지나간다.

스치듯 지나는 차 안에는 낯선 남자와 소선이 앉아 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저 앞에서 내리는 소선.

수줍게 차 안의 남자와 인사한다. 그대로 굳어버리는 나영.

#64. 안방(오후)

방금 벗은 듯, 화려한 무대의상 같은 옷이 바닥에 던져져 있다. 화장을 지우고 있는 소선. 문이 발칵 열리며 나영이 들어선다.

소선 깜짝 놀랐잖아 이년아. (하더니 다시 화장 지우는)

나영 (굳은 표정) 왜... 뭐 죄지은 거라도 있어...?

소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나영 (보다가) 난... 항상 아무런 준비도 못 했던 말야...!

소선 (인상 쓰며 보는데)

나영 애들한테 인사도 못 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언제 떠날지 몰라서 학교엔 물건도 한번 못 뒀다고... 엄만 나한테 한마디 없었잖아 항상. 그냥 내 손 잡아끌어서 야반도주하면 끝이었잖아...

소선 조용히 안 해! (누가 들을까 겁나는)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나영 기억 하나도 안 나... 나한테 아빠였던 사람들... 이름도, 얼굴도, 기억 하나도 안 나... 박나영... 이나영... 김나영... 그냥 나한테 잠시 췌던 성들만 기억난단 말야...

소선 (벽으로 밀어붙이며) 조용히 하라 했다...!

나영 나한테 아빠들은 항상 그랬다구... 그런데 엄마한테 아빠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근데 없이는 못살겠는. 그런 거잖아!!!

소선 (찰싹! 나영의 얼굴과 머리 중간쯤 때리는, 때리고 본인도 놀란)

나영 (눈물 맺힌) … 내 엄마만 아님… 내가 엄마 버렸어!

#65. 작은 방문 앞(오후)

참으려 하지만 계속 눈물 난다.

나영, 방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문 앞에 임언니 신발 놓여 있다.

막 닦아서 끝내보려 해도 쉽게 멈추지 않는 눈물.

나영은 갈 곳이 없다.

#66. 다락(오후, 밤)

글을 쓰고 있던 진하, 뭔가를 보고 흠칫 놀라는데… 뭐라 할 겨를도 없이 나영이 다락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 없이 울어버린다. 진하, 당황스럽고 뭐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저 바라보는 진하.

시간 경과.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나영은 잠이 들었다. 뒤척이다 눈을 뜨는 나영, 몸을 일으켜보면 자신의 몸 위엔 담요가 덮여 있고, 진하는 온몸을 웅그린 채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잠들어 있다. 조용히 기어가는 나영, 진하에게 담요를 덮어준 뒤 다락을 내려간다.

눈을 뜨는 진하.

#67. 대청마루(낮)

날이 밝았다. 차려진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 식구들. 임아빠, 임언니, 소선, 나영… 진하만 없다. 나영, 밥순갈 뜨며 소선을 보는데… 소선은 고깃국 떠서 나영의 밥그릇 옆에 놓아준다. 자신의 고깃국에 다른 사람들 것보다 고기가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나영, 숟가락 들어 그 국 떠먹는다.

소선 (마지막 국 떠서 자기 앞에 놓는다. 고기 없이 거의 국물) 진하는

내려와서 먹으라 해도 통 안내려오네요.

임아빠 (어두워지는 표정) …

임언니 (대수롭지 않다) 그게 뭐 하루 이틀인가. 뱀뒤요 그냥.

불편한 얼굴로 밥순가락 뜨는 나영과 소선.

임아빠 (분위기 바꾸려는 듯)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니 좋네. (임언니에게) 넌 시험은 잘 봤냐?

임언니 열심히는 했는데, 점수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점수 나올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려구요.

임아빠 그래, 그동안 고생했는데 쉬어야지.

임언니 (기회다) 이김에 용돈 좀 올려주시지~ 노는 것도 돈이 필요한 건데.

임아빠 (으이그) 알았어.

나영 (힘겹게 입을 떼는) 저기 아버지… 저요…

임아빠 왜? 너도 용돈 모자라니?

나영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반 친구에랑 아버지 가게 놀러가도 돼요?

임아빠 (호의적인) 그럼! 데리고 와.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나영 (기대에 찬 얼굴)

소선 (그 모습을 보는 묘한 표정) …

#68. 집으로 가는 길(오후)

나란히 걷고 있는 나영과 상화.

상화 우와 진짜?! 언제?

나영 (기분 좋고, 살짝 흥분) 아무 때나 와도 된댔어. 근데 이번 주엔 단체손님이 많이 잡혀서 다음 주가 더 좋긴 하시대.

상화 근데 혹시… 나 동생 데려가도 돼? (소심해지는데) 나 동생 둘인데…

나영 응! 올 아버지가 친구들 다~ 데리고 와도 된댔어!!!

상화 우--와! 고기 왕창 먹고 와야지. 신난다. 우리 다음 주 되면 바로

가자!
나영 그래!

#69. 안방(오후)

열려 있는 장롱서랍, 그러나 그 안에 잡동사니뿐 별거 없다.
소선, 뒤를 돌아 구석에 놓인 금고를 쳐다본다. 알 수 없는 표정.

#70. 다락(오후)

수첩에 글을 쓰다가... 황당하다는 듯 옆을 보는 진하.
보면,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만화책 <5권>을 읽고 있다.

나영 그렇게 보지 마... 나도 갈 데 없어서 이리 왔단 말야. 너네 누나
점수 나왔는데 재수해야 될 것 같대.

진하 (나영이 불편한 듯 이동하는데)

나영 움직이지 마. 아래층에서 너 움직이는 소리 되게 크게 들려!
니네 누나 지금 완~~전 살벌해.

대답 없는 진하,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수첩에 글을 쓰고 있다.
두 눈은 엉켜버린 머리에 가려져 있는데
그래도 잘 보이는가 보다.
다 읽었다. 만화책 탁 덮더니 발라당 누우며 천장 보는 나영.

나영 난 벌써 심심하다... (고개 돌려 진하 본다. 뻘히) 넌 안 심심해?

진하의 시선, 머리카락에 들성들성 가려진 시선으로 본인을 뻘히
쳐다보는 나영이 보인다. 갑자기 고개 푹 묻더니 수첩만 본다.

나영 학교는... 왜 안 다녀?

진하 (보지도 않고 수첩에 글 쓴다.)

나영 어???

진하 (수첩만 본다) 검정고시 칠 거야...

나영 나... 너한테 솔직하게 말해두 왜?

진하 (수첩만 보며 글 쓴다)

나영 네가 쓴 글 말이야...

진하 (펜 멈추고 고개 든다. 궁금하다) !

나영 너 글 되게 잘 쓰는데... 솔직히 너무 어려워. 너 글 읽으려면
국어사전 옆에 있어야 돼. 안 그럼 이해 못 해.

진하 (진짜 놀란 얼굴) !!

나영 (몸 바로 세우며) 몰랐어?

진하 (진짜 몰랐던 얼굴이다) !!!

국어사전 펼쳐져 있다. 바닥에 배 깔고 나란히 누워 있는 진하와
나영의 뒷모습. 수첩도 펼쳐져 있다.

나영 (진하 수첩에 적힌 단어와, 국어사전 번갈아 짚어가며) 봐봐.
'보쪽' 이렇게 쓰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냥 '천장'이라고
하면 되지 왜 어렵게 써? (수첩 다른 장 넘기며) 이것도 봐봐.
'매지구름?' 이게 뭐야?

진하 ("몰라?" 하는 표정) 비 머금은 조각구름 같은 거 있잖아... 그건데.

나영 먹구름! 그냥 먹구름이라 하면 되지.

진하 다들... 그렇게 부르지 않나...?

나영 아니거든! 그렇게 안 부르거든! 넌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거야?

진하 (충격 받은 듯 멍한)

나영 (벽면 가득 책들을 보며) 들은 게 아니라 읽은 건가...?

수첩 확 덮더니 끌어안고 구석으로 가는 진하. 빠친 듯하다.

나영 화났어...?

진하 (대답 없다. 빠친 거다)

나영 근데 되게 재밌었어. 사실 만화책보다 더 재밌게 읽었어...

진짜야…
 진하 (머리에 가려 잘 안 보이지만, 조금은 풀린 듯한데) …
 나영, 턱 괴고 창밖 풍경 보는데,
 다락에서 붉은 다라가 훤히 보인다.
 나영 (몸 일으키며, 분노) 야… 너!!!
 진하 (영문 모르지만 위협을 느끼는데)
 나영 맞지? 그날 창문 닫히는 소리 너였지? 나 오줌 싸는 거 다 본 거지?
 진하 (고개 마구 젖는데)
 나영 (만화책 집어 던지며) 여기서 다 보이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달려들며) 내 엉덩이 다 봤잖아! 이씨 이 변태…!
 진하 (구석으로 도망치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고… 진짜야…

#71. 작은방(밤)

천장에서 뿔구는 듯 쿵쿵 쿵쿵. 시끄럽다. 시험지에 빨간색 색연필로 쪽쪽 틀린 문제 체크하고 있던 임언니, 까칠한 얼굴로 천장 본다.

#72. 다락(오후)

구석으로 파고드는 진하와 바짝 뒤를 쫓는 나영,
 손목에는 머리 고무줄 감겨 있다.

진하 자꾸 왜 이래… 나한테…
 나영 (회유하듯) 답답할 것 같아서 그래.
 진하 (필사적으로 머리 가리며) 안 답답하다구…
 나영 내가 답답해 그래.

진하를 힘으로 짓누르며 앞머리를 끌어올려 묶어버리는 나영.
 앞머리가 뾰지처럼 묶여 황당한 진하, 나영은 그 모습이

웃겼는지 깔깔댄다.

임언니 조용히 안 해!!!

놀라서 돌아보는 진하와 나영. 뭘 봤는지 나영은 놀란 듯 구석으로 물러서고, 진하는 고무줄을 빼버리며 뾰지머리 푼다.
 보면, 다락 입구에 임언니의 머리가 불쑥 올라와 있다.

임언니 (나영 보며) 넌 또 왜 여겼어? (진하 본다) 웬일이냐? 사람을 다 들고. (둘 다 번갈아 보며)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뭘 하고 놀든 상관없는데… 조용히 놀아. (버럭) 알았어?!!

한 발 한 발, 한 손 한 손 조심히 내딛으며 기어가는 나영,
 입에는 도화지를 물었다. 한쪽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던 진하.
 나영이가 자꾸 움직이니 신경쓰인다. 도화지를 바닥에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나영.
 온 사방에 크레파스 색연필 등이 나뒹굴고 있다. 나영,
 연필과 크레파스로 쓱쓱 쓱쓱. 집중하며 독서하던 진하,
 거슬러 고개 든다.

진하 너 내려가…

나영 (그림 그리며 발도 흔드는) 싫은데!

진하 여기 심심하다며… 내려가.

나영 하나도 안 심심한데, 밑에 가면 너네 누나가 번데기처럼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나한테 이거해라 저거해라 한단 말야.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참!!!

진하 (깜짝이야)

나영 너 우리 엄마 노래 한번 들어볼래?

#73. 작은방(오후)

까치발하고 걸어가 책가방을 집어 드는 나영.

바닥에는 번데기처럼 돌돌 말린 이불 속에 임언니 자고 있다.
나영,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카세트테이프만 쓱 꺼내들더니
문 닫고 나가버린다. 문 닫히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애벌레
같은 임언니.

#74. 다락(오후)

완전 당황한 진하의 얼굴. 카세트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 아주 못 부르는 건 아닌데 뭐랄까 박자도
좀 안 맞고 요상하다.

진하 (얼굴로 리듬을 타듯. 계속 움직이는 얼굴)
나영 (정지버튼 누르며) 어휴... 딸인데도 도저히 못 들겠다.
진하 (노래 끊기자 그제야 편안해지는 얼굴)
나영 근데 올 엄마 아직도 가끔 노래 부른다.
진하 !!!
나영 망한 가수긴 해도, 노랜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가끔 무대에도
올라. 그래서 화장도 진하고 옷도 화려해... (벌러덩 천장 보고
누우며) 지금은 내가 유일하게 팬이지만, 예전엔 아저씨 팬들한테
팬레터도 꽤 많이 받았어. 지금은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그
팬들도 뽀뽀이 흩어졌지만...
(갑자기 눈 감는다. 잠시 뒤 뜬다) 알 것 같다!!!
진하 (뭘 소린가 싶은데)
나영 니가 여있는 이유. (몸 뒤집어 배를 바닥에 깔며) 있어보니까
그런대로 지낼 만하네 뭐. (요강 보며)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해결되지. 먹을 것도 다 갖다주지~

쟁반에 몇 알 놓인 삶은 계란 들더니,
바닥에 꽂 내리치며 껍질 까는데

나영 근데 우리 더 크면 여기선 못 있겠다. 들어오는 구멍도 작아지고
천장도 더 낮아질 거잖아...

진하 (고개 튼다. 너도 여기서 나가자는 거구나...)
나영 그땐 우리 더 큰 다락으로 옮길까?
진하 (다시 고개 틀어, 나영 본다)
나영 (깐 계란 건네며) 먹을래? 아 맞다 너 계란 안 좋아하지. (하고는
자기가 먹는다)
진하 (보는)
나영 흰 달 노른 달. 그 글... (먹던 계란 들어 보이며) 이거 말한 거
아녘어? 아닌가? (민망) 아님 말구. 아니 난 또... 안 좋아하는 줄
알았지...
진하 맞아... 안 좋아해.
나영 (흥분) 맞지? 거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읽다 보니까 딱 그거
같더라구. 근데 싫다면서 왜 맨날 먹냐?

#75. 마당(낮)

수돗가, 붉은 다라 위에 여러 겹의 얼음이 얼었다. 바가지로 팍
깨서 손을 씻는 나영. 얼굴도 어푸어푸 씻는다. 손이 빨개진다.

임언니 야, 그러다 동상 걸려!

나영, 쳐다보면 닭장에서 계란 들고 나오는 임언니가 서 있다.

#76. 대청마루(낮)

따뜻하게 데운 물 세숫대야에 담아 마루에 내려놓는 임언니.
수건도 획 던져준다.

임언니 기지배가... 담부턴 데워 써. 동상 걸리면 손발 다 잘린다 너.
나영 (그 말에 따뜻한 물에 손 얼른 담근다)
임언니 (계란 들고 일어서며) 얼른 준비하고 학교 가.
나영 언니, 근데 그거 진하 줄 거예요?
임언니 뭐? (계란 보며) 아 이거? 어. 진하가 좋아해서. 삶을 거야.

나영 별로 안 좋아한대요. 삶은 계란.
 임언니 (믿기지 않는 듯 충격) 진짜…?
 나영 노른자는 껍질해서 목 맥혀서 싫대요. 물 많이 마시면 쉬도 자주
 마렵고. 그나마 먹을 만한 흰자도 아무 맛 안 나서 싫대요.
 임언니 (급히 다가와) 또!!! 또 뭐래? 혹시 다른 말은 안 해?
 나영 (세수하다가) 다른 말은… 안 했는데.
 임언니 (실망, 풀썩) 그래두 네가 처음이다… 그놈이 들여보내준 거.
 어떻게 들어갔냐? 기술도 좋네. 그 녀석 다락에 들어가는 거
 끔찍이 싫어하는데.
 나영 아닌데… 계속 올라가면 다락까지 그냥 들여보내주던데.
 임언니 (처음 알았다) 진짜?
 나영 (수건으로 얼굴 닦으며) 언니, 근데 오순필 여사가 누구예요?
 임언니 진하 외할머니. (나영 시선 느끼고) 아, 우리 외할머니 아니고…
 사실 진하랑 우리 자매들, 엄마가 다르거든. 근데 왜?
 나영 아니, 진하 수첩에 자주 등장하길래요.
 임언니 진하한테 엄마 같은 분이셨지 뭐… (마루에 앉으며) 진하 녀석,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을 거야. 진하도 약하지만 개네 엄만 늘
 아프셨거든. 그래서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 외할머니는 3년 전쯤에
 돌아가셨고.
 나영 아…
 임언니 그리고 보니 그 무렵부터긴 하다… 저놈 틀어박힌 게. (깊은 한숨,
 일어서 가며) 혹시나 했네, 너한테 뭐라도 말했나 하고… 휴.
 나영 (수건 어깨에 걸치며) 잠시 머물기에 그들은 보지 못한다.
 달무리 진 겨울밤… 고깔 씌운 보폭 너머의 풍경을…
 임언니 (뭐래니?) 뭐? 보폭 뭐?
 나영 좀 어렵게 쓰여 있어서 그렇지… 진하 수첩에 다 쓰여 있는데. 흰
 달 노른 달도… 오순필 여사도… 전부 다 쓰여 있는데… (세숫대야
 번쩍 들더니) 이걸 제가 치울게요. (하고는 수돗가로 뛰어간다)
 임언니 (뭔가 한 대 맞은 표정) …

#77. 다락(오후)

글을 쓰다 잠이 든 듯, 깊은 잠에 빠진 진하.
 펼쳐져 있던 수첩을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누군가의 손.
 임언니다.

#78. 부엌(오후)

자리 잡고 앉아 수첩을 펼쳐보는 임언니.
 옆에는 국어사전 놓여 있다.

임언니 (수첩 든 채, 작게 소리 내어 읽는) 난 꼬두람이다…
 (뜻 이해하려고 사전도 넘겨가며) 띠앗머리는… 섬서하다.

자막. “난 맨 끝 막내다.”
 “형제, 자매 사이에 우애와 정은 서먹서먹하다.”

#79. 몽타주(이유)

- 임씨 고택 마루.

안방으로 들어서려다가 만 듯 멈춰서 있는 어린 진하(7세).
 시선 따라가 보면, 열려 있는 안방 내부에 매출금과 장부를
 확인하며 계산기 두드리는 임아빠가 보인다. 바빠 보인다.
 방향 트는 어린 진하. 마루에 앉아 깔깔대며 대화 중인
 누나(3명)들에게 반갑게 다가서려 하지만 끼어들 틈이 없다.
 유일하게 교복 입은 임언니도 대화에 안 끼워줄 정도로
 성인들이다.

- 대문 앞.

승용차로 향하는 임아빠의 뒤를 빠르게 따라가는 어린 진하.
 “아빠, 아빠”를 부르지만 임아빠는 차에 올라 멀어져 간다.
 진하의 입에선 허연 입김. 뒤이어 따라 나오는 외할머니. 진하,

뒤돌더니 외할머니 다리를 외락 꺼안는다.

- 진하 방.

기침하는 어린 진하. 많이 아파 보이는데... 담요를 덮어주며,
머리 쓸어 넘겨주는 외할머니. 진하의 곁을 지킨다.

- 고택 전경.

상등이 걸려 있다.

- 마루.

외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는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어린 진하.
주변 누나들과 입아빠는 다소 덤덤하다.

- 안방 문 앞.

등을 보인 채 돌아 앉아 있는 입아빠와, 그 앞에 대치하듯
서 있는 누나들. 그리고 그런 입아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교복 입은 입언니.

누나1 아니, 나도 가정이 있는데 내 애도 아니고, 내가 왜 아빠 애를
돌봐요? 몸까지 약해서 손도 많이 가는 애를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거냐고 대체!

누나2 (교복 입은 입언니 가리키며) 그렇다고 아직 어린애한테 부담 줄
생각 마세요. 그러면 그뻘 내가 저 자식 고아원 보내버릴 테니까!

누나3 그렇게 아들 타령하시다가 남부끄럽게 다 늙어서 낳았으면, 알아서
하셔야지...!

입아빠 (아무 말 못하고 버거운 느낌)

누나1 다시 한 번 그런 얘기 꺼내시면 명절에도 발길 끊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 안방 문 앞.

서 있다가 발길을 돌리는 어린 진하. 슬픈 얼굴.

진하(E) 새둥우리가 무너지는 통에 아울러 깨지는 새알...
그러나... 그깟 새알 하나로 새둥우리가 무너지는 건...
더욱 슬픈 일이다.

- 부엌 다락 입구.

시커먼 구멍 앞에 서 있는 어린 진하.
손에는 외할머니가 덮어주던 담요 들려 있다. 진하,
몸을 웅그리더니 구멍 안으로 들어선다.

- 다락 내부.

담요를 끌어안은 채 누워 잠든 어린 진하, 편안해 보인다.

진하(E) 보폭에 머물더라도... 지붕 고깔은 함께 쓰고 싶다.

자막. “지붕 안쪽에 머물더라도, 한 지붕 아래 있고 싶다.”

#80. 다시 부엌 (오후)

수첩을 덮는 입언니.
고개를 들어 다락으로 향하는 시커먼 구멍을 올려다본다.

#81. 달고나 가게(오후)

연탄 위에서 설탕 녹여, 소다 찍어 만들고 있는 달고나.
방과후, 책가방을 멘 채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는 나영과 상화.

상화 전, 하트요.
나영 아저씨 두 개는 별로 찍어주세요. (손가락 두 개 펴며) 두 개요!

#82. 다락(오후)

창밖 보면서 달고나 빨아먹는 나영. 책가방 그대로 멘 상태.

두 눈 부릅뜨고 집중해서 달고나 별모양 발라내고 있는 진하.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는지 머리도 쓸어 넘기며 아주 열심히다.

진하 이거 진짜 발라내면 하나 더 줘? (하는데 별 특 뽀사진다. 탄식)
나영 (그 별, 그냥 진하 입에 넣으며) 그냥 먹어. 달지?
진하 (문득, 나영이가 들고 있는 달고나에 시선 쫓힌다)
나영 (못 가져가게 몸 틀며) 탐내지 마, 내 꺼야.

어느새 달고나 다 빨아먹었고 젓가락만 입에 물고 있는 진하.
천장 보고 대자로 누워 있다. 나영도 젓가락 입에 물고 잘근잘근
씹으며 누워 있다.

나영 사실 만들자마자 도형 딱 찍어서 떼어내면 더 잘 뽑히는데.
물렁물렁해서... 우리 담엔 같이 가서 한번 해볼래?

진하 (한참 있다가) 그래...
나영 그래!
진하 그래.

#83. 안방(깊은 밤)

불 꺼진 어두운 실내, 금고 다이얼을 돌리고 있는 입아빠.
어느 순간 찰카닥 하며 금고가 열리자,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넣어두는데 이미 금고 안에는 꽤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소선, 다시 눈을 감는다.

#84. 작은방(깊은 밤)

매직 뚜껑을 여는 나영. 책가방에 매직으로 '임'을 쓴다. 그리고
이어 '나영'이라고 써넣는다. 책가방에 매직으로 선명하게 쓰인
'임나영'.

#85. 갈림길(오후)

나란히 보이는 나영과 상화의 네모난 책가방.
어느새 다리가 있는 갈림길 앞이다. 상화는 흥분상태.

상화 앗싸! 드디어 내일이다. 진짜 고기 왕창 먹어야지.
나영 (사실은 본인도 신난다)
상화 정류장으로 나가 있으면 되지?
나영 응!!! 동생들이랑 기다리고 있어. 나두 2시까지 갈게.
상화 (다리 쪽으로 들어서며 손 흔든다) 따뜻하게 입고 와. 내일 출대.
나영 응. 내일 봐~

손 크게 흔들더니, 신나서 흠길로 달려가는 나영.
책가방이 덜렁인다.

#86. 다락(오후)

진하 야, 그럼 안 지워지잖아.

누워 있는 진하의 발끝과 머리끝에 매직으로
선을 긋고 있는 나영.

나영 안 지워져야지 바보야! 그래야 담에 얼마나 큰지 알 거 아니야.
(그러고는 그 옆에 눕는다. 매직 건네며) 자, 얼른 그어.

나영의 머리끝과 발끝에도 선이 그어진다.
진하가 선들 위에 뭔가를 적기 시작한다. 나영, 뭐하나 싶어
깨알 같은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나영'과 '임진하'라고
적혀 있다.

진하 이렇게 적어놔야 안 헛갈리지...
나영 (한참 보더니) 야, 내가 더 큰 것 같은데.

진하 (말도 안 돼!) 내가 아직은 더 크거든.
나영 아니야, 봐봐 내가 더 크잖아... 똑똑히 봐!

하는데, 대답 없는 진하.
나영, 왜 그러나 하고 진하를 보면...
진하 창밖을 뉘 놓고 보고 있다.
나영도 그 시선 따라 창밖을 보면...
좁은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진하 눈이다. 송이눈...
나영 함박눈!
진하 송이든 함박이든. 눈이다.

반짝이는 눈으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진하와 나영.
눈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한동안 보여진다.

#87. 안방(깊은 밤)

잠들어 있는 입아빠.
금고 앞,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리고 있는 소선.

#88. 작은방(깊은 밤)

평온히 잠들어 있는 나영의 손. 그 손을 갑자기 잡아끄는 소선의 손. 놀라서 눈을 뜨는 나영. “셋!” 하며 입을 가린 소선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눈에 띈다. 나영, 소선을 향해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짓는다. 싫다. 가기 싫다. 소선이 잡아끌지만, 나영 싫다!!! 그때 자고 있는 입언니가 뒤척인다. 소선, 가차 없이 나영이를 잡아끈다.

#89. 마당(깊은 밤)

밤새 내린 눈으로 소복한 마당. 아무도 밟지 않는 숫눈을 밟고 지나가는 나영과 소선. 나영, 간절한 눈빛으로 버티고 또 버티보지만 소용없다. 눈 위로 끌려가는 나영. 하이힐 신은 소선의 손엔 커다란 가방이, 나영의 어깨엔 네모난 책가방이 들려 있다.

나영 (눈물범벅) 엄마... 제발... 인사라도... 인사라도 하게 해줘... 제발...

소선 (급박한, 작은 소리) 이년이, 자꾸 왜 이래 진짜!

눈물범벅의 나영이 갑자기 소선의 손을 뿌리친다!
숫눈을 밟고 달리기 시작하는 나영. 잡히지 않기 위해 내달린다.
나영이 미친 듯이 달려가 멈춘 곳... 다락이 보이는 뒷마당이다.
맨손으로 눈덩이를 만들어 던지기 시작하는 나영.
퍽!퍽!퍽! 다락 창을 향해 던지고 또 던진다.
그때, 화난 얼굴로 달려오는 소선, 나영의 머리를 냅다 친다.
나영의 손을 가차 없이 잡아끌고 가는 소선, 나영 속으로 외친다. 허연 입김.

나영(E) 진하야.....!!!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끌려간다.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눈덩이를 다락창으로 던지는 나영.

#90. 다락(깊은 밤)

퍽!!! 다락 유리창에 날아든 눈덩이.

#91. 흙길(깊은 밤)

저 멀리 세워진 용달차를 향해, 나영이 소설의 손에 끌려가고 있다. 용달차 뒤에는 음향장비와 악기들도 실려 있다. 나영의 책가방에 매직으로 선명히 쓰인 '임나영'. 소설에게 끌려가며 어깨끈이 내려가 책가방이 벗겨지려 한다. 눈물범벅이 된 나영의 입에서 다시 한 번 나오는 허연 입김. "짜—지직" 얼어붙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 STOP.

나영, 고개를 돌려 소리친다!

나영 진하야! 진하야…! (눈물범벅) 진하야……!!!

플래시백. 그동안의 진하와 나영의 모습이 그려진다.

#18. 네 다리로 서서 덜칠 듯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던 진하.

놀라서 물러서던 나영.

#36. 눈덩이를 다락창으로 집어던지는 나영. 눈덩이가 얼굴에 퍽! 맞는 진하.

#60. 나영의 손이 진하의 머리를 넘기자, 진하의 눈이 보인다. 새하얀 얼굴의 미소년.

#70. 수첩에 글을 쓰다가 문득 옆을 보는 진하. 웃으며 만화책 읽고 있는 나영.

현실, 어느새 출발하며 멀어지는 용달차.

그때 흙길 저 멀리 달려오고 있는 진하의 모습. 그런데 더 이상 뛰지 않고 어느 순간 멈춰 서는 진하. 갑자기 뒤돌아 고개를 향해 달려간다. 어느새, 지붕 위에 위태하게 올라선 진하의 모습이 저 멀리 보인다. 집안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멀어지는 나영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본다.

#92. 몽타주(흔적)

- 마당. 습눈 위에 그려진 나영과 소설의 발자국들.

- 작은방. 잠들어 있는 임언니 옆으로 몸만 빠져나간 듯 흐트러진 이불의 모습.

- 책장. 소설가의 책장 만화책 사이. <7권>과 <9권> 사이에 <8권>만 빠져있다.

- 서랍. 학교 책상서랍에 남겨진 나영의 교과서와 물건들.

#93. 버스 정류장(오후, 밤)

거친 바람. 얼굴과 손이 빨개진 상화가 동생들(2명)과 나영을 기다리고 있다. 차길로 차들도 썩썩 지나간다. 추운지 발을 동동 거리는 어린 동생들.

동생1 언니 추워…

상화가 입고 있던 옷이나 목도리를 동생들에게 입혀주거나 돌려준다. 바람도 막아준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들어 나영이 오는지 계속 확인하는 상화. 동생들에게 벗어줘서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상화, 옷소매를 쪽 내려 장갑처럼 손을 감춘다.

동생2 배고파… 언니 친구 언제 와?

상화 (확신) 조금만 기다려. 올 거야.

동생들은 어느새 잠들었다. 상처 입은 얼굴의 상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이다. 어두운 밤까지 기다렸다. 상화… 일어선다. 동생 한 명은 업고, 한 명은 걸리며 정류장을 떠나가는 상화다.

#94. 에필로그

- 쪽방(밤).

다락같이 좁고 허름한 골방에 홀로 덩그렇게 앉아 있는 나영.
그 옆에 만화책 <8권>. 차가운 바닥인 듯 빨개진 맨발. 발톱엔
시커먼 발굽. 나영의 맨발로 눈물이 푹푹 떨어진다. 썩 눈을
뒹아보지만 또 푹. 푹. 떨어진다. 멀리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소선의 노랫소리. 그 옆에서 들리는 연주 소리. 이어진다.

- 다락(밤).

다락에 진하의 물건들이 모두 빠지고 없다.
나무 바닥에 그어진 선 위로 보이는 '임나영'이란 이름.
비어 있는 자리. 자신의 이름 선에 맞춰 누워 있는 진하...
두 눈이 가려진 엉켜버린 머리 사이로 눈물이 쪽 흘러내린다.

끝.

작가 후기 (너테, 얼음의 다락 | 박바라)

어 어 어...! 보이지 않는다! 오타도 수정 방향도.
센터장님이 명언을 남기셨다. "박바라란 독특한 이름을 갖고, 박말자처럼 쓰지 마."
"네연!!!" 크게 대답해놓고 개명하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잠시 덮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니 조금 보였다. 오타도 방향도. 당선작에서 많이 수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수정본이 더 마음에 든다. 극중 소녀가 이런 대사를 한다. "육쟁이할머니도, 심지어 동네
똥개도 다 사연이 있고 그 이유가 있는데. 쟈 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 그 이유를 선명하게 만들고 나니, 캐릭터가 선명해지고 이해도도 깊어졌다.

'너테'의 소녀가 사진을 펼쳐봐야만 소년의 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를
알아가고 마음을 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눈이 녹아 없어져도 추운 겨울은
기억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을 담은 극이다.

이 극 덕분에 오픈에 인연이 닿았고, 이곳에서 원 없이 글을 쓰고 있다.
모든 센터 식구들♥ 정말 감사드리며, 이게 무슨 복인가 싶게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는
뭘 좀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리고 우리 오픈 3기! 드라마에서 모두 일냈으면 좋겠다. 아보!!!

2019 오픈 3기/드라마 작품집

더블 스틸 | 김민주

작의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재능보다는 수능을, 대학은 적성 대신 성적을 우선순위로 둔 탓에
정작 본인이 될 잘하는지조차 모른 채 사회에 나와 방황하는 이들.
재능을 죽이며 살아온, 아직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외쳐본다.
아직 당신의 재능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등장인물

유진(19세, 여) 정수고등학교 최초의 여자 투수. 등번호 38번.
문과 전교 130등. 잘하는 것도 꿈도 없지만 성깔은 있는 고3 수험생,
속을 알 수 없는 날카롭고 긴 눈매, 막내딸답지 않은 무뚝뚝한 말투를 가졌다.
친구들과 있을 땐 잘 웃고 잘 노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엘리트인 오빠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
177의 큰 키에 넓은 어깨와 통뺨를 타고나 별명은 전봇대다.
운동을 시켰어도 열두 번은 시켰을 피지컬이나 부모는 공부만 시켰다.
운동이라면 야구광인 아빠와 했던 캐치볼 정도.
우연히 던진 공 덕분에, 무미건조하게 살아온 19년 인생 처음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사건이 생긴다.

김치열(60대 초반, 남) 정수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서울 드래곤즈 영구결번 (03번) 전설의 투수. 국내 최초의 싱커볼 투수.
프로구단감독 은퇴 후, 정수고등학교 감독으로 부임해 큰 이슈 물의를 했다.
과거 야구 명문이었으나 쇠퇴해가고 있는 모교의 명예를 재건하기 위해
도전했으나 이렇다 할 성적은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오합지졸 속 진주
승하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뜻밖의 에이스가 등장한다.

백승하(19세, 남) 정수고등학교 야구부 주장. 등번호 99번. 우투 우타
정수고등학교 야구부 에이스 투수. 강인한 어깨도 모자라 빠른 발까지 가졌다.
정수고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홈런을 친

타자다. 과거의 영광에 살고 있는 정수고 야구부의 머리채를 잡고, 작년 황금사자기를 8강까지 끌고 갔으나, 상반기에 1차 드래프트에서 구단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모든 구단이 승하를 외면한 이유는 재작년에 받은 토미존 서저리 때문. 9월 중순에 있을 2차 지명을 노리고 있긴 하지만, 이번엔 어께가 말짱이다. 잦은 부상 때문에 야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왜 야구를 하는지를 잊어버렸다.

강의찬(19세, 남) 정수고등학교 내야수

발빠른 것 빼고는 야구선수로서 장점이 전혀 없는 정수고 테이블 세터. 168의 작은 키에 왜소한 편이라 홈런은 기대할 수 없고, 안타도 쉽지 않다. 주전선수로 나가야 하는 고3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주자 카드로 쓰인다. 프로는 진작 마음 접었고, 대학이라도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야구를 하고 있다. 갑자기 고3때 야구를 하겠다고 야구부에 굴러 들어온 계집애가 재수 없다. 대학을 가려고 야구를 하는 본인과 반대로, 여자 주제에 수능과 대학 대신 야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승현(33세, 남) 정수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등번호 33번

리틀야구단부터 시작해 단계를 밟아온 전형적인 야구 꿈나무 출신. 귀한 포수 보직에 성실하기로 소문났지만 야구에 별다른 재능이 없어 프로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추가합격으로 겨우 들어간 대학을 다니면서 그 어떤 지명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지도자로 진로를 틀었다. 부원들에게 무섭기만한 코치는 아니다.

유광(55세, 남) 진의 아빠

야구에 미쳐 사는 서울 드래곤스 35년 야구광. 직급도 높은데 눈치 없이 사내 야구단 동호회에 가입해 그 안에서 투수 보직을 맡고 있다. 아들을 낳으면 야구선수를 시키고 싶었으나 막상 태어난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포기했다. 허구한 날 어린 성과 진을 데리고 야구장에 쏘다녔다. 그러나 딸 진이 야구를 한다고 했을 때, 35년간 모아왔던 야구 물품들을 모조리 다 쓰레기봉지에 넣어버렸다.

한수희(51세, 여) 진의 엄마

아들만 너무 사랑하는 진의 엄마. 딸보다 살짝 더 아들을 좋아하고 그걸 숨길 생각도 없다. 아들 성은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배부른 반면, 딸 진을 생각할 때면 한숨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다. 진의 앞날이 걱정되지만 성이 나중에 안과 전문의가 될지 피부과 전문의가 될지 고민하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

장도환(19세, 남) 정수고 야구부 포수. 승하의 배터리. 등번호 21번

야구부 부주장. 승하와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야구를 했다. 승하와 같은 프로구단에 들어가 합을 맞추는 것이 꿈이지만,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유 성(21세, 남) 서울대학교 의대생 본과 3학년

진의 오빠. 과학고 조기졸업-서울대 의대 루트를 밟고 있다. 중학교 때까지는 야구부 생활을 했으나 머리가 너무 좋아 의대에 갔다. 본의 아니게 진의 열등감의 근원이 된다.

그 외

주영을 비롯한 야구부원들, 타격코치, 상대팀 선수, 진의 친구1·2, 해설 등.

줄거리

언제나 멋진 만루 홈런, 아슬아슬한 더블 스틸

잘하는 거 하나 없는 고3 수험생 진은 매일이 지루하기만 하다.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오빠와 뭐 하나 빼놓지 않고 비교대상이 될 때도 짜증이 나지만, 도무지 반박할 수가 없다. 진의 낙은 친구들과 야자 끝나고 먹는 석식타임, 그리고 종종 보는 야구경기가 끝.

평소처럼 석식을 먹고 소화시킬 겸 농땡이 칠 겸 운동장에 마실 나온 진은, 야구부 의찬이 잘못 던진 공에 크게 다칠 뻔한다. 사과 없는 의찬의 태도에 화가 난 진은 의찬에게 공을 던지는데, 야구광 아버지와 야구 꿈나무였던 오빠와 함께 캐치볼을 한 경력으로, 제대로 된 강력한 피칭을 선보인다. 진의 공은 완벽한 싱커로 의찬에게 날아가고,

마침 에이스 승하의 컨디션 난조로 고민하고 있던 김 감독의 눈에 진이 들어온다. 진의 공을 본 김 감독은 이 코치에게 청룡기에 여자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지 묻고, 진을 찾아오라고 한다. 이 코치는 당황하지만 김 감독의 요청에 따라 진을 찾아 부실에 불러들인다. 진을 만난 김 감독은 다짜고짜 진에게 야구할 생각 없냐고 묻고 황당해하던 진은 김 감독의 마지막 세 마디 때문에 야구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야구를 하겠다고 결심한 진,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장애물들이 나타나는데……

과연, 진은 청룡기 마운드 위에 설 수 있을까?

더블 스틸 김민주

#1. 그라운드(오후)

마운드 위에 올라선 진(19세, 여). 가슴팍에 한자로 '정수精髓'라고 쓰인 야구 유니폼 입고 투구 준비 중이다. 서 있는 진의 양 사이트에 바람 불어, 만화처럼 마운드의 흙먼지 날린다. 진을 중심으로 한 바퀴 훑으면, 배경은 흙바닥의 고등학교 야구장이었다가, 인조잔디에 관중석이 있는 프로 야구장이었다가 번갈아 바뀐다. 진은 그대로인데, 배경이 계속 바뀐다. 투수 사인 보내고 진, 매서운 눈으로 투수의 사인 확인하고 고개 끄덕하면, 맞은편 타자, 바짝 각 잡는다. 진의 와인드업! 슬로로 보이고, 공 엄청난 속도로 날아간다.

타이틀. “더블 스틸”

#2. 정수고 운동장(오후)

노을 진 하늘, 비어 있는 운동장 가운데 초록 그물망들과 스탠드 곳곳에 있다. 정수고 야구부원들, 줄 맞춰 운동장 사이드 돌며 구호 외친다. 승하(19세, 남)와 도환(19세, 남), 맨 뒤에서 구호 선창한다.

#3. 운동장 벤치 쪽(오후)

캐치볼 주고받는 야구부원들 뒤로, 승하 피칭 연습 중이다. 승하, 와인드업 후 피칭하고, 포수 보는 도환의 미트에 공, 빨려 들어간다. 그 모습 벤치에 앉아 지켜보는 이 코치. 김 감독 손엔 위로 넘겨서 보는 야구부원 기록 적힌 파일 들려

있다. 승하, 공 던지는데 자세 틀어지며 공 완전히 벗어나고, 단발의 비명과 함께 오른쪽 어깨 감싸면, 이 코치 짹째 달려간다. 포수 보던 도환도 “승하야!” 하며 바로 달려와 승하 상태 살핀다. 김 감독, 착잡한 표정으로 승하 한번 쳐다보더니 중얼거린다.

김 감독 …동범이도 없고…… 종렬이도 없고…

김 감독, 파일 몇 번 넘기다 벤치에 툭 던져놓는다.

김 감독 이제 재박에 없는데……

#4. 운동장 계단 쪽(오후)

이썬시개로 사과 한쪽씩 들고 운동장 계단 걷어가는 체육복 차림의 진과 친구들. 세 명 운동장 계단에 첩피덕 앉아 운동하는 야구부 구경한다. 진, 주머니에서 단단해 보이는 사과 꺼내 쓱쓱 체육복 바지에 닦는다.

친구1 오, 언제 가져왔어? 영양사 쌤 있던데.

진 손은… 눈보다 빠르다.

친구2 야, 이 돼지들아…또 먹게?

진 나약한 자식.

진, 커다랗고 단단한 부사 손으로 한 번에 반질 쪼개 친구1에게 건넨다. 친구1 한입 물고 진도 열심히 사과 먹는다.

친구1 (우걱우걱 먹으며) 야구부에 잘생긴 애 없냐?

진 …냄새 안 나면 다행이다.

친구2 어! 저번에 봤어 한 명! 이름 뭐더라? 백…백… 어, 쟤가?

진과 친구1, 동시에 고개 돌아간다. 벤치 쪽에 있는 승하의

뒷모습 보인다.

유니폼 뒤에 백승하 등번호 '99'가 씌어 있다.

승하, 뒤돌아 얼굴 보이면 진, 동의할 수 없다는 듯 고개 젓는다.

#5. 운동장 가운데(오후)

야구부 의찬(19세, 남), 주영(19세, 남)이 진과 친구들 근처에서 캐치볼 주고받는다. 주영, 의찬에게 생각보다 세게 송구해 공이 멀리 나간다. 힘껏 뛰어서 겨우 잡은 의찬, 쪽팔렸는지 감정이 실려 주영에게 힘껏 공을 던진다. 주영의 한참 뒤쪽에 진과 친구들 앉아서 수다 떨고 있다. 의찬의 공, 높이 뜨고 주영, 잡으려고 하지만 투수 글러브에 공이 닿지 않는다.

공 계속 날아가고 공, 진을 향해 정면으로 날아간다. 진의 친구들, 비명 지른다.

#6. 운동장 벤치(오후)

김 감독, 비명 들리자 놀라,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계단 쪽 쳐다보고, 김 감독의 시선을 따라 승하와 이 코치, 도환 모두 진을 쳐다본다.

#7. 운동장 계단 쪽(오후)

공, 진에게 날아오면 진, 공을 보고 몸을 살짝 기울여 공 피한다. 진이 앉아 있던 바로 옆 계단 벽에 맞고 강하게 튕기는 야구공. 진, 공 던진 의찬 바로 노려본다.

친구1 봇대 괜잖아?!!

주영, 의찬과 진 번갈아가며 당황한 듯 쳐다보고, 의찬, 별일 아니라는 듯 폼 잡으며 제자리에서 소리 지른다.

의찬 공 줘!

친구1·2, 어이없어하는데
진은 대꾸도 하지 않고 의찬 계속 쳐다본다.

의찬 공 줘.

진 공 뭐.

의찬 던져달라고!

진, 살짝 빈정 상한 얼굴로 공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
내려온다. 멀리서 봐도 큰 키의 진에게 살짝 놀라는 의찬.

#8. 운동장 벤치 쪽(오후)

김 감독, 아니꼬운 눈으로 상황 지켜보는데,
지켜보던 이 코치 고개 젓는다.

이 코치 아~ 저 새끼 저거, 괜히 말 걸고 싶어가지고.

#9. 운동장 계단 쪽(오후)

오른손에 야구공 쥐고 있는 진,
계단 내려오더니 운동장 바닥에 멈춰 선다.

진 던질 테니까, 잘 받아.

의찬, 진의 예상치 못한 다정한 말투에 오히려 살짝 쫓고, 진,
투구 폼 잡는다. 야구공 실밥 라인이 가운데로 가게, 싱커볼
그립으로 공 쥐고 와인드업하는 진. 진, 완벽한 언더핸드 투구
폼으로 공 던진다.

의찬 (비웃으며) 재 뭐하냐?

#10. 운동장 벤치 쪽(오후)

김 감독, 졸린 것같이 작은 눈 번쩍 커진다.
이 코치, 승하, 도환까지 놀라고.

이 코치 (동시에) 뭐야.

승하 (동시에) 와.

#11. 운동장 계단 쪽(오후)

진이 던진 싱커볼, 직구처럼 정면으로 날아가다 갑자기 왼쪽으로
꺾인다. 의찬의 중요 부위를 향해 돌진하는 진의 공. 의찬,
놀라서 가운데에 투수 글러브 가져다 대 겨우 잡지만, 손 아파
글러브 던진다. 글러브 안에 있던 공, 또르르 굴러간다.
진, 손 탈탈 털고 뒤돌아 친구들 쳐다본다. 병쩍 얼굴로 진
쳐다보는 친구들.

#12. 운동장 벤치(낮)

도환 (승하 보며) ...싱커?

승하, 입 벌린 채 고개 끄덕끄덕거린다.

김 감독 (진에게 시선 고정)이 코치.

이 코치 예.

김 감독 청룡기에... 여자 선수도 올릴 수 있냐?

진, 친구1·2와 함께 운동장 계단 올라가는 뒷모습 보인다.

#13. 진의 집 앞 골목(저녁)

어둑어둑하다. 이미 해는 켜고 8시 넘은 시간이다.

체육복 차림으로 백팩 메고 골목 걸어가는 진.
와아아아악!! 하는 남자의 함성 소리 난다.

#14. 진의 집/거실(저녁)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진. 45평 정도 되는 집이다.
소파 뒤 벽에는 화목한 4인 가족사진. 그 옆에는 서울대
입구에서 찍은 진의 오빠 성(21세, 남)과, 부모 사진 걸려 있다.
소파 앞 탁자 위에 뜯어진 과자봉지,
다 먹은 맥주 두 캔 그 앞에서 야구 중계와 함께
“으싸라 으싸~!” 하며
무반주로 <아파트> 부르며 율동하는 진의 부, 유광(55세, 남)
추리닝 반바지와 늘어진 나시 위에 서울 드래곤스 유광 점퍼
입고 있다.

광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해설(E) 8회 말, 서울 드래곤스의 역전 주자가 출루합니다.
이사 만루. 유성의 양태곤이 내려가고 조수찬이 올라옵니다.

얼핏 보이는 TV 속 중계 화면, 왼쪽에 스코어 ‘유성 돌핀스 5 :
서울 드래곤스 3’ 만루 투아웃 상황. 신난 관중들 응원가 부르며
일어서 있다. 그것보다 더 신난 광. 소파 앞에서 일어나 춤추다
현관의 진 본다.

광 딸~ 왔어~?
진 (익숙한 듯) 이기고 있어?
광 만루! 역전 주자 나왔다!

진, 거실 지나 방으로 들어간다.

#15. 진의 집/진의 방(저녁)

평범한 19살의 방. 책상엔 잡동사니가 쌓여 있고, 물려받은 듯,
손 때 탄 <수학의 정석>과 새것 같은 <수능특강> 같은 수험서들
있다. 책상엔 야구만화 쌓여 있다.
진, 가방 방바닥에 던져놓고 바로 거실로 돌아간다.

#16. 진의 집/거실(저녁)

진, 소파에 차분히 앉아 야구 보고 있고 그 옆에서 광,
긴장하고 있다.

인서트. 야구 중계 화면.
투수 던지고 타자 친다. 공, 배트에 맞는 소리와 함께 관중들의
함성 소리 들리고 공 높게 뜬다.

광 아오!
해설1(E) 투 앤 투, 던진 타구. 높게 뚫습니다. 9회 말, 잔루는 만루.
드래곤스가 2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서트. 야구 중계 화면.
공, 뜨고 따라가 플라이 잡으면 경기 종료 뜬다. 박수 치며
좋아하는 상대 팀(유성) 선수들. 신난 유성 팬들 비추다 화면
갑자기 어두워진다.

#17. 진의 집/거실(밤)

리모컨 든 진, 탁자에 리모컨 놓는다.

광 (유광 점퍼 벗으며) 그걸 못 봐? 가만있으면 밀어내긴데.
진 투수가 잘 던졌나 보지.

진,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간다.

#18. 진의 방(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두르고 편한 옷 입고, 책상에 앉아 있는 진의 뒷모습. 접어놓은 종이 퍼면 2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성적통지표다.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전부 44544다. 수학 영역 38점 5등급이다. 진, 손가락으로 숫자 38에 가져다 댈다.

진 그냥 찍어야겠다...

#19. 야구부 숙소 앞 벤치 (밤)

별관 옆에 있는 야구부 숙소 앞. 김 감독, 벤치에 앉아 한 손으로 야구공 위로 던졌다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 코치, 무심코 숙소에서 나오다 깜짝 놀란다.

이 코치 (발작하듯 놀라는) 아오! 감독님!
김 감독 (태연하게) ...알아봤어?
이 코치 (뒹 소리) 예...? (기억난) 아... 진심이셨어요? 알아보긴 했는데.

김 감독, 무슨 헛소리냐는 듯 쳐다보고 이 코치,
김 감독 옆에 앉는다.

이 코치 여자 선수가 못 올라간다는 규정은 없고, 안향미라고, 예전에 대통령배에서 선발로 출전한 기록이 있긴 한데...
김 감독 됐네 그럼.
이 코치 하나도 안 됐어요 감독님... 개요, 고3이래요. 성별을 떠나서 고3은 건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김 감독 이 코치.

이 코치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했던 애들도 지금 계구 안 돼서 난린데.
김 감독 지금 내봐도 우리 애들보다 나아.
이 코치 아유! (무슨 소리아) 감독님! 감독님! 애들 상처받아요! 우리가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김 감독 개 우완 옆구리, 우리 우완 옆구리 없잖아.
이 코치 감독님... 참... 로맨틱하시네요. 낭만적이시고...
김 감독, 던지던 야구공 잡아서 야구공 실밥 손으로 천천히 쓰옥 만진다.

김 감독 내가... 이 야구공 실밥을... 한 사십 년 만지니까 가끔 느낌이 와. 아~ 쟈 타고났다! 근데... 개가 그래. 폼. 눈빛. 어깨.
이 코치 (답답) 설사 타고났대도...! 개 여자예요! 프로 못 간다구요.
김 감독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딴어?!
이 코치 (황당) 아니 여자는 일단 프로가 없대니까요?
김 감독 일단 한번 보고! 아니면...
나도 뭐... 야구공 그만 만질 때 됐나 보지.

김 감독, 헛기침하며 일어나 간다. 고뇌하는 얼굴의 이 코치.

#20. 진의 집/진의 방(밤)

진, 모의고사 성적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진다. 쪽 들어가는 성적표.

진 (심판 목소리와 포즈 흉내 내며) 스투~라익!

#21. 진의 교실(아침)

고3 아침 자습 시간. 다들 수능특강이나 위로 넘기는 모의고사 문제집 풀고 있는 반면, 체육복 입은 진, <수능특강>을 베개 삼아 자고 있다. 담임 황급하게 뛰어 들어온다.

담임 (급하게) 유진! 유진! 진이 좀 깨워봐.
진 앞에 앉은 친구1, 진의 어깨 흔든다. 미동 없는 진.

친구1 붓대! 일어나!
진, 그제야 일어나 친구 보면,

친구1 담임 쌤...
진, 잠이 덜 깨 담임 보는데,

담임 진이 잠깐 나와봐.

진, 어리둥절한 얼굴로 담임 쫓아간다. 담임과 진,
복도 지나 계단 내려간다.

#22. 건물 1 층(아침)

담임, 걸음 멈추면 진도 멈춘다. 건물 옆에 크게 자리 잡은
야구부실 앞에 두 사람 서 있다. 담임, 야구부실 문 열어주면,
진 어리둥절한 얼굴로 담임 본다.

#23. 야구부실 옆 감독실(아침)

커다란 회장 책상과 의자. 봉황기 우승기, 청룡기 우승기,
황금사자기 우승기, 대통령배 우승기. 총 네 개의 깃발들
걸려 있는데, 하나같이 다 낡았다. 트로피와 각종 상패들,
20년은 더 된 유물이다. 그 앞에 손님 접대용 소파와 탁자 있고,
소파에 앉아 있는 김 감독과 이 코치.

김 감독 (화색) 앉아요 앉아. (담임 쳐다보며) 선생님도 앉으시고.

진과 담임, 자리에 앉는다. 진, 김 감독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다 눈 마주친다. 이 코치, 심드렁한 얼굴로 진을
쳐다본다.

김 감독 그... 유진 학생.
진 예?
김 감독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진, 어리둥절한 얼굴로 김 감독 쳐다본다.

김 감독 자네... 야구 해볼 생각 없나?
진 (황당, 당황) ...?????!!!

#24. 야구부실 앞(아침)

감독실에서 나와 야구부실 앞으로 걷는 진과 담임.
진, 생각에 잠겨 멍한데, 담임은 신나는 얼굴로 걸다가
우뚱 멈춰, 야구부실 앞에서 갑자기 뒤돈다.
진 어리둥절한 얼굴로 담임 보면 진의 손을 덩석 잡는 담임,

담임 (신난) 진아. 됐다 됐어! 너 대학 갈 수 있겠다!!!
진 네?
담임 야구~ 얼마나 신선해. 벌써 학종 자소서 열 장이다. 열 장!

진, 기뻐하는 담임의 얼굴 떨떠름한 얼굴로 본다.

#25. 야구부실 문 앞(아침)

문고리 잡은 승하의 뒷모습. 문 열지 않고 가만히 멈춰 서 있다.

#26. 야구부실 옆 감독실(아침)

진 …저… 여잔데요.
(체육복에 박은 명찰 보여준다. 노란색 명찰) 고3이고…

김 감독 그래서? 유진 학생은 야구에 재능이 있다니까?

진 (어이없는) 절 언제 보셨다고…?

김 감독 어제. 공 한두 번 던져본 거 아니잖아.

진 …가끔 아빠랑 캐치볼 한 게 다예요.

김 감독 (감탄) 오. 그래?

진 저 재능 없어요. 잘못 보셨을 거예요.
애초에 재능이라는 게 없는 애라…

김 감독 있어.

진 ?

김 감독 손끝만 봐도 안다.

진, 본인 손끝 쳐다보곤…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김 감독 쳐다본다.

진 …근데요. 재능이 있다고 쳐요.

김 감독 …

진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제가 야구에 재능 있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김 감독 …

#27. 학교 자습실(오후)

운동장이 보이는 학교 야간 자습실 1층. 독서실 책상에 앉아
학생들 공부 중이다. 체육복 바지 입고 영어 모의고사 푸는 진.
본문에 밑줄 그으며 문제 풀다. 진, 야구 관련된 영어 지문,
'baseball' 단어 보이자 단어에 동그라미 세 번 친다.
한숨 쉬고 고개 들어 창문 보면, 창문으로 보이는 운동장, 야구
연습 중이다. 창문 뚫히 쳐다보며 연습하는 야구부 바라보다

가방 싸는 진.

#28. 진의 집/현관(오후)

도어록 풀리는 소리 들리고 진 체육복에 티셔츠 차림으로 가방
메고 집 들어온다.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 난다. 진, 신발
벗고 있는데 앞치마 두른 진의 모 수희(51세, 여) 뒤집개 손에
들고 주방에서 현관으로 나온다.

수희 왜 이제 와! 전화도 안 받고!

진 (가방에서 핸드폰 찾으려 뒤적거리는데) 뭘 날이야?

수희 이게 아빠 생일도 까먹네.

수희, 획 돌아 주방으로 들어가고
진 핸드폰 보면 부재중 5통 와 있다.

#29. 진의 집/주방(오후)

진, 주방 바닥에 앉아서 뒤집개 쥐고 커다란 전기 팬에 부친
동그랑땡 뒤집는데, 다 호트러지고 부서진다. 호트러진 전 몇 개
집어먹는 진. 프라이팬에 서 불고기 볶던 수희, 국자 놓고 진의
옆에 앉아 진의 뒤집개 뺏는다.

수희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공부도 못해, 책상정리도 못해.
동그랑땡도 못 뒤집어! 아이고야.

수희, 진의 얼굴 보는데 입술이 번들거린다.

수희 먹을 줄이나 알지! 하여간.

수희, 진에게서 뺏은 뒤집개로 부서진 전 접시에 건져낼 때,
진의 오빠 유성(21세, 남) 터벅터벅 들어와 냉장고 문 열어

물 꺼낸다.

성 그냥 나가서 먹자니까...
진 (억울) 오빠 있었어?!
수희 아들~ 동그랑땡 먹을래?

진, 억울해 엄마 노려본다. 성, 생수병 째로 물 마신다.

진 (차가운 말투) 오빠 집에 있었는데 왜.
수희 재는 어려운 공부하잖아! 간만에 집에 왔는데 쉬어야지.
...가만 보면 이게 아주 오빠 못 시켜 먹어서 안달이야.
진 (차별에 억울해) 나도 공부해. 고3이잖아.
수희 아이고! 그래 큰 벼슬 한다~!

성, 물 냉장고에 넣어놓고 진 옆에 주저앉아 접시에 놓여 있는 뒤집개 집는다.

성 가서 씻고 쉬어. (안 가자 어깨로 진 툭 치며) 빨리.
수희 엄마가 할게. 이리 줘.
성 됐어. 근데 아빠는?
수희 오고 있대.

수희 못마땅한 얼굴로 진 썰러본다.

성 유진. 일어나.
수희 하여간 오빠 잘 됐어.

진, 입이 삐죽 나와 벌떡 일어나 주방 나선다.

#30. 진의 집/진의 방(저녁)

책상 의자에 앉은 진. 책상 위에 구겨서 버린 6월 모의고사

성적포 퍼진 채 놓여 있다. 진, 시험지 찢어지게 쳐다본다.

인서트. 야구부실 옆 감독실.

진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제가 야구에 재능 있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에 잠기는 진.

광(E) 나 왔다~~!!!

#31. 진의 집/거실(저녁)

진, 거실에 나가보면 상다리 휘어지게 차린 잔칫상. 케이크 있고 상화 유니콘스 단체 티 맞춰 입은 시꺼먼 아저씨들 우르르 앉고 수희와 성 음식 나른다. 광, 겨드랑이에 투수 글러브 끼고 어깨엔 스포츠가방 메고 있다.

광 어~ 딸~!
진 (떨떠름한) 안녕하세요.

시간 경과.

수희, 치워진 상에 과일과 자른 생일 케이크 나르고 성은 앉아 있다. 술이 올라 새빨간 얼굴의 광. 선물 포장지 손에 쥐고 투수 글러브 머리에 얹는다. 다들 와하하 웃는다.

광 (머리에 얹었던 투수 글러브 다시 내려놓고 만지며) 이거 잘
길들여서 싱커볼을 그냥~ 응 김치열이처럼.

아저씨1 아이~ 이미 본부장님 상화 김치열 아니십니까~!!

광 (멋쩍지만 기분 좋은) 내가?

아저씨2 아 그럼요~ 공을 이렇게 (허공에 슬라이더 그립 쥔다)
딱! 잡고! 최~ 던지시는데!

광 아이~ 아니야!! 싱커는 이렇게 더 앞으로
(허공에 싱커 그립 쥐고 손목 앞으로 꺾는) 이거지~
아저씨1 역취~! 상화 김치열!!
광 (취한) 그면은 이제부터 유치열이라고 불러어~~

아저씨들 와하하 웃고 진과 성 주책인 아빠의 모습에 머쓱하다.

#32. 진의 집/진의 방(밤)

씻고 잠옷 입은 진, 6월 모의고사 성적표 쳐다본다.

김 감독(E) 아직 학생은 본인을 몰라. 자기가 어떤 잠재력을 가진 사람인지.
우선은 야구로 시작해봐. 그 뒤엔 더 놀라운 게 나타나 있을
테니까.

진, 성적표 시원하게 찢어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면,
깔끔히 안에 들어간다.

#33. 야구부 숙소 안(밤)

군대 내무반처럼 생긴 야구부 숙소, 전형적으로 각 잡힌
운동부 숙소다. 한쪽 벽에 '2020년 청룡기 우승을 향하여! -
정수고등학교 동문일동' 현수막 있다. 소등해 어둡고 다들 자고
있다. 곤히 잠든 의찬. 침대 옆 벽에, 고려대학교 전경사진,
그리고 선수들 사진 붙어 있다. 그 옆 침대의 승하, 승하의 벽
옆에는 류현진, 김광현 같은 유명 투수의 와인드업 사진 잔뜩
붙어 있고 그 옆에 초등학교 시절 공을 던지는 승하 본인의
모습, 옆에 붙어 있다. 핸드폰 빛이 은은하게 승하의 얼굴
비추면, 승하 혼자 벽에 등 대고 앉아 폰으로 본인의 피칭 영상
보고 있다. 승하, 오른쪽 어깨 주무르다 크게 한숨 쉰다.

#34. 야구부실 앞(오후)

진, 부실 문 앞에 체육복 입고 서 있다. 이 코치 하품하면서
부실 앞으로 툼툼 걸어오다가 진 보고 깜짝 놀란다.
진, 이 코치에게 꾸벅 인사하고 이 코치 당황한다.

이 코치 너...! 야구하게...?
진 네.
이 코치 고3 아니야...?
진 맞아요.
이 코치 여잔데...?
진 (화난) 아! 언젠 오라면서요!
이 코치 (당황) 너... 야구를 도피성으로 생각하나 본데...
야구 장난 아니다.
진 ...어떤 멍청이가 야구를 도피성으로 해요...
이 코치 (괜히 찢리는) ...있었어 그런 사람이! 아무튼...!
감독님 헛소리에 중요한 시기 날리지 말고 얼른 가.
(손짓으로 휘이~하며) 가 얼른.

진, 미동도 하지 않고, 이 코치 답답한데

진 나한테... 재능 있다고 했잖아요.
이 코치 ...야구가 재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나한테도... 진짜 잘하는 게 있는지.

#35. 운동장 벤치 쪽(오후)

진이 투수 글러브 끼고 서 있다.
대충 쪼그리고 앉아 포수 보는 이 코치.

이 코치 (소리 지르며) 딱 여기로! 공 들어오게 던질 수 있어?
진 (목소리 크게) 해볼게요.

이 코치 딱 다섯 번이다!!

이 코치, ‘도대체 왜? 이려고 있어야 되나’ 하는 떨떠름한 얼굴로 포수 미트 만지고, 진, 공 싱커 그립으로 잡고 공 던지고 공, 직구로 이 코치에게 날아온다. 이 코치 쫓, 혀 차며 미트 올려 잡으려는데 순간 훅 떨어진다. 뒤늦게 미트 겨우 내려 공 잡는 놀란 얼굴의 이 코치. 모양 빠진다. 이 코치, 일어나 진에게 공 던져주면 진, 커다란 글러브로 공 잘도 받는다. 이 코치, 다시 쪼그려 앉아 이번엔 왼쪽으로 글러브를 살짝 옮겨본다. 진, 다시 와인드업 하고 공 던지는데 이번엔 왼쪽으로 휘어 미트에 쑥 들어간다.

화면분할.

조금씩 방향이 다른 이 코치의 미트에 쑥쑥 들어가는 진의 공.

3분할.

- 미트 위치 살짝 위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공이 미트 안으로 들어간다.

- 미트 위치 오른쪽, 역시나 쑥 들어가는 공.

- 미트 한가운데 정 스트라이크 존. 바로 들어오는 공.

벌떡 일어나 진에게 다가가는 이 코치. 진의 손 들고 손끝 한참 유심히 살피더니 이번엔 자기 손끝과 비교하고는 이내 진의 손 놓아준다.

이 코치 (진 쳐다보지도 않고 뉘 나간 듯) 이따가, 부실로 와.

이 코치, 뒤돌아 계단 쪽으로 걸어가고 진, 미트 빼고 뒤돌아 이 코치 보러다 벤치에 앉아 있는 승하 보고 깜짝 놀란다.

진 씨! 깜짝이야.

승하 방금 니가 던진 공, 이름이 뭐지 알아?

진 ... (뭘 이런 걸 물어보냐는 듯) 야구공.

승하 (답답한) 누가 그거 물어봤...?

진 (승하의 말 잘라먹으며 귀찮은 듯) 슬라이더.

승하 (살짝 놀란) 아네...

진 (중얼거리듯) 야구 뭐, 지만 아나...

진, 승하 위아래로 훑어보곤 썩하고 스쳐 지나간다.

승하, 벌떡 일어나 진 따라가 나란히 걷는다.

#36. 운동장(오후)

진과 승하. 둘 나란히 걷는다. 승하가 진의 걸음에 애써 맞추는 중이다. 진, 빨리 걸어 승하 앞질러 가는데, 승하도 속도를 내 또 나란히 걷는다.

승하 그냥 공부해. 그게 덜 힘들어.

괜히 들어와서 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진, 걷다 우뚝, 걸음 멈춘다.

승하, 말하다 말고 같이 멈춰 진 쳐다보면

진 야,

승하 ?

진 너 나 알아?

진, 승하 쏘아보더니 다시 걸어간다.

#37. 야구부 숙소 안(오후)

진, 감독, 코치는 한 쪽에 서 있고, 세 사람 마주 보고 우르르 모인 시꺼먼 야구부원들. 맨 뒤엔 남들보다 머리 하나 큰 승하, 도환과 함께 서 있다. 적대적인 얼굴의 야구부원들. 진 쳐다보고, 특히나 의찬, 거의 경악 수준이다.

진, 먼저 꾸벅 인사하면 마주 보고 선 야구부원들 마지못해 꾸벅 인사한다.

이 코치 (시계 슬쩍 보고) 삼십 분까지 운동장으로 집합. 준비하고 나와.

감독, 코치 숙소 밖으로 나가고 야구부원들 진 뺀히 쳐다본다. 진, 쫓지 않고 똑같이 하나하나 눈 마주쳐가며 기싸움 하고 있다.

의찬 야 거인. 너 우리랑 같이 합숙도 하나?
어쩌냐? 여기 다 왔는데. 침대 같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승하와 도환을 제외한 야구부원들 깔깔거린다.
진, 무표정으로 걸어와 의찬의 앞에 선다.
의찬 압도하는 진의 키. 진, 의찬을 하찮은 듯 내려보다 주변을 둘러본다.

진 그러게. 남은 침대가 없네.

의찬, 어라, 하고 야구부원들 뭐지 싶은데,

진 언제 치워줄래?

순식간에 조용해진 야구부원들.

진 (태연하게)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 나가야지.

너 나가요 팀에 별 타격 없잖아.

의찬 미친 거인년이...! 뭐라 했냐 너.

진 언제 치워줄 거냐고 물었다 이 난쟁이 새끼야. 고막도 쪼끄맴냐?

의찬 (분노) 진짜! 이게 들었나!

의찬, 달려들려는데 야구부원들 “의찬, 니가 참아”, “그만해”

하면서 잡아 말리면, 의찬, “아오! 진짜 때릴 수도 없고” 하며 분노 삭인다. 진, 그 모습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한심한 얼굴로 보고 있다.

진 야구선수가 기싸움도 못해. 이래서, 프로 가겠어?

진, 의찬의 팔뚝 살짝 두들기다가 획 돌아서 나간 뒤 숙소 문 쾅 닫는다. 승하, 뭐 저런 여자애가 다 있어 하는 얼굴로 진 쳐다보다 뒤늦게 따라 나간다.

#38. 야구부 숙소 앞 벤치(오후)

진, 문 앞에서 몇 발자국 걸어가다 바닥에 있던 돌 힘껏 찬다.
날아가는 돌맹이. 승하, 진 뒤에 따라 나오다 그 장면 본다. 진, 터벅터벅 운동장 향해 걸어간다.

승하 축구를 하든가.

#39. 운동장(오후)

승하, 빠른 걸음으로 진 따라잡는다.

승하 내가 말했지, 괜히 들어와서 팀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진, 안 들리는 척 앞만 보고 걸어간다.

승하 야, 귀 먹었냐? (진 옆으로 바짝 붙어 진 귀에 대고) 야!

진, 걸다가 멈춰 선다. 승하도 멈춰 선다.

진 (짜증나는 얼굴로 귀 만진다) 씨...

진, 승하 위아래로 훑어본 뒤 다시 걸어간다. 승하 또 쫓아간다.

승하
진 아! 야구 힘들다고!
 …

두 사람, 말 끊기고 걷는다.
운동장 모래에 신발 끄는 소리만 난다.

진 알아. 그래도 난 야구해야 돼.
승하 왜.

진 넌 왜? 그렇게 힘든 야구 왜 하는데?

승하 …난… (말하려다 생각하는데…) 까먹었어.

진 그럼 너나 그만둬. 난 야구해야 되는 이유 있으니까.

승하 그래. 그러시겠지.

진 ????

진, 승하 쳐다보면 진의 시선 신경쓰지 않고 이번엔 먼저 걷는 승하. 진, 성질나서 승하 앞질러 가려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 승하 그 빠른 걸음을 캐치하고 지지 않으려 경보 시작하면, 야구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부원들 운동장 질주하며 승하와 진 앞질러 간다.

#40. 운동장 구석(오후)

2열 줄 맞춰 있는 선수들. 맨 뒤에 도환 혼자 서 있다.
승하와 진 도착한다.

점프.
운동장 가볍게 뛰는 야구부원들.
야구 유니폼과 모자 쓴 선수들 사이에서 혼자 체육복 입은 진,
눈에 확 띈다. 뒤쳐지지 않고 비슷하게 따라 뛰는 진.

#41. 야구부실 옆 감독실(오후)

김 감독과 이 코치 창문으로 운동장 본다.
뛰고 있는 선수들. 맨 뒤 체육복 입은 진.

김 감독 공 받아보니까 어때.
이 코치 …미트 아니고 배트 들었으면 못 쳤을 겁니다.
 뛰… 솔직히 기대 안 한 것도 있는데 나 참.
 (어이없는)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게 되나…

#42. 운동장(오후)

5바퀴 돌고 2열로 서 있는 선수들. 걸어오는 감독과 코치.
선수들 모자 벗고 인사한다. 김 감독, 진 쳐다보더니 벤치로 가
자신의 글러브 진에게 건네면 진 받는다.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몇 선수들. 거기엔 의찬 껴 있다.

김 감독 프리베팅 할 거니까 다들 몸 풀고, 공은 유진이 던진다. 알았나?
선수들 예!

선수들 흠어지고 이 코치 다가온다.

이 코치 감독님! 재 아직 사인도 모르는데…
김 감독 어 그래서 말인데, 포수는 자네가 봐. 짬이 있잖아.

김 감독, 돌아가고 이 코치 당황한다.

이 코치 (중얼중얼) 아 이거 공 빠지면 개망신인데…

선수들 흠어지고 진, 받은 글러브로 옆에 있는 승하 툭 친다.

승하 뭐야?

진 프리베팅이 뭐냐.
승하 영어 몰라? 그냥 막 던지고 막 치라고.

진과 승하, 티꺼운 표정으로 서로 노려보는데 진에게 다가오는 이 코치. 공 건넨다.

이 코치 공 던질 준비해. 원랜 포수랑 사인도 교환하고 그러는 건데... 감독님이 너 좀 보시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나중에 찬찬히 배우고... 공 던질 수 있지?

진 ...원래 이렇게 체계가 없어요?

이 코치 (당황) 야~! 야구 엘리트 체육이야!
갑자기 니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렇지 원랜 다 단계가 있어~
경우 없는 운동 아냐 야구.

#43. 운동장 한편 구석(오후)

타자들, 스윙 연습한다. 특히나 의찬, 잘 치고 싶은 마음에 어깨에 힘 들어간다. 승하도 도환도 스윙 연습 하고 있다. 진, 마운드에 올라가 있다. 옆에 있는 이 코치.

이 코치 멀지? (쉬고) 거리는 저번에 던졌을 때랑 비슷해. 그냥 좀 올라와서 높아 보이는 거뿐이야.

진, 고개 끄덕인다.

이 코치 니 맘대로 던져. (비장)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진 (코치의 오글거림을 참을 수 없어 건성으로) 예...

시간 경과.

진, 마운드에 놓인 로진 오른손으로 만진 뒤 바닥에 툭 던진다.

#44. 운동장 한편 뒤쪽(오후)

대기하던 의찬 주영과 몇몇 선수들.

선수1 도대체 얼마나 잘 던지는거야?

의찬 다 운빨이야. 기집애가 던져봤자...

앞에서 듣고 있던 승하, 의찬 한번 쳐다보고, 풀 스윙한다.

#45. 운동장 한편 구석(오후)

진, 가볍게 공 던진다. 와인드업 후 피칭한다.

공, 힘있게 미트로 들어간다.

김 감독이 들고 있던 스피드건에, 130 찍힌다.

김 감독 백삼십?!!

연습 스윙하던 선수들, 일제히 멈추고 진 쳐다본다.

시간 경과.

쉴쉴히 돌아서는 좌타자. 그다음 타자, 승하다. 우타자 승하, 타격 자세 취한다. 진과 승하 서로 눈빛으로 기싸움한다.

진, 피칭하면 스윙 해보지도 못하고 이 코치의 미트로 들어가는 공. 이 코치, 진에게 공 던져주면 받고, 다시 한 번 와인드업 후 피칭하는 진. 승하 이번엔 배트 휘두르고, 진을 향해 정면으로 날아가는 공. 승하를 비롯한 모두가 깜짝 놀라는데 진, 아무렇지도 않게 글러브로 공 잡는다.

#46. 운동장 한편(저녁)

2열로 모여 있는 선수들. 감독과 코치 가자 고개 꾸벅 숙이고 해산한다. 땀범벅 된 진, 걷는 게 고통스러운지 터벅터벅 천천히

걷는다. 야구부원들과 점점 격차 벌어지는 진.
승하, 진 쪽으로 슬쩍 돌아보더니 먼저 걸어간다.
어느새 아무도 없는 운동장, 그 가운데를 진, 혼자 걷는다.

#47. 진의 집(저녁)

문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진. 앞머리까지 땀으로 젖어 있다.
수희, 거실에서 그림 그리다가 진의 모습 보고 놀란다.

수희 너 웬 땀을 그렇게 흘려?
진 (얼버무리며) 어? 나... 요즘 살이 너무 찌가지고...
수희 (기막혀) 고3이 무슨...! 너 알아서 해라. 언젠 내 말 들었니.

#48. 진의 교실(오후)

4교시 종 처자, 진 수업 듣다가 짐 싣는다. 그런 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반 친구들. 모두 교복인데 혼자만 체육복 차림이다.

#49. 야구부실 옆 감독실(오후)

진, 체육복 입고 있다. 김 감독, 쇼핑백에서 하나씩 꺼내 부실
책상에 꺼내놓는다. 등번호 38번 '유진' 마킹된 유니폼 두 개와,
접퍼. 그리고 투수용 글러브, 스파이크화.

진 (등번호 만져보며) 왜 38이예요...?
김 감독 그... 광... 내가 아는 숫자 중에 제일 좋은 숫자야.
진 (살짝 웃으며) 그렇구나... 감독님이 제 성적표 보신 줄...
김 감독 (어리둥절한) 뭐?
진 아, 아니예요.

#50. 운동장(오후)

짜지어 캐치볼 하고 있다. 진만 덩그러니 앉아 있고, 그 옆의
세 명이 캐치볼 중이다. 승하는 도환과 캐치볼 하고 있는데,
승하 진 쪽 힐끔 쳐다보다 공 놓친다. 진과 승하, 눈 마주치는데
진이 먼저 피해버린다.

도환 야! 빨리 와.

승하, 다시 도환에게 공 던진다. 힐끔 진 쳐다보는 승하.
진 벌떡 일어나 학교 뒤쪽으로 간다. 도환 역시 진 살핀다.

#51. 운동장 구석(오후)

이 코치와 김 감독, 진 지켜보고 있다.

이 코치 감독님... 진이 거의 기름인데요... 괜찮을까요?
애 상처받을 것 같은데...

김 감독, 무표정한 얼굴로 야구부원들 계속 쳐다본다.

#52. 학교 후문 뒤쪽(오후)

진, 주변 둘러본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벽에 다짜고짜 공
던진다. 스쿼시처럼 공 다시 돌아오고 그걸 잡는다. 막상 잡고
놀라는 진. 다시 한 번 세계 던진다. 팍 튀는 공.

#53. 운동장(오후)

튀는 공, 딱 잡는 승하. 다시 둘러보면 진이 없다.
주변 둘러보면, 다들 하나둘씩 쉬는 타임이다.
의찬과 주영, 야구부 물품을 놓는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모습이

멀리 보인다. 승하, 다시 공 도환에게 던진다.

#54. 학교 후문 뒤쪽(오후)

다시 공 던지는 진, 힘껏 던지는데 야구공 확! 튀어 본능적으로 손 뻗어 공 잡는다.

승하(E) 야구를 혼자 하네.

진, 돌아보면 승하 서 있다.
진, 짜증난다는 얼굴로 승하 한번 쳐다보고 승하 지나치려는데,

승하 지금 니가 하는 거, 진짜 야구 같아?

진, 그대로 멈춰 승하 본다.

승하 그거 그냥 공놀이야.

진, 승하 노력보고 승하도 눈 피하지 않고 노력한다.
키스라도 하는 듯 거리는 매우 가까운데, 키스가 아닌
기싸움 중이다.

진 야, 왜 자꾸 시비아? 내가 야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

승하 환영이라도 해야 돼?

진 ...제대로 던질 수 있는 투수 여기 너 말곤 없다면.

리그도 너 겨우 올라간 거라며.

승하 그래서? 니가 경기 이기게 해준다고? 공 잘 던지니까?

진 ...

승하 야구가 공 잘 던진다고 다 이겨? 투수 혼자 하는 거야?

넌 야구가 쉽지? 그냥 수단이니까.

진 뭐?

승하, 말없이 진 노력보고 진도 지지 않는다.

이 코치(E) 야!! 니네 뭐해!!! (취고) 빨리 안 튀어와?!!

승하, 이 코치 소리 듣고 먼저 걸어가고 진, 뛰어가 승하보다 먼저 운동장으로 간다. 승하도 질세라 뛰어간다.

#55. 운동장(오후)

배트에 공 맞는 소리 나고, 공 쪽 뻗으면 잡아 다른 쪽으로 패스하는 승하. 야구부원들, 펑고 중이다. 이 코치가 공 던지면 타격코치 공 쳐 보낸다. 선수들 오는 공 잡아 다른 선수에게 패스한다. 진도 공 잡아보려 대기 중인데 공이 오지 않아 멀뚱히 서 있다. 이 코치, 진 쪽으로 공 보내주면 야구부원들 진이 공을 받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뛰어서 공 잡아내 바로 패스한다.
진, 외찬 쪽으로 온 공, 기어이 뺏어내 주영에게 던진다.
진이 제대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영 두 발 옆으로 움직여 공 피한다.

이 코치 (삿대질하며) 야 이 새끼야!!!

바닥에 튀어 한없이 굴러가는 공. 진, 어이가 없어 굴러가는 공 쳐다보다 글러브 벗어 바닥에 팽개친 다음 뒤돌아 혼란 중인 야구부원들 등지고 걸어간다. 이탈하는 진 보며 이 코치는 당황하고 외찬과 주영은 피식 웃는다. 승하, 진이 바닥에 던진 글러브 주워 진 따라가려는데, 김 감독이 승하 앞에 선다.

#56. 야구부 숙소 앞 벤치(오후)

진, 벤치에 멍 때리고 앉아 있다. 괜히 신고 있던 스파이크로 흙바닥에 자국 내본다. 움푹 파인 흙바닥. 진, 발 살짝 들어 스파이크 신은 자신의 발 쳐다본다.

그러다 벌떡 일어난다.

#57. 야구부 숙소 앞(오후)

진, 신발 갈아 신으려고 신발장에서 신발 꺼내면,
그 안에 티진 로진백 들어 있어 검정 학생 단화 안에 하얀
송진가루가 범벅이다.

진 유치한 새끼들...

진, 단화에 묻은 송진가루 침착하게 털어내면, 흙바닥에
송진가루 범벅이 된다. 스파이크 벗고 단화 신는 진. 문에
야구복에 단화 신은 진의 모습이 비친다. 단화 신고 다시 벤치에
앉는 진. 흙바닥에 평평한 발자국 찍힌다.
김 감독, 진이 던진 글러브 들고 와 벤치 옆에 앉는다.

#58. 운동장 구석(오후)

쉬고 있는 도환과 승하. 승하, 힐끔힐끔 계속 부실 쪽 쳐다본다.
도환, 그런 승하를 쳐다본다.

도환 나는 개 공 얼른 받아보고 싶더라.

승하 (판생각하느라 못 들은) 어? 뭐?

도환 유진 말이야.

승하 왜? 야 너 개가 무슨 목적으로...

도환 (승하의 말 막으며) 다 떠나서! 팩트는 공 잘 던진다는 거지.
그리고, 용감하잖아.

승하 용감?

도환 생각을 해봐라. 니가 아무리 점프를 잘한다고 해도,
여자만 있는 발레단 감히 갈 생각을 하겠냐?
이 중요한 시기에. (바지 텅기며) 이런 꼴꼴이 입고?

승하 ...

도환 인정?

#59. 야구부 숙소 앞(오후)

글러브를 가운데 두고 김 감독과 진 대칭으로 앉아 있다.
진, 괜히 단화로 흙바닥 긁고 있다. 김 감독, 단화 본다.

김 감독 스파이크 불편해?

진 아니요. (쉬고) 네, 불편한 것 같아요.

김 감독 불편하면 불편하지. 같아요는 뭐야?

진 남에 꺼 뺏어 신은 기분? 애초에 제 꺼 아니었어. 야구도.
(쉬고) 그냥 이 단화만... 제 거예요.

김 감독 ...그 단화도 스파이크도, 야구도, 다 진이 니 꺼야.

진 ...

김 감독 야구가 재미없으면 그만둬. 근데, 너 지금 재밌잖아.

진 근데... 애들이...

김 감독 모든 판단 기준은 너야. 너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너만 생각해.
주인공은 원래 그래도 되는 거야.

진 주인공이요?

김 감독 니 인생 주인공, 너잖아. 고작 엑스트라 몇 명에
니 인생 흔들리지 마.

#60. 진의 집 현관(저녁)

집 현관에서 신발 벗는 진. 스파이크 신고 집에 왔다. 복도
걸어가는 진, 맞은편에서 광, 화장실 갔다가 진 마주친다.

광 딸 왔어? 밥은?

진 먹었어. (스쳐 가려는데)

광 (막으며) 우리 딸래미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뭐야. 왜 이렇게 험썹해? 안색도 어둡고...

진 (당황) 어??

광 고3이라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쉬엄쉬엄 해.
진 어...
광 아이고, 고생한다 우리 딸...

진, 짹짹 방으로 들어가고 광, 안쓰러운 얼굴로 진 바라보는데, 거실에서 빨래 개던 수희, 혀를 찬다.

수희 고생은 무슨. 재 다이어트해.
광 아이 참, 엄마 걱정할까 봐 그런 거 아냐!
수희 (기가 차) 허이고. 당신 딸 몰라? 재 전교 200등이야. 공부는 무슨.
광 보약 좀 먹여야겠다. 그때 성이 먹었던 게 총명탕인가...?
수희 어머 이 아저씨 봐? 재를 왜 먹여. 총명한 애를 뱉어야지.
성이나 한 번 더 뱉어. 맨날 책이랑 씨름하는데...
광 (걱정) 우리 진이 얼굴이 반쪽이잖아 이 사람아...!

수희, 못 봐주겠는지 다시 빨래 갠다.

#61. 진의 교실(오후)

5교시까지 교실에 앉아 있는 진. 창문 밖에선 연습경기 하고 있는 야구부 보인다. 책 펴놓고 멍때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진. 가방 챙겨서 나간다.

#62. 운동장 구석(오후)

경기 중인 운동장 벤치에 앉아 관망하는 김 감독, 살살 걸어와 인사하는 감독같이 입은 아저씨, 스카우터(55세, 남)다. 스카우터, 김 감독 옆에 앉아 비슷한 포즈로 경기 지켜본다.

김 감독 (슬쩍 쳐다보다) 왔다.
스카우터 (경기 보며) 예.

#63. 운동장(오후)

도환, 사인 주고 승하 와인드업, 공 던진다. 높게 날아가는 공. 타자, 공 거르고, 도환 높이 잡는다. 진, 뛰어와 이 코치 앞에 서 꾸벅 인사한다.

이 코치 왜 늦었... 우선 몸 풀어.
진 예...

#64. 운동장 벤치(오후)

스카우터 재 얼마 전에 어깨 나갔더니...
김 감독 ...살짝.
스카우터 1학년 때는 뭐, 토미존 했대매.
김 감독 ...
스카우터 그러면 뭐, 올라와선 도가니로 던질 거래요?
김 감독 도가니로도 던질 놈이다.
스카우터 그으래?

스카우터, 김 감독 옆에 놓인 선수들 파일 들어 열어 한 장, 한 장 넘긴다.

스카우터 빠따는 뭐, 그런 애 없어?
(서류에 집중하다 허 찬다) 우리 대정수고... 진짜 다 죽었네.
김 감독 (스카우터에게서 파일 뺏으며) 숫자보다, 가능성이야.
스카우터 숫자가 가능성이지. 선배님, 빅데이터 몰라요?
(다시 뺏어오며)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래?

#65. 운동장(오후)

타자, 출루한다. 승하, 어깨 아픈 듯 살짝 어깨 돌려본다. 이 코치, 심판 보던 타격코치 옆에 서 있다가 짹짹 김

감독에게 달려간다. 승하, 투구 시작하면 딱- 하고 울리는
배트 소리와 함께 바로 홈런 날아간다.
파이팅 넘치는 환호 소리 함께 난다.

#66. 운동장 벤치(오후)

이 코치 감독님. 승하! (딱 소리 나자 고개 돌아보지도 않고) 예…
김 감독 …진이 왔지?
이 코치 예…
김 감독 올려.
이 코치 (놀란) 벌써요? 방금 왔는데.
스카우터 (개가 누군데)?

김 감독, 이 코치 노려보고 이 코치 눈치보다가 뛰어간다.

#67. 운동장(오후)

선두 타자도 베이스 돌고, 홈런 타자 천천히 베이스 돈다. 인상
쓰는 승하. 다시 어깨 돌리고, 어깨 다 돌리고 나선 몸 털며 긴장
풀어본다. 도환, 일어서 마운드로 올라간다.
타석에 선수 들어서고, 몸 풀기 위해 방망이 휘두른다.

#68. 운동장 구석 투수존(오후)

진, 혼자 투구 연습 중이다. 진의 맞은편 초록 그물 밑쪽에
야구공 15개 정도 있다. 진, 공 던지면 그 아래로 강하게 튕기며
밑으로 떨어진다. 이 코치, 급하게 뛰어온다.

이 코치 진아.

진, 투구하려다 멈추고 이 코치 쳐다본다.

#69. 운동장(오후)

이 코치, 다시 뛰어가 손으로 타임 그리고, 마운드 위로
올라간다. 이 코치, 승하와 함께 내려온다. 진, 등판하자
갑자기 싸해지는 운동장. 잠시 수다 떨던 내야수, 외야수,
다 조용해진다. 진, 무심하게 몸 풀 뒤, 바닥에 로진 던진다.
타석에 들어서서는 타자, 타격 폼 잡는다. 도환, 사인 주면 진,
끄덕이고 와인드업. 빠른 직구, 스트라이크 존으로 정확히
들어오고, 타자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서 있다.

#70. 운동장 벤치(오후)

스카우터, 편안히 보고 있다가 자세 바로 세우며,
선글라스 벗는다.

#71. 운동장(오후)

진, 공 던지면 치는 타자. 투수 앞 뜬 공 치고, 진이 직접 잡아
처리한다. 다음 타석에 들어서려는 의찬. 타격 자세 하지 않고,
차렷 자세로 진 쳐다보고 정면으로 서 있다. 진, 와인드업
하다가 공 던지지 않고 똑바로 선다. 마운드 위에서 대치하는
두 사람. 포수 보느라 쪼그려 있던 도환 어리둥절하다.
이 코치, 감독한테 갈까 그라운드로 달려갈까 난감한데…
심판 보던 타격코치, 황당한 얼굴로 의찬과 진 번갈아본다.

타격코치 야! 지금 뭐해!
의찬 재량 경기 못 합니다.
타격코치 뭐 입마?
의찬 경기 못 한다구…

의찬, 놀라서 움찔한 뒤, 진 노려보면,
진, 신경도 쓰지 않고 다시 와인드업 하고 공 던진다.

스크라이크 존으로 정확히 꽂히는 공.
의찬, 여전히 차렷 자세로 서 있다.

#72. 운동장 선수 벤치(오후)

승하와 벤치 선수들, 심각한 얼굴로 운동장 상황 지켜보고 있다.

#73. 운동장(오후)

도환의 미트로 또다시 빨려 들어가는 공. 타격코치 아웃
판정하는데, 의찬, 타석에서 나가지 않고 여전히 우뚝
서 있다. 타격코치 화 참으며 한숨 쉬고, 쭈그려 앉아 있던
도환 일어난다.

#74. 운동장 벤치(오후)

스카우터 지금 저 새끼들 뭐하는 거야…?
 (김 감독 보며) 선배, 애들 왜 저래?
김 감독 (지켜보는) …

#75. 운동장(오후)

진 야!! 안 비켜?
타격코치 강의찬. 비켜.
진 야! 너 꺼지라고!
의찬 코치님. 저! 저 기집애랑 같은 팀 못해요!
 재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봤자 기집애는 기집ㅇ…

의찬의 말 끝나기 무섭게 의찬에게 날아오는 공.
의찬의 어깨 쪽 맞을 듯이 스쳐 공 비껴간다.

타격코치 (진에게 샷대질하며) 야 입마!!!

의찬, 화나서 모자 바닥에 팽개치고 썩썩대며 마운드 위로
올라가고, 진도 참지 않고 글러브 바닥에 던지고 의찬에게 간다.

#76. 운동장 선수 벤치(오후)

의찬과 진 말리기 위해 선수들 벤치에서 뛰어나오고,
수비수들도 다 뛰어나온다.

#77. 운동장(오후)

느린 화면으로 의찬, 진 어깨 밀치는 선빵 날리면 진, 주먹으로
의찬 얼굴 내리친다. 바닥으로 나가떨어지는 의찬. 우르르
뛰어오는 선수들. 승하와 도환이 진을 잡고 말리고, 다시
덤비려는 의찬, 선수들이 붙잡아 말린다.

#78. 운동장 벤치(오후)

상황 지켜보던 스카우터와 김 감독.
스카우터, 기가 찬 듯 헛웃음 짓는다.

스카우터 지금… 같은 팀끼리 벤치 클리어링 하는 거야?
 별… 미친놈들을 다 보겠네…

김 감독 자리에서 일어난다.

#79. 운동장(오후)

김 감독 그만!!!

#80. 야구부실(오후)

야구부 전원, 머리 박고 있다. 맨 앞에서 진과 의찬 머리

박고 뒷집 지고 있다. 진, 괴로운 듯 인상 찡그리고 의찬도 괴로워한다. 김 감독, 앞에 근엄하게 서 있다.

김 감독 사람 가려가면서 야구하는 놈이나,
공으로 위협하는 놈이나 똑같아. 유진.

진 예.

김 감독 야구공은 사람한테 던지는 순간 흥기야.
투수가 사람한테 공 던지는 거, 칼로 사람 찌시는 거랑 똑같아.
알았어?

진 …예.

김 감독 강의찬.

의찬 예.

김 감독 시합할 때 선수 고를 수 있어?

의찬 아니요.

김 감독 모든 게, 다 니 마음에 들 수가 없어.
그리고, 유진이 여자든 남자든, 우리 정수고 야구부에 들어온 이상.
동료로 받아들여야 돼. 함께 싸울 동료. 위로 끌어줄 동료. 알겠어?

의찬 …예.

김 감독 전부 일어나.

 야구부원들, 모두 기합 풀고 일어난다.

김 감독 유진, 강의찬.

 의찬, 진 동시에 대답한다.

김 감독 아까 스카우터 왔었는데 니들이 깡판 친 덕에, 그냥 집에 갔어.
니들이 니네 동기 출세길 막은 거야. 각오해.

#81. 운동장 계단(오후)

의찬, 진, 승하, 도환 넷이 운동장에 있다.

진과 의찬, 살짝 떨어져서 각자 신발끈 다시 묶고 있고, 승하와 도환은 계수기 들고 운동장 계단에 앉아 있다.

의찬 (무심하게) 너 70바퀴, 나 130바퀴.

진 진, 운동화 묶다가 의찬 쳐다본다.

진 야, 이제 와서 챙기는 척하지 마.

의찬 저게 꼭 말을 해도…

진 (운동화 끈 묶으며) 배려하지 말라고.

의찬 (빈정 상해 쳐다보는)

진 나 백, 너 백, 니 뉘이나 잘해.

진 진, 먼저 뛰어간다. 의찬도 경쟁하듯 바로 따라 뛰어간다.

 시간 경과.

 운동장, 어두컴컴해져 있다. 운동장 사이트에 야구 스탠드 켜져 있어 아예 어둡진 않다. 승하 계수기 보면 49 찍혀 있다. 승하 앞에 진 지나가자, 하나 더 카운트하는 승하. 천천히 뛰는 진과, 진 앞에서 마찬가지로 천천히 뛰고 있는 의찬. 둘 다, 다리 힘 풀려간다. 운동장 계단에 앉아 있는 승하와 도환, 시멘트 바닥에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한다. 팔에 비 맞고 하늘 올려다보는 승하. 모자 쓴 얼굴에도 빗방울 툭 떨어진다.

승하 비 온다.

도환 (손바닥 뒤집어 확인) 우산 가져올게.
(계수기 승하에게 건넨다) 이거 줘.

승하 (받으며) 어.

 도환, 뛰어 야구부실로 들어간다. 승하, 뛰고 있는 두 사람 쳐다본다. 비,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장대비 된다.
운동장에서 계속 뛰고 있는 두 사람.

#82. 운동장(저녁)

진과 의찬, 비 맞으며 운동장 뛰고 있다. 비가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다. 헉헉거리며 힘들어하는 진. 아랫입술 짝 깨물고 뛴다. 운동장 바닥, 어느새 진흙처럼 질퍽질퍽하다. 땀 때마다 진흙 범벅이다. 의찬, 진의 앞을 한참 앞서다 그 진흙 더미로 첩퍼덕 넘어진다. 지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의찬. 넘어진 채로 누워 있다. 진, 어느새 의찬이 넘어진 곳까지 뛰어간다. 의찬, 누워 진이 가는 모습 바라보는데, 진, 뛰는 걸 멈추고 의찬에게 손 내민다.

의찬
진 야. 팔 아파.

의찬, 쭈뼛거리다가 진의 손 잡고 겨우 일어난다.
의찬, 갑자기 속도 내서 진과 거리 넓히고, 진, 피식 웃는다.

#83. 운동장 구석(저녁)

우산 가져온 도환, 승하에게 건넨다. 커다란 장우산이다.
승하, 다시 계수기 도환에게 건넨다. 장우산 펼치는 승하.
우산 펴고 두 사람 서서 운동장에서 뛰는 두 사람 지켜보고 있다. 승하, 계단 내려간다. 도환도 승하 따라 계단 내려간다.

#84. 운동장(저녁)

진, 빗물 때문에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아 눈 질끈 감고 걷는 듯한 속도로 뛴다. 진의 얼굴을 때리던 비, 어느 순간 사라진다.
진, 눈 뜨면 승하가 진에게 우산 씌워주며 같이 뛰고 있다.
진, 승하 쳐다보는데 승하는 진 쳐다보지 않고 정면 본다.

승하 컨디션 관리 제대로 하라고. 나 도와줄 거라며.

#85. 운동장 계단(저녁)

운동장에서 보이는 풍경. 우산 두 개에 발 네 개, 나란히 뛰고 걷는다.

#86. 야구부 숙소 안(밤)

비 그쳤다. 승하, 문 앞에서 쫄딱 젖은 진에게 커다란 스포츠수건 던져준다. 진, 승하가 던져준 수건으로 젖은 머리 말린다.

승하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 그냥... 처음으로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승하 ...
진 수건 고맙다.

진, 수건으로 머리 말리며 돌아선다.
의찬, 한편에서 머리 말리고 있다가 진 나가자 따라 나간다.

#87. 야구부 숙소 앞(밤)

걸어가는 진. 그 뒤 의찬,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갑자기 멈춰 뒤도는 진. 의찬과 부딪힐 뻔한다.

진 왜.
의찬 아 깜짝아!
진 왜 따라오는데?
의찬 ...그냥. (머뭇) 이거 주려고.

의찬, 진에게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포장도 안 뜯은 고려대학교 로고 박힌 손목보호대 건넨다.

의찬 아까 팔 아프다며.
 진 야... (멈칫) 너 책 좀 읽어라.
 의찬 (어리둥절) 책...?
 진 됐다, 됐어. (새 손목보호대 보며) 근데 이거 나 쥐도 되냐?
 의찬 (괜히 씩스러운) 집에 하나 더 있어.
 진 그럼 주는 거니까 받는다.

의찬과 진, 둘 다 말없다.

진 나 간다.
 의찬 가라.

진, 뒤돌아 걸어간다. 의찬, 진의 뒷모습 지켜본다.

#88. 야구부실(밤)

승하, 침대 옆에 붙어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 사진 곁에 있는 초등학교 야구부 시절 사진 한참 쳐다본다. 그 옆 침대, 고려대학교 사진 붙여놓은 의찬도 누워서 사진 보다 손으로 쓱 만진다.

#89. 몽타주.

훈련하는 진과 선수들, 넘어가는 수능 D-day 달력

- 2열 맞춰 뛰는 야구부원들. 맨 뒤에서 뛰는 등번호 38번 유진.
- 선수들과 워밍업 단거리 훈련 중인 진.
- 자습실에 있는 수능 d-day 달력, 한 번에 150일에서 130일로 넘어간다.
- 피칭 연습하는 진. 검은 고무줄에 몸 묶어놓고 공 던진다.
- 1루 베이스 커버 훈련하는 진. 빨리 뛰어 1루로 가서 베이스 밟고 공 받는다.
- 마운드에서 공 던지는 진. 헛스윙 크게 하는 타자.

이 코치, 뒤에서 험란한 몸짓으로 아웃!
 - 달력, 또 한 번 넘어가 수능 130일에서 108일로 바뀐다.

#90. 야구부실(오후)

진,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승하 옆에 앉는다.
 이 코치와 김 감독 가운데 서 있고
 중대발표를 하는 듯 선수들 집중한다.

이 코치 다음 주에 청룡기 시작되는 거 알고 있지.
 선수들 예!
 이 코치 대진표 나왔고, 우리는 부전승으로 32강에 올라간다.

선수들, 환호한다. 박수치는 승하.

이 코치 부산에 배경고랑 나주에 제일고, 둘 다 멀리서 올라오는 팀이고, 두 팀 다 그렇게 강한 전력은 아냐. 그래도 첫 게임인 만큼, 선발은 백승하다. 알았지?
 승하 예. 알겠습니다.
 이 코치 오늘부터 훈련은 연습경기 위주로 진행된다. 지금부터 내가 호명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한 팀이다. 이름 잘 기억해. 강의찬, 김수영, 백승하, 유진, 장도환...

#91. 광의 차 안(오후)

광, 차 안의 인테리어 역시 야구광답다.
 배트와 야구공 모양 키링 백미리에 달려 달랑달랑거린다.
 <아파트> 흥얼거리며 운전하는 광. 라디오 소리 들린다.

디제이(F) 딸이 재수생이라 비위 맞추기 너무 힘드시다구 528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우리나라 수험생 힘들죠.
 광 (맞장구) 힘들지 그럼...

디제이(F) 지금이 칠월 중순이니까 100일 쯤 더 남았나요?
 얼마 안 남은 거 그냥 더 참아주세요.
 광 (맞장구친다. 디제이 소리와 겹친다) 와... 얼마 안 남았네.
 디제이(F) 딸 좋아하는 간식을 좀 사서 멕이면서, 입을 틀어막으시면
 되겠네요. 따님이랑 나눠드시라고 5281님께 떡볶이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광 ...우리 진이도 떡볶이 되게 좋아하는데...
 광, 창문 슬쩍 보면 도로 안내판에 정수고등학교 보인다.
 핸들 돌리는 광.

#92. 운동장 한편(오후)

이 코치 연습게임 시작하는 휘슬 분다. 진, 마운드 위에 서 있다.
 타자, 타격 자세 잡는다. 진, 도환 쳐다보고 도환, 사인 준다.
 고개 끄덕이는 진. 와인드업 한다.

#93. 진의 학교 운동장(오후)

진의 학교에 들어오는 검은 차. 주차하고 내리면 광이다.
 통화 중이다. 뒷자리에서 떡볶이 한아름 들고 문 닫는다.

광 1층에 자습실? 알았어 여보.

광, 핸드폰 주머니에 넣곤,
 야구하는 쪽 힐끔 보곤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94. 학교 안 자습실(오후)

광, 진의 자리 찾아 어슬렁거린다. 겨우 헤매다 자리에 쓰인
 '유진' 이름 보는데 사람의 흔적이 없는, 너무나 깨끗한 자리
 보고 의아해하는 광.

#95. 자습실 밖(오후)

고개 갸우뚱하며 간식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광.
 화장실 갔다가 광과 마주치는 친구1, 광 반가워하고 친구1,
 놀란다.

광 어 채은아!

친구1 ...아저씨?? 안녕하세요?!

광 진이, 어디 갔니? 자리에 없던데.

친구1 (당황) 아 진이요? (말 더듬으며) 집에... 집에 간 거 같은데...

#96. 운동장 선수 벤치(오후)

진, 벤치에 앉아 경기 보고 있다.
 승하, 진에게 생수 따서 건네면 진 벌떡 들어선다.

시간 경과.

투수, 던지면 타자 친다. 탁! 배트에 공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나고 공 이루타로 꽤 멀리 간다. 2루에 있던 의찬 홈으로
 들어오고 타자 역시 뛰어 2루에 안착한다. 홈으로 들어온 의찬,
 대기하던 선수들이 엉덩이 쳐준다. 진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의찬. 진, 무심하게 손 내밀면 의찬, 하이파이브 한다.

#97. 운동장 계단 쪽(오후)

2루 달려 홈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는 광.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오리조리 살펴보다 벤치(더그아웃)에서 하이파이브 하는
 반쯤 가려진 진의 모습 본다. 그사이 나온 타자 플라이 치고
 아웃된다. 공수 교대한다.

광 아무리 두발자유여도... 뽀뽀 깎아야지. 야구선수가 말이야...

광, 중얼거리며 뒤돌아 차 대어놓은 주차장 쪽으로 간다.
그 뒤로, 진 마운드로 올라오는 모습, 초점 안 맞게,
흐리게 보인다.

#98. 운동장 한편(오후)

진, 마운드 올라와 몸 푼다. 타석에 우타자1 들어온다.

#99. 운동장 계단 쪽(오후)

뒤돌아 걸던 광, 핸드폰 벨소리 들리고,
들고 있던 간식 내려놓고 전화 받는다.

광 어, 여보. 아니, 엇갈렸나 봐.
(무의식적으로 뒤돌며) 전화 아직도 안...

광, 한곳에 시선 집중한 채 입다문다.

수희(F) 엇갈렸어? 그니까 사기 전에 물어보라니까...
여보세요? 성이 아빠?

광, 마운드 위에 올라와 있는 진의 뒷모습 본다. 유진. 등번호
38번. 광, 시선 고정된 채 전화 끊고 주머니에 넣고 얼굴
확인하기 위해 운동장 옆으로 걷는다. 떡볶이 봉투 자리에
딩그러니 놓여 있다.

#100. 운동장 한편(오후)

진, 공 던진다. 빠르게 날아가는 공. 우타자1, 헛스윙한다.

이 코치 스트라이크! 월!

#101. 운동장 계단 쪽(오후)

광, 진에게 눈을 떼지 않으면서 걸어간다.
멀리 보이는 피칭하는 진의 뒷모습. 광이 걸어가며
점점 옆모습으로 보인다.

이 코치(E) 스트라이크 투!

광, 천천히 더 앞으로 걸어간다. 멀지만, 보이는 진의 앞모습.

#102. 운동장 한편(오후)

바삭 약오른 우타자1. 진 피칭한 뒤 공 쳐다본다. 우타자1,
공 보고 크게 휘두르면 밑으로 쑥 빠져, 도환의 미트 안으로
들어가는 공.

이 코치 스트라이크 아웃!

우타자1, 성질 잔뜩 내며 물러나고, 타석엔 다음 타자 들어온다.
돌아가는 타자 슬쩍 보다가 굳어버리는 진. 광과 눈 마주친다.
타자 타격 자세 취하다 던지지 않는 진이 이상해 쳐다보고,
도환, 이 코치, 뒤에서 지켜보던 감독과 승하까지 이상한
검색 알아채고 진의 시선이 머문 곳 보는데, 광이 냇 나간
표정으로 서 있다.

광 ...진아.

점프.
승하, 도환 및 다른 선수들 경기 잠시 중단되어 벤치에 앉아
있다. 광이 사온 떡볶이 벤치에 앉아 나눠 먹는 선수들. 승하
혼자만 멀쩡이 떨어져 야구부실 본다.
떡볶이 먹으려는 의찬과 친구들 먹기 시작하는데

의찬, 고개 돌려 슬쩍, 야구부실 쳐다본다.

아무리 진이가 천 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 천재라도...

#103. 야구부실 옆 감독실(오후)

야구복 입은 진 옆에 광 앉아 있다.
마주 보고 앉아 있는 김 감독과 이 코치.

광 그니까... 야구를... 투수를...

이 코치 예... (진 보며 조용히) 왜 말씀 안 드렸어...!

김 감독 놀라신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잘하면 프로도... 얼마 전에 스카우터가 와...

광 (말 자르며) 프로???!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여자에한테!!!
 수능이 코앞인 애한테...!!

이 코치 아버님! 진정하시고!!

광 (열받아) 당신도 딸 있잖아! 당신 딸이었음 야구 시켰겠어?
 당신 아들도 야구 안 시켜놓고!!

김 감독 재능 있었으면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시킨 게 아니라 진이가 스스로 결정했고.

광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야구한다고 빌어도 뿌리쳤어야지!!
 나는! 내 딸 야구 못 시키니까 그렇게 아쇼.

 광, 벌떡 일어난다. 광 쳐다보는 유진.

광 가자.

진 (잔뜩 화난 아빠가 낫설고) 아빠.

광 유진. 일어나.

 진,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난다.
 광, 야구부실 문 박차고 나가고 진도 뒤따라 나간다.
 문 콧 닫히자, 이 코치 한숨 쉰다.

이 코치 (체념한 듯) 이게 맞죠.

#104. 야구부실 앞(오후)

광, 성큼성큼 걸어간다. 진, 따라가다 멈춰 선다.
진이 멈추자 광 뒤돌아본다.

광 빨리 와. (선수 유니폼 입은 진 보고) 교복은 어디 있어.

진 ...로커에.

광 챙겨와.

 광, 다시 고개 돌려 걷는다.
 진, 움직이지 않는다. 점점 거리가 생기는 듯.
 광, 돌아보면 진과 거리 꽤 나간다.

진 야구하면, 왜 안 되는데?

광 유진.

 광, 성큼성큼 다가가 진 앞에 선다.

광 (한숨) 진아. 공부가 힘든 거면 우리 다른 거 하자.

진 (광의 말 자르며) 나보고 재능 있대. 아빠 아까 봤지 삼진 잡는 거.

광 (버럭) 야구가 장난이야?

진 (지지 않고) 장난 아닌 거 나도 알아. 힘든 것도 나고,
 서러운 것도 나거든. 진짜로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난 오빠처럼 공부도 못하고, 엄마처럼 그림도 못 그리는데
 근데, 야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광 ...

진 청룡기 나가고 싶어. 이번 경기 이기면, 다음 경기 내가 선발이야.

 광, 진의 어깨 붙잡은 뒤 눈 마주친다.

광 여자야 야구. 그래, 할 수 있다 쳐…
 그래, 청룡기. 뭘 수 있다고 치자. 근데… 그다음은?
 진 다음 모르는 건 여기 애들 전부 똑같아.
 광 (한숨 깊이 쉬고) 진아. 당장 부딪힐 현실 생각해봐.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백 배, 천 배는 더 힘들 거야.
 아빠는 그런 길에 너 못 보내.
 진 …내가 간다고 해도?
 광 유진!
 진 내가 가겠다는데 왜 아빠가 못 보낸대. 그냥 지켜봐.
 그리고 응원해. 나… 야구… 꽤 해.

#105. 진의 집 주차장(저녁)

광, 쓰레기봉지에 차 안에 있던 야구 물품들
 다 떼서 집어 넣는다.

#106. 운동장(저녁)

캐치볼 하는 진과 승하 모습.

#107. 진의 집 안방(저녁)

유니폼, 유광 점퍼 등등 야구 물품 다 쓰레기봉지에 집어넣는
 광. 수희, 놀란 눈으로 방으로 뛰어온다.

수희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희, 이상한 분위기에 말리지도 못하고 지켜본다.

#108. 운동장 구석(오후)

진, 승하에게 공 던진다.

승하 (받고) 멋있더라 너.
 내가 너면, 난 집에 갔을 거 같은데. (다시 진에게 송구한다)
 진 (받고) 난 너 아니잖아. (던지려다 멈칫) 근데, 너 기억났냐?

멈춘 진 때문에 덩달아 멈춰 선 승하.

승하 뭘?
 진 야구 왜 하는지 까먹었다며.

진, 다시 던지고 승하 받는다.

승하 기억났어. (던진다)
 진 (받고) 뭘데?
 승하 그냥…! 공 던지는 게 재미있었어.
 지금 너처럼.

진, 승하에게 공 던진다.

승하 (공 던진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진 (받는다)?
 승하 (웃으며) 멋있는 여자 만나려고…
 진 쫓… (승하에게 공 던진다)
 승하 (받는다) 야구를 같이 할 줄은 몰랐지.

진, 승하 쳐다보던 고개 돌려 정면 쳐다본다.
 어리둥절한 진의 얼굴.

승하 나 이길 거야. 니 선발 경기, 보고 싶거든.

#109. 야구장 그라운드(오후)

청룡기 32강전. 야구장 뒤 전광판 경현고와 정수고 3대 7로

정수고가 이겼다. 전광판에 'P 백승하' 써 있고 정수고 선수들
그라운드에 줄 서 있다. 승하, 세레모니로 서 있는 선수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진과 눈 마주치며 마지막으로 하이파이브 한다.

#110. 야구부실(오후)

모여 있는 야구부원들.
이 코치와 김 감독 근엄한 얼굴로 진 쳐다보고
부원들, 모두 고개 돌려 맨 뒤에 있는 진 쳐다본다.
진, 조금은 두렵지만 설레는 얼굴로 정면 쳐다본다.

#111. 진의 집/안방(새벽)

깔끔한 안방. 킹사이즈 침대 있고 화장대와 불박이장 있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수희와 광.
진, 광의 머리맡에 티켓 세 장 놓고 다시 나간다.

#112. 야구장 그라운드(오후)

몸 풀고 있는 정수고 선수들, 그리고 제일고 선수들.
듬성듬성 관객들 중 현수막 들고 응원하는 정수고등학교 동문들.
진, 긴 머리 모자 뒤로 빼 넘겼다.
진, 도환과 캐치볼 하며 몸 푼다.

#113. 관중석(오후)

정수고등학교 동문회 모임 옆에서 사복 차림의 진의 친구1·2.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그 뒤엔 담임과 담임의
남편, 치킨 먹는다.

#114. 진의 집/안방(오후)

광, 뒤척이며 일어나다 머리 위에 뭐가 걸리고, 보면 티켓이다.
'제73회 청룡기 16강전' 써어 있고 '정수고 vs 제일고' 써어
있다. 티켓 한참 보다가... 한숨 쉬는 광. 옆에서 자고 있는 수희
흔들어 깨운다.

#115. 그라운드(오후)

전광판 크게 보인다. 정수고가 위에 그 아래 제일고 있다.
정수고 옆에 빨간 원, (공격할 차례라는 뜻) 선발 명단 전광판에
써어 있다. 라인업 맨 마지막에 적힌 P 옆에 '유진' 이름 써어
있다. 이 코치, 진에게 다가간다.

이 코치 딱, 평소처럼만 던져. 할 수 있지?
진 (웃으며) 오늘 이 경기장에서,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쉬고)
 제가 제일... 멋있을 거예요.

경기 시작되고 타자, 들어온다. 타격 폼 잡는 타자.
도환과 사인 주고받은 뒤, 고개 끄덕이는 진.
매서운 눈으로 진, 타자와 기싸움한다.
그리고 멋들어진 와인드업 후, 있는 힘껏! 공 던지며

끝.

야구를 좋아해서 더 즐겁게 쓸 수 있었습니다.
 초고는 먼치킨 주인공이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성장하는 단막극이었습니다.
 센터장님과 주변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고, 개인의 성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시련에 맞서 주변과 함께 성장하는 주인공'에 초점을 두고 수정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본래 쓰고자 했던 소년만화와 비슷한 결의 단막극이 된 것 같습니다.
 수정작업을 하면서 '갈등이 있어야 드라마'라는 기본을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은 저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해주시는
 김지일 센터장님을 비롯한 오픈 관계자님들, 멘토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오픈 3기 동료들과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육원 선생님, 동기들, 스터디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살기 팍팍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있을 따뜻함을 찾아내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의

수저가 금색이나 은색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미친 노력으로도 뚫어지지 않는 새로운 계급의 벽과 사회 시스템은 우리의 굳은 결심과 의지마저도 허망하게 만든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그런 말들은 우리와 상관없어 보인다.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플 것이며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간다!

게으름과 포기와 따뜻한 이불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가로막는 사회란 벽이 느끼게 하는 분노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매일 아침의 태양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선다. 언젠가 보잘것없는 씨앗들이 모여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울창한 숲이 될 가능할지 모를 꿈을 꾸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 험겨운 사투를 이어나간다.

등장인물

이동욱(33세, 남)

“대한민국에서 호구를 찾는다면, 고개를 들어 동욱을 보라!”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아버지를 닮은 동욱의 학창시절 별명이 ‘이순재’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준다는 뜻! 딱히 머리가 나쁘진 않지만, 그에게 눈물을 보이며 호소하면 너무 쉽게 흔들린다. 고교 동창이었던 혜진과 한때 연인 관계였다.

강혜진(33세, 여)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으로 당신의 지갑을 노립니다”

슈퍼컴퓨터급 잔머리 두뇌를 가진 사기 100단! 최근 돈이 궁해져 유통하던

마약도 가로채고, 주변 지인들에게 사기도 치며 돈을 만들다가 쫓기는 신세로 전락한다. 하지만 그녀도 기구한 그녀의 삶의 방식에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서승화(49세, 남)

“한국의 디그니타스, 호텔 브레멘의 CEO”

스위스 디그니타스의 1/10 가격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죽음을 제공하는 호텔 브레멘의 CEO. VIP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지만 먹잇감 앞에서는 냉혹하다.

박현아(41세, 여)

“살려야 한다!”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지만,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누워 있는 광중구 의원의 젊고 매혹적인 아내. 남편의 심장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그 외

벨보이1, 벨보이2, 김 기자, 유강남, 장 사장, 대성과1, 직원1, 직원2 등.

줄거리

웰컴 투 호텔 브레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건물과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진 호텔 브레멘.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비합법적인 조력자살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이 호텔에 투숙한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해 판매해오고 있었던 것.

절박한 호구의 벼랑 끝 결정

도박사이트 총판과 대포통장 밀거래를 하는 정 사장 밑에서 일을 배우던 동욱은 대포통장 정산한 돈을 정 사장에게 가져가던 중 우연히 만난 혜진과 포장마차에서 찢히게 한잔 걸치게 된다. 동욱은 술에 취해 자신을 떠난

혜진에게 술주정을 늘어놓다가 정신을 잃는데… 일어나 보니 정 사장에게 전달해야 할 돈 박스가 사라졌다! 혜진은 전화도 안 받고… 돈이 사라진 걸 정 사장이 아는 날엔 죽거나 불구가 될 거라 판단한 동욱은 덩치들을 피해 도피할 곳을 찾던 중 우연히 ‘호텔 브레멘’에 오게 된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곳에 온 동욱은 취재차 몰래 잠입 중이던 김 기자에게 이 호텔의 비밀에 대해 듣게 되고, 어차피 나가도 죽을 텐데 이왕이면 편하게 죽는 게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차기 대통령 후보의 심장을 찾다

한편, 현아는 승화로부터 자신의 남편이자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차기 대권후보인 광중구 의원에게 이식할 심장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는다. 그 심장은 다름 아닌 동욱의 것! 고민이 깊어지던 현아는 주변 살필 것 없이 남편의 심장을 구하기 위해 호텔 브레멘으로 출발하고, 약쟁이들에게 쫓기며 갈 곳 없어진 혜진도 신세를 지기 위해 호텔 브레멘으로 향한다! 동욱은 호텔의 비밀을 모르는 혜진을 끌어들이 자신을 속인 벌을 받게 하려 하지만, 동욱의 약점을 알고 눈물로 호소하는 혜진의 태도에 동욱은 어쩔 수 없이 또 속아본다는 마인드로 함께 탈출계획을 세우는데…

호텔의 운명이 걸린 비상상황 발생

호텔에서 유일하게 취약한 뒷문을 이용해 상담실에 놓인 금고까지 털어서 탈출에 성공한 혜진과 동욱 그리고 김 기자! 한편,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승화와 호텔직원들은 경찰에게 연락하고 인근 터미널과 도로, 숙박업소를 뒤지기 시작하는데… 김 기자가 술 취한 사이 동욱과 혜진은 몰래 별을 보러 올라가던 중 경찰과 호텔직원들이 펜션을 급습한 현장을 보게 된다! 살기 위해 재빨리 은폐엄폐하며 산을 올라가던 중 무덤에서 덜덜 떨며 자게 된 동욱과 혜진. 하지만 다음날 마약을 꼬불친 혜진을 잡기 위해 온 대성과에게 혜진이 끌려가고 만다.

가자 호텔 브레멘으로

대성과 일당에게 붙잡힌 혜진은 호텔 브레멘이 약을 몰래 거래하는 곳이라고 오인한 대성과 일당들과 함께 호텔로 향하고, 가까스로 도망치던 동욱도 결국 호텔직원들에게 잡혀 호텔로 오게 된다. 남편의 심장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현아도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호텔을 방문하는데, 서로 다른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이 호텔에서 한데 쉬이며 대환장 파티가 펼쳐진다!

“죽음보다 나은 것을 넌 찾을 수 있을 거야. 너는 훌륭한 목소리를 지녔고,
우리가 함께 음악을 연주하면 좋을 거야.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

호텔 브레멘

이정주

#1. 호텔 브레멘/전경(낮)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호텔 건물과 그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주변에서 산책하거나 레저 활동을 즐기는 투숙객들의 모습도 보인다.

#2. 호텔 브레멘/로비(낮)

프런트에 서 있던 벨보이2가 급하게 수화기를 건네자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는 승화.

승화 전화 바꿨습니다. 호텔 브레멘 대표 서승화입니다.

#3. 대학병원/VIP병실(낮)

벽에 붙어 있는 대신 지지율. 광종구의 지지율이 1위지만,
하락세인 게 보인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 있는 종구 주변에
앉아 있는 현아와 보좌관1, 동료의원들.

현아 (폰을 들고) 심장은 아직인가요?

#4. 호텔 브레멘/로비(낮)

승화는 긴장한 표정으로 옆으로 다가온 벨보이1에게 입모양으로
'리스트'를 만든다. 벨보이1은 투숙객 신체검사 결과표를
나열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 그림 형제, <브레멘 음악대> 중 당나귀의 대사.

승화 의원님께 아무 심장이나 드릴 수 있나요? 최대한 조건들 다 맞는 물건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곧…

현아(F) 그이 호흡 멈추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전화가 끊어지자 승화는 짜증을 내며 수화기를 벨보이2에게 다시 건넨다. 벨보이1은 승화에게 인사하고 고급스러운 응접실을 지나 복도를 따라 걸어간다.

#5. 호텔 브레멘/객실(낮)

객실에 들어온 벨보이1이 스위치를 누르자 벽 뒤로 화물용 승강기가 드러난다. 청소하고 있던 호텔직원들은 문이 열린 승강기 안으로 정신 잃은 투숙객을 올린다. 다시 벽이 승강기를 가리고, 청소를 마친 직원들은 객실을 나간다.

#6. 호텔 브레멘/지하실(낮)

시체들이 라인을 따라 이동하고, 통조림 용기에 장기들이 포장되는 기이한 풍경. 막 지하실로 들어온 시체들은 신상정보와 혈액형, 적출 장기 등이 표기되고, 직원들은 익숙한 듯 분류된 시체에서 장기를 빼내거나 포장하는 작업을 한다.

타이틀. “호텔 브레멘”

#7. 전당포 안(저녁)

전당포 안으로 들어온 동욱은 심드렁하게 앉아 있는 대부1에게 꾸벅 인사한다.

동욱 형님, 안녕하십니까? 정민교 사장님이 돈 받아오라고 하셔서…

대부1 무슨 돈?

동욱 그 지난번 대포통장 판매한 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1 벌써 정산타임인가? 참 니 총판은 잘 굴러가나?

동욱 아직 회원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동욱의 폰이 울린다)

대부1은 포대에서 꺼낸 돈을 계수기에 넣고 돌린 뒤 신발박스에 차곡차곡 넣는다.

#8. 골목길(저녁)

대성과1과 2에게 다급하게 쫓기던 혜진은 골목길 사이를 누비다 동욱을 발견한다! 박스를 뜯어 지폐 뭉텅이를 하나 꺼내 주머니에 넣던 동욱도 혜진과 눈이 마주친다.

동욱 어, 너…

주변을 둘러보다 골목길 안으로 들어온 혜진은 다짜고짜 동욱에게 키스한다!

동욱 흐음… 뭐야?!?!

혜진 췌!

대성과1과 2는 골목길을 슬쩍 보더니 지나쳐 뛰어가고, 그제야 혜진은 안심한다.

#9. 포장마차(밤)

조출한 안주와 소주병들이 놓인 테이블에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는 동욱과 혜진.

혜진 몇 년 만이냐? 동창모임 이후 처음인가?

동욱 너 결혼식… 그때가 마지막이었지.

혜진 아, 너 내 결혼식 왔었나? 맞다, 맞다!

동욱은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혜진의 잔과 자신의 잔에 소주를 채운다. 술잔을 부딪치는 동욱과 혜진 옆 테이블에 침울하게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남자1 (비장하게) 말랄라119 님, 토네이도 님, 헬게이트04 님, 멜랑콜리아11 님. 전 아이디 타이거슈가구요. 여기서 그만두실 분 없다면 바로 호텔 브레멘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 테이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비장하게 술잔을 들어 부딪치곤 원샷한다.

혜진 (그 모습을 흘끔 본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신기하다. 그지?
동욱 근데 그 자식들은 뭐야? 아직 용호 형이랑 사는 거야?
혜진 이혼했어.
동욱 (눈동자가 흔들린다) …

CUT TO.

옆 테이블에 있던 수상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동욱은 취한 듯 비틀거리다.

동욱 야! 사랑이 변하냐? 하긴… 살다 보니 사람도 변하더라…
근데 너 그러는 거 아니야!

혜진 뭐가 또?
동욱 내가 진심이었다는 거 알았잖아? 그래 주변상황이 거지 같았던 건 알아. 근데 너 때문에 정 사장 밑에까지 들어간 건데 넌 그 양아치새끼한테 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

급기야 흐느끼기 시작하는 동욱을 다독여주는 혜진.

혜진 일어나자. 너 많이 취했다.
동욱 놈! 아직도 날 바보 취급 하나? 어?
혜진 나 아직 사랑해?

동욱 사랑하지… (몸을 못 가누고 옆 테이블로 넘어진다)

동욱은 몸을 추스르다 테이블에 남아 있던 호텔 브레멘 팸플릿을 주머니에 넣는다.

혜진 야… 가자 이제, 데려다줄게.
동욱 너나 가! 난 알아서 갈 테니까.

혜진은 바닥에서 못 일어서는 동욱을 보다가 붙잡고 일으킨다. 그사이 동욱은 팸플릿 중 하나를 혜진의 주머니에 넣어준다.

#10. 원룸 안(새벽)

동욱을 부축한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혜진은 동욱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짜증 난 표정으로 땀을 닦는 혜진의 눈에 신발박스 틈으로 보이는 지폐들이 보인다. 고민하던 혜진은 코고는 동욱의 모습을 보다 신발박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선다.

CUT TO.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자 잠에서 깬 동욱은 두리번거리며 신발박스를 찾는다. 방을 뒤지고 다녀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점점 얼굴이 창백해진다. 재빨리 혜진에게 전화해보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

동욱 (발로 박스를 차며) 아… 이년아!

그때, 울리는 동욱의 전화. 발신자를 보면 '정 사장'이다!

동욱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으며) 사,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 사장(F) 야 이 새끼, 너 어디야? 돈 안 가져와?

동욱 사, 사장님. 고,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 사장(F) 너 이 새끼, 오늘 안으로 안 들고 오면 아킬레스건 조져놓을 줄

알아. 알았어?

동욱은 재빨리 짐을 챙기는데,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며 “이동욱”을 부르는 소리!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동욱은 재빨리 가방을 챙겨 창문을 통해 나간다.

#11. 골목(아침)

동욱은 덩치들에게 쫓기며 계속 폰으로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꺼져 있다. 겨우 덩치들을 따돌린 동욱은 주머니를 뒤지다 호텔 브레멘 팸플릿을 꺼낸다.

#12. 호텔 브레멘/상담실(낮)

고급스러운 소파에 나비넥타이를 맨 승화와 마주 앉은 동욱의 모습으로 전환된다. 폰에 정 사장에게 걸려온 수많은 부재중 통화 목록을 불안한 표정으로 보는 동욱.

동욱: 저... 여기가 외부와 단절된 채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 맞나요?
승화: 잘 오셨습니다. 밖은 지옥이죠? 여기선 천국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저렴한 A패키지의 경우 200만 원이고, 영업 방침상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해요.

동욱: (눈이 휘둥그레) 이, 이백이요? 뭐 그리 비싸요?

승화는 익숙한 질문이라는 듯 여유롭게 웃으며 동욱을 향해 다가온다.

승화: 스위트 디그니타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000만 원입니다. 이천! 저희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10분의 1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동욱: 디... 뭐요?

동욱은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방에서 고이 간직해온 지폐 몽텅이를 꺼낸다. 승화는 지폐를 받아 세어보곤 상담실에 놓인 금고를 열고 돈을 넣는다.

승화: 그럼 편히 쉬시죠! (벨보이1에게) 제임스! 안내해드려.

#13. 호텔 브레멘/의무실(낮)

벨보이1이 동욱을 안내한 곳에 첨단 의료기기와 의료팀의 모습이 펼쳐진다.

동욱: 아니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벨보이1: 보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끝난 뒤 호텔 내 스파나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도 이용 가능하니 최대한 즐겁게 쉬다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동욱은 사람들을 따라 줄을 서는데, 뒤에서 한 여성이 다가온다.

김 기자: 그쪽도 죽으러 오신 거겠죠?
동욱: 네, 네? 무슨...
김 기자: 여기, 이쪽으로 결심한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저 눈만 껌뻑껌뻑거리며 김 기자를 보는 동욱.

#14. 호텔 브레멘/스파(낮)

고급스럽게 꾸며진 내부. 마사지 침대에 나란히 엎드려 있는 동욱과 김 기자.

동욱: (김 기자를 본다) 그, 그러니까. 말을 정리해보면, 여기는 자살하러

오는 곳이다?

김 기자 스프루크 잠자듯 저세상 보내주는 곳으로 명성이 높고, 저는…

동욱 여기랑 얽힌 비밀들을 캐러 왔다?

김 기자 (끄덕인다) 아니 그래 자살카페에서 유명한 건 그렇다 쳐. 근데 정관계 고위층이랑 얽여 있고, 그들이 후원도 해주는 건 수상하지 않아요?

김 기자는 폰으로 찍은 현아의 사진과 곽종구 의원 병실 사진을 보여준다.

김 기자 최근에는 이 여자가 자주 들락날락하데요? 꼭 의원은 누군지 아시죠? 이 여자분은 그분 와이프인데 뭔가 여기서 주고받을 게 있던 건데… 고약한 스멜이 난단 말이지…

동욱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시게? 철통보안이라면서요?

김 기자 (생각 못 했다는 듯) 아… 그계…

그때, 룸 안으로 마사지사 2명이 들어오고,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닫는다.

#15. 대학병원 앞(낮)

병원 건물을 바라보던 혜진이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 뒤에서 누가 붙잡는다.

혜진 (돌아보며) 누구?

대성파1 약을 배달하러 갔으면 배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중간에서 꿀꺽하면 우리 입장에선 기분이 어떨까?

대성파2 더럽겠지?

혜진 괜히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게?

혜진은 재빨리 전기충격기를 꺼내 대성파1과 2를 공격하고 뛰기 시작한다!

대성파1 아악! 이 미친년이…

혜진은 쫓아오는 대성파1과 2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며 따돌린다. 대성파1과 2가 골목길에 숨은 혜진을 지나치자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혜진.

혜진 어우… 며칠만 절 같은 데 짱박혀 있으면 좋겠는데.

주머니를 뒤적거리던 혜진의 손에 뭔가 집혀 꺼내보면, 호텔 브레멘 팸플릿이다.

#16. 호텔 브레멘/정문(낮)

겁먹은 표정으로 정문으로 달려가던 동욱과 김 기자는 직원들에게 막힌다.

동욱 아니 저… 일이 생겨서 나가 봐야 할 것 같은데…

김 기자 저도 줌…

직원1 여기 들어오시면, 밖으로 못 나가요. 서약서도 쓰셨잖아요?

동욱 서약서요?

인서트.
호텔 브레멘/상담실.
동욱은 뻑뻑한 서약서를 확인도 안 하고 사인하고, 승화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현재.
동욱과 김 기자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식은땀으로 뒤범벅된다.

직원1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내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17. 호텔 브레멘/주변 담장(낮)

높은 벽을 따라 후문을 향해 걷는 동욱과 김 기자 주위로
빼곡히 설치된 CCTV들.

동욱 전화 제 건 안 되는데 혹시 기자님은...

김 기자 통신을 아예 막아놓은 것 같아요.

동욱 전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기자님은 있긴 한 거죠?

김 기자 데스크에도 안 알리고 왔는데...

동욱 어차피 나가도 죽거나 병신 될 텐데 차라리 잘됐네요...

동욱이 조심스레 뒷문으로 다가가지만, 이미 경계하듯 동욱을
보는 직원2.

혜진(E) 이동욱?

동욱이 돌아보면, 후문 쇠창살 틈으로 밖에 서 있는
혜진이 보인다.

동욱 야 이... 너 때문에!

혜진 동욱아 나 며칠만 몸 숨길 곳이 필요한데, 혹시 여기서...

동욱은 입에서 욕설을 내뱉으려다 멈추고 곰곰이 생각한다.

동욱 너 여기 들어올래?

#18. 대한미래당 회의실(낮)

당대표와 의원들이 자리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빈자리에 앉는
현아와 보좌관1.

당대표 곽종구 의원님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의원1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현아 지금은 병원에 누워계시지만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당대표 그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신 겁니다.

현아 ...왜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당대표 그게 아니고, 이제 슬슬 경선 시즌도 오는데 후보를 추려야
하거든요, 당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 상태로는 이번 경선은 좀...

현아는 분한 표정으로 앞에 놓인 생수통을 들고
벌컥벌컥 들이켠다.

#19. 호텔 브레멘/대표이사 사무실(낮)

문이 열리고, 서류를 든 벨보이1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
승화에게 서류를 건넨다.

승화 (이동욱의 신체검사 결과를 보며) 뭐야 이거?

벨보이1 곽종구 의원 심장 찾았습니다.

승화 확실해? 몇 년 동안 살살이 뒹졌는데도 못 찾았잖아?

승화는 동욱의 신체검사 결과와 곽종구 의원의 의료기록을
비교하며 살펴본다.

벨보이1 보시면, 혈액형은 물론 체격, 체중까지 곽 의원과 유사할 뿐 아니라
심장병 병력도 없고, 심전도도 정상입니다.

승화 제대로 건졌네!

벨보이1 물건만 제대로 가면 곽 의원 생명은 이제 의사들 손에 달린 거죠.

승화 우린 공급자지 요리사는 아니잖아? 재료를 태우든지 망치든지
그건 요리사 탓이지.

벨보이1이 인사하고 방을 나서자 음흉하게 웃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승화.

승화 (폰을 들고) 여보세요, 사모님 저 호텔 브레멘 서승합니다.

#20. 대한미래당사 앞(낮)

보좌관1과 함께 열 받은 표정으로 당사를 나오던 현아는 폰을 들고 전화를 받는다.

승화(F) 심장 준비됐습니다. 날짜 잡으시지요.

보좌관1은 통화하는 현아의 표정을 살핀다.

보좌관1 찾았답니까?

현아 (전화를 끊으며 끄덕인다) 차량 준비시켜요!

보좌관1은 건물 앞에서 대기하던 이 기사에게 시동을 걸라고 손짓한다.

#21. 호텔 브레멘/상담실(낮)

음흉한 눈빛으로 동욱을 흘끔거리며 소파에 앉은 동욱과 혜진에게 다가오는 승화.

승화 원래는 인원예 따라 추가요금이 붙는데, 오늘은 특별히 동반 패키지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곳에...

혜진 따분한 일상에 지쳤달까요?

승화 하하,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이 그 피날레가 될 겁니다!

#22. 호텔 브레멘/201호 안(낮)

객실 안으로 들어오던 혜진은 뇌쇄적인 눈빛으로 동욱을 보며 셔츠 단추를 푼다. 그런데 안에서 김 기자가 나오자 다시 단추를

채우며 무슨 상황인지 의아해한다.

혜진 지금 뭐하자는 거지?

동욱 사람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노냐 너?

혜진 돈 때문에 그래? 야, 돌려줄게. 급한 불 있어서 끄느라 그런 거야.

동욱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죽자. 호구든 사기꾼이든 다 죽어야지!

혜진 뭐, 뭐?

김 기자 여기... 살아서는 못 나가는 곳이에요.

혜진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걸의에 찬 동욱과 신중한 김 기자를 번갈아 바라본다.

혜진 뭐 소리들 하는 거야 진짜... 쇼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혜진은 짜증을 내며 벽에 기대는데, 그러자 벽이 돌아가며 승강기가 드러난다!

김 기자 어, 어...

셋은 신기한 듯 승강기를 살펴보며 안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승강기 문이 닫힌다!

동욱 (승강기가 작동하자) 어, 어? ...으아아아아악!

혜진, 김 기자 (동시에) 아아아아아악!

#23. 호텔 브레멘/지하실(낮)

다른 기절한 사람들 틈에 섞여 떨어진 셋은 사방에 펼쳐진 낯선 풍경에 기겁한다. 직원들 눈에 안 띄게 시체인 척 위장했다가 재빨리 박스들 틈에 숨는 셋!

직원1 용왕이 간 구한다고 광고하나? 간 시세가 거의 따따블이네.

직원2 성과급은 받았냐? 회사가 성장하면 같이 고생한 사람들도
챙겨야지. 하여간 사장이 너무 좁생이야.
직원1 그렇잖아도 상식이야 호텔노조 설립하자고 열변을 토하던데.
직원2 아서라 사장한테 잘못 걸리면 간, 신장, 콩팥, 각막 다 떼이고
변사체로 발견될걸?
직원1 이따 자정 때 트럭 들어오는 거지?
직원2 (끄덕이며) 납품 준비하려면 빠듯하게 해야겠네.

동욱과 혜진, 김 기자는 주위에 쌓인 시체들과 작업 중인
직원들의 모습을 관찰한다.

혜진 와... 이 자식들 비즈니스 모델 봐라.
김 기자 (신나게 주변을 폰카로 찍으며) 퍼즐이 맞춰지네. 정·재계
인사들이 이곳을 후원하고 출입하는 것도 설명되고...

포장마차에서 봤던 일행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는 것을 보자
썩쓸한 동욱. 동욱과 혜진, 김 기자는 주위에 쌓인 시체들과
작업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관찰한다.

동욱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진 찍는 김 기자를 경계한다) 기자님! 일단
여기서 나가요...

하지만 주변 찍는 데 정신 팔린 김 기자는 다른 곳으로 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진다!

직원1 뭐, 뭐여?
김 기자 (재빨리 일어서며) 하하... 여기 주변이 멋져서요...

김 기자는 동욱과 혜진이 숨어 있는 박스 반대편으로 재빨리
뛰기 시작하고, 직원1과 2는 테이저건을 들고 빠르게 김 기자를
뒤쫓다가 테이저건을 발사한다!

김 기자 으아아아아아... (기절한다)
직원1 뭐야 이 쥐새끼 같은 년은?
직원2 가방 뒤져봐. 호구조사 좀 해보게.

직원1과 2가 김 기자에게 정신 팔려 있는 동안 조용히
문으로 나가는 동욱과 혜진.

#24. 호텔 브레멘/뒤편(낮)

동욱과 혜진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지하실과
연결된 계단으로 올라온다.

혜진 에휴... 저 여자 어떻게 하나? 적당히 하지 정말...
동욱 조용히 갈 준비하자. 나가봐야 나는 쓰레기고 너는 사기꾼인데,
세상 이롭게 여기서 종료하는 게 좋지 않겠냐?
혜진 니가 뭘데? 돈은 돌려준다니까? 아까부터 짜증나게...
동욱 그게 훔쳐간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야? 기가 막힌다.
혜진 정말 급한 일 있어서 그랬다니까?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동욱 난 안 급한 줄 알아? 그 돈 때문에 난 죽게 생겼다고!

다급하게 뛰어오는 호텔직원들의 모습이 보이자 동욱과 혜진은
태연한 척한다.

혜진 일단... 올라가서 얘기하자.

#25. 검은색 세단 안(저녁)

운전하는 대성파1과 조수석에 앉은 대성파2는 뒤에 앉은
강남의 의중을 살핀다.

대성파2 (종이 서류를 보며) 정태한테 통화위치 GPS추적 맡겼더니
마지막으로 통화한 곳 주변에 호텔 브레멘이란 곳이 있더라고요.

대성파1 근데, 고것이 정말 그 호텔에 있을까요?
 강남 원래 빵 조각 떨어진 곳부터 조지는 게 수사 기본 아니냐?
 대성파2 그년 애 수술은 잘됐나 봅시다. 병원 들렀다 왔는데, 쪼그마한 게
 혈색이 밝아졌던데요?
 강남 기구하다 그년도. 맛이 간 용호새끼 연좌제만 아니면 필필 날고
 있을 건데.

강남과 대성과 일당이 탑승한 검은색 세단이
 고속도로를 따라 달린다.

#26. 호텔 브레멘/정원(저녁)

클래식 연주자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화려한 가든파티가 진행
 중이다. 동욱과 혜진은 어색하게 마주 앉아 고급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을 맛본다.

혜진 날 아주 쓰레기처럼 보네 이제. 니가 뭐라 하든 난 나갈 거야. 아까
 창고 뒤지니까 이것들 쓰는 약이랑 매뉴얼도 나오데? 이왕 나가는
 김에 까짓것 공익제보도 하지 뭐.
 동욱 황당한 말 잘도 믿어주겠다?
 혜진 잘났네 정말... 니가 그렇게 성인군자야?
 동욱 너한테 주변 사람들은 다 수단이지? 니 목적 채우는...
 혜진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동욱 날 사랑하긴 했나?
 혜진 ...아직까지 그 얘기야?
 동욱 난 모든 걸 걸고, 널 책임지려고 했어! 그래... 서로 힘든 상황이긴
 했지. 근데 배신하고 선택한다는 게 그 양아치새끼냐?
 혜진 ...그만하자.

혜진은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둔다.
 그 테이블을 지켜보는 승화와 벨보이1.

벨보이1 (승화에게 작게) 일행이라고 같이 온 저 아가씨는 대성그룹
 셋째 딸 폐 이식 가능합니다.
 승화 (음흉하게 입맛을 다신다) 오늘 아주 잭팟이 터지는구나.
 승화는 병째 들고 와인을 마시려던 동욱에게서 와인병을 뺏는다.

승화 확실하고 편안한 엔딩을 위해 컨디션 조절하셔야죠.
 동욱 실행 날짜가 내일 밤 아닌가요?
 승화 오늘 가서야 하는 분이 갑작스럽게 스케줄 취소했지 뭐예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선생님을 업그레이드된 패키지로 모실까
 합니다.
 동욱 저야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혜진의 눈치를 살핀다)
 혜진 (역겨운 듯이 승화를 쳐다본다) 아직 쩌나게 논의할 게 남아서.
 동욱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자 동욱의 어깨를 잡고
 안심시키는 승화.

승화 거의 다 오신 겁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지옥 같은 삶 유일한
 해결책은 이곳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동욱 ...그렇겠죠?
 승화 (혜진을 보며) 혹시 담배는 안 피우시죠?
 혜진 (역겹다는 듯 승화를 본다) 안 피워요! 폐 싱싱해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동욱과 혜진을 보던 승화는
 다른 테이블로 이동한다.

혜진 난 니가 행복하길 바랐어...
 동욱 ...안타깝네. 그러질 못해서.

그때, 호텔 정문 쪽에서 쿵 소리가 들린다! 화들짝 놀라
 정문으로 달려가는 직원들. 동욱과 혜진도 뭘 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정문을 향해 뛰어간다.

#27. 호텔 브레멘/정문(저녁)

동욱과 혜진은 정문에서 벌어진 실랑이를 보고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본다.

강남 아니 손님을 막는 건 뭐야?
승화 말씀드렸다고 예약손님 아니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부류의 인간이 출입하는 곳도 아니고요.
대성파1 너 우리 형님한테 뭐라고 했어? 저게 뒤질라고.
대성파2 형님 받아버릴까요?
강남 건물 번지르르해서 격식 좀 차려줄까 했더니만 거절하네. 그럼 우리 식으로 인사 좀 해줘야겠지?

강남은 승화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지만, 승화는 여유롭게 웃는다.

강남 웃어?
양 형사(E) 어이 유강남! 약 팔러 왔냐?

돌아보면, 대성파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형사들과 경찰들이 보인다.

강남 누가 보면 무장공비라도 침투한 줄 알겠습니다 형사님.
양 형사 내일 쇠창살 안에서 눈뜨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승화와 호텔직원들이 비웃자 분을 삭이며 승화를 잡았던 손을 푸는 강남.

강남 …가자.
승화 (호텔직원들에게) 저 새끼들은 또 뭐야? 모양 빠지게. 잠시 후에 VIP들 오시는데 시설 청결도 청결이지만, 저런 양아치들 열전도 못 하게 하란 말이야!

동욱과 혜진은 그 상황을 지켜보다 슬그머니 다시 정문을 향해 걷는다.

혜진 눈깔 뒤집힌 약쟁이들 순한 양으로 만드는 거 보니 어지간히 약 친 건 아닌가 보네.

동욱 밖에 있던 놈들 아는 사람들이야?

혜진 내 사생팬이랄까? (동욱을 뻔히 보다가 눈물을 글썽인다)

동욱 뭐, 뭐야…

혜진 돈은 돌려주려고 했던 말이야… 이자까지 없어서… 근데 날 그렇게 사기꾼으로만 보냐 넌?

동욱 이거 연기야 컨셉이야 뭐야?

빼친 척 고개를 돌리고 흐느끼는 혜진의 모습에 동욱도 마음이 안 좋다.

동욱 그래 호구로 본 거 까짓것 최선을 다해주지 뭐. 내보내 주면 돼? 계획은?

혜진 (눈이 반짝한다) 상대적 경비가 허술한 뒷문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따 새벽 자정에 트럭이 들어온대잖아. 그때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는 거지.

동욱 행복해라… 나가면. 착한 짓도 좀 하고.

혜진 거기 놓여 있던 금고 털어가려면 보자… 옛날 실력 좀 발휘해봐?

동욱 일, 공, 삼, 공.

혜진 뭐?

동욱 금고 암호.

#28. 호텔 브레멘/상담실(밤)

숫자키 1, 0, 3, 0을 눌러 금고를 열어 지폐를 넣는 승화의 입가에 퍼지는 미소. 다시 닫히는 금고문 틈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지폐 다발이 쌓여 있는 게 보인다. 승화 뒤로 보이는 보좌관2와 주변에 붙어 있는 정희수 전 서울시장 사진.

승화 정희수 시장님 정말 화끈한 분이시죠. 나라를 위해 큰일 하실
 분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보좌관2 물건은?
승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퀘장 이식을 할 수 있는 공여자 준비해두었습니다.
보좌관2 문제없는 거죠?
승화 그럼요, 물건 상태도 최상이고요. 수술 일정 잡하시는 대로
 병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승화와 악수를 나눈 후 보좌관2가 상담실을 나서자 벨보이1이
문을 열어준다. 잠시 후 나타난 직원들이 벽에 대한미래당
곽종구 포스터와 응원문구를 붙인다.

CUT TO.

‘살려야 한다.’ 글자가 잘 보이는 곳 앞에 현아,
보좌관1과 마주 앉은 승화.

현아 그이가 아시겠지만, 현재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예요.
승화 강직과 카리스마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현아 그런데… 심장이 계속 말썹이야. 울혈성 심부전증하고 고질적인
 심장질환 때문에…
승화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하셔야 할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죠.
현아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결이 돼야
 꿈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제대로 처리된다면 이후 벌어질
 상황들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승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가 된다니, 제가 다
 설렘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승화는 자리에서 일어선 현아와 보좌관1과 악수한 후 상담실
밖으로 안내한다. 잠시 후 들어온 호텔직원들이 포스터들을
떼어내고 대성그룹 회장 사진을 붙인다.

#29. 호텔 브레멘/창고(밤)

컴컴한 내부에서 서랍을 뒤지며 방독면과 직원용 매뉴얼을
꺼내는 혜진과 동욱.

혜진 여기 보면, 우리 객실에 곧 수면가스가 주입될 거야.
동욱 우린 방독면을 쓰고 숨어 있다가 놈들 묶고 뒷문으로 나간다?
혜진 개들 옷 벗기고 갈아입는 거 빼먹었잖아! 플랜B는?

동욱은 휘발유를 채운 작은 병들을 나열한 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낸다.

혜진 혹시 잡히거나 잘못되면 플랜B로 전환. 애니 퀘스천?
동욱 그 기자는?
혜진 버리고 가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동욱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혜진 좋아, 그러면 너 혼자 지하에 들어갔다 와. 이제 질문 없지?
동욱 그 자식이 그렇게 좋았으면 이혼은 왜 했나?
혜진 (이 짱 깨물고) 그 소리 이제 그만해. 나가기 전에 뒤지기 싫으면.

#30. 호텔 브레멘/대표이사 사무실(밤)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 벽시계를 바라보던 승화는 자정이 되자
무전기를 꺼내든다.

승화 (무전기에다) 201호 시작하자!

#31. 호텔 브레멘/2층 복도(밤)

201호 앞에서 대기하던 벨보이1과 2는 리모컨 버튼을 누르고
방독면을 쓴다.

#32. 호텔 브레멘/201호(밤)

창문과 현관문이 철컹 소리를 내며 잠기고, 환기구에서 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혜진과 동욱은 방독면을 쓰고 침대에 사람 형태를 위장해놓은 뒤 벽에 바짝 붙는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방독면을 쓴 벨보이들이 들어와 침대를 향해 걸어간다.

벨보이1 (무전기를 들고) 두 명 다 상태 양호. 정리 진행하겠습니다.
승화(F) 오케이!

벨보이1과 2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이불을 걸어내는데, 베개들만 놓여 있다!

벨보이2 뭐, 뭐야?

동욱이 벨보이1과 2를 차례로 잡고 메치면, 혜진은 그들의 방독면을 벗긴다.

벨보이1 니들 이려고도 무사할 줄... (잠든다)

혜진과 동욱은 하이파이브를 하고 벨보이들의 옷을 벗겨 엘리베이터 안에 넣는다.

#33. 호텔 브레멘/2층 복도(밤)

호텔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동욱과 혜진은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하며 뛰어간다! 동욱과 혜진은 다른 호텔직원과 마주치자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돌리며 연기한다.

#34. 호텔 브레멘/상담실(밤)

금고를 열고 수북이 쌓여 있는 지폐들을 꺼내 행복하게 웃으며

돈을 세는 승화.

승화 곧 2호점도 내야 하겠는데? 조만간 나도 블루하우스 들어가는 건 아닌가 몰라. 하하하.

CUT TO.

금고 내부.

차곡차곡 지폐를 쌓으며 흡족하게 웃는 승화의 얼굴이 보이다가 금고문이 닫힌다. 잠시 후 버튼을 누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혜진과 동욱의 얼굴이 보인다!

CUT TO.

호텔 브레멘 상담실 안.

컴컴한 내부에서 금고에서 꺼낸 지폐들을 큰 가방 두 개에 담은 혜진과 동욱.

#35. 호텔 브레멘/지하실(밤)

'201호'가 가슴팍에 각인된 채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들어오는 벨보이1과 2.

직원1 (잠든 벨보이1과 2를 보며) 남녀 둘이라고 하지 않았냐?
웬지 낮이 익은데...

직원2 어떻게? 갈라봐? 아니면 놔둬?

직원1은 작동시킨 그라인더 날을 벨보이1의 몸에 점점 가까이 가져간다. 그라인더 날이 벨보이1의 몸 가까이에 밀착되자 갑자기 눈을 부릅뜨는 벨보이1! 벨보이들 비명을 지르고 이수라장이 되고, 그사이 동욱이 몰래 들어온다.

직원1 뭐여? 니들이 왜 여기에 떨어졌냐?

벨보이1 빨리 지금 객실로! 빨리, 빨리!

직원들과 벨보이들은 재빨리 비상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올라간다. 동욱은 구석에 묶여 있는 김 기자를 발견하고 얼른 줄을 풀어준다.

김 기자 구하러 오실 줄 알았어요!
동욱 췌! 얼른 따라와요.

#36. 호텔 브레멘/뒷문(밤)

문이 열리고, 트럭이 진입하는 사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동욱과 혜진과 김 기자! 혜진은 동욱의 만류를 뿌리치고 CCTV를 향해 시원하게 손가락 욱을 날린다.

#37. 펜션 앞마당(밤)

불판에 고기를 구우면서 와인을 채운 잔으로 축배를 드는 동욱과 혜진, 김 기자.

김 기자 올해 기자상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제 기사 나오면 사례할게요!
동욱 증거들은 다 잘 찾은 거예요?
김 기자 (주머니를 뒤지다가) 어... 폰이 어딴지? (얼굴이 하얘진다)
그 안에 두고 왔나 봐! 으아아아...
혜진 (고개를 가로챈다) 어이구...
김 기자 (울상) 다시 들어가달라면, 안 가실 거죠?

CUT TO.

김 기자는 술 취해 뺨었고, 동욱과 혜진은 어색하게 마주 보고 앉아 있다. 혜진은 동욱과 함께 지폐로 가득 찬 가방 두 개를 열고 지폐들을 꺼낸다.

동욱 이 돈이면 자영업으로 새 출발 가능하겠다.
혜진 애가 또 저세상 가는 급행열차 올라타려고 하네. 저축하고

착실하게 살아. 막노동을 하든 회사를 하든. 아니면 스트리머나 해봐. 개인 방송 대박 터지면 돈 억수로 벌던데.

동욱 무슨 방송을 해 내가?
혜진 대한민국 호구로 사는 법? 아님 호구 예방법 같은 거?

혜진은 다시 잔에 와인을 채우면서 동욱의 얼굴을 바라본다.

혜진 공기 좋은 텔 오니까 별천지네. 오랜만에 별 보러 갈래?
동욱 여기서도 휘황찬란하구먼 뭘.
혜진 어이구? 뽀뽀 한번 해보겠다고 황사 덮인 날 학원 옥상에 별 보러 가자 했던 건 누구시더라?

#38. 호텔 브레멘/상담실(밤)

텅 빈 금고가 열려 있고,
앉아 있는 승화 주위로 호텔직원들이 도열해 있다.

승화 어떻게 된 거야?
벨보이1 그, 그게... 걱정하고 털어먹으러 온 놈들 같습니다...

분을 삭이며 동욱과 혜진의 신상정보를 보던 승화는 그것을 찢어버린다.

승화 지금 쥐새끼들이 돈 훔쳐간 것 때문에 이래? VIP 신뢰가 깨지게 생겼잖아! 이거 내일까지 해결 못 하면 우리가 저세상 가는 거야!
벨보이2 경찰에도 도움 요청할까요?
승화 (끄덕인다) 인근 터미널, 대중교통, 숙박업소 정보도 샅샅이 파악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놈들 잡는 데만 집중해! 알았어?
직원들 네!

승화의 말이 끝나자 재빨리 회의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호텔직원들.

#39. 검은색 세단 안(밤)

앞좌석에 앉은 대성파1과 2는 뒷좌석에 앉은 강남의 의중을 살핀다. 차량 내부 전면 유리를 통해 멀리 호텔 브레멘 정문이 보인다.

강남 지것들 정체성이 뭐야…
 대성파1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던데 뒤지다 보니 아예 약을 풀고 불법 파티를 벌이는 공간 같은데요? 죽여주는 곳으로 유명하답니다.
 대성파2 근데… 약을 어떻게 유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수 형님네랑 태식 형님네까지 수소문해봤는데, 저 호텔에 대해선 다 금시초문이라던데요.
 강남 호텔 안에서 윈스톱 서비스라. 아이디어는 참신하네.
 대성파1 전쟁 선포하면 다들 참전하겠답니다.

그때, 호텔 정문이 열리면서 차량 여러 대가 급하게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강남 뭐야 저것들?
 대성파1 쫓아가볼까요?
 강남 (끄덕인다)

대성파1은 재빨리 차 시동을 걸고 차량을 출발시킨다.

#40. 차량 내부(밤)

운전석 옆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벨보이2는 뒷좌석에 앉은 승화를 돌아본다.

벨보이2 숲속요정 펜션에서 예약 없이 방문한 남녀 2명이 묵고 있습니다.

승화 차 돌려!

승화가 탑승한 차량이 유턴하자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따라서 유턴한다.

#41. 숲속(밤)

수풀을 헤치며 걷는 동욱과 혜진.
동욱은 돈가방을 든 혜진을 빤히 본다.

동욱 꼭 그걸 가져와야 되냐?
 혜진 무슨 일 있을 줄 알고? 나중에 감사 인사나 해.

그때, 펜션 쪽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와 주변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나무 틈에 숨어 펜션에 출동한 경찰들과 호텔직원들을 지켜보는 동욱과 혜진.

동욱 저놈들… 우리 여기 온 건 어떻게 알아냈지?
 혜진 이 지역 전체가 한통속인 거네…
 동욱 어, 어떡하냐 이제?
 혜진 숫!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진 가봐야지.

동욱과 혜진은 다시 조심스럽게 수풀을 헤치며 위쪽으로 올라간다.

#42. 펜션 앞(밤)

경찰들이 정신 못 차리는 김 기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주변을 수색한다.

김 기자 수갑은 저쪽에 채워야죠!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저 호텔 안에서 자살방조와 관여가 이뤄지고 있고, 장기적출과 밀매도 하고

있다고요!
 경찰1 증거 없죠? 조용히 하시고, 업무방해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우, 억울해! 저 기자라고요! 취재하러 간 거고! 정작 잡아야 할 사람은 안 잡고 절 체포하겠다고요? 여기 대한민국 맞아요? 네?

경찰들은 강제로 경찰차에 김 기자를 태우고, 승화를 향해 꾸벅 인사한다. 무표정한 얼굴로 동욱과 혜진이 고기를 구웠던 곳을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는 승화.

벨보이1 (승화 눈치를 보며) 터미널에도 잡힌 게 없다고 합니다…
 승화 하… 이것들이 정말…

승화는 동욱과 혜진의 신상정보를 보며 전화를 걸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는다. 짜증 내며 맥주캔을 던지는 승화의 눈치를 살피는 호텔직원들.

#43. 무덤(밤)

수풀을 헤치고 나온 동욱과 혜진은 폰이 울리자 동시에 수신차단을 누른다. 동욱은 '정 사장'에게서 온 수많은 부재중전화를 불안한 듯 본다.

혜진 이제 모르는 번호는 함부로 받지 말고 다 수신 차단해.
 동욱 그 정도는 나도 알거든?

엉망이 된 동욱과 혜진은 지친 듯 무덤에 기대 널브러지듯 눕는다.

혜진 뭘 바라고 산 건 아니지만, 기뻐 게 이 흙덩이뿐이라니 쓸쓸하다.
 동욱 그러게… 어디에 있든 지옥은 현재진행형이네.

혜진은 울리는 폰을 들고 발신자를 확인한 후 전화를 받는다.

혜진 (폰 화면을 동욱에게도 보여준다) 정현!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었어? 여기 동욱이 삼촌이랑도 인사할까? 엄마 곧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동욱은 영상통화로 보이는 환자복 입은 정현의 모습에 울컥한다.

동욱 정현아… 안녕? 정현이가 어린데 삼촌보다 더 용감하네.
 혜진 자 이제 엄마 끊을게. 잘 자.

혜진이 영상통화를 종료하는 모습을 애뜻하게 바라보는 동욱.

혜진 왜? 엄마 된 모습 어색해?

동욱 애가 아파?

혜진 소아암이야.

동욱 …용호 형도 알아?

혜진 약에 절어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새끼가 알까? 그 자식 도망간 뒤 혼자 애 하나 살려보겠다고 미친년마냥 뛰고 있는 거지 뭐.

동욱 …

혜진 어찌겠냐?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정현이가 환자복 벗고 일어설 수 있다면 뭐라도 할 거야.

눈동자가 흔들리며 고개를 푹 숙이는 동욱. 혜진은 그런 동욱을 토닥여준다.

동욱 난 니가 날 버리고 용호 형한테 갔을 때 복수하고 싶었어. 너에게 능력을 증명하려고 정 사장 밑에까지 기어들어간 건데…

혜진 지금 보니까 복수가 좀 된 것 같지? 지랄 맞게 천벌도 받고.

동욱 근데, 하루하루 나아지질 않는 내 인생 꼬락서니를 보니까 너가 잘 결정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사실… 경익이 통해 들었어. 너가 용호 형한테 안 갔으면 약쟁이들이 날 노렸을 거라고.

혜진 (웃는다) 너무도 돌아왔다. 그지?

#44. 대학병원/VIP병실(새벽)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는 종구 곁에 앉아 있는 현아와 근처에 서 있는 의사.

현아 (종구의 귀에 대고) 조금만 버텨요 여보. 당신 미래에 건 내 인생을 실망시키지 말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보좌관1이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온다.

현아 (보좌관1을 보며) 아직 안 왔어?

보좌관1 (끄덕인다) 연락해볼까요?

현아 이 새끼들이 장난하나... (폰을 들고 전화를 건다)

#45. 호텔 브레멘/상담실(아침)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울리는 폰 화면에 뜬 발신자 '박현아'를 보는 승화.

승화 (전화를 받으며) 예, 사모님. 하하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현아(F) 입금까지 문제없이 해드렸는데 물건이 왜 안 와요?

승화는 빼곡하게 X표가 표기된 지도가 놓인 테이블 위를 보다 일어선다.

승화 그게... 조금 일이 생겨서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아(F) 제가 나긋나긋하게 말하니까 만만하게 보이냐 보다.

승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현아(F) 제가 뭐 과일, 야채 새벽배송 안 온 것 때문에 이래요? 한 사람의 목숨! 운명이 달려 있는 상황인데 안 미치겠냐고요.

승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46. 대학병원/VIP병실(아침)

현아는 폰을 든 채 화를 억누르며 서성이고, 보좌관1은 그 모습을 지켜본다.

현아 (폰에다) 오늘 내로 해결 안 되면, 각오하세요! 당신들 심장을 뽑아버릴 테니까.

현아가 전화를 끊자 재빨리 현아 곁으로 다가오는 보좌관1.

보좌관1 제가 호텔에 다녀올까요?

현아 나도 가야겠어. 이 새끼들 일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쪼면 한세월 걸릴 것 같애.

보좌관1은 현아를 도와 재빨리 짐을 챙겨 나갈 준비를 한다.

#47. 무덤(아침)

겨안고 덜덜 떨면서 자고 있는 동욱과 혜진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강남과 대성파1·2.

대성파2 (종이 서류를 들고) 아... 위치추적이 정말 되긴 하네요.

대성파1과 2가 동욱과 혜진을 툭툭 쳐서 깨우고, 동욱과 혜진은 놀라 눈을 뜬다.

강남 그렇게 도망 다니면 못 찾아낼 줄 알았어?

니 새끼 갈아서라도 찾아낼 거야.

혜진 나도 이제 지치긴 했다. 다 죽이지 그래?

강남 (혜진의 뺨을 때리며) 너 아주 독한 년이구나?

일어서서 강남에게 다가가려는 동욱을 막는 대성파1과 2.

강남 이 상황에서 남자질이라니. 아주 로맨티스트 나셨네.
동욱 야! 니들 뭐야? 어디 애들이야?
강남 (동욱의 얼굴을 가격한다) 이 새끼, 말본새 보소.

강남과 대성파1과 2는 동욱을 구타한 뒤 혜진을 강제로 끌고 무덤에서 사라진다. 혜진은 뺨은 동욱을 아련하게 보며 입으로 소리 없이 '호텔 브레멘'을 말한다.

#48. 숲속(아침)

돈가방들을 들고 도로에 나오려던 동욱은 호텔직원과 경찰들 모습에 몸을 숨긴다. 동욱은 숨을 고르고 특이한 나무 밑에다 돈가방을 숨기고, 숨죽여 상황을 지켜본다.

벨보이2(E) 저기 있다!

동욱, 돌아보면 동욱을 향해 뛰어오는 호텔직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동욱 아우씨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진짜...

동욱은 도로로 나와 호텔직원들이 오는 반대방향으로 뛰기 시작한다.

#49. 검은색 세단 안(아침)

뒷좌석에 묶인 채로 앉아 있는 혜진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강남.

혜진 약 찾는 거면 이미 배때지에 있으니깐 갈라보든가.

대성파2 그놈들이 더 잘 쳐주디? 우리 형님의 믿음을 감히 배신해?

대성파1 형님 어디로 갈까요?

강남 말로 할 때 놈들 신장 짝 떨어라. 애새끼 뒤지게 하고 싶지 않으면.

혜진 니가 그 기분을 알아? 의지할 사람 없이 매일 밤 아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병수발 해야 하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아냐고?

강남 야 이... (때리려다 멈춘다) 그 새끼들 뭐냐고 호텔. 어?

혜진 이 인원으론 어렵도 없을 텐데?

대성파1 아는 약쟁이들 다 집합시켰다 이미.

혜진 (비웃는다) 개들도 약을 쓰긴 하지. 근데 니들하고 장르가 좀 달라.

대성파2 우리 거보다 순도가 높아?

대성파1 아니면 합성이나 변종제품 취급하나?

어이없다는 듯 달리는 차창 밖 풍경을 응시하며 웃는 혜진.

#50. 호텔 브레멘/상담실(낮)

'살려야 한다.' 글자가 잘 보이는 곳 앞에 현아, 보좌관1과 마주 앉은 승화.

현아 지금 저랑 장난쳐요? 심장이 사라졌다니?

승화 사라졌다기보다 생산라인에 차질이 생겨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현아는 승화를 차갑게 노려보다 모래시계를 꺼내 뒤집어놓는다.

현아 자꾸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여기 모래 다 떨어질 때까지 해결하세요. 못하면 내일부터 당신을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승화가 초췌한 얼굴로 상담실을 나가려 할 때, 벨보이1이 막 들어온다.

벨보이1 (승화에게 귓속말로) 심장 잡았습니다.
 승화 (표정 밝아진다) 그렇지!
 벨보이1 (승화에게 귓속말로) 그리고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승화 뭐?

#51. 호텔 브레멘/정원(낮)

호텔에서 나온 승화는 정문을 들이받고 호텔 안으로 진입한 검은 차량들을 본다!

승화 뭐야 저것들?

호텔직원들은 겁을 먹고 물러서는데,
 차량에서 연장을 들고 내리는 조직원들.

승화 양 형사에게 연락해!

CUT TO.

호텔 브레멘 상담실.
 창문을 통해 밖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는 현아.

보좌관1 자리를 피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현아 일하는 거 보니 내가 먼저 저세상 가겠다.

강남은 혜진을 칼로 위협하며 호텔직원들과 대치하고,
 투숙객들은 혼비백산한다.

#52. 호텔 브레멘/뒷문(낮)

트럭이 호텔 뒷문으로 들어와 멈추자 호텔직원들은 동육을 끌고 내린다. 호텔직원들은 동육의 손목을 묶어 계단을 따라 지하실로

데려간다.

#53. 호텔 브레멘/정원(낮)

강남과 조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호텔직원들을 제압하고 승화는 도망가다 붙잡힌다.

강남 니들이 어디 프랜차이즈 소속인지는 몰라도 지역경제를 망치려 들면 쓰냐 안 쓰냐?

승화 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곧 형사들과 경찰들이 호텔 안으로 들이닥친다.

승화 (웃는다) 이 양아치새끼들은 뭐데 와서 휘방이야? (도망가는 혜진을 보며) 저기 물건 뛰어간다. 놓치지 말고 잡아!

경찰들이 조직원들을 잡고 수갑을 채우면서 전세가 역전되자 의기양양해진 승화.

승화 내가 이래서 자본주의가 좋아. (붙잡힌 혜진을 보며) 폐 아직 싱싱하지?

혜진 이 아저씨 이상한 페티시가 있다니까? 엑스레이 사진 보면 아주 환장하겠네.

#54. 호텔 브레멘/지하실(낮)

손목이 묶인 동육을 대충 던져두고 허겁지겁 다시 나가는 호텔직원들. 홀로 남은 동육은 끄끙대며 손목에 묶인 줄을 금속 모서리에 비비기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줄을 끊는 데 성공한 동육은 재빨리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간다.

#55. 호텔 브레멘/정원(낮)

강남과 조직원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들에게 인계되자 정원으로 나오는 현아. 승화는 재빨리 현아에게 급신거리며 수갑을 찬 혜진과 조직원들을 노려본다.

혜진 (현아를 보며) 그쪽이 VIP구나. 여배우 온 줄 알았네.
승화 안 닥쳐? 급도 안 되는 게 뉘 앞이라고...
현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목숨 붙어 있을 때 까불어야지. 대신 그 주둥아리 때문에 좀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네.

동욱은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머리를 쥐어뜯는다.

동욱 어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자 생각을...

동욱은 호주머니를 뒤지다 바닥에 떨어진 폰을 주워든다.
폰을 들고 생각에 잠긴 동욱은 갑자기 홀린 듯 지하로 뛰어간다!

#56. SNS 라이브 중계창(낮)

동욱의 얼굴과 호텔 지하의 장기가공시설이 보이고, 시청자 수가 점점 늘어난다.

동욱 안녕하세요? 여긴 강원도에 위치한 호텔 브레멘이라는 곳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답답 등을 통해 이 비밀스러운 곳의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원래 이곳에 조력자살을 하러 왔는데 뭐부터 말해야 하나... 아 여기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온 사람들의 장기를 빼내는 시설인데...

직원2(E) 야! 너 뭐야?

직원1(E) 꼭 의원님 심장이 저쪽으로 갑니다!

뛰어가는 듯 영상은 어지럽게 흔들리고, 시청자들은 대박, 충격

등의 댓글을 올린다.

#57. 호텔 브레멘/정원(낮)

도망가는 동욱을 잡기 위해 호텔직원들이 따라붙자 동욱은 그들을 메친다.

동욱 (폰 화면을 보며) 저기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네요! 저희는 진짜 지금 위기상황이고, 실제상황입니다! 여기 경찰들은 한통속인지 저희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더 이상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널리 퍼뜨려주세요.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짜 실제상황입니다!

동욱은 다시 도망가며 근처까지 따라온 벨보이1과 2를 차례로 메친다. 의기양양하게 승화를 보며 웃는 동욱 뒤로 달려들어 동욱을 붙잡는 직원1!

혜진 어우 저 멍청이! 웬일로 잘 나가나 했다.

곧 호텔직원들이 동욱에게 달려붙으며 제압당하는 동욱.

#58. 호텔 브레멘/지하실(낮)

묶여 있는 동욱과 혜진 앞에서 화를 삭이는 현아와 눈치를 보는 승화와 직원들.

승화 (현아에게) 일이 미진하게 진행되어 죄송합니다. 올라가셔서 샴페인 한잔하고 계시면 금방 끝내겠습니다!

현아 이 병신같은 것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려 들어? 지체된 시간만 생각하면 진짜 다 갈아 마셔버리고 싶은데... (동욱을 본다) 니 심장이 차기 대통령 가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영광인 줄 알아.

승화 그럼요, 그럼요. 마치 쓸모없어진 기계 부품을 떼어다 필요한

기계에 이식하는 거랄까.

동욱 ...

혜진 좋게 포장해도 도둑질에 사기 치는 거 아냐. 왜 그만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해?

현아 뭐?

승화는 호텔직원들과 혜진에게 다가가는 현아를 말린다.

승화 피는 저희가 묻히겠습니다.

현아 여기서 더 실수할 건 없겠죠?

승화 넵! 물론입니다.

현아가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험악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승화.

승화 아우 이 새끼들 때문에 호텔 문 닫을 뻔했네.

벨보이1 시작할까요?

승화 (끄덕인다) 각막이든 간이든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뽑아내! 그리고 뼈까지 다 믹서기로 잘게 잘게 갈아버리고!

승화는 신나는 음악을 틀고 동욱과 혜진 앞에 쭈그러 앉는다.

승화 근데 돈은 어딴어? 이제 다 뺏어내야지.

혜진 이미 다 썼는데 어찌지?

승화 빵도 정도껏 쳐야지.

혜진 아파트에 외제차 사니까 끝나더만 뭐.

승화 진짜 썼어? 이 자식들이...

그때, 지하실 문이 열리더니 다급하게 뛰어 내려오는 직원2.

승화 뭐야 또?

직원2 정문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취재차량들이...

승화 뭐?

승화와 호텔직원들이 동요하는 동안 혜진은 몸을 꿈틀거리며 동욱에게 다가간다.

혜진 플랜B!

동욱 뭐?

혜진 플랜B라고! 우리 작전 짠 거!

호텔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몰래 서로 팔을 묶은 줄을 푸는 동욱과 혜진. 김 기자와 취재팀도 가세해 직원들의 눈을 피해 두 사람의 줄을 풀어준다.

벨보이1 사, 사장님?

승화 왜 또!

줄이 풀린 혜진은 가방에서 휘발유가 든 병들을 사방에 던지기 시작한다!

승화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징글징글하다. 뭐 어찌게 이제?

동욱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자 그제야 심각성을 안 승화.

승화 치, 침착하자! 우리 말로 좋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안 그래?

동욱 그 말은 여기서 죽은 피해자들 앞에서 하지 그래?

승화 뭐?

동욱은 바닥에 쏟아진 휘발유에 라이터를 던지고, 불은 사방으로 번져나간다!

승화 야! 으아아아아아!

사방에서 불길의 치솟고 질규하는 승화 주위로 호텔직원들은

혼비백산한다!

#59. 호텔 브레멘/정원(낮)

불길이 치솟는 호텔 브레멘에서 탈출하는 투숙객들 주변으로 취재진이 몰린다. 보좌관1은 달려드는 기자들을 뿌리치며 자동차 안에 현아를 태운 뒤 시동을 건다.

#60. 호텔 브레멘/뒷문(저녁)

화염에 휩싸인 호텔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어 나오는 두 남녀의 실루엣.

#61. 몽타주

- 뉴스 화면.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1 옆으로 곽종구 의원의 장례식 자료화면이 표출된다.

아나운서1 평소 심장질환을 앓아왔던 곽종구 의원이 오늘 새벽 서울진성대학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진성대학병원으로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진성대학병원 장례식장.

곽종구 의원의 빈소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현아.

아나운서1(E) 다음 소식입니다. SNS 실시간 증계를 통해 폭로된 B호텔의 실체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불법적으로 조력자살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 경찰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승화와 호텔직원들.

아나운서1(E) 이곳에서 이러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 정·재계 인사들과 커넥션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뉴스 화면.

뉴스 스튜디오에서 수갑을 찬 채 인터뷰하는 김 기자의 모습으로 전환된다.

김 기자(E) 저는 정당하게 그곳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취재하러 간 것인데, 알고 보니 지역사회가 한통속이더라고요. 경찰은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 숲속.

혜진과 동욱은 숨겨놓았던 돈가방을 다시 찾은 후 하이파이브를 한다.

#62. 도로(새벽)

동욱과 혜진은 사이좋게 돈가방을 들고 한적한 도로를 따라 걷는다.

혜진 뭐 할 거냐?

동욱 일단 전화 좀 하고. (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사장님, 저 이동욱입니다.

정 사장(F) 너 이 개...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뒤질래 진짜?

동욱 대포통장 거래하고, 사기 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까지 경찰에 불까요? 저 증거자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 사장(F) 이게 미쳤나 진짜. 너 그러고도 무사할 거 같애?

동욱 돈 깔끔하게 한 장 드리겠습니다. 1억! 그걸로 피차 없던 일로

정리하시죠? 아니면 진흙탕으로 가시든가요.
 정 사장(F) 뭐, 뭐? 돈은 어, 언제? 진짜야?
 동욱 네, 사장님이 약속만 해주신다면, 내일이라도 돈 드리러
 가겠습니다.
 정 사장(F) 알았으니까 너 이 새끼 안 오기만 해! 그땐 진짜...
 동욱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동욱은 혜진과 포옹을 하려다 어색하게 멈춘다.

 동욱 정현이... 인형 좋아하냐?
 혜진 왜? 사주게?
 동욱 대견해서 그냥...

#63. SNS 라이브 중계창(낮)

정장을 입고 호텔 브레멘 정원 배경으로
 1인 방송 중인 동욱의 모습이 보인다.

동욱 지금까지 가꾼 정원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놀러오세요!

#64. 호텔 브레멘/정원(낮)

곳곳에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고,
 건축자재와 페인트가 주변에 널려 있다.
 정원에서 폰을 들고 방송하는 동욱을 한심한 듯 보다가
 웃는 혜진.

혜진 재는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애.

머리에 비닐을 쓰고 환자복을 입은 채 혜진 옆에 서 있는 정현의
 모습도 보인다. 동욱은 신난 표정으로 커다란 곰인형을 들고 와
 정현에게 건네주고 안아준다.

혜진 준비됐어?
 동욱 (끄덕인다) 가자!

CUT TO.

혜진과 동욱은 폐허가 된 호텔에 페인트를 칠하고 곳곳을
 개보수하기 시작한다. 이전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찾은 호텔
 주위로 점점 더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방문한 사람들을
 안내하며 웃는 혜진과 동욱의 모습에서

끝.

작가 후기 <호텔 브레멘 — 이정주>

기대하지 않았던 부족한 작품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원작의 설정과 캐릭터를 완전히 뒤엎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걱정도 됐지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지일 센터장님과 작품 창작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해주신 임고은 피디님을 비롯한 오픈 직원분들 덕분에 무사히 수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지 압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오픈에서의 활동은 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위안을 주고 용기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활동했던 오픈 3기 작가님들과도 앞으로 함께 성장해나가며 좋은 작가가 되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사회는 정글이라고 말한다. 약자는 살아남기 위해 보호색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잘 숨겨야 한다. 보호색은 때로는 거짓말이거나 때로는 침묵이거나 때로는 기교이다. 우리는 보호색을 만드느라 꽤나 기운을 쓰고 살지만, 그 보호색은 이젠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려 자기가 보호색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산다.

여기, 한 여자가 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보호색을 잃어버렸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귀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선혈은 그녀의 주위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처음엔 그 괴이함에 놀라던 사람들은 이제 그 속뜻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김 대리. 내가 그 정도로 듣기 싫은 소릴 했나?”

아니라고 고개 내저어도 귀에선 피가 흐른다. 지하철에서 귀여운 애가 울어도, 사랑하는 엄마가 하는 잔소리에도 어김없이 귀에서 피가 흐른다.

그녀는 당혹스럽다. 자기가 이렇게 많은 소리들을 참고 사는지 미처 몰랐다. 그녀는 묻고 싶다. 나는 이렇게 많은 소리들을 참고 사는데,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나에게 참혹한 말들을 해대는 건지. 난 듣기 싫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도 참지 않고 하고 싶은 소릴 다 하고 살 수 있는 건지.

소리는 빗처럼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끊임없이 여자를 공격한다. 여자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며 겨우 버티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눈은 감으면 그만이지만, 귓구멍은 어떻게 해도 닫히지가 않는다. 코피는 흘리면 동정을 사지만, 귀피를 흘리면 빈축을 산다.

결국 그녀는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땅에 집어던지며 외친다.

“에이!! 안 해!!”

땅에 뒹구는 부케만큼이나 엉망이 되어버린 그녀의 삶.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필경사 바틀비>처럼 그녀의 삶도 파멸로 끝날까. 사고처럼 흘러게 된 귀피가 그녀의 선택의 시발점이 될 순 없을까. 애벌레 기둥에서 내려와 결국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을’ 준 노랑 애벌레처럼 자유를 찾을 순 없을까.

삭막하고 팍팍한 삭막 같은 인생에서 피어난 선택과 구원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등장인물

김수희 대리(32세, 여)

적당히 잘 참고,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아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냥 오늘 하루만 무사히 보내자는 신념 아닌 신념과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그게 인생이라는 개똥철학 아래, 엄청나게 행복하지도 않지만 매일 눈물 흘릴 정도로 불행하게 살지도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귀피를 흘리기 전까진 그녀의 삶은 어느 정도 평탄한 편이었다.

총무 강 팀장(52세, 남)

여자라면 일단 깔보고 보는 전형적인 꼰대.

경리 임 부장(45세, 여)

나름 부하직원과 잘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들이 그녀의 거침없는 언행을 참아주고 있는 걸 모른다.

영업관리 정 주임(28세, 여)

수희와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게 많아 얘기가 잘 통한다.

물류 서 팀장(48세, 남)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한 편.

물류 고 과장(45세, 남)

묵묵히 일하는 편이지만, 욕하는 일이 종종 있다.

영업 차 이사(53세, 남)

정이 많고 서열에 개의치 않는 편.

지 상무(61세, 남)

대접받기 좋아하는 상사.

마케팅 구 대리(32세, 여)

수희와 동갑인 친한 회사 동료.

영업 성 부장(43세, 남)

대기업 담당 영업사원.

추재영(32세, 남)

수희의 남자친구. 피차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걸 알면서도 상황에 이끌려 결혼까지 가게 된다.

양지호(32세, 여)

수희의 고등학교 동창. 일찍 결혼해 벌써 아이를 둘이나 뒀다.

수희 모(55세, 여)

수희를 아끼지만 잔소리가 좀 심한 편.

야근요정(12세, 여)

야근하고 있는 수희 앞에 돌연 나타난 미스터리한 존재. 자기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서 온 어린 수희라고 말한다.

줄거리

오늘도 홀로 야근 중이던 수희 앞에 소녀가 나타난다. 누구냐,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는 수희에게 소녀는 자기가 ‘야근요정’이라고 말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수희 어릴 때 모습이란다.

“니가… 나라고?”

수희에게 타임머신 타고 미래 여행을 한 기억은 없지만, 뭐 어떤가. 남도 아니라 나라는데. 그래서 그 친근한 야근요정에게 푸념을 늘어놓다가 “아, 그냥 누가 듣기 싫은 소릴 하면 내가 듣기 싫다는 티라도 났음 좋겠어. 그럼 그만할 거 아냐.”라고 한마디 툭 던진 것이 화근이었을까.

다음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듣기 싫은 소릴 들으면 귀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것. 죽을병인가 싶어 병원엘 가도 정상이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환장할 노릇이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단순히 귀에서 피가 나는 병만 있었다면, 그리고 조금 불편하긴 해도 죽을병이 아니라면 거기서 끝날 일일지도 몰랐다. 인생이 따분해 언제나 가슴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임 부장이 자못 걱정하는 듯 귀피에 대해 물었을 때, 아무래도 듣기 싫은 소릴 들으면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다는 대답을 흘린 것이 대환장 파티의 시작이었다. 임 부장의 입을 타고 소문은 마른 들판에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 나갔다.

“아니, 김 대리. 내가 그렇게까지 듣기 싫은 소릴 했나?”

“사람 참… 진심 어린 충고를 그렇게 고깝게 듣기만 하면 어떻게 성장하나?”

그녀의 회사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귀에서 피가 날까 봐 언제나 가슴 졸여야 했다. 귀에서 피가 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나마 남자친구랑 있을 땐 그럴 일이 없었다. 그가 너무 다정한 말만 해줘서냐고? 천만에! 대화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거다. 애정과 관심이 고갈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30초를 넘기지 못했다.

그럼에도 결혼은 진행되고 있었다. 무슨 대단한 사랑을 해서가 아니라, 이별할 만큼 큰 사건이 없어서 어찌다 보니 둘은 오래 만났고,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어찌어찌 해결해야 하는 인생 과제 같은 거니까. 이별이라는 선택을 미루다 결혼이라는 상황만 남았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 아이를 낳아 애국하자는 따위의 주례사를 듣고 있자니 또 귀피가 흐를 것 같아 속으로 애국가를 열창하던 수희는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다.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내가 주인공인 결혼식에서조차 속으로 염불을 외우며 참아야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참고만 살아야 하는가. 이대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끌려만 다니다 인생을 종칠 것인가. 그녀는 부케를 집어던지며 외친다.

“에이씨…!! 안 해!!”

결혼식은 파투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뒷일은 어찌 되든 참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자, 싶었다. 또 수영을 배우고, 잠수 일을 배웠다. 소음 없고 사람도 없는 바닷속으로 그녀는 들어갔다. 조용하고 차가운 바다만이 그녀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야근요정.

납골당에서 어머니가 피질러 앉아 울고 있다. 유골함 옆 사진 속엔 야근요정이 웃고 있다. 수희가 묻는다.

“너… 죽었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야근요정. 나의 과거에서 왔다는 야근요정이 이렇게 어릴 때 병으로 죽어버리면 나는 뭐가. 혼란스러운 수희에게 야근요정이 말한다.

“어른이 되고 싶었어. 병이 그걸 못하게 막으면, 내가 만들어내서라도. 너는 나에게 오지 않을 나의 미래야.”

“아니… 기왕에 상상할 거면 좀 행복한 나를 만들지 그랬어.”

“내가 나를 구하고 싶었거든. 현실에선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으니까.”

수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야근요정을 바라본다.

“너… 바다 속에서 물고기가 방귀 끼는 소리 들어봤어?”

“아니?”

“그럼 상상해봐. 내가 한번 들어보게.”

둘은 씩 웃는다. “뽀록?” “뿌록?” “근데 물고기도 방귀를 끼나?” 두런두런 얘기하며 둘은 사라져간다.

귀피를 흘리는 여자 백인아

#1. 사무실(낮)

조용한 사무실 안, 자리에 앉아 영문으로 이메일 작성 중인 수희. 'Dear whom it may concerns...' 한창 타자를 치고 있는데 어디선가 “딱!” 하는 소리가 들린다. 타자 치던 손가락 우뚝 멈춰 선다. 또 “딱!” 하는 소리가 들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리의 근원지를 찾는 수희. 뒷자리에 앉은 임 부장이 손톱을 깎고 있다. 그 모습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 돌리고 자판기 위에 손 올리는 수희인데, 또 들리는 “딱!” 하는 소리. 자판기 위 손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컴퓨터 화면에 고정된 시선이 떨린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위로 선명한 핏방울이 한 방울 뚝 떨어진다. 보면, 수희 귀에서 피가 흐른다.

수희(E)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귀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타이틀. “귀피를 흘리는 여자”

#2. 사무실(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수희가 혼자 앉아 야근 중이다. 품목별 재고 수량 및 입고 예정 수량 엑셀표 띄워놓고 입력 중인.

수희(E) 다 그 녀석 때문이다.

야근요정(E) 안녕?

수희 (고개 들어 보면, 앞에 꼬마 애가 서 있는. 멍하니 보다가) 어...

안녕.

야근요정 일해?

수희 (천천히 끄덕하는)

야근요정 재밌어?

수희 저...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부모님 기다리니? 여기 직원이서?

다들 퇴근했는데...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야?

야근요정 아니?

수희 아니라고? 그럼 뭔데.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야근요정 그냥 뿡! 하고 나타난 거지. 난 요정이니까.

수희 (피식 웃는) 요정...

야근요정 (양쪽 볼 손가락으로 콧코 째며) 귀엽고 깜찍하니까, 요정.

수희 그래, 해라 해, 요정. 근데 무슨 요정. 야근요정?

야근요정 야근이 뭔데?

수희 밤에 일하는 게 야근이다. 지금 내가 하는 거.

야근요정 아~ 어른들이 하는 거~

수희 너 엄마 어딴어? 왜 집에 안 가고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야근요정 엄마는 집에 있지. 우리 엄마 왜 여기서 찾아.

수희 아니... 왜 애가 혼자 회사에 있냐고. 이상하잖아.

야근요정 음... 난 야근요정이니까?

수희 여기가 네버랜드야 윈더랜드야. 왜 사무실에서 요정을 찾아.

야근요정 상상하고 믿으면 사무실에도 요정이 있지, 왜 없어.

수희 저기요? 저 서른둘이거든요?

그런 거 상상하고 믿을 나이 아니거든요?

야근요정 오... (뻘뻘 보는데)

수희 왜? 또 뭐.

야근요정 서른둘엔 이런 모습이구나, 나.

수희 나?

야근요정 내가 너잖아. 너 어릴 때 모습이 나야. 기억 안 나?

수희 (뻘뻘 보다가) 안 나거든? 너 빨리 집에나 가.

야근요정 진짠데? 내가 어떻게 컸나 궁금해서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온 건데?

수희 니가 나라면 나한테 이런 기억이 있어야지. 난 그런 기억 없는데?

야근요정 기억이야 이제 생기겠지. 그리고 기억이 뭐가 중요해.
있었던 일보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생길 일이야.

수희 이제부터 생길 일? 뭐 대단한 일이라도 생기나 보지?

야근요정 뭐 어떤 게 대단한 일인데?

수희 글썸… 로또?

야근요정 (뻘히 보는데)

수희 왜 또.

야근요정 대답이 너-무 어른스럽잖아. 너 진짜 그저 그런 어른이 됐구나?

수희 그거 지금 욕이지? 너 지금 나 대놓고 까는 거지, 그렇지?

야근요정 (어깨 으쓱해 보이곤) 그래서?

수희 뭐가 또.

야근요정 어른 짓은 할 만해?

수희 하! 아니?! 완전 안 할 만하거든?

야근요정 왜?

수희 왜? 라고 물으니 딱 한마디로 대답할 말이 없긴 한데…
먹고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오늘 하루도 큰 탈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빌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야근요정 (옆자리에 앉으며) 뭐야 그게. 완전 재미없어.

수희 재미? 애가 큰일날 소리 하네. 야, 약간 심심한 게 최고야.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보단 회전목마 같은 인생이 낫다니까?

야근요정 그래서? 지금 니 인생은 회전목마 같은 인생이야?

수희 회전목마만데… 이 바닥이 얼음판이야.

야근요정 얼음판?

수희 말은 느릿느릿 지루하게 돌아가는데, 요 바닥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한 거지.

야근요정 왜?

수희 내가 하는 일이 제품 발주하고 수입하고 검역, 통관 진행하고
창고에 입고시키고… 뭐 그런 일인데. 이 발주 수량 짜는 게 참…
악성재고와 쇼트 사이에 놓인 외줄을 타는 심정이랄까.

야근요정 악성재고? 쇼트? 그게 다 뭐야?

수희 악성재고는 말 그대로 재고가 너무 많은 거고… 쇼트는 재고가
없어서 팔 물건이 없는 거야. 사장은 돈이 묶이니까 창고에 재고

많은 게 싫고, 쇼트 나면 영업사원들이 난리가 나요, 또,
영업사원?

수희 물건 파는 직원들. 주문은 들어오지, 팔 물건은 없지.
기껏 영업해서 거래처 뚫어놨는데 쇼트 나봐, 똥줄이 바짝바짝
타지.

야근요정 그럼 그냥 많이 사봐. 사장 돈이지 니 돈이야?

수희 야, 내 월급도 사장이 주거든? 사장은 그냥 무조건 적정재고 유지!
참, 나… 말이 좋아 적정재고 유지지… 그게 어디 쉽냐고.
제품은 또 좀 많니. 무슨 시럽 종류가 60가지가 넘어요.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고. 시럽이면 그냥 설탕물인 줄 알지, 다들.
유통기한 지나면 폐기 처분 진행도 내가 해요, 또, 그거 기안
올리려면 또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야근요정 (눈 반짝이며 보며) 오… 너 그런 얘기 하니깐 진짜 어른 같다.
또 해봐. 회사 생활 얘기.

수희 또… (생각하다가) 너 근데 집에 안 가?

야근요정 왜 자꾸 집엘 가래. 집이 뭐 재밌다고.

수희 집이 제일 좋지, 뭐래니 애. 난 출근하면서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해.
얼른 퇴근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야근요정 치… 근데 여기 사람들은 어때? 친해?

수희 글썸… 그냥 몇몇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

야근요정 (뒷자리 임 부장 자리에 앉으며) 여기 이 사람은?

수희 아… 임 부장님. 하루 종일 투덜투덜 사람들 욕을 그렇게 하신다?
귀에서 피날 정도라니까. 어떨 땐 진짜 귀에서 피라도 났음 좋겠어.
그럼 좀 조용히 하려나.

야근요정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오케이, 접수!

수희 뭐?!

야근요정 이 야근요정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수희 뭐?!

야근요정 그럼 얘기 잘 들었어. 안녕~ 난 갈 테니 뿡! 하고 사라졌다고
생각해줘? (손 흔들며 보이곤 뒤돌아서 나가는)

수희 ?! (가는 뒷모습 눈 가늘게 뜨고 보다가 눈 잠시 감았다가 뜨면,
야근요정 가고 없는. 잠시 미소 짓다가) 일해야지, 일!

#3. 지하철 안(낮)

자리에 수희가 앉아 있다. 맞은편에 일곱 살 먹은 남자아이와 그 엄마가 앉아 있다. 남자아이 “나 집에 갈래~” 하며 떼를 쓰다 양-울음 터뜨린다. 조용히 하라며 아이 타이르는 엄마인데, 그 모습을 수희가 가만히 보다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드는데, 손수건이다.

수희(E) 그날 이후 나는...

수희 귀에서 피가 흐르고, 태연히 피를 닦는 수희.

수희(E) 귀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4. 이비인후과 병원 외관(낮)

수희(E) 처음엔 너무 놀라 병원을 찾았지만...

#5. 이비인후과 병원 진료실(낮)

의사1 정상입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6. 신경외과 진료실(낮)

수희(E) 혹시나 해서 뇌 CT도 찍어보았는데...

의사2 (뇌 CT 사진 보며) 깨끗하네요. 다 정상입니다.

#7. 신경정신과 병원 외관(낮)

수희(E) 심리적인 문제인가 싶어 또 병원을 찾았지만...

#8. 신경정신과 병원 진료실(낮)

의사3 귀에서 피가 난다구요?

아니 그럼 이비인후과를 가셔야지, 왜 여길...

#9. 사무실(낮)

#1 연결. 양쪽 귀에 휴지 말아 꽂고서 의자에 기대앉아 있는 수희.

수희(E) 이젠... 나도 모르겠다. 이건 그냥... 야근요정의 저주인가?

임 부장 (돌아앉아 수희 보며) 김 대리, 뭐해?

수희 ... (못 듣고 여전히 멍하니 있는데)

임 부장 (어깨 툭툭 치는)

수희 (보면, 임 부장이고. 놀라 귀에서 휴지 빼는데)

임 부장 회사에서 귀 막고 있음 어떡하니? 여기가 독서실이야?

수희 아... 그게, 또 피가 나가지고...

임 부장 어머, 자기 또 귀에서 피났어?

수희 네.

임 부장 대체 왜 그런다니? 병원은 가봤어?

수희 네, 근데 다 정상이라고만 그러고...

임 부장 어머... 어떡하니, 그거. 눈에서 눈물 나고 코에선 물도 나고 피도 나고 그러지만 귀에서 나오는 건 귀지밖에 없는데.

무슨 조화야, 대체.

수희 그러니까요.

임 부장 너무 불편하겠다. 피날 때 아프진 않고?

수희 네, 아프진 않아요.

임 부장 언제부터 그런 거야, 대체? 전엔 그런 적 없었어?

수희 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임 부장 뭐지? 왜 그럴까?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인가?

수희 (웃으며) 에이... 설마요.

임 부장 그럼 대체 왜? 왜 때문에? 어? 왜??

수희 글썸... 그게 대체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피가 나긴 하던데...
 임 부장 어머... 정말?
 수희 (뜨끔해서) 아니, 뭐 꼭 백 퍼센트 그렇다는 건 또 아니고...
 임 부장 (안 듣고) 그래, 그랬구나.
 하긴 사람이 예민하고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수희 네? 저 별로 안 예민한데...
 임 부장 그래, 자기. 일해? 나 커피 한잔 하고 와야겠다. (나가는)
 수희 아니, 저... 부장님! (가고 없는) 아... 왜 이렇게 느낌이 썩- 하지?
 (E) 가십을 찾아 사무실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에게 좋은 먹잇감을 안겨준 것 같은 느낌이...

CUT TO.

자리에 앉아 다 쓴 영문 메일을 훑어보고 있는 수희인데, 컴퓨터 화면 구석에 네이트 대화창 뜬다. “야, 너 괜찮아?” 하고 뜨는 대화창 클릭하는 수희. 화면 구석에 대화창 같이 뜨는.

구 대리(E) 야, 너 괜찮아?
 수희(E) 뭐가?
 구 대리(E) 임 부장이 막 니 얘기하고 다니던데? 너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귀에서 피 난다고. 막 너 조심하라고 겁나 꼬면서 얘기하고 다님.
 수희(E) 헐...
 구 대리(E) 임 부장한테 뭐 하러 그런 얘기까지 하나? 대충 대꾸나 하지.
 수희(E) 아니, 자꾸 캐물어서...

옆자리에 앉은 정 주임이 수희 본다.

정 주임 저, 대리님.
 수희 네?
 정 주임 저희 캐러멜 소스 언제 또 들어와요? 내일 반판 나가는데.
 수희 (입고 스케줄 서류 보며) 다음 주 목요일에 한판 들어오는데...
 왜요? 재고 없어요?
 정 주임 내일 반판 나가면 열 박스 정도 남긴 하는데...

수희 그거 쯤... 아슬아슬한데?
 정 주임 그러게요.
 수희 더 빨리 입고 가능한지 스케줄 조율해볼게요.
 (전화기 들어, 거래처에 전화 거는) 아, 여보세요?
 아, 저 에스피에프앤비 김수희 대린데요...
 저희 다음 주 출고 예정인 캐러멜 소스 검역 나와 있나요?
 아, 비엘 넘버가... (서류 들어보는)

#10. 자취방(밤)

좌식 책상 위에 컵라면 놓고 먹고 있는 수희.

수희(E) 평화로운 저녁...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누군가의 노랫소리. 퀸의 <보헤미안 랍소디>를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부르고 있다. “Mama, just killed a man”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고막 찢어질 듯 크게 부른다. 젓가락질 멈추는 수희.

수희(E) ...인 줄 알았는데.

어김없이 귀에서 피가 주룩 흐른다.

수희(E) 저 사람은 알까. 자기가 기분 좋아 부르는 노랫소리에 누군가는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11. 자취집 건물 앞(아침)

급하게 뛰어나오는 수희.

수희(E) 여유로운 아침 따윈 나의 생에 없는 것인가.

#12. 사무실(낮)

여직원 몇몇 동근 테이블에 모여 앉아 각자 집에서 싸온 도시락 먹고 있다. 물 받은 컵라면 들고 와 앉는 수희인데. 강 팀장이 점심 먹으러 나가며 슬쩍 보더니 한마디 한다.

강 팀장 김 대리는 또 컵라면이야?
수희 네? 아침에 늦잠을 자서…
강 팀장 아무튼… 게으른 여자는 맞아야 돼. (가는데)
수희 …?! (귀에서 주룩 피 흐르는)
임 부장 어머, 자기 또 귀피 난다!
수희(E) (태연히 휴지 둘둘 말아 귀에 꽂으며) 목구멍에 밥을 넣으려는데 컷구멍에 똥이 날아와 박히는구나.

#13. 물류 사무실(낮)

서 팀장 자리 옆에 서서 자리에 앉은 서 팀장과 얘기 중인 수희.

서 팀장 아니, 여기도 다 바쁜 사람들인데 그냥 스케줄대로 갈 일이지, 갑자기 뭘 또 금요일에 물건을 받으래.
수희 그게 갑자기 디알에서 발주가 떠서… 안 그러면 캐러멜 소스가 쇼트라서요.
서 팀장 아, 그건 영업부 사정이고… 우리도 배송 나가고, 나갔다 들어오면 또 화물 보낼 거 물건 챙겨야 되는데. 아침에 뭐? 열두 파레트? 그거 다 받고 언제 배송 나갔다 언제 들어오라고.
수희 그럼 금요일 입고는 도저히 안 되실까요?
서 팀장 아니, 이런 건 부서 간에 미리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야지… 뭘 다짜고짜 받으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네~ 하고 받아야 돼? 가방끈 째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수희 서 있는 거 고깝게 보며) 김 대리. 지금 상사가 얘기하는데 짹다리 짹고 서 있는 거야?
수희 네? (하면서 고쳐 서다가 귀에서 피 후두둑 떨어지는) 아…

서 팀장 (보며) 참… 가지가지 하시네요, 김 대리님.
아이고… 이거 어디 부하직원 무서워서 말도 못 하고 살겠네, 이제.
수희 …(꾸벅 인사하고 귀 틀어막고 간다)

#14. 사무실(낮)

양쪽 귀에 휴지 둘둘 말아 꽂고 자기 자리 의자에 털썩 앉는 수희. 정 주임이 의자 가까이 끌고 와서 소곤소곤 말 건다.
정 주임 뭐래요?
수희 못 받는대요.
정 주임 웃겨. 자긴 배송도 안 나가면서 자기가 받으면 되지. 맨날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인터넷으로 맞고나 치면서.
수희 내 말이… (그때 자리 전화 울려서 귀에 꽂힌 휴지 빼고 받으면, 자리로 의자 끌고 돌아가는 정 주임) 네, 에스웍니다. …네, 부장님.
영업 성 부장(F) 김 대리. 금요일에 캐러멜 소스 들어와, 못 들어와.
수희 검역 나와 있어서 들어올 순 있는데… 물류에서 못 받는대요.
영업 성 부장(F) 뭐? 왜?
수희 배송 많다고 그러죠 뭐.
영업 성 부장(F) 아, 이번엔 또 쇼트 나서 우리 또 클레임 걸리면 디알 완전 아웃이야, 우리. 금요일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캐러멜 소스 한 판만 입고시키면 안 되나?
수희 물류비 때문에 위에서 싫어하죠. 용인 보세창고에서 파주까지 한 판을 올리나, 열두 판을 올리나 물류비는 몇만 원 차이 안 나니까.
영업 성 부장(F) 아… 그건 또 그렇지… 일단 알았어. 내가 서 팀장하고 얘기해볼게.
수희 네에. (끊는)
정 주임 (또 의자 끌고 와서) 뭐래요?
수희 자기가 얘기해본대요.
정 주임 웃기네. 서 팀한테 꿈쩍도 못 하면서. 보나 마나 이사님한테 부탁하겠지.
수희 (피식 웃는)

임 부장 (와서) 자기들, 아침에 화분에 물 제대로 주고 있는 거 맞아?
 정 주임 네, 매일 주는데요.
 임 부장 아니, 근데 사장님 방에 있는 난이 왜 자꾸 죽어.
 사장님이 나 불러서 난 왜 다 죽이냐고 뭐라고 하시잖아.
 정 주임 아... 난이 살기가 싫은가 왜 자꾸 죽지. 물 주는데...
 수희 개도 사장님 방에서 못 들은 소리 많이 듣나 보네요, 자꾸 죽는 거 보면. 왜 식물도 다 듣는다잖아요.
 임 부장 그래, 누가 뭐라고 쫓 했다고 피 철철 흘리는 것보다야 조용히 혼자 말라가는 게 더 낫지.
 수희 네?!
 임 부장 아니, 자기 얘기가 아니고... (그때 파리 웅~ 하고 날아다니는 거 보이는) 아, 저놈의 똥파리 새끼를 그냥...
 (정 주임 책상 위에 파리채 찾아 잡고는 냅다 후려치는) 잡았다!!

 수희, 자리에 있는 티슈 탁탁 뽑아 귀에 미리 꽂아버리는.

 수희(E) 똥파리에게 동정심을 가져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임 부장 (파리 시체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파리채 정 주임 주며) 자기, 이거 좀 씻어야겠다. 피 때문에 너무 드러워.
 정 주임 (무심히 받아 책상 서류 더미 위에 올리며) 네.
 차 이사 (정 주임 앞에 다가와서) 정 주임.
 정 주임 네, 이사님.
 차 이사 금요일 발주 온 거 줘봐.
 아니, 무슨 발주가 얼마나 많길래 물건을 못 받는대?
 정 주임 (발주 목록 서류 주는) 여기요.
 차 이사 (서류 보며) 이게 다야? 스타백 코리아? 여긴 어디야?
 정 주임 신군데... 강남이에요.
 차 이사 (다시 주며) 알았어. (가는)

#15. 여자화장실(낮)

수희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정 주임이 세면대 앞에 서서

파리채 칫솔로 북북 닦고 있다. 다 닦고 세면대 위 양치컵 안에 칫솔 다시 넣는 정 주임.

CUT TO.

수희 불일 보고 나오는데, 세면대 앞에 임 부장이 서서 양치하고 있다. 수희 손 씻으며 슬쩍 보는데, 아까 그 양치컵 안이 비어 있다. 손 씻으며 씩 웃는 수희.

#16. 물류 사무실 앞(낮)

수희가 물류 사무실 문 앞에 서서 노크하려는데, 안에서 얘기 소리 들린다.

서 팀장(E) 아, 이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저는 그냥 사전에 이렇게 협의만 해달라는 거지, 절대 뭐 협조를 안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수희(E) (기가 차서 웃다가) 그대여... 다음 생엔 꼭 똥파리로 태어나서 내 손에 죽어다오.

#17. 교차. 중식당(현실)+중식당(상상)(밤)

재영과 마주 앉아 식사 중인 수희.
 재영만 먹고 있고 수희는 그런 재영 가만히 보고 있다.
 재영은 손에 핸드폰 들고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며 밥 먹는.

수희(E) 그래도 남자친구랑 있을 땐 귀피를 흘릴 일은 없다.
 왜냐하면... 우린 그냥 대화 자체를 안 하니까.

수희 상상.

수희 너 나 왜 만나니?
 재영 (먹다가 보며) 뭐?

수희 너 오늘 만나서 내 얼굴 쳐다보긴 했니?
(재영 손에 들린 핸드폰 틱짇으로 가리키며) 그거 계속 보면서 밥
먹을 거면 그냥 너 혼자 먹어도 되지 않아?
아... 혼자 먹으면 쪽팔려서 그러나? 너 결혼도 그래서 하려는
거야? 나이는 찻고 혼자 살긴 쪽팔려서?

현재.

재영 (먹다가 흘깃 보며) 왜 안 먹어?

수희 어? 아... 먹어야지. (먹는)

#18. 거리 일각(밤)

재영과 수희가 무표정하게 걷고 있다.

수희(E) 헤어질 일이 없어서 그냥 만나다가 그냥 결혼하는 커플은 얼마나
될까. 이별이라는 선택을 미루다가, 결혼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린
신랑과 신부는 얼마나 될까. 그래도 막연히 행복을 기대하는 그들
앞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19. 카페(낮)

지호와 수희가 마주 앉아 있다.

지호 너 정말 얼마 안 남았네, 결혼식.

수희 (시무룩하게) 어.

지호 너 표정이 왜 그래? 귀에서 피 나는 거 때문에?

수희 그것도 그렇고... 너 말해봐. 애엄마 되면 애 우는 소리 괜찮아?

지호 괜찮나니?

수희 막... 애엄마 되면 애 우는 소리도 듣기 좋고 그래?

지호 (단호하게 고개 젓는) 애엄마도 애 우는 소리 완전 듣기 싫거든?

아무리 모성애로 칠갑을 해봐라. 우는 소리는 우는 소리고 똥은

똥이야. 내 새끼니까 똥치고 짜증 나도 애 울면 일단 안아주는
거고... 애 똥은 뭐 냄새 안 나니? 그것도 내 새끼니까 다 냄새나고
드러워도 치우는 거지.

수희 하... 나 애 낳으면 애 우는 소리 듣다가 과다 출혈로 죽는 거 아냐?

지호 너, 그 정도야? 괜찮은 거야?

수희 (한숨 쉬며) 아, 모르겠어.

지호 귀에서 피 나는 그거, 자주 그래?

수희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그것보단 회사에서 귀에서 피날까 봐
가슴 졸이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난 내가 이렇게 뭘 많이 참고
사는지 몰랐다...

지호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어찌냐.

수희 어찌긴... 그냥 버티는 거지, 똘.

참 웃긴 게 나는 내가 당신 말이 듣기 싫다는 걸 듣키는 것도
무서워서 별별 떠는데, 상대방은 뭐가 그렇게 위풍도 당당하게
나한테 할 말 못 할 말 구분도 안 하고 지껄이시는지...

뭐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주는 거야? 직급? 나이? 그럼 나도 그
직급에 그 나이면 아랫사람한테 그래도 되는 거야?

지호 그때쯤 되면 선택권이 생기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수희 그럼 그때까진 나한테 선택권이 없나?

지호 왜 없어. 그냥 막 지르고 뒷감당 안 되면 사표 던지는 옵션이 있지.

수희 그래, 그게 있긴 있지. (피식 웃는)

지호 너무 참지 마. 진짜 과다출혈로 죽을라. 죽지 마라, 친구야?

수희 하... 노력해보마.

#20. 자취방(낮)

수희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수희엄마가 청소 중이다.

수희 엄마? 언제 왔어?

수희 모 아까 왔다. 넌 집이 이게 뭐니? 아무리 혼자 산다지만 청소는
대충이라도 좀 하고 살아라.

수희 아,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갑자기 막 와, 왜.
수희 모 했어, 이것야! 전화 안 받은 건 너잖아. 꼬막 무쳐왔어.
너 좋아하잖아. 내가 냉장고 정리도 싹 했다. 넌 무슨 곰팡이
키워서 실험하니? 저게 먹을 거 넣는 냉장고야, 아님 연구실에서
곰팡이 키우는 냉장고야? 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사람이 사람
구실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냐.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귀신도
살다가 뛰쳐나가겠다.
수희(E) 아니야, 아니야. 듣기 싫지 않아. 괜찮아. 난 괜찮아. 상대는
사랑하는 엄마잖아?
수희 모 (밀대 걸레로 바닥 닦으며) 너 결혼해서도 이려고 살면 나만
욕먹는 거야. 집안이 항상 깨끗해야지 이걸, 뭐... 돼지가 사는지
사람이 사는지. 돼지는 치울 손이라도 없지. 넌 멀쩡하게 손발 다
달려서는...
수희 (귀에서 피 주룩 흐르는) 아, 미치겠네...
수희 모 (놀라 달려오며) 어머!! 수희야!!

#21. 전체 회의실(낮)

수희 포함한 직원들 열댓 명 모여 있고,
지 상무가 앞에 서서 얘기 중이다.

지 상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할 말이 있는데...
퇴근할 때 사장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 있어. 인사 꼭 하고 가시고.
아침에 지각하지 마시고. 일이 분이라도 지각하면 다 체크해서
고과에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외근 나가서 직퇴해야 되면 미리 기안 올려서 재가
받으십시오. 그냥 그날 직퇴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아, 또
그리고...
요즘 듣기론 상사가 뭐라고 좀 한다고 듣기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직원이 있다고 하던데...
수희 (멍하니 듣다가 화들짝 놀라는데)

지 상무 이걸 기본 예의 문제 아닌가? 아니, 인생 선배로서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으니까 다 생각해서 쓴소리 좀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고깝게 듣고 있으면 사람이 발전을 어떻게 합니까?
수희(E) (얼굴 벌게져서 고개 푹 숙이는) 안 돼, 안 돼! 여기서 안 돼!!
여기서!! 지금은!! 절대 안 돼!! (자기도 모르게 양쪽 귀 두 손으로
틀어막는데)
지 상무 (보고) 김수희 대리.
수희 (귀 틀어막은 채 못 듣는)
임 부장 (옆에 앉아 수희 옆구리 쿡 찌르는)
수희 (놀라 고개 드는데)
지 상무 사람이 애길 하는데 귀를 막는 건 뭐니까?
듣기 싫다고 항의라도 하는 겁니까?
수희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서...
지 상무 ?? 내가 하는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다?
수희 아니요, 상무님. 아닙니다.
지 상무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한테 시위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김 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되바라졌네.
수희 아... 죄송합니다.
지 상무 아, 됐고... 시말서 쓰세요.
수희 네?
지 상무 시말서 쓰라고요. 이 건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수희 네. 알겠습니다.
지 상무 (수희 못마땅하게 보다가) 그럼, 이만 회의 마칩시다.

#22. 사무실(낮)

자리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 바라보는 수희.
맨 위에 '시말서'라고 적힌 텅 빈 한글 화면 보이고, 깜빡이는
커서를 멍하니 바라보는 수희.

수희(E) 와, 나 진짜...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써본다. 학교 다닐 때 반성문

한 번 써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쓰지?
 (타자 치며) 솔직히 당신이 피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를
 부르진 않았잖습니까. (지우고) 아니면... (또 타자 치며) 맘에 안
 들면 그냥 날 잘라요, 실업 급여라도 받게. (또 지우고)
 하... 한 글자도 쓰기 싫다, 진짜.

임 부장 (와서) 자기들 아침에 사장님 방 컵 잘 닦고 있지?
 수희 네? 네.
 정 주임 왜요? 또 뭐라고 하세요?
 임 부장 뭐 까만 게 있다고... 안 닦은 거 아니냐고.
 정 주임 그거 안 닦여요. 커피 물이 들어서.
 임 부장 그래? 그럼 어떡하지?
 수희 그냥 말씀하세요. 닦아도 안 닦이는 거라고.
 임 부장 어머, 자기가 말해. 난 자기처럼 막 되바라지지가 않아서.
 수희 네?!
 임 부장 어머, 닦치고 있어야지. 또 귀피 흘리실라. 내가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살아요. (가는)
 수희(E) 내가 사표 내기 전에 저 입을 껌매고 만다.

#23. 지 상무 사무실(낮)

지 상무 책상에 앉아 수희가 준 결재 서류 검토 중이다.
 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수희.

지 상무 (사인하고 결재판 주며) 시말서는? 다 썼나?
 수희 아니요, 아직...
 지 상무 빨리빨리 쓰지? 뭐 다른 급한 일이라도 있어?
 수희 이번 P.O 발주만 나가고 빨리 쓰겠습니다.
 지 상무 (못마땅하게 보며) 그러든지.
 수희 (꾸벅 인사하고 나오는)

#24. 사무실(낮)

또다시 자리에 앉아 시말서 화면 바라보고 있는 수희.

수희(E) 그냥 사표 낼까.
 임 부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의자 빙 돌려 직원들 보며)
 자기들, 입이 좀 심심하지 않아?
 수희(E) (화면만 보며) 아니요.
 임 부장 우리 사다리 타서 간식 사오기 할까?
 수희 (여전히 화면 보며 '아니요.' 타이핑 하는)

 CUT TO.
 정 주임 (사다리 그려진 종이 보며) 대리님은 몇 번이요?
 수희 5번.
 정 주임 (사다리 타보고) 오, 대리님 이천 원!
 수희 오... 선방했네.
 정 주임 이제 물류팀만 하면 되는데...
 수희 내가 창고 갔다 올게요. 어차피 입고 스케줄 주러 가야 되니까.
 정 주임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며 사다리 종이 주는)

#25. 물류 창고(낮)

손수레 위에 시럽 박스 쟁겨 쌓는 고 과장.
 그 옆에 와서 서는 수희.

수희 저, 고 과장님. 우리 사다리 타서 간식 사오기 하는데...
 몇 번 하실래요?
 고 과장 (험악하게 보며) 뭐요?!
 수희 아... 간식 사오려구요, 사다리 타서.
 지금 12번이랑 8번, 9번 남았(는데...)
 고 과장 (O.L.) 사무실 사람들은 그렇게 한가해요? 지금 우리 뭐 빠지게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확 그냥 배때지를 찢어버릴까 보다!

수희 ?! (귀에 피 주룩 흐르는데)
 고 과장 (보고, 히죽 웃으며) …진짜네.
 수희 !! (피 흐르는 귀 막으며, 경악해서 보는데)
 고 과장 전 12번 할게요. (다시 박스 쌓는)
 수희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보는데)
 고 과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쌓고 손수레 끌고 가는)
 수희 …(입술 짹 깨물고 눈물 참는)

#26. 사무실(낮)

시말서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수희. 지친 표정으로 천천히 타이핑 한다. 타이핑 되는 화면 보면 '당신들은 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겁니까.' 적혀 있는.

#27. 생선구이집(밤)

마주 앉아 식사 중인 재영과 수희.
 재영은 여전히 핸드폰 보며 식사 중이다.

수희 나 사표 낼까.
 재영 (보며) 사표? 왜?
 수희 그냥… 힘들어서.
 재영 야, 다 힘들어, 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딴냐.
 수희 귀에서 피 나는 거 때문에 더 힘들어서 그러지.
 재영 야, 그거 니 멘탈이 문제야. 너 멘탈이 두부라서 좀만 싫은 소리 들어도 귀에서 피가 나는 거라고.
 수희 뭐? 두부?!
 재영 그래, 그 멘탈로 어떻게 사회생활 할래, 너.
 아니면 자기 최면이라도 걸어. 괜찮다. 애가 하는 소리는 개소리지만 나는 개가 아니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다. 뭐 이렇게.
 수희 (피식 웃는데)
 재영 너 지금 사표 내면, 다른 회사 가선 괜찮을 것 같아?

또라이는 어딜 가나 있어. 이제 이놈한테 어느 정도 적응된다 싶으면, 또 새로운 차원의 또라이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타난다니까?

수희 …(심란한)

#28. 자취방(밤)

침대 위에 대자로 누워 있는 수희.

수희(E) 자기 최면이라…

#29. 지 상무 사무실(낮)

지 상무가 자리에 앉아 수희가 올린 시말서 보고 있다.
 그 앞에 서 있는 수희.

지 상무 (시말서 보며) 회의 시간에 의도치 않은 돌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합니다. 차후엔 절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김 대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닌가?
 수희 네?
 지 상무 아니, 그렇잖아. 물의를 일으켜,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의도치 않은 게 확실해? 거짓말 아냐?
 수희 …거짓말… 아닌데요.
 지 상무 (결재판 주며) 다시 써 와.
 수희 (받고 꾸벅 인사하고 나가는)
 지 상무 (그런 수희 못마땅하게 보는)

#30. 사무실(낮)

자리에 결재판 툭 내려놓고, 털썩 앉은 수희.

수희(E) 석고대죄라도 하길 바라는 건가.

한숨 내쉬는데, 자리 위에 단팥빵과 함께 명함들이 올려져 있는 거 보이는. 명함 집어 보면, '물류팀 고지환 과장' 등등 적힌 고 과장 명함이다.

정 주임 (의자 끌고 와 속삭이느) 이번에 회사 이름 바뀌면서 명함을 새로 짰잖아요. 근데 고 과장님이 자기 입사해서 명함을 처음 받아봤다고, 명함이랑 빵이랑 돌린 거예요.

수희 아... (고 과장 명함 뻔히 보는)

플래시백. #25 (물류 창고)

고 과장 (보고, 히죽 웃으며) ...진짜네.

현재.

수희 ...

#31. 물류팀 사무실(낮)

아무도 없는 사무실 안.
수희가 들어와 서 팀장 책상 위에 입고 스케줄 종이 올려놓고 나가려다, 문득 열고 과장 책상 위에 눈길 머문다. 그 앞에 서는 수희. 고 과장 책상 위엔 명함통에 담긴 명함들 보인다. 두 통이 쌓여 있는데, 그거 가만히 보다가 문득 두 통 다 챙겨서 외투 주머니에 넣는 수희.

#32. 자취방(밤)

좌식 책상 앞에 앉아 고 과장 명함 하나하나에 화이트칠을 하고 있는 수희. 보면, '고지환' 사이에 '지' 자를 화이트로

지우고 있다.

수희 (열심히 지우며) 너의 소중한 명함을 내가 더럽혀주겠어.

#33. 자취방 건물 앞(아침)

급하게 뛰어나오는 수희.

수희(E) 명함을 더럽히느라 밤을 꼴딱 새웠다.

#34. 지 상무 사무실(낮)

지 상무 앉아 있고, 그 앞에 서서 혼나고 있는 수희.

지 상무 김 대리, 오늘 지각했다며?

수희 네... 오 분... 늦었습니다.

지 상무 자네 사람 말이 우습나? 내가 지난번 회의 시간에 지각하지 말라고 말했어, 안 했어?

수희 하셨습니다.

지 상무 근데, 왜 늦었나 오늘.

수희 ...죄송합니다.

지 상무 시말서는, 다 썼나?

수희 다시 쓰라고 하셔서... 쓰고 있습니다.

지 상무 그거 쓰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수희 그게 정확히 어떤 표현을 원하시는 건지... 제가 잘...

지 상무 그걸 내가 다 일일이 알려줘야 돼? 김 대리 초등학생이야? 요즘은 초등학생도 논술 학원 다녀서 글을 기가 막히게 쓴다고.

수희(E) 이걸 개소리다. 멍멍... 멍멍... 멍멍...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지 상무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수희 네? 네. 죄송합니다, 금방 쓰겠습니다.

지 상무 (뭇마땅하게 보며) 나가봐.

수희 (꾸벅 인사하고 나가는)

#35. 물류팀 사무실(낮)

아무도 없는 사무실. 수희가 들어와 고 과장 책상 위에 명함 두 통 올려놓는다. '고 환' 이름 적힌 명함 보며 씩 웃는 수희.

#36. 사무실(낮)

시달서 화면 보며 타이핑하는 수희.

수희(E) (타이핑하며)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저를 죽이세요.
강 팀장 (와서 결재 끝난 수희 휴가원 내밀며) 김 대리.
수희 네?
강 팀장 이거 말이야. 연차를 이틀을 붙여 썼네?
수희 네, 신혼여행 때문에.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결혼은 식 다음날부터 3일밖에 휴가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목요일 밤 비행기로 도착해서 금요일에나 출근할 수 있거든요.
강 팀장 아, 아무리 그래도 원래 이거 안 되는 건데...
수희 그제... 위에서 다 결재하셨는데요.
강 팀장 그래? 아... 안 되는 건데...
수희 ...
강 팀장 결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수희(E) 뭐지. 신혼여행 가지 말라는 건가?
강 팀장 원래 안 되는 건데 위에서 다 결재하셨다니깐 그냥 넘어가겠는데 말이야... 결혼이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유세를 떠나. 그 나이에 시집가는 게 무슨 자랑인가?
수희(E) 나이 얘기가 왜... 아니, 안 돼. 정신줄 붙잡고... 시라도 외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강 팀장 옛날엔 결혼하면 알아서들 그만뒀는데... 요즘 여자들은 참...

수희(E) 여자 얘기가 왜... 아니, 안 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강 팀장 결혼하고 나면 또 임신해 가지고 출산 휴가니 뭐니... 다 챙겨 쓰려고 하지, 또.
수희(E) 임신 얘기가 왜... (결국 귀에서 피 흐르는) 아, 망했다...
강 팀장 (보더니) 이봐, 이봐.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또... 나, 참... (혀를 차며 보더니 가버리는)
수희(E) (티슈 툭툭 뽑아 귀 막으며) 차라리 귀가 멀었으면 좋겠다, 진짜.

#37. 물류 사무실(낮)

서 팀장 자리에서 서 팀장과 수희가 입고 스케줄표 보며 얘기 중이다.

서 팀장 그럼 다음 주도 두 번 들어오는 거죠? 화, 목?
수희 네.
서 팀장 그리고 이 다음 주는 한 번만 들어옵시다. 월초라 배송이 많아.
수희 네, 그럼 화요일에 한 번이요?
서 팀장 (끄덕하는데)
수희(E) (옆에 고 과장 자리 슬쩍 본다. 명함 두 통 그대로 있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건가. 생각보다 별로 소중하지 않았나 보지? 아... 밤을 새운 보람이 없네.

#38. 사무실(낮)

수희가 사무실로 들어와 앉는데, 정 주임 앞에 서서 발주서 확인 중이던 차 이사가 부른다.

차 이사 아, 김 대리. 그... 아몬드 시럽을 반판 에어로 땡기면 입고되는데 얼마나 걸리나?
수희 일단 공장에 재고가 있어야죠.
차 이사 재고가 있으면? 한 일주일 걸리나?

수희 네, 검역 때 무작위 검사만 안 걸리면…
 차 이사 비용은? 많이 들지?
 수희 많이 들죠.
 차 이사 얼마나 드나? 한번 알아봐 줄 수 있나?
 수희 네, 물어볼게요.
 차 이사 어, 한번 물어봐 줘. 업체에서 문의가 와서…
 수희 네. 대략적인 예상 비용 산출되면 알려드릴게요.
 차 이사 (끄덕하고) 결혼식 준비는 다 끝났어?
 수희 뭐, 이제 식만 올리면 끝이죠.
 차 이사 야… 그럼 이제 김 대리 아줌마 되는 거야?
 수희 (피식 웃고) 그러게요.
 차 이사 귀에서 피 나는 건 이제 좀 괜찮아?
 수희 아뇨. 안 괜찮아요.
 차 이사 신랑 될 사람은 뭐래? 걱정 많이 하지?
 수희 갠 그냥 다 내 탓이래요. 내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나, 뭐라나.
 차 이사 그건 그냥 병 같은 거 아냐?
 감기가 멘탈이 약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
 수희 병이라기보단… 저주에 가까운 거 같아요.
 차 이사 저주?
 수희 네. 야근요정의… 저주.
 차 이사 뭐? 뭔 요정?
 수희 그런 게 있어요. 날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는 천하태평하게 뛰어놓고 있겠지.

#39. 소아과 병동/입원실(낮)

6인실. 창가 침대에 야근요정이 앉아 있다.
 환자복 입고서 파리한 얼굴로 앉아 있고,
 그 앞에 수희 모가 앉아 꿀 까고 있는.

야근요정 엄마.
 수희 모 응?

야근요정 시말서가 뭐야?
 수희 모 (빙긋 웃으며) 그런 말은 어디서 주워들었어, 또.
 야근요정 드라마에서 봤어.
 수희 모 넌 어른들 보는 드라마를 그렇게 보니,
 다른 애들이 보기 싫다고 자꾸 채널 돌린다면.
 야근요정 그냥. 어른들 세계가 궁금해서. 난 못 될지도 모르잖아.
 수희 모 !! (꿀 까던 손 멈칫하고, 눈시울 붉어지는데)
 야근요정 나 전에 타임머신 타고 미래도 갔다 왔다?
 수희 모 나 막 커서 일도 하고 그런다? 야근? 뭐 그런 것도 하고.
 야근요정 (애써 웃으며) 그랬어?
 수희 모 응. 내가 막 소원도 들어줬어.
 야근요정 그래? 어떤 소원?
 수희 모 그게 말이지, 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신나서 얘기하는 야근요정과 슬픈 표정
 애써 감추며 얘기 듣는 수희 모.

#40. 사무실(낮)

강 팀장 자리 앞에 서서 강 팀장과 실랑이 중인 고 과장.
 자기 자리에 앉은 수희가 시선은 주지 않은 채 귀 쪽긋 세우고
 듣고 있다.

강 팀장 아, 글썸 안 된다니까. 얼마 전에 새걸로 두 통 췌는데 그걸 그새
 다 썼다는 게 말이 되나, 이 사람아.
 고 과장 아니, 다 쓴 게 아니라… 없어져서 그래요.
 강 팀장 없어진 건 자네 잘못이지. 아무튼 지금은 좀 그래. 시간 좀
 지나고… 그때 다시 말해. 그럼 그때 기안 올려줄 테니까.
 고 과장 하…
 수희 (씩 웃는)

#41. 교차. 물류 사무실(현실)+물류 사무실(상상)(낮)

수희가 들어와 자리에 앉은 서 팀장에게 입고 스케줄표 준다.
 수희 팀장님, 이거 품목 하나만 추가해서 수정된 거예요.
 서 팀장 아... 캐러멜 시럽 추가. 하긴...
 어제 두 판 나가서 간당간당하더라구.
 수희 네. (하며 옆에 앉은 고 과장 보는데)
 고 과장 (명함에 화이트칠 된 부분 자로 박박 긁어내며) 아, 어떤 새끼가...
 수희(E) (무표정한 얼굴로 보며) 아는 척하고 싶다.

수희 상상.
 씹씩대며 화이트칠 벗기는 고 과장 옆으로 다가가,
 명함 한 장 들어 보는 수희.

수희 고 과장님 이름이 환이었어요? 고훈?
 고 과장 뭐요?
 수희(E) 그리고 미친 듯이 웃어주고 싶다.
 수희 (빵 터져서 웃으며) 아하하하하!!!
 수희(E) 배꼽을 붙잡고 떼굴떼굴 구르며 웃어주고 싶다.
 수희 (배꼽 붙잡고 떼굴떼굴 구르며) 아하하하하하!!

현재.
 서 팀장한테 꾸벅 인사하고 나가는 수희.

수희(E) 뭐 하나 시원하고 통쾌한 일이 없다.

#42. 분식집(밤)

테이블 위에 빈 접시 보며 배 두드리는 재영. 물 마시는 수희.

재영 아, 잘 먹었다. 갈까?
 수희 지금 몇 신데?

재영 지금? (핸드폰 들어 시계 보며) 여덟 시 반?
 수희 막차 놓칠 일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
 나 아직 물도 다 안 마셨거든?

재영 아... 마셔.
 수희 (마시는데)
 재영 무슨 홍차 마시냐? 무슨 물을 그렇게 오래 먹어.
 수희 (물잔 탁 내려놓고) 나... 아기는 낳지 말까?
 재영 뭐? 갑자기 뭘 소리야.
 수희 아니... 애가 막 울면 귀에서 막 피가 날 거고... 애는 계속 울 거고... 그럼 피는 또 계속 날 거고...
 재영 애 우는 거 듣기 싫다고 애를 안 낳아? 제정신이야?
 수희 넌 내 걱정은 요만큼도 안 되니? 위험할 거란 생각은 안 들어?
 재영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애도 안 낳고 우리 둘이 무슨 재미로 사냐, 솔직히.
 수희(E) (뻘히 보다가) 아... 애도 아는구나. 우리 지금 재미없는 거.
 재영 물 다 마셨음 가자. (일어서서 가는)
 수희(E) 재는 진짜 날 같이 끼니나 때우려고 만나는 건가... (일어서서 따라 나가는)

#43. 사장실(아침)

사무실 곳곳에 화분이 있고,
 정 주임과 수희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다.
 수희, 이미 노랗게 시들어버린 난에 물을 주고 있는데 물뿌리개 들고 나가던 정 주임이 보더니 말한다.

정 주임 갠 다 죽었어요, 대리님. (하고 나가고)
 수희 아...

잠시 죽은 난 망연하게 바라보는 수희.

수희(E) 넌 이렇게 말라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겠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수희, 물뿌리개 들고 돌아서 나가는데.

야근요정(E) 아무것도 늦은 건 없어.

돌아보면, 야근요정 서 있는.

수희 야, 너…! 내가 너 때문에 요새 얼마나 개고생을…!!

야근요정 (안 들고, 죽은 난 보며) 있잖아…

이미 죽은 난도 꿈 같은 걸 꾸고 있지 않을까?

수희 뭐?

야근요정 (웬지 슬프게 배시시 웃으며) 결혼 축하해.

웨딩드레스 입으면 너-무 이쁘겠다.

수희 (야근요정의 쓸쓸한 표정이 좀 이상한) 이쁘긴…

야근요정 있잖아, 부탁이 있는데…

수희 ?

야근요정 행복한 신부가 돼줘.

수희 … (어쩐지 눈시울이 붉어진다.)

#44. 영업부 사무실(낮)

차 이사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서서 견적서 건네주는 수희.

수희 전에 말씀하신 에어컨 물류비 견적이요.

차 이사 (받아보며) 어, 고마워. (수희 보며) 내일인가? 결혼식?

수희 네.

차 이사 너무 떨지 말고 잘 해.

수희 저야 뭐 할 일도 없는데요, 뭐. 화장 시켜주면 앉아서 화장 받고, 옷 입혀주면 옷 입고, 입장하라면 입장하고… 사진사가 웃으라면 웃고.

차 이사 좋은 날인데 웃음이 절로 나야지 웃으라고 웃냐?

수희 좋은 날은 무슨…

차 이사 돈에 팔려 시집가? 표정이 신통찮아, 왜.

수희 그럼 뭐 팔푼이처럼 웃고 다녀요? 뭐 대단한 결혼 한다고.

차 이사 본인한테 대단한 결혼이지. 인륜지대사 아냐.

수희 …

#45. 사무실(낮)

자리에 와서 앉는데, 뒤에 앉은 임 부장이 돌아앉는다.

임 부장 김 대리, 내일 결혼이네?

수희 네.

임 부장 너무 떨 거 없어. 뭐 대단한 일 같아도 지나고 보면 다 별거 아니거든. 그냥 내가 주인공인 연극 하나 한다고 생각해.

수희 네에.

임 부장 결혼하면 애는 언제 낳아? 바로 가질 거야?

수희 아니요, 저는 좀 천천히…

임 부장 젊을 때 빨리빨리 낳고 치워. 자기 지금도 빠른 거 아닌 거 알지? 요즘은 불임도 많다잖아.

수희 네, 뭐… (하며, 앉아 이메일 화면 보며 살짝 짜증)

아, 뭐야… 견적 다시 왔네. (출력하며) 다시 갖다줘야겠네. (출력한 종이 들고 일어서서 가는)

임 부장 (가는 수희 보며, 정 주임에게) 나한테 짜증 낸 것 같은 건…

내 착각이겠지, 정 주임?

정 주임 (보지도 않고) 네. 착각이십니다.

#46. 야외 결혼식장(낮)

웨딩드레스 입은 수희와 턱시도 입은 재영이 나란히 서서 주례사 듣고 있다.

주례 여러분, 애국이 다른 게 아닙니다.

수희(E) 그냥 결혼들 해서 애 많이 낳는 거 그게 애국입니다.
 (애국가 부르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주례 그리고 아껴야 잘 삽니다, 여러분.
 그날그날 쓴 거 다 꼼꼼하게 기록하고, 사치한 부분이 없나 매사에
 검토하고 반성하고. 그게 다 나라 경제를 위하는 길이고 애국으로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수희(E) 애국가는 안 되겠다. 이 드레스에 귀피라도 흘리는 날엔
 개망신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아... 산수로 할까. 사 곱하기 십일은
 사십사. 사십사 빼기 십이는 삼십이. 삼십이 빼기 사는...

주례 애국의 정신으로 결혼생활을...

수희 (O.L) 이십팔.

주례 ?! (보는데)

수희 ?! (같이 보는)

혼주석에 앉은 수희 모, 놀라 보고,
 하객석에 앉은 정 주임과 지호도 각각 의문스럽게 본다.

주례 신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수희 (좀 멍하니 대답하는) 이십팔.
 주례 이...십팔?
 재영 (작은 소리로) 야, 너 미쳤어?
 수희 ... (책 고개 숙이고 입술 꼭 깨물고, 부케 든 손에 힘 들어가는)
 주례 (수희 잠시 찌려보다가) 큼... 애국의 정신으로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희 ... (가볍게 현기증이 일어 고개 들고 식장이 아닌 쪽으로 고개
 돌려 멍하니 한눈파는데... 그때, 나비 한 마리 팔랑, 하고
 날아오르는 게 눈에 띄는. 그 나비를 한참 바라보는 수희인데)

주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한눈파는
 수희 본다. 마이크 한쪽으로 치우고 싸늘하게) 신부.

수희 ?! (놀라서 보면)

주례 지금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듣는 태도가 그게 뭐니까?

수희 !!!
 순간, 식장 전체에 싸-한 침묵이 내려앉는다.
 모든 식장 손님들의 칼날 같은 시선이 수희의 등에 와 쫓힌다.

주례 누군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주례 서주고 있는 줄 압니까?
 수희 ...

수희의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붉은 선혈이 투두둑! 떨어지고,
 그걸 잠시 아득하게 바라보는 수희. 그러다 갑자기 몸을 돌려
 하객을 본다. 신부의 돌발 행동에 웅성대는 하객들. 잠시, 그
 소리가 멀어진다.

플래시백. #43 (사장실)

야근요정 행복한 신부가 돼줘.

웅성대는 하객들 가만히 보다가 손에 든 부케 냅다 땅에 던지며
 소리치는 수희.

수희 에이씨!! 안 해!!

수희 모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고, 재영은 충격에 말을 잃은.
 하객들 사이에서 “미쳤나 봐...” 하는 소리 흘러드는.
 땅 위에 나뒹구는 부케를 잠시 바라보던 수희는 걸음을 떼어
 천천히 식장을 걸어 나간다.

수희(E)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그냥... 견자, 앞으로.

수희가 걸음을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결혼식장 바닥이 얼음으로
 변하고,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보면 주위에 회전목마가 멈춰
 서 있다. 걸을수록 갈라지고 부서지는 얼음 바닥. 결국 얼음이
 깨져 어딘가로 추락하는 수희.

수희(E) 야근요정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

#47. 자취방(낮)

늘어진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 입고 엎드려 늘어지게 자고 있는 수희. 수희 모 들어와 등짝을 후려친다.

수희 모 일어나!!

수희 (마지못해 일어나 앉으며) 아, 왜.

수희 모 잠이 오냐!! 잠이 와!!

수희 잠은 언제나 모자라. 깨우지 마.

(다시 누우려는데, 또 등짝 얻어맞고 다시 앉는) 아, 왜 그래.

수희 모 왜 그래?! 왜 그래?! 너는 왜 그러는데!! 나한테 왜 그래, 진짜!!

내가 지금 뒷수습하느라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 내가 사부인한테 무릎까지 꿇었어, 이것야!

수희 미안... 엄마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수희 모 아무도 모르다니...? 아무도 안 온 거야, 니 결혼식인데?

수희 사장님이랑 상무님은 해외 출장 가시고... 다른 사람들도 봉투만 전해주고 그래서 다섯 명인가 왔는데, 정 주임이 그러는데 다들 식 안 보고 밥만 먹고 일찍 갔대.

수희 모 (기가 차서) 하늘이 도왔네. 니가 부케 좀만 일찍 집어 던지거나. 그중에 누가 뷔페 한 접시만 더 먹었어도 딱 걸렸을 텐데.

수희 그니까. (웃다가) 아, 그리고 정 주임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래.

나 그래서 금요일까지 쭉 쉰다? 대박이지?

수희 모 자랑이다, 이것야. 내가 못 살아, 진짜!

수희 아, 그래도 신혼여행 못 간 건 좀 아쉽다.

나 혼자라도 갈 걸 그랬나? 나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수희 모 ... (마음 아프게 보는)

수희 엄마. 나 어릴 때 아팠던 거 기억나? 꽤 오래 아팠는데.

수희 모 그 애긴 왜 또.

수희 그땐 어른이 못 될 줄 알았어. 그래서 꼭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그냥, 대단한 어른이 아니라 평범한 어른. 오죽하면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가서 어른이 된 나를 만나는 상상까지 했겠어.

수희 모 ... (떡떡한 얼굴로 보는데)

수희 근데 요즘은 말이야... 내가 정말 이런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수희 모 니가 어때서... 이 정도면 훌륭하지.

부케 집어던지기 전까진 그럭저럭 괜찮은 딸이었어.

수희 아니야, 부케 집어 던지기 전까진 완전 후진 어른이었어.

엄마, 나 어릴 때 읽었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애벌레들이 애벌레 기둥을 막 올라가. 그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서로 짓밟고 짓밟히면서 막 올라가.

근데 요즘 내가 꼭 그러고 있는 거 같은 거야. 기둥을 내려가는 선택을 하지 못해서 거기서 짓밟히는 상황에 계속 남아 있는 거야.

수희 모 (눈물 투둑 흘리는)

수희 뭐야? 왜 울어?

수희 모 수희야아... (서럽게 오열하는)

수희 (당황해서 엄마 안아주며) 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어마마마.

수희 모 (계속 우는데)

수희 아, 왜 자꾸 울어. 누가 죽었어?

#48. 놀이동산(낮)

입구.

놀이동산 입구에 들어서면 사람들 비명소리 쏟아져 들어오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장하는 수희.

수희(E) 비명소리가 들려도 괜찮다니...

즐거운 비명이란 게 진짜 있긴 있구나.

놀이공원 일각.

고양이귀 머리띠 끼고 솜사탕 먹으며 여유롭게 걷는 수희.

수희(E) 평일에 혼자 놀이동산도 나쁘지 않다.

각종 놀이기구 타는 수희 몽타주.
- 롤러코스터 타면서 소리 지르고,
- 자이로스윙 타면서 소리 지르고,
- 열심히 범퍼카 타는.

#49. 치과(낮)

수희가 입을 벌리고 누워 있고, 치과 의사가 들여다보고 있다.

치과 의사 충치가 두 개나 있네요.

수희(E) 스케일링 하러 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충치 소식인가...

#50. 카페(낮)

서로 마주 앉아 있는 재영과 수희.

재영 (아직도 기가 막힌) 왜... 아니, 대체 왜...

수희 미안해...

재영 아, 됐고. 나 너한테 진짜 오만 정이 다 떨어졌거든?

수희 ...

재영 니 면상도 보기 싫는데 일단 정리할 건 해야 되니까...

수희 (보자기로 쓴 패물함 주며) 여기... 받은 패물.

재영 하, 나 참... (쓱쓱하게 보다가) 예단비 준 건 니 계좌로 그대로 입금해줄게.

수희 ...

재영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나 아냐?
말이나 해봐, 진짜 너 왜 그랬냐.

수희 나비 때문에...

재영 뭐?!

수희 나비가 되고 싶어서.

재영 너... 진짜 미친 거니?!

수희 우린 그냥... 관성으로 만난 거야.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재영 ... (부정 못 하는데)

수희 그런데 그 관성으로 결혼까지 가는 건 좀... 아니잖아.

둘 중 누구라도 멈추는 선택을 했었어야 했어.

재영 (깊은 한숨 내쉬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 도중에 쪽팔리게...

수희 넌... 나를 잃은 건 아무렇지도 않지?

재영 뭐?

수희 넌 나를 잃었어. 결혼식이 파투난 것보다, 그래서 너무 쪽팔리고 온갖 곤욕을 다 치른 것보다... 그게 제일 아파야 하는 거야, 알아?

재영 ...

마주 앉아 있지만, 서로를 보지 않고 외면하는 두 사람이고.

#51. 지 상무 사무실(낮)

수희가 앞에 서 있고, 지 상무가 시달서 보고 있는 중이다.

지 상무 자네... 장난하나? 처음에 올린 거랑 똑같잖아. 게다가 이거 뭐야.
추신... 한 번만 더 반려하시면 그냥 사표 쓰라는 뜻으로 알겠습니까? 자네... 미쳤나?

수희 (빙긋 웃으며) 정신감정은 받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상무님.

지 상무 하! (기가 막혀서 보다가, 결재판 다시 주며)

추신만 지우고 다시 올려. 결재할 테니까.

수희 알겠습니다. (받아들고 나가는)

지 상무 (나가는 수희 보며) 요즘 것들은 하여간...

되바라져가지고. (혀를 차는)

#52. 창고(낮)

고 과장과 수희가 얘기 중이다.

고 과장 뭐요?!

수희 과장님 명함에 장난친 거... 저라구요.

고 과장 이 여자가 미쳤나!!

수희 죄송해요.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사과하세요.

고 과장 내가 뭘!

수희 저 귀에서 피 나는지 보시려고 일부러 험한 말 하신 거요. 사과하세요.

고 과장 아... 그것 때문에 나한테 장난질을 치셨다?

수희 방법이 좀... 치졸하긴 했지만 효과가 영 없진 않았을 텐데요.

고 과장 하!! 이 여자 완전 웃기네!!

사과 안 하면! 안 하면 어쩔 건데!

수희 안 하셔도 어쩔 수 없구요.

그냥 과장님이 그 정도 인간인 거죠. 제가 뭘 어찌겠어요.

고 과장 뭐?! 이 여자가 근데!!

수희 자꾸 여자, 여자 안 하셔도 제가 여잔 거 저도 잘 알구요.

과장님이 어떤 인간인지도 이제 잘 알겠구요.

고 과장 (험하게 보며) 뭐?!

수희 과장님,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은 살 수 없어요.

적당히 짓밟히면서 크죠. 근데 그게 정도라는 게 있어요.

고 과장 아, 또 뭐라는 거야.

수희 과장님, 저 밟으셨잖아요. 그냥 신기해서, 재미로.

근데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런 건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이름 석 자 적힌 명함은 소중하신 거잖아요. 아, 두 자던가? 교환 과장님?

고 과장 고지환이야!!

수희 이름 석 잔 되게 소중하신가 봐요.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에 똥칠을 하고 다니면서. (가는데)

고 과장 야!! 와, 저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53. 사무실(낮)

수희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강 팀장 와서 말 거는.

강 팀장 김 대리. 신혼여행 갔다 오면 보통 작은 거라도 선물 돌리고 그러던데... 김 대리 아무것도 없어?

수희 팀장님은 제 결혼식에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강 팀장 아, 제사가 있어서... 그래도 부조는 했어, 이 사람아.

수희 네, 감사합니다.

강 팀장 짐들이는 언제 해?

수희 안 해요, 그런 거.

강 팀장 아니, 왜 안 해?! 해야지~

임 부장 (끼어들며) 그럼~ 해야지.

수희 저 이혼할 거예요.

강 팀장 뭐?!

임 부장 벌써?!

강 팀장 아니, 왜?

임 부장 신혼여행 가서 싸웠어? 화해해, 그냥.

강 팀장 좀 싸웠다고 벌써 이혼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김 대리.

수희 이혼한다고 연차 두 개 붙여서 쓰진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대-단한 이혼한다고, 그죠? 팀장님?

강 팀장 ... (대꾸 없이 심각하게 쳐다보다가)

왜. 혼인신고 벌써 했어? 소송 가고 그래야 돼?

임 부장 웬만하면 그냥 살아~ 앞으로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웬만하면 그냥 김 대리가 참아, 응?

수희 (썩은 미소로) 제가 좀 되바라져서... 참고 살진 못하겠네요.

임 부장 김 대리, 대답이 어째 좀 꼬였다?

수희 아... 그래요?

꼬인 말을 하도 들어서 저도 말이 꼬여서 나오나 보네요.

임 부장 (자기 얘긴 줄 모르고) 왜?

시어머니가 말을 막 꼬아서 하는 스타일이야?

강 팀장 꼬아서 해도 김 대리가 꺾꺾 퍼서 들어.

아랫사람이 참아야지, 어떡해.

수희 시어머니 얘기가 아니라... (하며, 임 부장 보는데)

임 부장 나? 나, 뭐?

강 팀장 아, 임 부장. 그런 거 좀 있어.

임 부장 아니, 내가 언제?
강 팀장 아, 원래 본인은 잘 몰라, 그런 거.
임 부장 그럼 팀장님도 본인이 그러는 거 잘 모르시겠네.
강 팀장 내가 뭘?
임 부장 결핍하면 여자가 어떻게 저떻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강 팀장 내가 언제? 임 부장 사람이 왜 이렇게 꼬였어?
 DNA 검사 좀 해봐. 2중이 아니라 4중으로 꼬였을 거야, 분명히.
수희 두 분 얘기 잘 통하시나 봐요.
 뜻깊은 대화 계속하세요. (일어나 가는)
강 팀장 김 대리, 어디 가!
임 부장 아, 그냥 남편이랑 화해해~!

#54. 바다 위(낮)

보트 위에 잠수복 입은 수희가 앉아 있다가,
바다로 풍덩 뛰어들다.

수희(E) 바다는 고요하다.

#55. 바다 안(낮)

헤엄쳐 내려가는 수희.

수희(E) 지상의 소음은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잠시나마… 자유롭다.

수희 모가 “수희야…” 하며 우는 소리, 희미하게 들린다.

수희(E) 엄마?!

#56. 낚골당(낮)

수희 모가 안치단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다.

수희 (다가가 앉으며) 엄마! 왜 울어!! 엄마!! (하며, 어깨 잡으려는데
 잡히지 않고 통과해버리는) 어?!
야근요정(E) 안녕. 또 보네.
수희 (보면, 옆에 야근요정 와 서 있는) 너 뭐야! 여긴 또 어떻게 왔어!
야근요정 어떻게 오긴. (자기 봉안함 가리키며) 여긴 내 구역이거든?
수희 (봉안함 보면, 옆에 야근요정 사진 있는) 너…! 죽었어?!
야근요정 (끄덕)
수희 그게 무슨… 너 진짜 요정이었어?!
야근요정 아니. 난 그냥 애지, 요정은 무슨 요정이야.
수희 야, 애 봐라.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드네!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온 내 과거 어찌고 하더니…
야근요정 그런 상상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 너도 만들어낸 거고.
 어른이 되고 싶었어. 병이 그걸 못하게 막으면, 내가
 만들어내서라도. 너는 나에게 오지 않을 나의 미래야.
수희 …(야근요정 뚫어지게 보다가) 말도 안 돼.
야근요정 (어깨 으쓱해 보이는)
수희 아니, 그럼 좀 행복한 나를 만들지 그랬어.
야근요정 내가 널 구해주고 싶었어. 현실에선 아무도 널 구해주지 못하니깐.
수희 (심각한 얼굴로 보는데)
야근요정 (우는 엄마 걱정스레 보는)
수희 너…
야근요정 (보는데)
수희 물고기 방귀 끼는 소리 들어봤어?
야근요정 아니?
수희 그럼 한번 상상해봐. 내가 들어보게.
야근요정 음… 뿌룩? 뽀룩? 근데 물고기도 방귀를 끼나?
수희 (벽 쪽으로 걸어가며) 믿으면 사무실에도 요정이 있다며?
야근요정 (같이 걸으며 웃는) 하하.

그렇게 벽으로 걸어 들어가 사라지는 돌.
수희 모, 울다가 문득 야근요정의 웃는 소리 들려 고개를 든다.

수희 모 수희야. 거기선... 안 아프지? 응? 웃고 있는 거지?

#57. 바다 안(낮)

수희와 야근요정이 함께 헤엄치고 있다.

야근요정(E) 엄마. 나, 바다로 가서 나비가 될 거야. 거기서 헤엄치듯 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난 괜찮으니까.

끝.

작가 후기
(귀피를 흘리는 여자 — 백인아)

먼저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오픈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에는 돈이나,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스트레스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귀피를 흘리고 계실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작품을 수정하면서 사람마다 같은 글을 보고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드라마 스테이지 제작에 힘써주고 계신 이승훈 감독님과 제작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별에도 인수인계가 되나요 — 박정민

작의

삶은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들의 연속이다.
가령 탄생이나 입학, 졸업은 예정된 시간이 있지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이별이나 죽음은 불현듯 다가온다.
6주년 기념일 여행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별이다.
그녀와의 행복한 추억 하나 꿈꿔왔는데, 이별이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떻게든 돌려놓으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
이 드라마를 통해 이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한지.
순순히 받아들일지, 끝끝내 부정하다 결국 삶의 한 과정으로 인정할지.
체대로 하는 이별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싶었다.

등장인물

이강구(28세, 남) 만화방 알바생

미대를 졸업하고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은 없지만,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면서 나름 이만하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6년 사귀던 혜수가 헤어지자고 하필 기념일 여행지에서 말하기 전까지는,
이건 꿈이라고 믿고 싶다. 차가운 그녀를 보면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데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거고,
그나마 남은 자존심에 무릎 꿇고 매달릴 수도 없고,
인수인계를 해주면 헤어져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다.

박혜수(28세, 여) 회사원. 강구 전 여친

강구는 착하고 헌신적이다. 그래서 좋았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연애 상대로 강구만 한 남자가 없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지 않던가.
집에서도 선보라고 압박 들어오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 강구는 내 현실이 아니다.
강구가 상처 덜 받게 헤어지고 싶은데,
뜬금없이 인수인계를 해주면 헤어져준다나.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다.

윤재원(28세, 여) 만화방 사장. 강구 친구

최강의 귀차니즘을 장착한 모태솔로. 돈 버는 일 말고는 다 귀찮다.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인 강구 말고는 친구도 없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더더군다나 못할 짓인데,

강구의 간절한 부탁에 가짜 애인 노릇을 해준다.

줄거리

6주년 기념 여행지에서 뜬금없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단호했고, 이유조차 말하지 않았다.

왜 그러는지 알아야 납득이라도 할 텐데. 이제 만나기도 쉽지 않다.

난 그대로인데, 왜 그녀는 변했을까? 남자가 생겼나?

급기야 혜수의 회사 책상을 뒤지다 딱 걸렸다.

자신이 얼마나 곤란할지 몰라서 이러냐며 화를 냈고,

회사를 안 다녀와서 그렇다며 무시했다.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서 그럼 인수인계를 하면 이별해주겠노라 말했다.

3일 동안 혜수를 붙잡을 시간을 벌었다.

이 사기극에 동참시킬 여자만 구한다면...

근데, 아는 여자가 없다. 아, 이십 년 지기 재원이가 있지.

나의 간절함에 죽어도 싫다던 놈이 해준단다.

이제 질투 작전을 시작하련다. 정말 반응이 온다.

곧 있으면 혜수가 돌아오는 것도 시간문제다.

완벽할 줄 알았던 사기극에 혜수의 의심이 깊어지고, 결국 들통나고 만다.

더군다나 재원의 정체까지 밝혀져, 혜수는 폭발하고 만다.

혜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강구의 간절함이 통할 수 있을까?

이별에도 인수인계가 되나요

박정민

#1. 프롤로그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는 만화 속 세상.

일러스트 한 컷씩 차례로 보인다.

벚꽃이 흩날리다 못해 꽃비가 되어 내린다.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초조한 듯 시계 보며

애타게 기다리는 17세 소녀.

뒤로 장미 한 송이를 감추고 수줍게 다가오는 17세 소년.

소년은 소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후,

돌아보자 무릎 꿇고 장미 내민다.

장미 받아든 소녀의 얼굴이 발그레해진다.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말풍선 보이고,

좋아서 폴짝폴짝 뛰는 소년.

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하며 시간의 흐름처럼

빠르게 넘겨지는 책장.

#2. 만화 속. 짚라인 출발선(낮)

아찔한 계곡이 보이는 짚라인 출발선.

출발선에 대기 중인 청년과 여인.

2인용이라 여인이 청년에게 안긴 자세이다.

‘쓰리! 투! 원! 점프!’ 말풍선이 보이고,

만화 속 캐릭터가 실사로 변하기 시작한다.

청년은 강구로, 여인은 혜수로.

#3. 현실. 짚라인 출발선(낮)

만화 속 풍경처럼 공포스러운 높이의 짚라인 출발선.

직원(E) 쓰리! 투! 원! 점프!

직원의 구령에 반박할 틈도 없이 힘없이
툭 떨어지는 강구와 혜수.
“아악” 외마디 비명 후 강구 앞에 안긴 혜수가 크게 소리치고,

혜수 이강구!

강구 어?

혜수 헤어…지자!

강구 (못 듣고) 뭐? 뭐라고?

혜수 우리 끝내. 헤어져!

강구 ?

얼떨떨한 강구와 담담한 혜수는 도착점을 향해 계속 내려간다.

#4. 만화방 안(밤)

짚라인 떨어지는 컷을 습작 노트에 그리던 강구.

직원(E) 야! 일할 땐 일만 하지 그래?

노트 서둘러 덮고 방석 아래 숨기는 강구.

직원 나도 땅 파서 알바비 주는 거 아니라고,

강구 (치사스럽고) 방금 쓰레기 비우던 참이다. 간다. 가.

강구 가고, 자연스럽게 방석 아래 노트를 꺼내 보는 직원.

직원 숨기려면 잘 숨기든가. 이건 뭐 내놓고 보라는 거지.

획획 넘기다 눈 커지는 직원. 강구 와서 뺏고,

강구 사장이면 맘대로 봐도 되냐?

직원 어. 친구가 사장이면 돼. 헤어지재? 왜?

강구 (앉으며) 몰라. 그냥 헤어지재.

냉장고에서 맥주 꺼내온 직원. 강구에게 주고,

직원 그냥이 어딴냐? 6주년 여행 가서 찌따 짓 했겠지.

강구 (맥주 원샷) 더 독한 술 없냐?

직원 (수첩 꺼내 적고) 이천오백 원. 알바비서 까고.

강구 이 상황에서 계산 먼저냐? 불알친구라는 자식이. 치사하게.

직원 우정이 밥 먹여주냐? 무조건 미안하다고 빌어.

강구 그게 느낌이 싸한 게. 올 때 따로 왔어. 뭘 잘못했냐? 아닌데…

여행을 역순으로 되돌아보는 강구.

#5. 회상. 몽타주. 6주년 여행

- 짚라인장 대기실. 혜수를 열심히 카메라에 담은 강구.
웃는 모습이 어색한 혜수.

강구(E) 사진 예쁘게 못 찍어서?

- 허름한 여행지 식당.
맛있게 먹는 강구와 달리 깨작거리는 혜수.

강구(E) 맛이 없었나?

- 고속버스 안. 여행 갈 생각에 들뜬 강구. 삶은 계란 까주는데

고개 돌리는 혜수.

혜수 도착하면 깨워.
강구(E) 렌트 안 해서?

#6. 현재. 만화방 안(밤)

자책하는 강구 머리를 가볍게 치는 재원.

재원 바보냐?
강구 (머리 만지며 흘겨보고) ...
재원 딴 남자가 생긴 거네.
강구 (못 믿겠고) 에이... 우리 혜수가 그럴 리가...

#7. 길가(밤)

미처 주지 못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혜수에게 전화하는 강구.
받지 않는 전화. 혜수의 SNS를 보는 강구.
업데이트가 안 된 SNS.

강구 (한숨) 그냥 화나서 그러는 거겠지. 여기도 별거 없네.

다시 걸어보는 전화. 여전히 받지 않는 혜수.
가슴이 답답한 강구.

#8. 혜수 집 앞(밤)

집 앞에서 서성이는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입은
추레한 모습의 강구.
혜수 방 불이 켜 있고,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는 혜수.
초인종 누르려다 시계 보면 새벽 1시.
한숨 쉬며 망설이고, 카톡 보내는 강구. “집 앞이야. 나와.”

없어지지 않는 1. “초인종 누른다. 부모님 깨셔도 난 몰라.”
역시 없어지지 않는 1. 혜수 방 불이 꺼진다. 약이 오른 강구.
근처 돌멩이를 주워 혜수 방 창문 향해 던지지만
나무에 맞아 떨어지고,
다시 시도하지만 불발. 결심한 듯 초인종을 누른다.
“누구세요?” 혜수 아버지 목소리에 숨는 강구.

#9. 혜수 집 앞(낮)

대문 앞에 한숨도 못 잤는지 까칠한 수염으로 기다리는 강구.
출근하는 혜수 나오고, 강구 졸다 정신 번뜩 들고.

강구 전화는 왜 안 받아? 카톡은?
혜수 ... (핸드폰 보면 부재중 전화 55통 찍혀 있고)
강구 얘기 좀 해. 응?

가려는 혜수 팔을 살짝 잡는데, 뿌리치는 냉정한 표정의 혜수.

혜수 나 늦었어. 안 보여?
강구 좀 늦으면 어때.
혜수 어때? 회사를 다녀봤어야 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혜수를 따라가다
스텝이 꼬여 넘어진 강구.
쫓아가지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10. 놀이터(낮)

절뚝거리며 걸어와 주저앉고
괜한 놀이터 흙을 만지작거리는 강구.

강구 나쁜 년. 내가 한숨도 못 자고, 지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린이 그깟 일 분도 안 돼?
 강구 거지다. 엄마! 아저씨 거지가 여기서 흠장난한대요.
 어린이 뭐? 거지? 이 꼬맹이가!
 강구 거지를 거지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요?
 강구 이게!

강구 강구 피해 손살같이 달아난 어린이. 강구 자기 모습 훑어보고.

강구 꼬마 눈에도 그런데 혜수는 오죽했겠어. 오늘은 날이 아니다.

#11. 혜수 사무실 안(낮)

모니터를 멍하니 보는 혜수.

여동료(E) 선본 건 어땠어?
 혜수 아. 그럭저럭이요.
 여동료 삼송 다닌다고? 스펙은 괜찮네.
 혜수 네. 뭐.
 여동료 저녁 뭐 사주디?
 요즘은 맘에 들면 스테이크고, 아니면 스파게티라면서?
 혜수 (생각에 잠기고)

맞선남(E) 혜수 씨. 티본스테이크 어때요?

#12. 회상. 레스토랑 안(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메뉴판 보며 눈이 커지는 혜수.

혜수 이거요? 가격이...
 맞선남 등심, 안심 다 있어서 괜찮아요. 먹어봤어요?
 혜수 아뇨.
 맞선남 (미소) 혜수 씨랑 앞으로 할 게 많을 거 같은데요.

혜수 (어색) 네...

#13. 회상. 다른 레스토랑 앞(밤)

문 앞에서 실랑이하는 강구와 혜수.

혜수 스파게티 먹고 싶다고.
 돌아서 지갑 열어보는 강구. 천 원짜리 몇 장에 난감해하고,
 강구 답에.
 혜수 오늘 먹고 싶은데. 특별한 날이잖아.
 강구 매일이 특별한데. 뭐 오늘만 날이냐? (혜수 잡아끌고)
 혜수 (아쉬워 돌아보고)
 강구 내가 해줄게. 스파게티. 응? 집에 가자.

불만에 가득 찬 혜수의 표정.

#14. 현재. 혜수 사무실 안(낮)

웃는 얼굴의 사진 속 혜수. 강구와 다정히 찍은 사진이 든 액자를 집어 쓰레기통에 넣으려는데,

배달원(E) 박혜수 씨? 꽃 배달 왔습니다.
 혜수 (얼굴에 액자 서랍에 넣고) 네? 전데요.

장미 한 송이를 건네주고 가는 배달원.
 메모 보고 벌떡 일어서는 혜수.

#15. 혜수 회사 앞(낮)

이번엔 말끔히 차려입고 기다리는 강구.

혜수 다짜고짜 꽃 내밀고,

혜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강구 쪽지 안 봤어?
혜수 봤어.
강구 그만 좀 풀어라. 카톡도 차단하고, 너 좀 심한 거 아니냐?
혜수 심해? 내가 지금 화나서 그러는 거 같아?
강구 아니야? 거기 썼듯이 내가 다 미안해.
혜수 어휴. 우리 헤어진 거야. 다시 말해줘?
강구 우리가 왜 헤어져? 니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는 거야?
혜수 그래. 한쪽이 끝내면 끝나는 게 이별이야. 우린 이별한 거라고.
강구 그런 게 어딴냐? 혜수야. 우리 그동안 별문제 없이 잘 지냈잖아.
혜수 문제없이?
강구 그래. 난 니가 갑자기 이르는 게...
혜수 갑자기?
강구 여행이 좀 맘에 안 들었나 본데. 그만 화 풀고.
혜수 화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 보내도 소용없다고.
강구 자꾸 불쑥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혜수 스토커? (기막히고) 너 나한테 왜 이래?
강구 넌 나한테 왜 이르는데?
혜수 그거야...
강구 이제 그만하자. 진심이야.

꽃을 거칠게 주고 돌아서는 혜수. 뒷모습에 소리치는 강구.

강구 난 아니야. 박혜수! 너랑 절대 못 헤어져!

#16. 포장마차 안(밤)

빈 소주병이 여러 병 보이고,
이미 취한 강구 옆에 와서 앉는 재원.

재원 야! 이게 다 몇 병이냐?
강구 왔냐?
재원 오라며.
강구 헤어지재. 진짜로.
재원 (안주 집어먹으며) 그럼 가짜로 헤어지냐?
강구 아 쯤.
재원 있어. 6년 헌신해도 배신하는 그딴 여자.
강구 그치. 내가 바람을 폈냐? 욕을 했냐? 때리기를 했냐?
재원 그건 남들도 다 안 하는 거고. 그냥 있어! 있어달라잖아.
강구 어떻게 있어. 혜수는 내 전부인데...
재원 야. 버스와 여자의 공통점이 뭐 줄 아냐?
강구 ?
재원 일! 떠나면 잡는 게 아니다. 이! 시간 되면 새로 온다.
강구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고. 평생 한 여자만 어떻게 만나냐?
재원 췌. 모쪼 주제에. 할 소리는 아닌데?
강구 짜질한 널 보니 차라리 모쪼이 낫다. (주인 보며) 여기 얼마예요?

일어나서 계산하는 재원. 자리로 돌아와 앉고,
수첩 꺼내 적는다.

재원 술값 3만 5천 원. 알바비서 까면. 잔액이...
강구 야. 넌 친구가 실연하게 생겼는데. 잔인한 자식.
재원 빨리 있어. 너 이리다 이번 달 마이너스 찍겠는데?
강구 왜 헤어지자는 걸까? 왜?

옆 테이블에 헤어지자며 싸우는 커플.
강구 그쪽으로 휘청거리며 걸어가고,

강구 왜! 왜! 도대체 헤어지자는 겁니까?
남자, 여자 (병찜 표정) 뭐야... 상관 마요.
강구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어이없는 커플들, 재원 와서 말리고 사과한다.

재원 죄송합니다. 술이 문제네요.
(강구에게) 개아들이 친구하자고 왔다. 가자.
강구 아니야. 헤어져. 다 헤어져. (소리 높여) 솔로천국. 커플지옥!

재원에게 끌려나가는 강구. “박혜수”를 계속 부르는 강구.

#17. 교차. 강구 방+만화 속 캐릭터(밤)

힘없이 들어온 강구 침대에 그대로 엎드려 쓰러지고,
침대 위 습작 노트가 강구 손에 맞아 툭 떨어지고
제법 앞쪽이 펼쳐지는데, 동대문 밤 시장에서
원단 옮기는 알바 하는 강구 캐릭터가 나타난다.
가득 실은 원단 지계를 땀 흘리며 힘겹게 나르는 강구 캐릭터.
두둑한 알바비 봉투를 받고 지폐 꺼내 보면서 기뻐한다.
명품 브랜드 가방 고르고, 사은품 봉제인형 키링까지
야무지게 챙겨 소중히 쇼핑백을 안고 나온다.
선물 건네는 여성 손이 실사로 바뀌고,

#18. 회상. 카페 안(낮)

혜수 (명품 지갑 내밀며) 자, 우리 5주년 선물.
강구 좋네.
혜수 (기대에 찬 표정으로 내 낀) ?

주머니에서 꾸밈 꺼내면 봉제인형 키링이 나오고,
실망한 표정의 혜수.

혜수 ? (더 없나 기대)
강구 내년엔 더 좋은 거 해줄게.
혜수 나 속 안 좋아. 먼저 들어갈래. (일어서 나가고)

표정 안 좋은 혜수를 잡으려는데 핸드폰 오는 강구.

강구 (받고) 네. 빨간 오토바이 맞아요. 형사님. 그 자식이 채갔다니깐요.

#19. 현재. 교차. 강구 방+만화 속 캐릭터(밤)

카톡 소리에 깰 강구. 강구에게 들키지 않게 노트로 들어가는
강구 캐릭터. 재원의 카톡을 확인하는 강구.

재원(E) 주머니 숙취약. 5천 원이다. 술 마셨다고 널 늦지 마!
강구 알았다! 어쩔 이렇게 한결같나.

머리가 아픈지 숙취약 마시고,
책상에 앉아 스탠드 하나에 의지한 채
혜수와 다정하게 찍은 핸드폰 사진 보는 강구.

강구 이랬는데... 왜?

혜수 SNS를 보는데 새로 올라온 사진.
사무실에서 찍은 밝은 표정의 셀카.
사진 확대하며 놀라는 강구.
혜수 뒷배경으로 보이는 탁상용 다이어리.
××글씨가 가리고 희미하지만
'(××)씨 보나뻐띠 레스토랑 7시' 옆에 보이는
빨간색 하트 모양.

강구 (놀라며) 이걸... 하트? (벌떡 일어나고)

#20. 혜수 집 앞(낮)

선글라스와 모자, 마스크로 위장한 강구.
출근하는 혜수 뒤를 몰래 밟는다.

#21. 도로 전경(낮)

페이지 좁은 할머니의 손수레 끈이 풀려 페이지가 바닥에 쏟아지고, 차마 못 본 척할 수 없는 강구는 페이지를 수레에 올려드린다. 점점 멀어지는 혜수와 안타깝게 보는 강구. 뒤늦게 뛰어가지만 신호등에 딱 걸린다. 혜수가 버스에 올라타고,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초조하게 보는 강구. 승객도 많고, 버스가 밀려 출발이 지연된 버스. 야속하게 혜수가 탄 버스가 출발하고, 때마침 신호가 바뀌어 멈춰 선다. 전속력으로 달려 버스 문을 두드려 올라타는 강구.

#22. 버스 안(낮)

혜수는 강구가 탄 것을 모르고 자리에 앉아 깜박 졸고 있다. 강구는 좀 떨어져 원망스럽게 바라본다. 카톡이 와서 잠에서 깬 혜수. 얼굴에 미소를 띠며 채팅한다. 강구는 어떻게든 보고 싶지만 안 보이고, “다음 역은 광화문역” 방송 나오는데, 채팅하느라 일어날 생각 없는 혜수. 버스 문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자, 강구는 혜수 뒤통수에 대고 외친다.

강구(E) (목소리 변조) 광화문. 광화문!

혜수 겨우 버스에서 내리고, 강구도 따라 내린다.

#23. 혜수 회사 앞(낮)

정문이 잘 보이는 곳에 걸터앉아 통화 중인 강구.

재원(F) 늦지 말랬지? 가게 자꾸 비울래?

강구 좀 봐주라. 내가 미치겠어서 그래.

재원(F) 그래서, 아침부터 따라다녀서 뭘 알아냈는데?

강구 아직...

재원(F) 잘하는 것이다.

강구 남자가 맞는 거 같아. 인별에 하트가...

재원(F) 남자 맞으면 어찌려고?

강구 음... 죽빵을?

재원(F) 헐. 완전 짜질하다.

강구 처절한 응징?

재원(F) 이별이 그 별이 아닐 텐데. 별 달고 싶냐?

강구 취소 취소. 그냥 나보다 괜찮은 놈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재원(F) 그거 니가 알아서 뭐해?

강구 야. 지금 나온다. 끊어!

전화 끊고, 점심 먹으러 동료들과 나온 혜수를 숨어서 보는 강구. 혜수는 동료들과 잡담하며 즐거워 보이고.

#24. 혜수 회사 앞 다른 길(낮)

혜수를 따라가려다 뛰어가는 사람과 제대로 부딪힌 강구.

강구 어이쿠. 괜찮으세요?

행인 괜찮습니다만 그쪽도 괜찮으면 갈 길 가지죠.

강구 그러죠.

뭐가 급한지 택시를 잡아타고 가버린 행인. 일어서 몸 추스른 강구. 옆에 떨어진 사원증을 줍지만, 이미 사라진 행인. 사원증 뒤에 ‘습득하신 분은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세요’ 보이고.

#25. 혜수 회사 안 로비(낮)

안내데스크 찾아 두리번거리는 강구. 어젯밤 인별에서 본 하트가 생각나고, 뒤에 흘린 듯 주운 사원증으로 게이트 통과해 엘리베이터 앞에 선다.

#26. 혜수 사무실 안(낮)

점심 먹으러 나가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
강구, 혜수 이름포 보고 성큼 걸음을 옮긴다.

#27. 혜수 회사 앞(낮)

정문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가는 혜수.

#28. 혜수 사무실 안(낮)

탁상 다이어리 찾는 강구. 다이어리는 안 보이고,
혜수 지갑 발견한다.

강구 밥 먹으러 가면서 지갑도 안 챙기고. 이러니 내가 맘이 안 놓이지.
(지갑 들어보며) 침 만났을 때도 이거였는데. 많이 낡았다.

혜수 (지갑 낚아채며) 이강구! 너 여기서 뭐 하는데?

강구 (놀라) 아... 그제...

혜수 나와! 얼른! 나와!

강구 니가 하도 생까서 외됐다. 오면 볼 수 있을까 하고.

혜수 나와서 얘기해.

강구 이 정도는 해야 상대를 해주네. 안 그래?

혜수 (큰 소리로) 야! 당장 나오라니까!

혜수에게 끌려나가다 쓰레기통에 발이 걸린 강구. 쏟아진
쓰레기통. 쓰레기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사진이 든 액자를
주워드는 강구.

강구 너!

경비 거기. 무슨 일이죠?

#29. 경찰서 안(낮)

곤란한 표정의 혜수와 이 상황이 괴로운 강구.

경찰 이강구 씨. 남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셨습니다까?

강구 그제... 사실은...

경찰 사실만 짧게 말합니다!

강구 네.

경찰 절도하셨습니다까?

강구 절도요? 아니요. 오히려 재가 우리 물건을 버렸죠. (혜수 보고)

혜수 형사님. 제가 지갑 놓고 와서 제 부탁으로 대신 가지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 절도는 성립 안 되고, 신원 확실하시고 애인분이 이렇게 선처를
바라시니 일단 훈방합니다.

강구 네.

#30. 경찰서 앞(낮)

액자를 든 강구와 서로 노려보는 혜수.

강구 이 꼴 저 꼴 다 봐서 시원하나?

혜수 하... 챙피해서 이제 회사 어떻게 다녀.

강구 챙피가 먼저지? 이게 너한테는 그렇게 하찮았냐?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릴 만큼?

혜수 너야말로 남의 자리나 뒤통고. 거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강구 왜? 뭐 들키면 안 되는 거라도 있나 보지?

혜수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게 할 일 없어?

강구 그래. 없다!

혜수 휴. 너 내가 얼마나 곤란해진 줄 몰라서 이래?

강구 어. 몰라. 나는 지금. 나만 보여.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이.

꿈이었음 한다고! 그래서 니가 곤란할지 어떨지 관심 없다고!

혜수 너 참 이기적이구나. 자꾸 찾아오고, 무단 침입에, 경찰서까지.

(비아냥) 아무리 회사를 안 다녀봤어도 그렇지.

강구 ...

혜수 이제 그만해. 지친다.

강구 너는 이깟 일로 지치지? 너 내 마음이 어떻게 알기는 해?

혜수 아니. 이제 하나도 안 궁금해.

강구 (화나서 나직이) 나쁜 년.

혜수 그래. 더 욕하든 말든. 맘대로 하고. 이제 회사로 찾아오는 거

그만해. (질겁) 답에는 경찰서로 안 끝날 거야.

회사도 다녔어야 말도 통하지. (고개 절레절레)

강구 난 안 다녀봐서 그렇다 치자. 회사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일방 통보냐? 절차가 있을 거 아냐? 니가 좋아하는 회사는.

혜수 뭐?

강구 나 같은 알바생도 그만둘 때 예의라는 게 있거든.

(비꼬며) 고매하신 직딩이면 더 잘 알겠네.

혜수 ...뭘 어찌라고?

강구 그 뭐냐. 그거 있잖아.

혜수 ?

강구 (생각난 듯) 아, 인수인계해줘! 그럼 깔끔히 헤어져줄게.

혜수 뭘 해?

강구 (크게) 인! 수! 인! 계!

재원(E) 인수인계? (킥킥)

#31. 만화방 안(밤)

습작 노트에 만화를 끄적이는 강구. 컵라면 먹다 뽀은 재원.

강구 응.

재원 또라이냐? 뭘 해?

강구 하도 회사 안 다닌다고 무시를 하니까.

재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뭐래? 싫대지? 아무렴.

강구 해준대.

재원 뭐? 쌍으로 또라이네.

#32. 회상. 혜수 회사 앞(낮)

혜수 그런 억지가 어딴어?

강구 억지 아닌데?

혜수 인수인계는 업무나 물품을 넘겨주는 거지.

뜻이나 알고 그러는 거야?

강구 나 너한테 그동안 최선을 다했어. 생각 안 나?

#33. 회상. 몽타주. 강구와 혜수 연애시절

- 버스 타고 가던 강구. 비가 억수로 내리자, 급히 내려서 우산 사들고 혜수 강의실 앞에서 기다린다.

- 다리 김스한 혜수 업고 제법 긴 학교 계단을 오르고 내려 등하교 시키는 강구.

- 수강신청 위해 밤새 노숙하며 번호표 받아 혜수에게 주는 강구.

- 잠자다 술 취한 혜수 전화에 튀어나가 집에 데려다주는 강구.

#34. 회상. 혜수 회사 앞(낮)

#32에 이어서

강구 공모전 입상도 내가 그려준 거고. 졸작도...

혜수 누가 해달랬어? 지금 와서 생색내는 거야?

강구 이 정도 받을 권리 있다고 생각해. 다시 그렇게 에너지 낭비하기 싫어.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 니가 속성으로 해주면 되겠네.

혜수 너 지금 강짜 부리는 거지? 이런다고 소용없어.

강구 그런 거 아닌데?

혜수 (반신반의) 데려올 여자는 있고?

강구 그럼. 여자도 없이 그려졌어?

혜수 여자라고? 언제 생겼는데?
 강구 날... 오랫동안 짝사랑했대.
 혜수 거짓말...
 강구 아닌데?
 혜수 내일까지 구할 수 있으면 데려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일! 더 이상은 안 돼!

#35. 현재. 만화방 안(밤)

강구 3일만.
 재원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
 강구 야. 내가 아는 여자가 어딴냐?
 재원 웃기지 마.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에 누굴 끌어들이려고.
 강구 제발. (씩씩 빌며) 한 번만.
 재원 (자리 뜨며) 미친놈.
 강구 (따라가며) 재원아. 내 하나뿐인 친구! 의리 빼면 시체.
 재원 절대 싫어!
 강구 진심으로 부탁해. (무릎 꿇고)
 재원 (곤란한) ...
 강구 마지막 같아서 그래. 그래도 안 돌아오면. 정말 포기할게.
 재원 그런다고 안 와. (외면하고)
 강구 그래도 하는 데까진 해봐야... 후회가 없을 거 아냐.
 나 혜수를 안 보고 살... 자신이 없다. (눈물 훔치는 척)
 재원 (짜증 난) 해준다고! 일어나 새끼야. 공짜는 없는 거 알지?

 한숨 쉬며 나가는 재원과 팔을 휘두르며 “아싸” 하는 강구.

#36. 야경이 아름다운 곳(밤)

서울 시내 야경을 구경하는 혜수와 맞선남. 행복한 연인처럼 보인다. 맞선남의 에스코트에 꽤 좋은 자동차에 타려는데 혜수 가방에서 떨어진 낡은 봉제인형 키링.

맞선남 (주워서) 혜수 씨 거죠?
 혜수 (잠시 생각) 아니요.

 봉제인형 키링을 받아 들어서 그대로 툭 버리는 혜수.
 혜수(E) 버려야 채울 수 있어...

#37. 혜수 회사/탕비실(낮)

혜수가 커피 타는데, 여동료가 물 마시러 다가온다.
 여동료 사무실에 전 남친 왔다며?
 혜수 (한숨) 벌써 소문났어요?
 여동료 그렇게 여기까지 들어오고 난리야. 스토커로 신고 안 해? 요즘 뉴스 보면 이별 범죄 심각하던데...
 혜수 그런 애 아니에요. 부탁 들어주면 안 그런다고... (꿇속말하고)
 여동료 뭐? 대박! 해외토픽 감이다!
 혜수 그러게요...
 여동료 진짜 하게?
 혜수 네. 근데 하겠다는 여자가 있겠어요? 괜히 그러는 거겠지.
 여동료 요즘은 뭐 애인대행도 있으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딴어?
 혜수 개... 그럴 돈 없어요.
 여동료 하긴. 미대 수석 입학해도 취직 못 하고 알바한다고 그랬나?

 “김 대리” 부르는 소리에 나가는 여동료.
 혜수 ... 애인대행?

#38. 만화방 안(낮)

쇼핑백을 쓱 내미는 강구.

재원 뭐?
강구 입어. 도움 될 거야.

쇼핑백에서 원피스 꺼내 보는 재원. 소파에 툭 던지고.

재원 미쳤나? 언제 내가 이런 거 입는 거 봤어?
강구 힘들게 빌려온 거다. 뭐 묻히지 말고. 곱게.
재원 꺼져. 안 간다.
강구 다 너 생각해서...

재원이 짜려보자,
눈치보며 옷을 고이 집어 쇼핑백에 다시 넣는 강구.

강구 그래도, 얼굴에 뭐라도 찍어 발라야...
재원 확. (때리는 시늉)

진짜 맞을까 봐 도망가는 강구. 툭 떨어지는 강구 습작 노트.
주위 펼쳐보는 재원. 혜수를 그린 여자가 보이고,

재원 오늘 처음... 보겠네...

#39. 버스 안(낮)

나란히 앉은 강구와 재원.

강구 우리 예행연습이라도?

재원 내리려고 일어서고, 애타게 붙잡는 강구.

강구 아냐. 아냐. 그냥 한 말이다. 뭐.
재원 (앉고) 그렇게 불안하나?
강구 불안하긴. 작전대로 하면 뭐.

재원 까먹었냐? 소싯적, 교회 연극 때 주인공 한 몸이다.
걱정 붙들어 매.

강구 그럼 그럼. 그때 죽었지. 미친 돈키호테. 딱 너였는데.
재원 죽을래? 지금 돈키호테는 너 같은데?

강구 ...

재원 태블릿은 사놓고 왜 안 쓰냐? 왜 구닥다리 노트에 그리는 건데?

강구 ... 다 왔다.

재원 머저리...

일어서는 강구와 재원.

#40. 커피숍 안(낮)

어색하게 마주 앉은 혜수와 재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재빠르게 재원을 스캔하는 혜수. 자신보다 안 예쁘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혜수 정말, 나오실 줄 몰랐네요.
재원 저도. 나오실 줄 몰랐네요!

다시 서먹한 적막이 흐르고, 쟁반에 담은 커피를 가져오는 강구.

강구 일단 커피부터. 이쪽은 내 구 여친 박혜수고,

혜수 기분 별로고, 강구는 혜수 표정 살피며 미소가 피어난다.

강구 그러니까 이쪽은 내 지금 여자친구. 윤재... 재... 은!이야.
재원 (짜려보고) 재은?

강구 (눈짓) 어. 우리 재은아!

넌 단거 좋아하니까 캐러멜마끼아또 마셔. 혜수는 아아.

속 타는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켜는 혜수.

혜수 재은 씨라고 부르면 되죠?
 재원 (떨떠름) 네... 에...
 혜수 사실 안 나올 줄 알고 준비 못 했어요. 뭐 해야 되죠?
 재원 글썽요. (강구 보며) 안 가?
 강구 나?
 재원 어. 너!
 강구 우리 자기. 불편하구나.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잘 하고 있나...

강구 꼬집는 재원. “악” 외마디 비명 지르다가 일어서는 강구.

강구 그럼. 뭘 일 있음 전화해. 자기.
 혜수 (아니꼽게 보고)
 재원 (이 악물고 웅얼) 자기라고 또 해봐.
 강구 알았어. 나 간다.

다시 흐르는 무거운 적막.

#41. 커피숍이 보이는 길(낮)

숨어서 혜수와 재원을 훑쳐보는 강구.

강구 작전대로 잘 해야 할 텐데...
 카톡 소리에 보면 재원이다.

재원(E) 재은이? 내가 언제부터 재은이? 헐!!! 가게로 안 가? 죽을래?
 강구 (놀라 더 숨고) 간다. 가. (돌아서고)

#42. 커피숍 안(낮)

혜수 되게 어색하네요.
 재원 동갑이니 편하게 대해요.

혜수 음. 오래전부터 짝사랑했다고요?
 재원 (어이없지만 참고) 네... 뭘.
 혜수 강구한테 바로 여친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재원 자꾸 질척거릴까 봐 걱정했거든요.
 재원 질척이요? 6년 사귀었는데.
 혜수 한 번에 끊어내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
 재원 ... 음... 이제 뭐 하죠? 이런 인수인계는 해본 적이 없어서.
 혜수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배 안 고파요?
 재원 아. 그래요. 강구가 켈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요.

#43. 떡볶이집 안(낮)

두리번거리는 재원과 매운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혜수.

재원 강구가 이걸 켈 좋아해요?
 혜수 네. 일주일 내내 이거만 먹으러 온 적도 있는걸요. 줘 드세요.
 재원 (표정 굳고) ...

#44. 만화방 안(낮)

밀그림 그린 태블릿을 앞에 두고 바라보는 강구.
 펜을 가져가 보지만 더는 그리기 힘들고,
 굵은 선으로 거칠게 덧칠해 밀그림을 지운다.
 습작 노트 꺼내 손그림을 그리는 강구. 쓱쓱 잘 나가는 만화 컷
 보인다. 카톡 소리에 보면, 예약확인 문자이다.

안내문자(E) 안녕하세요. 이강구 고객님의 예약확인 문자입니다.
 입실 마감 시간은 9시까지니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강구 시계 확인 후, 핸드폰으로 전화 걸고.

#45. 교차. 떡볶이집 안+만화방 안(낮)

다 먹고 빈 그릇만 남은 테이블.

혜수 (혼잣말처럼) 이제 뭐 하지?
재원 인수인계 받았다고 할 테니까 오늘은 이쯤 하죠.
혜수 (기쁜) 그럴까요? 그럼.

재원에게 강구 전화 오고,

재원 (받고) 왜?
강구 좀 더 다정하게. 그러다 뽀록난다.
재원 (조금 부드럽게) 어. 강구야. 왜?
강구 돈 받은 만큼은 해야지. 거기로 와. 두 번째 작전.
재원 어?
강구 뭐냐? 까먹었냐?
재원 (혜수 보며) 그래. 나도 벌써 또 보고 싶네.

강구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화 끊고,
혜수 거북해서 물 마시는데, 전화 끊은 재원 의기양양하게.

재원 가시죠. 같이.
혜수 저도요?
재원 왜요? 같이 보는 거 불편하세요? 끝난 사이 아닌가?
혜수 아뇨. 가요!

#46. 캠핑장(밤)

맥주와 치킨을 준비한 강구. 재원과 혜수가 오고.

재원 여기로 잡았어?
강구 이쪽이 그나마 사람 적어.

재원 캠핑장에서 무슨 치맥? 바비큐지.
강구 저녁 먹었다면서.
혜수 (두리번거리다 앉고) 여기 와봤어, 두 사람?
강구 (아닌 척) 와보긴. TV서 봤지. 먹어.
재원 뭘 먹어.
강구 아. 우리 재은이는 닭고기 안 먹지. 그럴 줄 알고,

피자를 꺼내는 강구. 그런 강구를 흘려보는 혜수.
재원에게 피자 먹여주려는 강구.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알아서 먹는 재원.
친해 보이는 두 사람이 은근 신경 거슬리는 혜수.

혜수 언제 처음 만났어, 두 사람?
강구 (혜수 반응에 기분 좋고) 그거야 어릴 적...
혜수 어릴 적?
강구 (아차 싶고) 어릴 적에 잠깐 옆집에 살았어. 그치? (재원 보고)
재원 (마지못해 호응) 그치.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옆집 살던 코짹짹이가 이렇게 미남이 될지...
강구 코짹짹이?
재원 그래. 너 내가 쫓아다니면서 코 풀어줬는데? 지금은 용 됐지.
강구 이건 인격모독이다. 한판 붙자.
재원 얼씨구.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을 보는 게 거북한 혜수.
추운지 팔을 비비는 재원. 말없이 걸옷을 벗어주는 강구.
혜수는 기분이 점점 이상해져 맥주만 훌쩍이고,

혜수 술 떨어졌는데.
강구 갔다 올게. (일어서고)

혜수(E) 같이 가.

#47. 캠핑장 내 길(밤)

서먹하게 떨어져 걷는 강구와 혜수.

강구 혼자 가도 되는데.
 혜수 화장실 가려고 일어선 거야. 익숙해서 사귀는 거야?
 강구 어?
 혜수 어릴 적부터 알았다면서. 니 스타일은 아닌 거 같아서...
 강구 아...
 혜수 넌 변화를 무서워하잖아. 낯선 곳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강구 내가 언제...
 혜수 익숙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강구 (화제 전환) 음... 여기 코스모스 많다.
 우리 전에 갔던 물의 정원도 코스모스 많았는데.
 혜수 ...
 강구 왜 그때 날벌레가 눈에 들어가서...
 혜수 강구야.
 강구 (멈춰 서고) 어?
 혜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지금 이 꽃은 그때 그 꽃이 아니야.
 강구 ...
 혜수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르는 거 봤니? 우리도 그래.
 강구 그게 적절한 비유냐? 물을 거스르는 게 왜 없어? 연어도 있고.
 혜수 너한테는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추억이겠지만,
 난 결막염 걸려서 고생했던 기억만 나.
 강구 왜 말 안 했어? 그때...
 혜수 지난 일이야.

성큼 걸어가는 혜수. 힘없이 뒤따라 걷는 강구.

#48. 캠핑장 내 다른 길(밤)

가로등도 없어서 핸드폰 불로 땅을 비추는 강구.

혜수 매점 가는 길 맞아?
 강구 글썸...
 혜수 너 일부러?
 강구 나 그렇게 양아치 아냐. 길 잃은 거 같은데.
 어둠 속에 짐승의 눈빛이 보이고,
 으르렁 소리에 청각이 예민해진다.
 핸드폰으로 비춰보니 들개 두어 마리가 노려보고 있고,
 무서워하는 혜수와 긴장한 강구.

혜수 (강구 팔 잡고) 악. 어떻게 좀 해봐.
 강구 (놀랐지만 침착하게) 가만. 움직이면 위험해.

셔츠 벗어 팔에 감는 강구. 서서히 다가오는 들개들.
 이때, 신발 한 짝을 벗어 멀리 던지는 강구.
 신발 따라 뛰는 들개.
 한 마리는 강구에게 달려들고, 셔츠 감은 팔로 막아내는 강구.
 팔 흔들자 패대기쳐진 들개가 도망가고,

혜수 (놀라) 강구야! 괜찮아?

다행히 큰 상처 없고, 걱정스레 강구 팔을 살피는 혜수.

강구 (팔 보며) 혜수야.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혜수 (손 놓고) 뭐?
 강구 다시 전처럼...
 혜수 재은 씨는? 너 웃긴다. 우리 헤어졌어.
 강구 ... 그래...

혜수 저쪽에 팻말.
매점 팻말 쪽으로 달려가는 혜수. 씩씩한 강구.

강구 난 이렇게 아픈데, 재는 정말 괜찮은가 봐.

#49. 캠핑장(밤)

떨어져 오는 강구와 혜수.

재원 술 만들어 오는 줄 알았네.
강구 (일부러) 우리 재은이. 심심했어요?
재원 (징그럽지만 참고) 응. 심심했지요!
혜수 (맥주 따 마시고)
재원 팔은? (강구 팔 살피고)
강구 들개가 갑자기 짝. 난 스크래치고 그놈들은 사망각...
재원 (무시하고) 이거나 먹어. 소독용.

맥주 따서 주는 재원.
가방에서 소독용 밴드 찾아 붙여주고, 흘끔거리는 혜수.

강구 글썸. 그 늑대 같은 놈들이...
재원 (입 막으려 안주 넣어주며) 관리실에 말해야겠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혜수를 의식한 재원이 강구 팔 툭 치고,
그제야 혜수 보는 강구. 여세를 몰아 질투 작전을 강행하고,

강구 참. 혜수야. 우리 사진 좀 찍어줘. 같이 찍은 게 없어서.

순간 정적. 강구가 내민 핸드폰을 억지로 받아드는 혜수.

강구(E) 잘 찍어!

재원의 어깨를 감싸는 강구. 마지못해 이상한 표정 짓는 재원.
서터 누르는 혜수 표정이 어둡고, 찍힌 사진을 확인하는 강구.

강구 (사진 보며) 좀 더 활짝 웃어야지. 다시 찍을까?

다 마신 맥주캔을 거칠게 우그러뜨리는 혜수.

재원 그만 가자.

강구 그럴까?

혜수 일어나면서 일부러 비틀거리고, 놀라 부축하는 강구.
혜수의 술 취한 척하는 여우 짓을 못 본 척하는 재원.

#50. 택시 정류장 앞(밤)

택시가 서고, 재원 먼저 태워 보내려는 강구.
혜수는 강구가 부축한 상태.

강구 도착하면 연락하고. 혜수는 내가 데려다줘야겠어.

재원 아냐. 내가 할게.

실눈 뜨고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는 혜수. 혜수 옆자리에 앉는 재원. 당황한 강구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떠나는 택시.

#51. 도로(밤)

택시에서 내린 재원과 혜수.
취한 척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애매한 혜수.

재원 (대뜸) 강구한테 돌아갈 거예요?

혜수 네?

재원 태도 분명히 해요. 가뜩이나 호구 같은 애 더 빙신 만들지 말고.

혜수 재은 씨가 될 알아요? 강구가 호구였대요?
 재원 인수인계하기로 했으면 그거나 해요! 여우짓 그만하고.
 혜수 저요. (화나서) 맞선 봤어요!
 재원 잘됐네요. 확실하게 선 긋는 것도 남은 사람에게 대한 배려예요.
 술 엄청 약하신데 들어가서 쉬세요.

쌩 가버리는 재원. 분이 안 풀린 혜수 발 동동 구르다 강구한테 전화 걸고,

혜수 (전화 통화) 야! 이강구! 너 내가 호구 잡는다고 했어?
 강구(F) 갑자기 뭐래?
 혜수 너 캠핑장 오늘 처음 아니지? 언제부터 사귀었다고?
 강구(F) 왜 그래?
 혜수 이상하잖아. 니가 나 말고 딴 여자... 됐고.
 거짓말이면 죽을 줄 알아!

거칠게 전화 끊고 멀쩡하게 잘 걸어가는 혜수 뒷모습.

#52. 만화방 안(밤)

만화책 정리하던 재원. 맥주 사들고 오는 강구.

강구 왔냐? 혜수는 내가 데려다줘도 되는데...
 재원 (수첩 꺼내 적고) 택시비 3만 8천 원.
 강구 알았다. 혜수만 돌아온다면.
 그깟 몇 푼... (신나서) 아까 표정 봤어?
 재원 그래.
 강구 역시 질투만큼 고전적이고 확실한 작전은 없어.
 재원 과연. 그럴까?
 강구 뭐? 거의 다 됐어.
 재원 들키면 오히려 남은 정도 다 떨어질걸. 이쯤에서 그만하지?
 강구 아냐. 좀만 더 하면. 나한테 오겠다고 사정 사정을.

재원 그래. 맘껏 상상해라. 상상은 신이 주신 선물이니까.
 흠족한 표정으로 바닥 비질을 하는 강구.

#53. 혜수 회사 앞(낮)

강구 신용카드 내밀면, 똥 씹은 표정으로 받아 차갑게 획 돌아서 가는 혜수.

강구 거의. 다 왔어.

#54. 쇼핑센터 안(낮)

재원에게 옷 여러 벌 대보는 혜수.
 탐탁지 않은 재원은 입어보기를 거부.
 그러자 예쁜 옷을 연속으로 갈아입는 혜수.
 거울 보며 흥겨워 음악에 맞춰
 살짝 흔들기도 하고, 이쁜 척하며 셀카도 찍어본다.
 음악이 끝나고, 다시 재원에게 옷을 대보는 혜수.

재원 (관심 없고) 이쯤하고 그만 가죠.
 혜수 태도 분명히 하는 건데요. 아까 카드 주더라고요.
 강구는 이런 여성스런 옷 좋아해요.
 재원 그럴까요? 그런 옷이 아니라 혜수 씨가 좋았던 거겠죠.
 혜수 ...무튼, 전 부탁받은 걸 하는 거니까. 싫으면 강구한테 말해요.
 (옷 대며) 이것도 강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재원 자신을 속이는 게 사랑인가? 난 이대호가 좋아요.
 혜수 (찬바람) 안 입어볼 거면 그냥 계산할게요. 저기요!

#55. 쇼핑센터/휴식공간(낮)

앉아서 음료수 마시며 잠시 쉬는 혜수와 재원.

재원 왜 헤어졌어요?
 혜수 ...
 재원 그냥 궁금해서요.
 혜수 어디가 좋은데요?
 재원 ...
 혜수 그냥 궁금해서요.
 재원 ... (음료수만 훌쩍)
 혜수 사귀는 동안 제대로 된 선물 한번 못 받았어요.
 뭐, 그때는 서로 학생이고. 형편 뻘하니까...
 근데 카드를 척 주는 걸 보니 재은 씨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재원(E) 나 사주는 거니? 너 때문이지.
 재원 다시 묻죠. 아직 감정... 남았어요?
 혜수 글썩요. 뭐 전 남친과 새 여친을 보는 게 썩 유쾌하진 않네요.
 생각보다... 나야 그렇다 치고. 이거 왜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재원 ...좋아하니깐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것도 하는 거고.
 혜수 좋아하면... 다 그런 건가?
 재원 감정이 이성을 앞설 때 있지 않아요? 혜수씨는?
 혜수 ...
 재원 사랑은 그런 거 아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
 혜수 (남은 음료수 벌컥 마시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요.
 저 아세요? 아니잖아요.
 재원 ...
 혜수 (일어서고) 다음 장소로 가죠.

#56. 미용실 앞(낮)

문 앞에서 실랑이 중인 혜수와 재원.

혜수 예약 다 했던 말이에요.
 재원 머리 안 해요!
 혜수 결제도 다 끝났다고요.

재원 환불해요.

재원을 미용실로 밀어넣는 혜수.

#57. 카페 안(낮)

원피스에 하이힐 신은 재원의 뒷모습이 보이고,
 뒤따라 들어가는 혜수.
 물 마시던 강구 재원 보고 사례들려 꺾꺾거린다.

강구 삼십만 원 문자 오길래 뭐가 했더니. 그 돈 다 어디에 쓴 거냐?
 혜수 왜? 예쁘지 않아?
 재원 (표정 굳고)
 강구 (박장대소하고 싶은 걸 참고) 이...쁘지만... (결국 웃음 터지고)
 웃긴 건 웃긴 거지. 올해 최고로 웃기다. (숨넘어가게 웃고)

지켜보던 혜수 민망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고,
 재원 화가 나 급하게 나가다 발을 접질려 넘어지고,
 하이힐 벗고 맨발로 절뚝이며 가는데 놀란 강구 달려간다.

#58. 카페 밖 길(낮)

강구 다쳤어? 봐봐.
 재원 뇌!
 강구 미안해. 나도 모르게... 니가 그렇게 나타날 줄 모르고.
 이십 년 만에 처음 본 광경인데...
 재원 놓으라고 했다. 갈 거야. 뇌!
 강구 알았어. 데려다줄게. 화 풀어라. 응?
 재원 똥다고!
 강구 때려. 그럼.

머리 내미는 강구. 등짝 때리는 재원.

손에 하이힐 들고, 싫다고 버둥거리는 재원을 업고 걷는 강구.

#59. 카페 안(낮)

업혀서 가는 재원과 강구를 보는 혜수.

혜수 그렇게 웃긴 상황이야? 혹시 가짜? (고개 갸우뚱)

#60. 만화방 안(밤)

재원에게 얼음찜질해주는 강구.

강구 병원 갈 걸 그랬나?

재원 오버는... 됐어! 그렇게 별로냐?

가까이 다가가 재원을 유심히 보는 강구.

좀 부끄러운지 얼굴 피하는 재원.

강구 그리고 보니 너 쌍꺼풀 있네.

재원 뭐야. 이십 년 동안 것도 몰랐냐?

강구 (시선 안 마주치고 찜질 계속하며) 너 이뻐.

재원 뭐야. 이 새끼. 느끼하게.

강구 욕하고 때릴 때만 빼고.

재원 뭐어. (퍽퍽 때리는 소리) 맞아야 헛소리 안 하지!

시간 경과.

습작 노트에 만화 그리고 있는 강구와 소파에

편하게 쉬고 있는 재원.

재원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강구 또 그 얘기가.

재원 싫다는 여자 꿈무니 그만 쫓고, 니 인생을 찾아.

강구 말했잖아. 혜수가 내 인생이라고.

혜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재원 선 소리 말고.

강구 아닌데. 혜수는 내 처음과 끝인데?

재원 (한심) 됐고. 너 하고 싶은 거 없어? 꿈까지는 아니라도.

만화 그것도. 습작만 하면 뭐해? 누가 봐줘야 것도.

강구 혜수만 있음 돼!

재원 혜수! 혜수! 봉신 시끼! 그거 순정도 똥도 아니고 꼴값이다.

미련, 집착이라고.

강구 니가 사랑을 알아?

재원 그러는 년 알아?

강구 그래. 우리 사랑은... 누구보다 특별했어! 우린...

#61. 회상. 몽타주. 강구와 혜수 연애시절

- 부대 앞. 제대하는 강구가 달려와 거수경례하고, '무사귀환. 더 많이 사랑하자' 플래카드를 흔들며 반기는 혜수. 행복한 포옹을 하며 키스하는 두 사람.

- 아름다운 호수 배경으로 혜수의 자화상 그리는 강구. 행복한 두 연인.

- 공원 잔디에 앉아, 보기에 예쁜 도시락을 열어 보이는 혜수. 서로 다정하게 먹여주는 강구와 혜수.

재원(E) 특별하다며. 그게 다야?

#62. 현재. 만화방 안(밤)

강구 특별하잖아?

재원 (심드렁) 남들도 다 그래. 다 그렇게 하는 게 연애야.

강구 아냐.

재원 난 또. 아주 스펙타클한 연애사라도 있는 줄.

강구 항상 혜수가 있었어. 내가 웃을 때도, 울 때도...

#63. 회상. 병실 안(낮)

이제 막 임종하신 어머니 옆에서 망연자실하게 울고 있는 강구.
 헐레벌떡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엉망인 혜수 뛰어 들어와
 옆에 가만히 선다. 부들부들 떨리는 강구 손을 꼭 잡아주는
 혜수. 혜수 보고 더욱 북받치는 강구. 강구 껴안고 더 슬프게
 우는 혜수.

#64. 현재. 만화방 안(밤)

#62에 이어서. 어머니 임종은 혼자만 생각한 강구.

강구 (생각에 깊이 잠겨) ...
 재원 (강구 툭 치고) 그래서? 지금은?
 강구 ... (고개 떨구고)
 재원 그만 인정해. 넌 부정하고 싶겠지. 안 그러면 버틸 수 없을 테니까.

강구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받는 동시에 나가는 강구.

#65. 길가/벤치(밤)

기다리고 있는 혜수. 헐레벌떡 달려온 강구.

강구 (기쁘지만 태연하게) 웬일이야?
 혜수 이 바보 같은 짓을 내일까지 정말 할 거야?
 강구 약속했잖아. 왜 못하겠어?
 혜수 두 사람 사귀는 거 맞아?
 강구 지금 의심해서 확인하러 온 거야?
 혜수 아무래도 이상해서. 갑자기 여친이 생긴 거며.
 강구 (자존심 상하고) 왜? 난 너 말고는 여자도 없을까 봐?
 혜수 없잖아.
 강구 벌써 후회되냐? 나 찬 거?

혜수 됐어. 약속이나 지켜. 내일까지야! 그럼 다신 불일 없는 거야!

성큼성큼 걸어가는 혜수.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서 속상한 강구.

강구 나쁜 년.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66. 혜수 회사 앞(낮)

퇴근하는 혜수를 기다리는 재원.
 사람들 속에 섞여서 나오는 혜수.

혜수 마지막이네요. 오늘.
 재원 네.
 혜수 (가방에서 종이 꺼내주고) 이거요.

종이 받아 찬찬히 보는 재원. 미간이 찌푸러지고,

혜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정리해봤어요.
 생각보다 쓸 게 없더라구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머지는 재은 씨가 채워요. 그럼 됐죠?

재원 (종이 탁 접어 가방에 넣고) 술이나 마셔요.
 혜수 네?
 재원 수고했으니 한잔 살게요.

먼저 걸어가는 재원. 따라가는 혜수.

#67. 술집 안(낮)

소주 한 병씩 놓고 각자 따라 마시는 혜수와 재원.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재원 이제 그만 솔직하면 어때요?

혜수 필요?
 재원 왜 헤어졌어요? 그 정도는 말해줄 수 있지 않나?
 혜수 강구가 알아 오래요?
 재원 내가 궁금해선데…
 혜수 헤어지는 데 굳이 이유가 있나? 사실 한 백 가지는 될걸요?
 재원 그런가?
 혜수 이제 결혼해야죠. 연애와 결혼은 다른 거니까.
 재원 강구가 결혼 상대는 아니다?
 혜수 맞아요! 직장도 없는 강구보다, 결혼은 현실적으로…
 재원 아직 젊잖아요, 우린.
 혜수 지금 결혼할 수 있대요? 내년은요? 언제 할 수 있는대요?
 재원 …
 혜수 불가능한 미래보다, 가능한 현재가 필요해요.
 재은 씨도 다시 생각해요.
 재원 못 들은 걸로 하죠. 강구한테는…

옆 테이블에 있던 청년들이 술잔 들고 와 시비 건다.

청년1 이쁜 누나들. 결혼하기 전에 영계랑 놀아보는 건 어때요?
 청년2 화끈하게. 퐁?
 재원 얘기 중이잖아요. 가세요.
 혜수 (작은 목소리로) 그만 나가요.

갑이 난 혜수 나가려는데 청년1이 팔을 잡고,

청년1 어딜 내빼려고? 같이 좀 마시자니까.
 혜수 아악. 왜 이래요.
 청년2 결혼은 돈 많은 남자랑 할 거면.
 연애는 우리처럼 썩은 남자랑 해야지. 안 그래?
 청년1 이 누나가. 놀아준다니까.
 재원 이 새끼들이. 어디서 술 치먹고. 난장이야?

잉겨서 싸움이 나고, 혜수 구하려던 재원의 셔츠가 찢겨 속옷 보이고, 주인과 종업원이 와서 말린다.

#68. 경찰서 안(밤)

경찰들이 청년1·2를 조사하는 소리 들리고,
 나란히 앉은 혜수와 재원.

청년1(E) 면접도 떨어져 속상한데, 돈 없으면 결혼도 안 한다니까…
 청년2(E) 맞아요. 형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청년들 말에 쓸쓸한 혜수. 조서 작성하는 경찰.

경찰 또 오셨습니다.
 혜수 (멋쩍은) 네. 안녕하세요.
 경찰 그쪽 이름!
 혜수 재은 씨?

재원을 툭 치는 혜수. 머뭇거리며 대답 안 하는 재원.

경찰 빨리 끝내야 집에 갑니다!
 재원 (눈 찢끔 감고) 윤재원!
 혜수 (놀라) 윤재원? 그… 윤재원?

#69. 경찰서 밖(밤)

썩썩이 슬리퍼를 신고 급히 뛰어 들어가는 강구.

#70. 경찰서 안(밤)

혜수 당신이 그림? 강구 불알친구?
 경찰 흠흠… 바른말 씩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들어오는 강구. 강구가 가까이 오자
뺨을 치는 혜수. 강구는 뺨에 손대고 얼떨떨한데,
화가 나 어쩔 줄 모르는 혜수.

경찰 남녀 문제는 밖에서 해결합니다! 다음 주민번호.

다시 앉는 혜수. 재원의 찢어진 옷 발견하고,
겉옷 벗어 감싸는 강구.

#71. 경찰서 밖/한적한 길(밤)

냉랭한 기운의 강구와 혜수. 그저 바라보는 재원.

강구 자, 내가 왜 뺨 맞았는지. 이제 좀 알자.
혜수 윤재원이라며!

강구가 재원을 쳐다보면 시선 피하고,

강구 (놀라지만 애써 침착한 척) 그게 뭐?
혜수 뭐? 내가 6년 동안 말로만 듣던 친구가.
지금 내 앞에 이 사람 맞아?

강구 그게 뭐? 그렇게 뺨 맞을 정도로 잘못된 거야?
혜수 날 기만했잖아.

강구 ...
혜수 지금껏 여자랑 1박 2일로 낚시하고 백패킹에 여행 다녀왔어?

강구 여자는 무슨. 재원이는 친구야. 저스트 프렌드.
혜수 그렇게 떳떳하면 그동안 왜 속였대. 남자라고 믿게 하고.
같이 보자고 해도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

강구 그거야. 니가 남녀 간의 무슨 우정이냐고. 여사친 절대 인정
못 한다고. 여사친 있으면 당장 헤어진다고 난리 난리치니까...

혜수 사귀다며! 그래도 저스트 프렌드야?
강구 사실은...

혜수 거짓말한 거네. 그것도.

강구 아니야.

혜수 아니야? 그럼. 증명해!

강구 ?

재원 ?

혜수 키스해봐! (노려보고)

강구 ...

혜수 거봐. 거짓말,

하면 죽일 거라는 포정의 재원. 잠시 갈등하던 강구.
재원에게 다가가 키스한다. 찰싹! 재원에게 제대로 뺨 맞는
강구. 발을 동동 구르며 아파서 뛰어다니고.

재원 하지 말랬지? 내가. (입술 훔치고, 가버리고)
혜수 이렇게 바닥을 보는구나. 좀 쿨하게는 안 됐어?

찬바람 쐬 휘날리며 재원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혜수.
누구를 쫓아가야 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강구. 결국
주저앉고.

#72. 도로(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강구. 누군가 다가오고,

재원 귀찮게 자꾸 전화질이야?

강구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야.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재원 니 무릎은 왜 그렇게 깃털 같냐?

강구 내가 진짜 미쳤나 봐. 어? 용서해주는 거지? 친구야. 제발...

재원 개자식. 내 첫 키스를 그렇게 날리는 게 말이 되냐?

강구 용서해줄 때까지 이렇게 빌게.

재원 됐어. 일어나. 넌 종신 노예야.

강구 (일어나고) 그럼. 그래도 싸.

종이 꺼내 내미는 재원. 받아서 보는 강구.

재원 그거 주더라. 너의 혜수가.
강구 이거 정말 혜수가?
재원 그래. 거기 있네. 니네가 헤어진 이유.
강구 ...답에 보자.

종이 떨어뜨리고 쓸쓸히 걷는 강구.
종이 주워 강구의 뒷모습 보는 재원.

#73. 한강 다리 밑(밤)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한강 다리 밑에 쓸쓸히 서 있는 강구. 불 피운 흔적이 있는 버려진 드럼통 속에 불붙이고, 습작 노트를 아련하게 펼쳐보다 한 장씩 불꽃 속에 보낸다. #30의 액자 속 사진을 마지막으로 태우는 강구. 환한 빛이 사그라지고 강구도 고개 떨군다.

#74. 한강변(밤)

걷다 보니 한강변까지 온 강구.
강가에 앉아 #72의 종이 내용을 떠올리며 속상한 강구.
옆에는 맥주.

강구 너한테... 난 뭐였나...

맥주 다 마시고, 한강을 따라 걷는데,
어린이가 던진 공이 아슬아슬하게 강 쪽으로 굴러간다.
“으앙. 내 공.”
강구는 아이 울음을 무시하지 못하고 잡으려다 미끄러져 강에 빠진다. 사람들 비명소리 들리고. 수영 못해 허우적거리는 강구.

#75. 혜수 집 앞(밤)

재원이 기다리고, 혜수가 나온다.

혜수 아직 불일 남았어요?
재원 사과는 제대로 해야 할 거 같아서요.
속여서 죄송합니다. (고개 깊이 숙이고)
혜수 됐죠? 그럼 불일 없는 거. (들어가려는데)
재원 잠깐만요. 강구 오랜 친구로서...
혜수 ...
재원 사랑도 처음이지만, 이별도 처음이어서.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놈 미련하지만, 그만큼 혜수 씨 사랑했나 봐요.
강구 마음까지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혜수 저라고 이별이 쉽겠어요?
재원 마지막으로...

혜수가 써줬던 종이를 다시 건네는 재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빨간색 펜으로 반대로 표시되어 있고, 한참 보는 혜수.

재원 강구는... 떡볶이를 제일 싫어해요.
어릴 적 엄마가 장사 끝나고 남은 거 매일 싸오셨대요.

인사하고 돌아서는 재원. 종이 위로 떨어지는 혜수의 눈물.
재원의 핸드폰 울리고, 전화 받고 “네? 병원요?”
놀라 뛰는 재원.

#76. 병원 앞(밤)

흠뻑 젖은 채 병원을 나오는 강구와 뛰어오는 재원.

재원 너?
강구 죽으려던 거 아니다.

재원 이 꼴이 뭐야?
 강구 공 구하다가 이렇게 됐어.
 재원 수영도 못하는 자식이. 뭘 구해?
 강구 그래. 혼자 자빠졌다.
 재원 (눈가 축축) 빙신.
 강구 욕하니까 내 친구 같네. 나 춥고, 배고파.

#77. 포장마차 안(밤)

따뜻한 국수로 몸을 녹이는 강구. 바라보는 재원.

재원 너처럼 하는 게 이별이면 난 사랑 같은 건 안 할란다.
 강구 내가 좀 별나긴 했지?
 감기도 독하게 걸리면 답에는 약하게 걸리고 그런대.
 재원 자꾸 헛소리 할래? (때리는 시늉만)
 강구 (웃으며) 나 국수 좀 먹자.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더 해볼 게 없네...
 재원 ... (소주 마시고 잔 채워 강구에게 내밀고)
 강구 (받아 마시고) 이제, 정말 끝났다...

참았던 눈물 떨어지는데, 재원 기다려주고,
 킁킁 소리 내며 쏟아내는 강구.

#78. 강구 집 앞(밤)

기다리고 있던 혜수. 서서히 다가오는 젖은 강구.

강구 잠깐만. 옷 좀 갈아입고. 놀이터에서 기다릴래?
 혜수 그래.

집에 들어가는 강구.

#79. 놀이터/벤치(밤)

양복 차려입은 강구. 서먹하게 혜수 옆에 떨어져 앉고,
 잠시 어색한 침묵.

혜수 강구야.
 강구 (밝게) 혜수야. 나 먼저.

주머니에서 상자 꺼내 주는 강구.
 혜수 주저하다 열어보면, 목걸이가 보인다.
 혜수 목에 걸어주는 강구.

강구 늦어서 미안해.
 생각해보니 다음에 다음에 하면서, 뭐 하나 사준 게 없더라고.
 혜수 강구야...
 강구 6주년 기념일에 주려고 산 건데, 이별 선물이네. 받아줘.
 혜수 (잠시 침묵) 고마워...
 강구 나는 노력하면... 니가 돌아올 줄 알았어.
 너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
 혜수 미안해.
 강구 사랑이... 어떻게... 변해... 이렇게 쉽게...
 혜수 아니야. 나 때문이야.
 강구 (눈물 꼭 참고)
 혜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변한 거야. 변해서... 미안해...
 강구 ...
 혜수 나한테 다 맞춰준 거. 알게 됐어. 서로 솔직하지 못했나 봐.
 사랑 많이 받아서 행복했어.
 강구 나도 행복했어.
 혜수 고마워. 강구야. 사랑해줘서.
 강구 나도 고마워. 혜수야. 니가 내 첫사랑이어서.

잠시 눈맞춤 하는 강구와 혜수. 강구 일어서고 혜수도 일어난다.

혜수 손 내밀고, 약속한 것처럼 미소로 안녕하는 강구.
열은 미소로 악수하는 두 사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고, 달빛이 따스이 감싸준다.

안녕하듯 손 흔들고, 다시 만화 속으로 사라진다.

끝.

#80. 만화방 안(낮)

태블릿으로 웹툰을 그리는 강구. 다가와 보는 재원.

재원 청소는 하고 그리는 거냐?
강구 지금 막 하려고.
재원 (핸드폰으로 웹툰 보던) 오. 오. 댓글 달렸다.
강구 어디?
재원 니가 단 거 아냐?
강구 진심을 다해 응원 좀 하면 안 될까? 친구?
재원 (크게) 이별에 인수인계라니. 남주가 너무 짜질한데, 작가 실화임?
강구 야! 그만.
재원 (계속 읽고) 작가 경험담인 듯. 리얼해도 너무 핵리얼함.
강구 니가 달았지? 빨리 삭제하라고!
재원 나 아니거든요.

핸드폰 들고 도망가는 재원. 그걸 쫓아가는 강구.

강구 자수하면 살려준다!

#81. 에필로그

만화 속 세상. 태블릿 속. 빗줄기가 폭포처럼 내리는데,
강구 캐릭터 우산 속으로 뛰어든 아름다운 여인이 하는 말.
'우산 같이 쓰실래요?'라는 말풍선.
함박 미소 짓는 강구 캐릭터와 볼이 발그레해진 여인.
우산으로 화면이 가려지고, 태블릿에서 현실로 튀어나온
강구 캐릭터.

노트북에 잠들어 있던 혼자만의 원고가 세상에 나오는 경험은 짜릿하면서도 한편으론
쑥스럽다. 사람들은 어떤 작품을 쓴 누구라고 각인하기 때문에 마치 일기장을 들킨
소녀가 된 기분이 종종 들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쓴 픽션 작품이다.

수정 작업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의 수정을
거친 결과물을 선택한 이유는 캐릭터의 감성에 더 집중한 대본이기 때문이다. 초고가
팔딱거리는 날고기라면 수정고는 간장과 설탕으로 잘 버무린 양념고기라 비유하고
싶다. 이별 후 상황에 집중한 초고에 반해 인물들의 서사와 그들의 사랑이 어땠는지
보여줌으로써 좀 더 풍성한 스토리로 재창조되었다.

필자보다 더 주인공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도움을 주신 CJ ENM 오펜의 김지일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 멘토 이나정 감독님, 임고는 피디님, 오펜 관계자님,
3기 작가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모두 감사하다.

작의

막말, 바람, 잠수, 통보... 최악의 이별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는 것. 사랑에 피해자, 가해자는 없다지만 분명 지켜야 할 예의는 있다. 이별의 순간 무례한 태도는 함께한 시간과 상대를 사랑했던 자신마저 저주하고 싶게 만든다. 이 마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

여기 일방적인 이별 통보 앞, 배신감과 미칠 듯한 분노 끝에 상대에게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어쩌면 연애보다 더 뜨겁고 치열했던 여정 속 그녀의 상처에 딱지가 앉고 새살이 돋는 과정을 통해 이별은 연애의 끝이 아닌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보고자 한다.

등장인물

모해주(29세, 여) 학원 강사

“니가 버린 현신짜으로, 뒤통수 한번 터져볼래? 상큼하게”

6년째 열애 중인 여자. 이 연애의 완성은 결혼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느닷없는 이별 통보에 현실과 미래가 붕 떠버린다. 남은 건 전 남친이 되어버린 기우에게 쓴 지난 영수증들이 가득 찬 커다란 상자 하나뿐.

분노에 차 상자를 정리하던 그녀는 문득 이렇게 홀로 억울해할 필요 없이 그동안 기우에게 쓴 돈을 돌려받기로 결심한다. 준 걸 도로 달라니... 찌질하다 욕해도 상관없다. 마음이 훨씬 더 아프니까. 1년에 천만 원씩, 6천만 원.

반드시 지난 세월 쓴 돈과 시간, 마음에 대한 배신의 값을 징수해야겠다.

이기우(31세, 남) 세무직 공무원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빌린 돈 6만 원이야”

해주에게 익숙하다 못해 무덤덤한 어느 날, 세연을 만나게 되면서 해주에게 이별을 고한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최대한 짧고 쿨하게 이별을 하려 했다. 그런데 얼마간 자신을 원망하고 말 줄로만 알았던 해주가 과거를 정산하자며 1년에 천만 원씩 6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통에 하루 종일 탈세자를 뒤쫓고 난 뒤 전 여친 해주에게 뒤쫓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다.

안정현(32세, 남) 약사

과거, 연인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남자. 우연히 알게 된 해주가 꼭 예전의 자신 같아 마음이 쓰인다. 그렇게 해주의 이별을 지켜보며 자신의 상처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그대로 감당하려 한 스스로에 대한 것임을 깨닫는다.

한세연(33세, 여) 박물관 큐레이터

기우의 현 연인. 정리된 줄로만 알았던 기우의 전 여친 해주가 여전히 기우를 떠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해주를 스토키 취급하는 한편 같은 여자로서 해주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윤은영(29세, 여)

해주의 친구.

박규식(31세, 남)

기우의 친구이자 은영의 남편.

그 외

여학생1, 여학생2, 점원, 지혜, 꼬마 등.

줄거리

사람의 세포는 주기적으로 3개월의 수명을 가진다지만 골수까지 포함하면 6년 주기로 전부 바뀐다고 한다. 기우와 6년째 연애 중인 해주는 지난 몇 년간 취준생이었던 기우와의 데이트 비용은 물론 의식주의 팔 할은 자신이 해결하다시피 했고 현재 기우의 99퍼센트는 자신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드디어 취업에 성공한 기우가 얼마 안 있어 고백한다.

“우리 헤어지자. 나 다른 여자 생겼어.”

느닷없는 이별 통보의 충격으로 멍해져 있던 해주의 머릿속에 헌신의 끝은 헌신짝이니, 쌍팔년도식 사랑도 그러진 않았네 뭐네 했던 주위 사람들의 걱정들이 스쳐 지나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뭐가

흔스러운 거냐며 당당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해주는 말해주고 싶다. 아, 이런 쌍팔!!

지난 6년간 기우에게 주었던 선물이며 온갖 물건의 영수증이 담긴 상자를 버리려던 해주는 그에게 주었던 영수증들을 정리해보는데 완성된 목록을 보고 새삼 기가 막힌다. 기우에게 준 목록은 A4 10장을 넘어가는 데 비해 받은 건 고작 세 줄. 배고파 먹으려 사다놓은 김밥 세 줄만큼이나 초라하다. 해주는 눈물을 삼키는 대신 의리느커녕 배려도 없이 뒤통수치고 간 기우에게 그동안 갖다 바친 물건 값이라도 돌려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팔을 뺐 쌍팔년의 끝을 보여주마.”

불면의 밤 끝에 완성된 청구서를 가운데 두고 기우와 다시 마주 앉은 해주. 정신적 피해까지 6천만 원이라며 상큼하게 웃는 해주에게 당황한 기우는 청구서가 말이 안 된다고 해주에게 지난 세월을 따져 묻기 시작하지만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박하는 해주에게 이길 재간이 없다. 황당한 기우는 해주에게 법대로 하라며 자신이 지불해야 할 돈이 있다면 지난번 빌린 6만 원뿐이라고 선을 긋지만 단단히 각오한 해주 역시 만만치 않다. 옥신각신하던 기우는 결국 해주 앞에서 청구서를 구겨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버린다.

지독하게 외면하는 기우에게 힘이 빠진 해주. 기우에게 차이던 날, 사고로 생긴 이마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덧나기만 한다. 정현의 약국에 들른 해주는 자전거 사고를 인연으로 그간 마주치며 사정을 알게 된 정현에게서 뜻밖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때 TV에 나오는 세금 징수 프로그램에 나와 인터뷰하는 기우를 보게 된다. 해주, 저거다 싶다.

“청구서로 안 되면 차압이다.”

빨간 차압딱지를 만들어 청구서 목록대로 낱짜와 물건 등을 세세하게 메모하기 시작한 해주. 완성된 차압딱지를 들고 기우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신이 준 물건 하나하나에 붙여놓고 더불어 기우가 구겨버린 청구서도 함께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피하면 내가 가만히 물러날 줄 알고?

한편, 기우는 시시때때로 압박해 오는 해주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 때문에 이상하게 변해버린 듯한 해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데… 해주와 다른 세연을 보며 기우는 문득 해주와 연애하면서도 그리고 헤어지기로

결심하면서도 해주가 무엇을 원하는지 단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을 깨닫는다. 그렇게 해주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기우는 집 안의 온갖 물건에 차압딱지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되고, 계다가 세연마저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되어버린다. 기우는 해주와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한다.

드디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이별 정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기우와 해주. 해주는 기우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우를 끌어내 뿌듯한 한편 6천만 원에서 1원도 빼주지 않겠다 단단히 마음먹고 기우를 마주한다. 그런데 기우가 하는 말이 당황스럽다. 해주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본다. 돈? 정말 그거면 돼? 오히려 저자세로 나오는 기우의 태도에 당황한 해주. 도대체 무슨 꿑꿑이지? 해주는 정말로 기우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전부 보상받은 뒤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빨강딱지 박은정

#1. 기우의 아파트(밤)

깜깜한 집 안.

현관문 도어록 해제 소리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이어 센서등이 탁 켜지면 현관에 막 들어선 지친 표정의 기우. 신발 벗고 들어서려는데 어두운 거실 속 현관 센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무언가를 본다. 의아한 표정으로 거실에 발을 딛는 순간 등 뒤로 탁 꺼지는 센서등. 웬지 모를 스산한 기운에 잠시 굳어 있다 보면 열려 있는 베란다 문. 맥이 탁 풀린 기우, 실소와 함께 거실등을 켜는데 그 순간 펼쳐진 집 안 풍경. 온갖 빨간 차압딱지들이 붙어있다. 당황한 기우, 두리번거리다 소파에 붙어 있는 빨간 차압딱지를 떼어보면

인서트.

세로로 긴 빨간 포스트잇에 찍어 있는 손글씨.
'2018. 8. 8./니.집.마련 기념/금액 50만 원'

기가 찬 표정으로 포스트잇을 보는 기우 위로

해주(E) (차갑고 날선 낮은 목소리) 돌려줘.

때마침 불어온 세찬 바람에 필력이든 빨간 차압딱지들. 그중 하나가 바람에 날려 우두커니 서 있는 기우 머리 위를 지나쳐 카메라에 붙는다. 흐린 포커스 서서히 맞춰지면

타이틀. "빨강딱지"

#2. 수제구두가게

원목으로 실내가 꾸며진 10평 정도의 아담한 가게.
문이 열리고 해주 들어서면 맞이하는 점원.

해주 신발 찾으러 왔어요.
점원 성함이… (기억난 듯) 아, 한 달 전에 주문하신 분 맞죠? 아주
꼼꼼하게 주문서 작성하셔서 기억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점원이 카운터 너머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진열장의 하이힐들
구경하는 해주. 카메라 잠시 멀어지면 거울에 비치는 해주의
낡은 신발 보인다. 구두 케이스 가지고 오는 점원.

점원 (케이스 열어 보이며) 어떠세요?
해주 (갈색 남자 구두 보이는, 만족스럽다) 좋네요.
점원 (포장하며) 남자친구분은 좋으시겠어요.
해주 (상상하니 기분 좋아지는)
점원 (짓궂은 농담하듯 미소) 애인한테는 구두 선물하는 거 아닌데…
해주 네?
점원 왜요, 속설. 구두 선물하면 떠나간다는…
해주 (안 믿는, 농담으로 받는다) 아하하. 설마요… (급정색) 동전
받으면 되겠죠?
점원 고객님의 구두는 안 하세요?
해주 (새삼 자신의 낡은 구두 인식되는) 아… 다음에요.

해주, 서둘러 인사하고 나가다 마침 누군가 마주 열고
오는 문에 부딪힌다.

점원 (달려와 해주 살피는) 괜찮으세요?

해주, 괜찮다고 하며 고개 들면 쇼윈도 유리에
비쳐 보이는 모습.

상처 난 이마에서 흐르는 피.

#3. 수제구두가게 밖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 점원이 걱정스레 살피면
이마에 밴드 붙인 해주, 괜찮다고 하며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밖으로 나온다. 때마침 (E) 울리는 핸드폰.
해주, 발신자 확인하면 기우다.

해주 (해맑은) 방금 전화하려고 했는데, 어디야?
기우(E) (O.L) 헤어지자.

바람이 불어 해주의 머리칼이 흩날리면
해주의 이마에 붙여진 밴드 위로 스미는 피 보인다.

#4. 카페 안

넓은 실내, 여기저기 노트북을 보거나 수다 떠는 사람들이 있는
카페 한가운데 기우와 해주 마주 앉아 있다.
냉정한 표정의 기우와 주위의 소음들이 멀게 느껴지는 해주.

해주 (몰랐냐는 듯) …우리 6년이야…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엔
결혼하자며…
기우 (해주 이마 위 상처 뻘히 보다 내뱉는) 맘이 바뀌었어.
해주 (이해 안 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갑자기?
기우 (몰랐냐는 듯) 솔직히 우리 설레는 감정 사라진 지 오래잖아.
해주 (한숨 쉬며 얼굴 감싸고 테이블에 기댄다) …누가?
기우 (단호하게) 우리 여기까지 하자.
해주 (애써 침착하려) 장난하지 마. 오빠 너 딴 여자 생겼니?
기우 (잠시 고민하다) …응.
해주 (믿을 수 없는, 반문) 응?
기우 어.

해주 오빠, 아니, 야. (어이없는, 한숨 뒤에 실소) 하... 하하하.
 기우 (본인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해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기우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

해주, 할 말을 잃고... 해주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믿기지 않는다. 끊어질 것 같은 정신줄 대신 무릎 위에 놓인 수제 구두가게 로고가 박힌 쇼핑백 손잡이 끈을 잡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린 해주의 손.

#5. 포장마차 안(밤)

구석진 곳에서 안주를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아 있는 해주와 은영. 소주 원샷 하는 해주 옆, 구두 케이스가 든 구겨진 쇼핑백이 은영의 눈에 띈다. 해주, 비운 잔을 테이블에 탁 놓으면

은영 (답답한) 내가 뭐랬어, 헌신하다 헌신짝 된다고 했지?
 해주 (듣기 싫은, 포장마차 주인 향해)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은영 (안쓰러운) 야, 고만 마셔. 너 이마 상처 덧나.
 해주 (이마 상처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동안 해준 건 아깝지 않아. 근데 오빠가... 아니, 기우 그 자식이... 예의가 없잖아 예의가.

소주 한 병 테이블로 서빙되면,
 해주, 뚜껑을 따고 소주잔에 따라 거침없이 원샷.
 그러는 해주의 낡은 신발이 눈에 보이는 은영.

은영 (한숨 쉬며) 들이붓는 건 기우한테 한 걸로도 충분하지 않냐?
 (구두 케이스 툇짓하며) 가서 환불하고 니 구두나 새로 사.

은영, 핸드폰 문자음 울려 보면 규식에게서 온 문자.

인서트.

문자내용. '여보 나 오늘 기우랑 술. 늦게 들어가'

#6. 재즈바(밤)

바에서 기우, 친구 규식과 술을 마시고 있다.

규식 (핸드폰 탁 놓으며) 니가 해주한테 그러면 안 되지. 별 받는다, 너.
 기우 (그렇까...그럴 수도... 피식 웃고 마는) ...
 규식 ...사람이 사랑으로만 사냐? 의리라는 것도 있는 거다. 응?
 기우 너는 은영 씨랑 의리로 결혼해서 행복하냐?
 규식 (움찔, 헛기침) 그 너는... 공시 떨어질 때마다 해주랑 헤어진다, 놓아준다 하더니 붙고 나서 헤어지자는 건 뭐냐.
 기우 (O.L) ...세금 징수하러 다니면서 느낀 게 뭘 줄 알아? 난 왜 맨날 숨이 턱에 차도록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제자리일까? 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다 저 뻘뻘한 낫짜들의 몫일까...
 규식 김중배의 다이어가 그렇게도 좋더냐?
 기우 (쓰게 웃으며) 김중배는 누군지 모르겠고, 변하는 사랑보다 변하지 않는 다이어지.
 규식 (할 말을 많지만 안 하는) ...새로 만난다는 그분은... 이쁘냐?
 기우 어.
 규식 (이놈 봐라, 친구지만 뻘뻘하다) 잘살고 이쁜 그녀가 너 어디가 좋다는데?

그때 규식의 핸드폰 문자음 울려 보면 은영의 문자.
 문자 확인하는 규식 위로

은영(E) 술 값 니가 내지 마라.
 규식 (새삼 기우 보며) 하... 천하에 목숨... 부러운 놈.

#7. 거리

번화가의 상점가 거리. 구두 케이스 든 쇼핑백 들고 힘없이

터덜터덜 걷는 해주 위로

여학생1 위로해주듯 여학생2의 어깨 두드리고 있다.

점원(E) 죄송합니다 손님. 맞춤 수제화라 환불, 교환 안 됩니다.

깊게 한숨 쉬는 해주 한 가게 쇼윈도 앞 멈춰 선다. 마네킹에 걸쳐진 온갖 화려한 옷과 가방, 신발. 그리고 거기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 낯고 초라해 보인다.

#8. 학원/강의실

교탁 앞에 멍하니 서 있는 해주. 그 앞으로 5~8명의 중학생 아이들 쪽지시험을 보고 있다.

(E) 속삭이듯 희미한, 여학생1이 해주 부르는 소리 “ 쌤.”
해주, 들리지 않는 듯 여전히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고 두 번 정도 반복되다가 드디어 해주에게 닿는 목소리.

여학생1(E) 쌤.

맨 앞에 앉아 있는 여학생1, 해주를 빤히 보고 있다.

해주 (퍼뜩) 응? 다 풀었어?

여학생1 (짓궂은 표정) 쌤, 무슨 일 있어요?

해주 (꼭 참는다, 억지 미소) 지금 너희들이 신경써야 할 건, 니들 앞에 놓여 있는 시험지란다. 이번 결과 집에 통보할 거니까.

학생들 “ 뭐야 ” “ 싫어 ” 등등 투덜거리며 다시 시험지에 집중하는 모습들.

#9. 학원/복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해주, 지나가다 문득 빈 강의실 창문 너머 보는데 빈 강의실 안에서 여학생2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고,

#10. 학원/빈 강의실

문 열리고 해주 들어오는데 여학생1 위로하던 손을 멈추고 일어나는데 여학생2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흐느낀다.

해주 무슨 일이야?

여학생1 그게요...

해주 (여학생2 가까이 살피며) 왜 울고 있어?
(여학생1 향해) 애 무슨 일 있니?

여학생1 그게... 애 남친이... 다른 여자애 좋다고 헤어지자고 했대요.

해주 (울컥한다) 뭐? 그런 놈이 또 있어?

여학생1 (해주의 흥분에 의아) 네?

해주 (당황) 응...?

여학생2 (엎드린 채 끄끙거리며) 석 달 동안... 용돈 모아서... 개 갖고 싶다고 한 거...

여학생1 준비물도 안 사고, 매점도 안 가고 부모님한테 책 산다고 뺑뺑쳐서 그 돈으로 생일선물 사줬대요.

해주 (울컥) 왜!!! 왜 그랬... (말문 막히는) 을까...

여학생1 웃긴 게요, 헤어지면서 입 짝 닦더라고요.
(우는 여학생2 보며) 야, 가서 달라 그래.

그 말에 여학생2,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는 얼굴.

해주, 여학생2 (동시에) 어떻게 그러냐?

여학생1 (해주와 여학생2 번갈아 보며) 안 주면 고소한다 그래.

해주 (여학생1의 말상 귀엽고 어이없어 피식 웃는데) 하, 참...

여학생2 (원망스레 재려보며) 좋다고 쥐놓고 어떻게 이제 와서 그래?

여학생1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 애 좋다고 하잖아 개도.

여학생1의 말에 울먹이다 다시 엎드려 엉엉 우는 여학생2와

난처한 듯 보는 해주.

#11. 해주의 집/방(밤)

#10의 난처한 듯 보는 해주 표정 이어
시선을 따라가 보면 서른 권 정도 꽂힌 시집과 빈 공간에 놓여
있는 상자. 열어보면 그 안엔 영수증이 한가득이다.

플래시백 #10 (학원/빈 강의실 안)

여학생1 야, 가서 달라 그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 애 좋다고 하잖아 개도.

상자 내팽개치듯 던지면 영수증 눈 내리듯 날리고 그 사이로
해주의 눈에 기우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 보인다. 액자에서
전부 빼내어 찢는 해주. 영수증들 위로 찢어진 사진 조각들
흩어져 떨어져 내린다. 해주 한참 보다 결심한 듯 핸드폰 드는.

#12. 교차. 현실+상상. 카페.

창가 맞은편에 위치한 구석진 자리. 팔짱을 낀 해주가 앉아
있다. 출입문을 노려보고 있는 해주. 그때 문이 열리고 기우가
들어온다. 순간 번뜩이는 해주의 눈.

인서트. 해주의 상상.
해주, 벌떡 일어나 돌려차기로 기우의 얼굴을 날려버린다.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에 부딪혀 쓰러지는 기우. 쓰러진
기우의 목을 지그시 밟는 해주의 반짝반짝 빛나는 새 구두.

해주 (잔인한 미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쓰러져 있는 기우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잠시 보다가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쥐어 잡고 흔들며) 이 나쁜 자식아 !!

현실.
기우, 해주 뻘뻘 보고 있다. 해주, 정신 차리고 앞을 보면 그
위로

기우(E) (무뚝뚝한 목소리로) 뭐해?

기우의 머리카락 대신 자신의 치마를 움켜쥐고 있는 해주. 그
아래로 여전히 낡은 구두 보인다.

시간 경과.
한산한 카페.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다.

해주 (마지막 기회 준다는 심정) 정리하고 와.
기우 (뜻밖이다. 하지만 곧 냉정하게) …나 힘들게 결정했어. (사이)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일어난다.

기우,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는데 해주의 눈에 차례로 비치는
기우의 헤어스타일, 입고 있는 정장, 시계, 가방…

해주 (단호한) 그래. 가. 대신…
기우 (멈칫하고 돌아서면) …?
해주 니가 지금 걸치고 있는 거 다 벗어놓고 가.
기우 뭐?
해주 (분노에 찬)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한 거, 준 거 다 보상하고 가.

#13. 약국(밤)

15평 정도 하는 약국 안.
카운터 너머 진열대에 약상자 정리 마친 정현이
문을 나서며 불을 끈다.

#14. 약국 밖(밤)

2차선 도로 옆 자리한 상가건물 1층 약국. 정현, 셔터를 내리고 돌아서는데 긴 머리로 얼굴 덮은 귀신 서 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정현, 이때 바람에 날리는 머리 쓸어 올리는 귀신, 해주다. 해주의 손에 들려 있는 팩소주.

해주 (술 취한, 꾸벅) 죄송합니다... 술 깨는 약 하나만 주시면...
(정현 보는데 토 올라오는, 턱 하고 입 막으면) ...
정현 (설마 하는) ...
해주 (잠잠해진, 손 내리는) 어... 저... 술 깨는 약...
정현 (곤란) 저기...
해주 (순간 못 참고 정현 쪽으로 토하는) 우웻.

정현, 세상만사 포기한 듯 그대로 눈을 감는다.

#15. 약국(밤)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 숙취해소 음료를 벌컥벌컥 원샷 하는 해주. 안쪽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 정현. 해주 지갑 보더니 한숨 쉰다.

해주 (비틀거리며 일어난다) 내가요, 어떤 나쁜 놈한테... 받을 게 좀 있거든요. 받고 나면... 그때 다아~ 계산할게요.
정현 (해주 이마 상처 보이는) 그렇게 술 마시면 상처 덧나요.
해주 ... 상처에 좋은 약 있어요?
정현 (잠시 해주 보다 약 진열대에서 연고와 항생제 등을 챙기는데) ...
해주 심장에 좋은 걸로 하나 주세요.
정현 (멈추고 돌아보는) 심장이요?
해주 (혀 꼬인) 제가... 최근에 차였... 아니,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 바람에 심장에 상처가 생겼는지 너무 아파요.

정현, 취해서 엉망으로 울먹이는 해주를 보는.

#16. 회상. 주택가 골목(밤, 아침)

안개비 내리는 밤, 가로등 불빛 아래 젖은 채로 어딘가 뚫어지게 올려다보고 있는 대학생 정현 보인다. 한 주택의 2층, 불 켜진 창.

시간 경과.
창의 불이 꺼지고 서서히 주위가 밝아오고 여전히 서 있는 정현 위로 BGM-짙은, <잘 지내자, 우리> 흐르면 이윽고 하이힐 또각거리는 소리 들리고 대문 열리고 말끔한 모습의 지혜 나온다. 그 앞으로 가서 서는 정현. 밤새 지친 모습의 정현과 말끔한 모습의 지혜 대비된다. 지혜, 냉정하게 지나쳐 가는 순간 정현, 지혜의 손목 잡는다. 지나칠 듯 멈춰 선 두 사람의 모습. 서로를 보지 않지만 모습만큼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의 온도 차. 붉게 물든 눈가, 슬픔과 원망의 감정이 묻어나오는 정현의 눈빛과 아무 감정 없는 메마른 지혜의 표정.
정현, 이윽고 손에 힘이 빠진 듯 놓으면 그대로 가던 길 가는 지혜. 정현, 뒤돌아 보면 걸어가는 지혜 끝에 기다리고 있는 남자1. 그 뒤로 고급 승용차가 보이고 정현, 순간 제정신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으려는 듯한 다리를 끌고 지혜와 남자1에게 달려간다.
보조석에 타려는 지혜를 붙잡고 돌려세우는데 지혜 뿌리침과 동시에 남자1에 의해 내동댕이쳐지는 정현. 길가에 넘어진 정현.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출발한 차의 뒤통무니만 보인다.
정현, 흐느끼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듯 표정 일그러져 우는. 잔인할 정도로 쨍한 햇빛 아래 분노를 삼키느라 눈을 꼭 감는 정현.

#17. 약국 밖(밤)

불 꺼지는 약국.
문 열리고 버린 옷가지가 든 쇼핑백 들고나오는 정현, 서터 내리려는데 자신이 챙겨준 약봉투를 들고 저만치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해주 보이고 잠시 자신의 과거 모습(#16)과 겹친다. 정현, 해주에게 동질감이 들며 안쓰럽다.

#18. 기우의 아파트(밤)

15평 정도의 1.5룸.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싱크대를 보면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고 웬만한 살림살이는 다 갖춰져 있어 아기자기한 느낌마저 준다.

세연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곤 주위 둘러보며) 참 의외다.
기우(E) 뭐가?
세연 보기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마신 컵 —귀여운 하트 그려져 있는— 을 들어 보이며 놀리듯) 의외로?
기우 (살짝 당황) 어... 혼자 살다 보니까 살림살이에 취미가 생겨서...
해주(E) 푸하하하. 웃기고 았았네.

#19. 해주의 집/방(밤)

자정 넘은 시각.
모니터에 떠 있는 세연의 SNS 보인다.
기우와 함께 다정하게 커플티를 입고 있는 사진들.

해주 (콧방귀 끼며) 커플티는 죽어도 싫다더니...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로 보이는 해주의 사진폴더.
모니터에 해주와 기우의 다정한 모습이 있다.
잠시 보다 이윽고 삭제하는 해주. 그리고 나타나는 한글파일 창.

청구서란 글자 아래, 차례로 보이는 항목들.
1.의류 및 잡화, 2.식비, 3.가사노동비, 4.데이트 비용,
5.여행 경비, 6.빌려준 돈, 7.정신적 보상금.
결심한 듯 옆에 놓인 영수증 확인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해주.

#20. 해주의 집 앞

낮은 대문 너머로 보이는 단층 주택 전경.
대문 앞에 서 있는 은영. 초인종 누르지만 응답 없다.
답답한 듯 대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위를 들고 서 있는 해주. 은영, 설마 하는 표정으로 보는데 해주, 가위를 들어올린다.

은영 (다급한) 야야야, 안돼애애애!!

해주, 은영 쪽을 보는데 앞머리를 자르려는 듯한 손엔 가위,
다른 한 손엔 머리를 한 움큼 쥐고 있다.

#21. 해주의 집/방

해주의 등짝을 치며 들어오는 은영.

은영 아우, 깜짝 놀랐잖아. 아니, 머리를 자르려면 미용실을 가지 왜.
해주 (거울로 확인한 뒤 은영에게 이쁜 표정 지으며) 괜잖아? 이마 상처 안 보이지?
은영 (할말없음...) 하아... 꺼져 진짜.

은영, 한숨 쉬며 침대에 앉는데 책상 위 차곡차곡 정리된 영수증 보인다.

은영 저건 뭐야?

해주 (의자 끌어다 은영 앞에 앉으며 A4용지 내미는) 이거 봐봐.
 은영 뭘데? (A4용지 내용 보는) 기말고사 족집게 문제?
 해주 뒷면.
 은영 (뒤집어보고 더 의아한) ...청구서?
 해주 (하품하며) 그거 만드느라 며칠 밤을 꼴딱 새웠어.
 은영 (찬찬히 보더니) 한마디로 기우 씨 의식주를 책임졌구나. 쫓쫓...
 해주 (책상 위 영수증 보며) 남들 기념일 사진처럼 저게 나한테는 추억이고 트로피였어. 이렇게 쓰일 줄 몰랐지만.
 은영 (청구서 마지막 부분 보며) 총 보상금액 삼...천?
 해주 결혼 전제로 10년 만났는데 배신 때린 나쁜 놈한테 5천만 원 위자료 물라고 한 판례가 있더라구. 난 6년이니까 5천 곱하기 0.6!
 은영 변호사 만났어?
 해주 (진지하게) 네.티.즌... 니가 보기엔 어때?
 은영 뭐가?
 해주 너 전에 이혼하려고 변호사 자주 만났잖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 같아?
 은영 (씹쓸하게) 글썄. 너랑 기우 썬 하다못해 동거인도 아닌 데다가... 근데 너... 이거 정말 줄 거야?

#22. 카페 안

황당한 표정의 기우와 태연하게 과일주스를 빨대로 마시고 있는 해주. 기우의 손에는 해주가 만든 이별청구서가 들려 있다.

기우 (당황스러운) 이게 뭐야?
 해주 뭘 것 같아?
 기우 (기가 찬) 청구서?
 해주 (끄덕) 6년 동안 내가 오빠 뒷바라지한 거.
 기우 뒷바라지?

기우, 어이없어하며 보는데 해주 앞머리 사이의 이마에 붙인

밴드가 눈에 띄고... 궁금하지만 애써 외면한다.

해주 나 만나고 고시공부 시작하면서 기념일이나 데이트 비용 변변히 한번 챙겨봤어?
 기우 하... 그래서... 우리 만난 시간들을 이렇게 정리하자?
 해주 (O.L) 우리? 나 사랑 아니었다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가 만난 시간이 아니라 나 혼자, 내가...(순간 북받치는) 학원에서 목 쉬도록 강의한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한 시간들이겠지.
 기우 ...해달라고 한 적 없어.
 해주 (어이없다) 주면 받았잖아.
 기우 6년 동안 니가 날 만난 값이라고, 이게? (이별청구서 구겨버리는) 솔직히 너도 나라는 보험 든 것뿐이었잖아.
 해주 (분노가 이는) 말 함부로 하지 마.
 기우 이러지 말자. 숨 막힌다.

구긴 이별청구서 탁자 위에 던지듯 툭 내려놓고 일어서는 기우. 해주, 못 참고 벌떡 일어나 기우의 뺨을 때리려는데 기우, 피하지 않고 빤히 본다. 부들부들 떨리는 해주의 손, 툭 떨어지면 잠시 그 모습 보던 기우,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 나간다. 무너지듯 주저앉는 해주.

#23. 약국 밖(밤)

약국 문 열고 나오는 정현, 썩썩거리며 걷는 해주 발견한다.

해주 (걸어가며 혼잣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정현 (해주 앞에 불쑥 나타나며) 뭐가 잘 안 돼요?
 해주 (누구나 너, 놀라 보면) ...?
 정현 (입고 있는 셔츠 자락 집는) 저번에...
 해주 (생각난) ...아, 맞다. (황급히 지갑 꺼내려는) 드릴게요.
 정현 (서둘러) 아뇨, 괜찮아요.

해주 …?
 정현 것보단 상처는 좀 어때요? 괜찮아요?
 해주 (잠시 보다 힘없이 고개 젓는) …
 정현 잠깐 봐도 돼요? 들어와요.

정현, 약국으로 들어가면 해주, 의아하게 보는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제야 정현이 이마 상처를 말했다는 것을 깨닫는. 민망하다.

#24. 약국 안(밤)

정현, 이마의 밴드를 떼어내고 해주의 상처를 살피고 있다.

정현 (소독약 바르며) 이상하네… 왜 상처가 안 아물지?
 해주 (무심한) 그래요?
 정현 혹시 계속 술 마셨어요? 이러다 흉지겠는데. (밴드 붙이며) 마음 아픈 건 알겠는데… 술은 적당히 마셔요.
 해주 (다정함에 울컥) …그쪽이 뭘 안다고…
 정현 (보면)
 해주 …지난 6년간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것두 딴 여자가 생겼다면서. 지난 6년간 준 거 도로 내놓고 가라고 쫓아다니는 내 자신이 정말 짜치고…
 정현 …내놓으라고 쫓아다니요?
 해주 (씩씩거리며) 알아요. 짜질한 거. 근데 그 자식이 먼저 잘못했거든요? 그쪽은 모르니까 내가 우습겠지만…
 정현 알아요.
 해주 뭘요?
 정현 배신당한 그런 마음 안다구요. 그리고 방금 깨달았어요.
 해주 …?
 정현 아, 그때 나도 그랬어야 하는 거였구나.
 해주 …?
 정현 막 짜질해도 됐었구나.

해주 (O.L) 뭘마?
 정현 (웃으며) 아니, 정말 멋지다구요.
 해주 (고개 돌리며 혼잣말) 웃으면 맥이는 거 모를까 봐?
 정현 (그런 해주가 재밌는) 정말인데.

정현, 소독약품 정리하며 진열대로 가는데 해주, TV 프로에 눈이 박힌다. TV에서 나오는 세금 징수 프로그램에 거짓말처럼 기우가 나와 인터뷰하고 있다.
 해주, 저거다 싶다.

정현 (약 다 정리하고 해주 보는) 근데 그쪽에서 과연 줄까요? 괜히 해주 씨만 더 상처…
 해주 (O.L) 내놓지 않으면… 징수해야죠.

해주의 당당한, 번뜩이는 눈빛.

#25. 세연네 집 앞(밤)

고급 주택가.
 보안 철저해 보이는 대문 앞 세워진 세연의 세단.

기우 (집 전경 보며 농담 반) 와. 기죽는다.
 (세연 백 받아들며) 잘 보여야겠다, 진짜.

세연, 기우 농담에 피식 웃고 마는.
 그때 문 열리며 세연 부 나온다.
 의외로 평범한 동네 아저씨 이미지. 하지만 눈빛이 날카롭다.

기우 (90도로 인사하는) 안녕하십니까.
 세연 부 (끄덕 인사 받는, 세연 향해) 남자친구냐?
 세연 (끄덕끄덕, 그렇지 뭐라는 느낌으로)
 기우 잘 부탁드립니다.

세연 부 (대놓고 기우 스캔, 별 관심 안 가지만 의례적인 다정한 어투)
그래요.

세연 부 지나가면 기우 다시 한 번 인사하는데 묘한 모멸감
든다. 기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런 기우 보며 세연
픽 웃는다.

세연 난 너 그런 게 맘에 들어.

기우 ?

세연 자존심 때문에 당당한 척 안 하는 거. 욕심나는 거 있음 대놓고
무릎 꿇는 거.

기우 짜질하다는 말을 참 멋지게 한다.

세연과 기우 마주 웃는.

#26. 해주의 집/방(밤)

씻고 온 해주, 화장대에 앉아 가방에서 구겨진
이별청구서(#22)를 꺼낸다.

뒤이어 꺼내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빨간 포스트잇.

구겨진 이별청구서 보던 해주, 복수를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청구서에

있는 목록을 보며 펜을 꺼내든다.

그때 울리는 핸드폰. 발신자 보면 은영이다.

해주 어. 왜? ... 뭐? 누구? ... (듣다가 어이없는 듯) 하...

(입술 깨물고는 결심)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은영(F) 뭐? 어찌려구? 설마 찾아가게?

#27. 파스타 가게 안

즐거워 웃으며 점심 먹는 기우와 세연. 그때 기우의 전화

울리고 발신자 확인하는데, 해주다. 기우, 종료버튼 누르고 다시
음식 먹는데

세연 무슨 전화야?

기우 아... 대출광고지 뭐...

#28. 기우의 아파트

부재중 자동응답 연결 소리. (F) 연결이 되지 않아...

소파에 앉아 있는 해주, 핸드폰 종료버튼 누른다.

해주 (사악한 미소, 핸드폰 보며) 집행 전 통보... 니가 안 받은 거다.

해주, 챙겨온 쇼핑백에서 빨간 포스트잇 한 상자와 본드,
네임펜을 꺼낸다.

얼핏 신나 보이는 해주.

그러나 표정과 달리 발걸음을 쉽게 떼지는 못한다.

해주, 고개 돌려 부엌 쪽으로 가면 고급 커피머신이 눈에 띈다.

여기저기 싱크대 서랍장 열어보면 핸드드립 도구 보인다.

해주 (혼잣말) 머신 오니까 구석에 처박혔네...

근데... 커피 맛은 이게 더 좋아.

해주, 빨강딱지 붙이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

마음 다잡으려 부엌에서 나오다 현관 신발장 눈에 띈다.

열어보면 진열되어 있는 기우의 신발들.

해주, 무언가를 적은 빨강딱지 하나씩 붙이고 돌아서면

그 뒤로 보이는 신발 위 연도별로 적힌 빨강딱지들.

거실로 들어선 해주, 티브이 앞 놓인 플레이스테이션 본다.

#29. 회상. 기우의 옛 자취방

6.5평 작은 원룸.
낙심한 기우 누워 있고 문 열리면 쇼핑백 든 해주 들어온다.
기우 돌아보지도 않는다.

해주 오빠.
기우 ...
해주 일어나보지?
기우 가, 그냥.
해주 몇 날 며칠 피씨방에 처박혀 있던 거 꺼내줬더니 이젠 방구석 폐인
하게? 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공시 한두 번 떨어지냐?
기우 (뻥친, 별떡 일어나 해주 돌아보는) 야!! 너 말이면 단 줄 알...

해주, 쇼핑백에서 꺼낸 플레이스테이션 짜잔 하고 들고 있는.

해주 (뿌듯해하는) 공기 안 좋은 피씨방 말고, 스트레스 풀어.
기우 (감동받은) ...야... 너 어떻게...
해주 적금 깎다.
기우 뭐? 안 돼. 몰러.
해주 다음 공시 떨어지면 죽는다.
기우 (해주 마음 씀씀이가 고마운) ...네, 엄마.
해주 (황당) 뭐마?
기우 말 잘 들을게요 마미.
해주 (기우 표정에 푼 터지는) 하지 마.
기우 왜요, 어머니. 효도할게요
해주 (정색) 아, 하지 말라고. 존나 깨.
기우 존...? 조오오온나?

해주와 기우 장난치며 웃는.

#30. 기우의 아파트

#29 (E) 해주와 기우 장난치며 웃는 소리에 오버랩
되는 귀가 터질 듯 신나는 음악. 따라 부르는 해주의 콧노래.
해주, 여기저기 빨강딱지 붙이는 모습.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주 이것도 내가 사준 거, 이것도, 이것도...

#31. 시청 세금징수와 사무실

콧노래 흥얼거리며 자리에 앉아 키보드 두들기며
무언가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 기우.
잠시 옆에 있는 서류들 확인하러 기우가 고개 돌리면
그 사이로 보이는 모니터에 뜬 압류 통지서.
확인 마친 듯 다시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 치는 기우.

#32. 기우의 아파트

어느새 빨간 포스트잇으로 가득 차 보이는 집 안.
해주, 더 붙일 거 없나 보는.

#33. 주택 안

차압딱지 붙이고 있는 기우.
당황하며 말리는 집주인.
기우, 집주인 밀어내고 계속 붙인다.

#34. 기우의 아파트 1층 현관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나오는 해주 보인다.
핸드폰 진동음 울리고 해주, 가방 열면 포스트잇 빈 포장지

가득하다.

해주 (발랄한) 어, 지금 가.

#35. 박물관 앞

해주와 은영, 박물관 계단 앞 멈춰 선다.

은영 (떨떠름한) 박규식 씨 말이... 곧 소개시켜준다고 그랬다더라.

해주 (어이없는, 박물관 노려보며) 한세연... 그 여자 이름을... 니네 남편 통해서 듣게 되네. (문득) 근데 넌... 어떻게 됐어? 차압...

은영 몰라... 어떻게든 한다고 하는데...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어휴... 근데 너 들어가서 막 머리끄덩이 잡는 건 아니지?

해주 (날 뿔로 보냐는 듯 정색) 설마. 그냥, 궁금하니까...

실없이 웃어 보이지만 이윽고 긴장한 듯 손가락 주무르는 해주, 못 믿겠다는 눈초리로 보는 은영.

#36. 박물관 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엉켜 있는 그림 앞. 그림을 설명하는 세연과 애써 그림에 집중하는 척하는 은영, 그림은 안 보고 세연을 빤히 보고 있는 해주.

세연 (그림 보며) 이 그림은 엘리나. 작가의 출세작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별거벗은 채로 남자를 껴안은 이 여자는 작가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문득 해주의 시선 느끼며 의아한 눈으로 마주 보는 세연. 은영, 해주의 옆구리를 쿡 찌른다.

해주 (세연에게 열등감 드는, 싸늘한 표정으로) 알죠, 엘리나... 외국 화가 중 제일 좋아하는 화가예요.

은영 (뜨악하는 표정으로 해주 보면)

세연 네? 아... 음... 엘리나는 당시, 남편이 있음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갈등하고 있었다고 해요. 결국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리운 님에게로 떠나게 됐죠.

해주 (울컥, 비아냥) 한마디로 바람피우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네요.

세연 (난처한) 아... 물론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가 들어 있지만 이 그림의 주제는...

해주 (O.L) 됐어요.

세연 ... 그럼 나머지 그림도 마저 감상하시면서, 좋은 시간 되세요.

세연, 가볍게 목례하고 돌아서서 가면

해주 웃겨 진짜. (그림 보며) 엘리나? 이딴 것도 그림이라고... 제목은 뭐야? 불륜이야?

인서트.

그림 옆 붙어 있는 제목 '엘리나의 자화상 - 김숙자'

은영 (창피하다) ... 한국 작가야...

#37. 기우의 아파트(밤)(#1과 같은)

현관문 비밀번호 해제되는 소리 들리고 기우 들어온다. 불이 탁 켜지고 들어서는 기우, 순간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린다. 집 안 물건들 곳곳에 붙어 있는 붉은 차압딱지들. 자세히 보면 포스트잇이다. 기우, 당황해서 주위 둘러보는데 침대 위 하얀 종이가 보인다. 구겨버렸던 이별청구서가 곱게 펼쳐 놓여 있다.

기우 (기가 찬 듯) 하.

#38. 해주의 집/방(밤)

해주, 침대에 쓰러지듯 몸을 던진다. 이윽고 자신이 한심해 견딜 수 없어 이불에 얼굴 파묻고 다 잊어버리려는 듯 발광한다.

해주 (지친 듯 멈추고 웅얼) 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핸드폰 울려 보면 발신자 기우다. 해주, 올 것이 왔다는 듯 비장한 표정.

#39. 기우의 아파트(밤)

기우와 해주, 마치 결투를 앞둔 것처럼 마주 서 있다.

기우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해주 (당당하게) 왜?

기우, 기가 막힌 듯 이별청구서를 훑어본다. 이별청구서의 내역들 보면, 데이트 비용, 여행비, 가사노동비, 간호비, 리포트 대필비 등이 보인다.

기우 그래. 따져보자. (어이없다는 듯) 데이트 비용이랑 여행비는? 같이 쓴 거 아냐?

해주 (예상 적중) 그거? 총 금액에서 반으로 나눈 거야.

기우 (펜 들어 이별청구서 한 부분 꼭 집어 체크하는, 남 얘기하듯) 법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니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내가 빌린 돈 6만 원이야.

해주 (여러모로 기막힌) 육...만?

기우 (냉정한) 너랑 나랑 채권 채무자 관계가 아닌데 나한테 무슨 변제의 의무가 있어?

해주 (더 이상 느낄 배신감이 있었나 싶은) 너랑 내가... 채권 채무자가 아니면... 뭐였는데? 그리고 자동차 살 때 내가 보텐 500만 원은

왜 빼?

기우 (O.L) 말 그대로 보텐 거잖아. 니 식대로라면, 그래, 택시비 정도가 적당하겠다. 차 산 뒤, 그동안 너 데리러 가고 오고 드라이브, 여행 갔을 때도 내내 내가 운전... 따지면 그 돈은 충분히 나온 것 같은데?

해주 거기에 얼마 전 바꿔준 타이어 값은 안 들어가지?

기우 뭐?

해주 니가 헤어지자고 하기 얼마 전, 그러고 나서 나 한 번도 니 차 안 탔잖아.

해주, 갑자기 현관 쪽으로 가더니 공구함을 찾아내 기우가 말릴 새도 없이 문 열고 나간다. 황급히 뒤따라 나가는 기우.

#40. 주차장(밤)

해주, 기우의 차 앞에 선다.

공구함에서 적당한 걸 찾아 타이어를 빼려고 시도하는데 아차... 방법을 모르겠다.

기우, 해주 찾아 황급히 왔다가 해주가 타이어 앞에서 킁킁대는 모습 보는.

해주 하...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기우 (그만 웃음 터지고 마는)

해주 웃겨 이게 지금?

기우 겨우 웃음 멈추는데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여자의 야한 신음소리에 멈칫.

해주 (울컥해서 건물 위쪽 향해 소리) 인간적으로 창문은 좀 닫고 하자.

창문에서 웬 남자가 고개 내밀어 보는데

해주, 움찔하고 모른 척하면

기우 또 웃고 해주도 어이없어 웃음 터진다.

#41. 회상. 도로 위

멀리 바다 보이는 도로 갖길.
퍼져 있는 차 옆으로 스페어타이어로 바꾸느라 깡깡대는 해주와
기우. 둘 다 찡그리다 서로 닦하며 신경질 부리다 결국 포기한
듯 있다가 웃는. 그 모습이 마치 서로 꿈냥대는 것처럼 보인다.

#42. 기우의 아파트(밤)

기우, 공구함 정리하고 돌아오면
해주 팔짱 끼고 서 있는.

해주 일렁뚱뚱 넘어가려고 하지 마.
기우 정이 무섭다. 갑분 왜 이러냐, 우리.
해주 (터덜거리며 소파로 가서 앉는) 우리라고 하지 마.

기우, 해주 보면.

인서트.
회상. 소파 위에서 기우와 해주 진한 스킨십 하는

해주 타이어 값도 청구서에 추가.
기우 (O.L) 키스할까?
해주 …뭘?

기우, 해주 옆에 가서 털썩 앉는다. 해주, 긴장한다.
이윽고 기우, 해주 보는데 순간 흔들리는 해주.
서서히 가까워지는데 그때 (E) 울리는 기우의 핸드폰 벨소리.
기우, 핸드폰 확인하면 세연의 영상통화.
기우 안절부절못하다 빨강딱지 없는 베란다 쪽으로 가서 받는다.

그 모습을 보는 해주, 기가 막히고.

기우 (해주 힐끗 보며 세연과 영상통화) 어어… 이제 자려구. 자기는?

해주, 다시 열이 오르고 옆에 있는 물건 발로 힘껏 차는데
물건 날아가 벽에 부딪히며 나는 큰 소리.

세연(F) 무슨 소리야?
기우 (핸드폰 가슴 쪽에 갖다 대고 해주 향해 속삭이듯 절규) 제…발…

간절히 부탁하는 기우를 보며 방금 전 상황들이 더 비참한 해주.
시간 경과.

기우 (전화 마무리하고 해주 보는) 어… 저기…

해주 나는 이 소파였구나.

기우 ?

해주 편하고 안정감 있고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만 그래도 침대는 아닌
거야. (새삼 달리 보이는 기우를 경멸스레)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긴. 정말 기가 막힌 건 말야… 오빠 탄 여자 생긴 거…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 그보다 내가 지난 5년을 몽땅 갖다
바친 사람이 너란 인간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혀… 알아?

해주, 눈물 흐를 것 같아 보이기 싫다. 서둘러 현관으로 가는데

기우 (긴 한숨과 함께 나지막이) 피곤하다…

기가 막힌 해주, 이 악물고 나서는데 현관문 열면 문 앞에
세연이 서 있다. 놀라서 마주 보는 두 사람.

#43. 기우의 아파트(밤)

빨간 포스트잇으로 둘러싸인 집 안을 둘러보는 세연.

기우, 그런 세연 몰래 이별청구서를 책상서랍에 넣는다.

세연(E)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 여자가 마련해준 거?
기우 (멈칫, 이윽고 서랍 닫는) ... 그런 거 아니야.
세연 (한숨) 정리된 거...

세연, 난처한 표정의 기우 본다.

플래시백 #36 (박물관/안)

해주 (울컥, 비아냥)
한마디로 바람피우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네요.
세연 ...아니었구나?
기우 기분 나쁜 건 알아. 하지만... 말했잖아.
 해주랑 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세연 그럼 이 상황,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줘.
기우 나도, 몰랐어... 해주에게...
세연 (긴장해서 입술 무는) ...
기우 값을 돈이 있는 거.

#44. 해주의 집/방(밤)

슬픈 음악이 흐르는 어두운 방 안, 책상 위 노트북 켜놓은 채
홀로 소주 마시고 있는 해주. 하얀 화면에 가득찬 '시'라고 써어
있는 글씨, 옆 깜빡이고 있는 커서.

해주(E)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사랑하는...
해주 그 개자식은 갔습니다.

이윽고 해주, 신경질적으로 책상 위 노트북 닫아버린다. 뚝 끊긴
음악. 그때 (E) 울리는 해주의 전화.

#45. 카페 안

세연과 해주, 마주 앉아 있다.

세연 또 보네요.
해주 (낮고 싸늘한) 할 말이 뭐예요?
세연 (해주 보더니 마시려던 찻잔 내려놓고 가방에서 흰 봉투 꺼내
내민다) 이거 주려구요.
해주 (세연이 내민 봉투 보다가 세연 보며 모르겠다는 표정) ??
세연 기우 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돈, 내가 줄게요.
해주 (기가 막힌다) 그 자식, 아니... 이기우가 그래요?
세연 더 이상 그 핑계로 어제처럼, 집에 오거나 하지 말았음 해요.
해주 저기요.
세연 ...
해주 (세연 빨리 보며) 그 남자 머리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웃은 어느
브랜드 게 잘 어울리는지, 향수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 속옷
취향은 어떤지...
세연 (O.L) 몰라요. 알아야 해요?
해주 ... 이기우... 왜 만나요?
세연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때론 짜질하고. 그래서 좋아요. 개랑 있으면
내가 나쁜 사람 같지 않게 느껴져서. 그쪽은요?
해주 나는... 나는...

해주, 세연의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힌다. 벌떡 일어나 탁자
위에 둔 핸드폰과 가방 챙겨 나가버리는.

#46. 카페 밖

씩씩거리며 문 열고 나오는 해주. 뭔가 깨달은 듯 우뚝 선다.
손에 쥐여 있는 봉투(자신도 모르게 핸드폰 챙기면서 같이
챙긴). 벽면에 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

#47. 카페 안

세연 앉아 있는데 문득 보면 다시 온 해주 서 있다.

세연 (피식) 생각났어요?
해주 어떤 게 더 뻥한 장면이 아닐까...(돈 봉투 쥐어들며) 이걸 가져다 이기우한테 뿌릴까, 아님 그쪽 앞에서 당당히 돈을 세고 더 달랠까, 드라마, 영화에서 본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세연 ?
해주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이랑 내가 마주 앉은 시점부터 그냥 클리셰거든.
세연 ?
해주 둘이 뻥뻥하고 이기적이고 찌질하게 만나든 말든, 괜히 나까지 끼워 이런 유치한 짓 좀 하지 마요.

해주, 돈 봉투 탁자 위에 탁 놓고 나가면
세연, 어이었다.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감춰보는.

#48. 학원/강의실 안

5~8명의 중학생 아이들. 강의 중인 해주.

해주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의 주제가 뭐지?
여학생1 자아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이요.
해주 그렇지, 자아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
...우리 이거 한번 읽고 갈까?
여학생1 제가 읽을게요.
해주 그래. 자, 애들아. 집중해서 듣자.
여학생1 흠흠.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여학생1의 목소리 점점 멀어지면...

#49. 회상. 기우의 아파트

즐거운 모습의 해주, 어지러진 물건을 치우고 청소기를 돌린다.
그 위로

여학생1(E)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기우. 해주가 “서프라이즈”
하고 외치자 피식 웃는다. 그 위로

여학생1(E)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해주, 반갑게 기우를 안으면 해주의 컷가에 울리는 목소리.

기우(E) 내가 너한테 줄 돈은 6만 원이야.

여학생1(E)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50. 약국 밖(밤)

해주 체한 듯, 명치를 푹푹 누르며 걸어가다 약국 앞에 선다.
명치를 누르던 손을 심장 위 가슴으로 가져간다. 체기 내리듯
푹푹 눌러보는... 소원도 너무 정현, 해주를 발견하고 나온다.

해주 약... 있어요?

#51. 기우의 아파트(밤)

해주가 붙여놓은 차압 딱지들 붙은 물건들 현관 가까이에 쌓여
있다. 그리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는 세연과 기우.

세연 (무미건조하게) 너무 유치했나?

기우 (기분 안 좋지만 고개 젓는) ...

세연 박물관에 찾아온 그 이상한 여자가... 귀엽더라.
 기우 ...?
 세연 우스웠고. 오늘 나한테 그러더라구. 니가 뭘 아냐고...
 아무 대답 못 했어. 분명 화내고 있는데 너무 아파 보이는 게...
 기우 ...
 세연 ... 그 여자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어버렸거든.
 기우 미안해.
 세연 나는 너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안 미안해할 건데?
 기우 (심경 복잡한, 애써 끄덕이는) ...응.
 세연 (분위기 전환하려 씩씩) 근데 나 저 딱지들은 좀 그래.

세연,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간다. 기우 한번 보고 나가면 들리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닫힌 뒤 도어록 잠기는 소리. 기우의 눈에 쌓여 있는 물건 더미들 보인다. 멀거니 보는 기우.

기우 (혼잣말) 우는 너보다... 웃는 그 사람이 더 신경쓰이는 거 보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긴 한가 보다...

쌓여 있는 물건들 보다 더욱 결심한 듯 일어서는 기우.

#52. 약국 안(밤)

약국 안 의자에 앉아 있는 해주.
 정현, 해주에게 따뜻한 차 내온다.

해주 (컵에 든 차 한참 바라보다) 너무 아파요... (눈에 눈물 차오르는) 안 아프고 싶은데... 괴롭고 싶지 않은데... 근데 자꾸 비참하고... 뭘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정현 음... 지금은 한창 그럴 때지... 아, 혹시 딱지가 생기면요.
 해주 (기우 집에 붙인 차압 딱지 생각나서 흠칫) 딱지요?
 정현 상처 아물면서 생기는 거요.
 해주 아, 그거...

정현 가려워도 긁지 마요. 괜히 덧나요.
 해주 상처... 아물까요?
 정현 ...반드시.

페이드 아웃.

#53. 해주의 집/방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침대 위 핸드폰 울리면 해주 잠결에 확인하는데 발신자 기우다. 잠시 망설이다 결국 핸드폰 통화 버튼 누른다. 잠시 정적.

기우(F) 여보세요?
 해주 ...
 기우(F) 여보세요?
 해주 (겨우 입 떼는) ...어.
 기우(F) 좀 보자.

사이.

해주, 핸드폰 종료버튼 누르고 팔로 눈 위를 덮는다.

해주(E) (시 <자화상> 중에서)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나는...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 멍청이입니다.

#54. 기우의 아파트 밖

해주, 기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비 피하려고 자리 옮기는데 저만치 기우의 차 주차된다. 다가가려다 멈춰서는 해주.

보조석 유리창 너머 세연이 보인다. 즐거운 듯 웃는 두 사람.
이윽고 운전석에서 내려 보조석으로 가서 문을 여는 기우.

기우 (문 연 상태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데려다줘야지.

해주, 그 모습을 보면

#55. 회상. 기우의 옛 자취방 밖

헤어지기 싫은 듯 두 손 꼭 잡고 있는 기우와 해주.

기우 안 되겠다. 다시 데려다줘야지.

해주 됐어. 벌써 몇 번째야? 들어가서 공부해.

기우 벌써 어두워지고 있잖아. 위험해서 안 돼.

해주 뭐가 위험해? 공부하기 싫어서 피부리지 말고 얼른 들어가시지?

기우 (놀란 듯) 와. 들켰다.

즐거운 듯 웃는 해주와 기우. 결국 함께 돌아서 해주의 집
쪽으로 향한다. 꼭 마주 잡은 두 손.

#56. 기우의 아파트 밖

#54에 이어.

기우의 말에 기분 좋게 웃는 세연과 다시 운전석에 타는 기우.
출발하는 차. 그를 지켜보고 있는 해주, 가슴이 아프다.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는 비.

#57. 카페 안

해주와 기우 마주 앉아 있고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흰 봉투.

기우 니가 말한 만큼은 아닌데, 통장에 있는 거, 천 원단위 제외하고

진부 넣었어.

해주 (기우 빨리 보면) ...

기우 (눈 피하는) 보상이 되었음 해.

이윽고 기우 일어나면 해주, 충격받은 얼굴로 봉투 본다.

#58. 거리

해주 멍하니 걸다가 수제구두가게(#2의) 앞에 멈춘다.

잠시 보다 결심한 듯 발걸음 옮기는.

#59. 몽타주. 백화점 안

1. 명품관. 해주, 가방 구경하다 맘에 드는 것 집어 걸쳐본다.
2. 옷 매장. 탈의실 문 열리면 화사한 원피스 입고 나오는 해주.
3. 화장품 코너. 앉아서 점원의 설명 들으며 색조화장 고르는 해주. 옆에는 쇼핑백 여러 개 있다.
4. 헤어숍. 머리 염색하는 해주.

#60. 백화점 밖

머리 붉게 염색한 해주. 양손에 쇼핑백 가득 들고 서 있다.
누군가를 향해 반갑게 손 흔들면, 은영이다.

은영 (해주의 변신한 모습에 놀란) 모해주? 너...

#61. 레스토랑 안

해주, 우아하게 스테이크 썰면 맞은편에서 해주를 묘한 표정으로
보는 은영.

해주 (칼질하며) 왜? 맛없어?

은영 (영혼 없는) …아니.
 해주 (혼자 신난) 나 너 말고도 고마운 사람 또 있는데… 일전에 내가 술에 잔뜩 취해서 옷에다 토한… 아, 미안. 먹는데.
 은영 …
 해주 … 너 아까부터 왜 그래?
 은영 이상해.
 해주 뭐가?
 은영 년… 왜 이렇게 신났어?
 해주 신나지 그럼. 가해자한테 피해보상 받았는데.
 은영 (O.L) 사랑에… 피해자 가해자가 어딴냐?
 해주 …뭐?
 은영 있잖아, 나는… 니가 말도 안 되는 청구서 작성하고 기우 씨 집에 찾아가서 빨간 딱지 붙이고 하는 거, 그냥 미련이라고 생각했어. 차이고 배신당해서 아프니까, 꿀탕 좀 먹어봐라 이런 거… 그런데 진짜 돈 받고 이렇게 막…
 해주 (O.L) 아닌데. 나 진짜 돈 받으려고 그런 건데. 돈 받았고… 내가 돈 받아서 뭐… 기부라도 했어야 했나?
 은영 해주야. 너 지금… 안 행복해 보여.

#62. 레스토랑 밖

비 올 듯 잔뜩 흐린 하늘.
 레스토랑 문 열리면 쇼핑백 가득 든 해주 거칠게 나오고 뒤따라 나오는 은영.

은영 야, 모해주.
 해주 (책 돌아보며 쏘는) 너, 내 친구 맞아?
 은영 뭐?
 해주 난 그래도 돈 생기니까 니가 제일 먼저 생각나던데. 그 자식한테 퍼붓느라 너랑 비싼 밥 한번 못 먹은 게 억울해서. 근데 넌 뭐야? 왜 니가 날 비난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너는 내 편이어야 하는 거 아냐?

은영 내 생각?
 해주 (빼액) 그래.
 은영 … 지금 이 비싼 레스토랑에 불러내서 행복한 척 과시하는 게 내 생각 한 거 맞아? 그래?
 해주 (할 말 잃은) …
 은영 니 상태가 이상한데, 계속 니 기분만 맞추는 게 친구야? 그런 거라면 난 모르겠다.

은영, 해주 지나쳐 가버리면
 해주, 은영 뒷모습 보다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63. 택시 안

본격적으로 비 내리기 시작한 도로 위, 차 앞 유리 너머로 빨간 신호등 보인다.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와이퍼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지는.

기우(E) 차 있으니까 좋지~

인서트.
 회상. 기우의 차 안,
 보조석에 앉은 해주 운전석 보면 기우 앉아 있다.

해주 비 오는 날 드라이브도 하고. (가방 뒤적이더니 우산 꺼낸다) 짜잔~ 이걸 비상용 우산.
 기우 됐어. 나 원래 우산 안 쓰고 다니는 거 알잖아.
 해주 그 돈으로 너 좋아하는 시집이나 사지.
 해주 (싱긋 웃으며) 시집 사는 대신 오빠한테 시집가려고.

현실.

(E) (뽕뽕 울리는 클랙슨 소리)

해주 (운진석 향해) 저... 아까 말한 곳 들렀다가
○○아파트로 가주세요.

#64. 기우의 아파트 밖 복도(밤)

복도를 걸어오는 기우. 현관문 비밀번호 해제하려는데 문득 옆을 보면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사람의 형태가 있다. 기우 누군지 살펴보면 해주 천천히 고개 들고 기우 뺨히 보다 이윽고 일어난다. 온통 젖은 해주. 해주 옆 바닥에 놓여 있는 비에 젖은 쇼핑백 하나.

#65. 기우의 아파트(밤)

기우,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와 해주 앞에 내려놓는다. 해주, 자신이 붙여놓은 차압딱지가 그대로 붙어 있는 가구들과 한쪽에 정리되어 있는 물건들이 보이면 비에 젖은 쇼핑백 안 구두 케이스를 옆에 놓는다. 툭 떨어지는 이별청구서. 해주, 잠시 보더니 쪽쪽 찢어버리고. 기우, 해주에게 다가가면 해주, 벌떡 일어나 가구들에 붙어 있는 빨간 차압딱지들 떼기 시작한다. 기우, 해주 잡아 돌려세운다.

기우 이번엔 또 뭐하려는 건데?

해주 (기우가 잡은 손 뿌리치려 안간힘 쓰는데)

기우 도대체 니가 원하는 게 뭐야? 왜? 돈 부족해?

그 말에 해주, 잠잠해져 기우 바라본다. 이윽고 힘 빠진 해주의 손을 기우 놓으면 툭 떨어지는 해주의 팔. 다음 순간 해주 좌악 하고 기우 뺨 때린다. 기우 서서히 고개 돌려 해주 보면 눈물 뚝뚝 떨어지는.

해주 나쁜 놈. 쓰레기. 벌레. 양아치. 개자식...

기우 (해주 팔 우왁스럽게 잡고 현관 쪽으로 가는) 너, 가. 다신 오지 마.

해주 (안 끌러가려 발버둥) 놔, 놔 이 자식아, 이거 놓으라구!!!
기우 (해주 확 놓으며 버럭) 제발, 줌!!!!!!

해주, 반동으로 넘어지고 기우, 이 상황이 너무 엇 같다. 환김에 옆에 있는 물건 걸어차는. 나뭇그라진 물건들 사이 고요한 적막 흐르고.

해주 (나지막이) ...헤어지자 한마디하고... 너 혼자 털면 다야?

기우 (그동안 해주에게 쌓였던 죄책감 폭발)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뭐, 예고라도 했어야 할까? 말해봐.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해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았어야지. 사랑하게 됐어도 아니라고 부정했어야지!!

기우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덜 나쁜 놈이 되나? 그래?

해주 (일어나 똑바로 마주 보는) ... 너는 진짜... 싸가지가 없어.

기우 뭐?

해주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걸, 내가 납득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는 옆에 있었어야지. 적어도 그 시간동안 딴 사람하고 홀랑, 시시덕거리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너랑 내가... 정말 함께 한 게 맞다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잖아.

기우 ...솔직한 게 예의라고, 냉정한 게 배려라 생각했어. 다른 사람 생긴 건, 어떻게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해주 (O.L) 너는 그냥 지금처럼 너덜너덜해지기 싫은 것뿐이었잖아.

기우 그...만 줌 해. 어? 그만... 제발... 우리 더 보일 바닥이... 어디야, 어디까지야, 끝이 어디야!!

해주 (눈가 닦은 뒤 이윽고 헛웃음) ...여기.

기우 (보면) ...

해주 그 말 하려고 왔어 나. 전에 그랬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보증을 들었던 거라고. 근데 나는... 언제부턴가 니가 내 미래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 없었거든.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든 보증이 아니라... 적금이었어. 차곡차곡 쌓아가는.

해주, 돌아서 소파 옆 쇼핑백에서 꺼낸 구두 케이스.
기우의 발치에 툭 던진다. 기우, 구두 케이스 보고 다시 해주
보면 해주, 아프게 기우 보고 있다.

해주 계산은, 정확히 하자. 여기서, 이것까지. 물건들 돌려줄 필요 없어.

해주, 돌아서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 멈춘다. 기우 보면 해주의
어깨 가늘게 떨리고 있다. 뒤돌아보지 않은 해주, 눈물이 비처럼
내리고 있다.

해주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입술 악물고) …나한테서…
꺼져버려.

#66. 기우의 아파트 밖(밤)

건물에서 나와 내리는 빗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해주.

#67. 기우의 아파트(밤)

창가에서 해주가 비 맞으며 걸어가는 모습 지켜보는 기우.
돌아보면, 여기저기 흩어진 빨간 포스트잇 딱지들과 덩그러니
놓여 있는 구두 케이스 보인다. 기우, 다시 창밖 내다보면
어느새 텅 빈 거리.

#68. 거리(밤)

해주, 비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비를
피해 달려오는 사람들과 부딪혀 넘어진다. 일어나려고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린다. 이윽고 힘을 내서 걸어가는
해주. 그 위로

은영(E) 사랑에… 피해자 가해자가 어딴냐?

#69. 약국 앞 거리(밤)

걸어가는 해주 위로 썩워지는 우산.
해주, 멍하니 돌아보면 정현이 있다. 정현, 붉은 염색약이
물들어 엉망이 된 원피스와 더 엉망인 해주의 끝에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해주 괜찮다는 듯 씩씩하게 우산 받아든다.
카메라 멀어지며 두 사람 비추다 해주가 꾸벅 인사하고
돌아서 가는…

페이드 아웃.

#70. 은행 앞

문 열리고 은영 전화하면서 나오고 있다.

은영 그래서 그날 지른 거 전부 환불했어? 으구. 아, 나 립스틱 하나만
빼주지… (생각해보니 아까운) 그날… 흠… 그 레스토랑에서 다
먹지도 못했는데…

#71. 거리

검은 머리의 해주, 한 손엔 쇼핑백 든 채 은영과 통화하며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해주 (웃으며 부러) 그러게, 그때 먹지. 진짜 맛있었는데… 뭘 그걸
직접 만나서 주냐? 됐어. 그냥 통장으로 넣었어. 아깝긴. 그날 뭐…
소독약 잔뜩 바른 셈이지.

은영(F) 소독약?

해주 (어딘가 보며 걸음 멈춘) 나 잠깐. 나중에 다시 걸게.

해주, 도로 맞은편 보면 정현의 약국 있다.

#72. 약국 앞 거리

유리창 너머로 무릎 까진 꼬마 다정하게 돌봐주는 정현 보인다.
정현, 문득 이쪽 보면 반가운 듯 손인사 하고 꼬마 마저 챙긴다.
해주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정현 문 열고 나오는.

정현 왜 안 들어오고 서 있어요?
해주 (쇼핑백 내밀며 장난치는) 약은 필요 없어서... 이거 주러 왔어요.
정현 (보면, 셔츠다. 웃는) 아... 세탁비면 되는데 엄청 황재했네.
해주 워낙 도움받은 게 커서.
정현 받을 거 드디어 받았나 보네요.
해주 (미소 짓는) 네.
정현 (해주랑 눈 마주치는) 상처는... 이제 다 아물었어요?
해주 요즘 좀 가렵긴 한데 안 긁으려구요. 흉터 생길까 봐...
정현 (잘하고 있다는 듯 끄덕끄덕) ...저기요.
해주 (뒤 돌아보면) ...
정현 저기... 근데 이름이 뭐예요?

해주, 그리고 보니 정현과 통성명도 안 한 상태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두 사람 서로 황당한 표정으로 보는데 정현 먼저
웃음 터지고 그때 부는 바람에 해주 머리 날리면 빨갳게 딱지가
얹은 이마의 흉터. 카메라 멀어지면 따듯한 햇살 속 웃는
해주에게서 엔딩.

끝.

참 재미있었다. 끄-을!!

제 묘비명입니다.
당선작 후기에 아직 죽지 않은 자의 묘비명이라니 아이러니하지만
후기 요청에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기도 합니다.

“단막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러나 드라마작가를 꿈꾸면서 단막이 최종목표인
사람은 없을 것. 장편을 쓰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펼쳐봐라.”
라는 김지일 센터장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수정기간 동안 당선작을 가지고 마음껏 놀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정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2고, 3고를 거치면서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내 손가락이 어떤 것에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당선작에서는 해주의 이별 극복이 자칫 데이트 폭력으로 치부되진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최대한 귀엽고 재미있게 가보자라는 강박이 있었는데, 수정 방향을 일단 그
강박에서 벗어나보자 방향을 잡았을 때 해주와 기우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던
스스로의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내가 이들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 그리고 아는
만큼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기간들은 결국 해주와 기우, 그리고 둘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선 하나의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작가의 성장을 위해 뜻이
같은 이들이 함께할수 있는 시스템과 공간을 제공한 센터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었다. 다시 시이-작!!

2019 오픈 드라마 작품집 상권

초판 발행. 2019년 12월 05일

글. 한유림, 배이화, 박정아, 정희선, 박바라
김민주, 이정주, 백인아, 박정민, 박은정, 새봄
이희수, 진하영, 채우, 손호영, 김주후, 윤인영
박은하, 심보영, 오주영

제작. 오픈
디자인. 권수진
교정 및 교열. 박은경
인쇄. 책공감

발행처. (주) 씨제이이엔엠
발행인. 허민희

등록번호. 제 2015-000016 호
등록일자. 2015년 1월 13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1층
전화. 02-371-9139

ISBN 979-11-965931-6-2 (상)
ISBN 979-11-965931-5-5 (세트)

© 2019 CJ ENM

이 책의 모든 내용은 CJ ENM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